책을 내면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우리 나라의 력사적인물들에 대하여 다 알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애국주의가 생기고 민족적긍지를 가지게 됩니다.》

세계에는 자기 민족고유의 력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크고작은 수많은 민족들이 있다.

하지만 우리 조선민족처럼 인류의 발생기부터 자연을 정복하고 사회를 개조해나가는 자주적인 활동을 통하여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창조한 그런 민족은 드물다.

조선민족은 예로부터 정의감이 강하고 진리를 사랑하였으며 의리를 귀중히 여기였다. 그리고 례절이 밝고 겸손한 품성을 지니고 백두대산줄기로 잇닿은 한강토에서 단일민족으로 화목하게 살아왔다.

조선인민은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그 어떤 침략자들과도 용감히 맞서 민족의 존엄과 조국의 명예를 견결히 고수하였으며 인간의 자주적권리를 찾기 위한 반동적통치배들과의 대중적인 투쟁을 끊임없이 벌려왔다.

이와 함께 일찌기 인류문명의 려명기부터 자기의 근면한 창조적로동과 지혜로 과학과 문화를 발전시켜 자랑찬 전통을 이룩함으로써 인류의 과학문화발전에 기여하였다.

나라와 민족을 제일로 사랑하시고 민족자존의 정신을 무엇보다 귀중히 여기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유구한 력사와 더불어 배출된 력대의 명장들과 명인들에 대하여서도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잘 알려줄데 대하여 여러차례의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조선력사인물》의 제3권에 해당한 이 책에서는 리준, 안중근, 안병찬 등 3.1인민봉기를 전후한 시기의 우국충신들, 사회적진보에 기여한 박지원, 홍대용, 김정호 등 이름있는 학자들에 대하여 주었다. 그리고 당대 력사를 리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우리 민족사에 치욕을 남긴 부정적인물들도 일부 넣었다.

책을 통하여 독자들이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고 **김일성**민족으로서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떨쳐나갈 결심을 새롭게 가다듬기 바란다.

편 집 부

차 례

허준과 《동의보감》

날마다 허준은 해종일 앓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무거운 다리를 끌며 집으로 돌아오군 하였다.

치료를 하고 또 하는데 환자는 좀처럼 줄어들줄을 모른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의원의 방조없이도 자체로 치료를 할수 있을가. 약재는 산과 들 그 어디에나 무진장한것이니 그들이 알아볼수 있도록 우리 글로 책을 써주게 되면 극히 중한 병이 아닌 다음에야 자체로도 얼마든지 치료를 할수 있지 않겠는가. …)

벌써 젊은 나이에 명의로 된 그는 날마다 환자들이 부르는 곳으로 다니기에 여념이 없었지만 거듭 생각을 익혀나갔다.

《옳다, 책을 써주자. 그러면 누구나 의사가 될터인데…》

허준은 아무때나 볼수 있는 책을 써주기로 마음다졌다.

허준은 1545년 서울에서 한강을 따라 약 40리 내려가 자리를 잡은 경기도 김포군의 한 마을에서 량반가정의 서자로 태여났다. 그곳에는 허씨가문이 많이 살았는데 그중에서도 허준의 가정은 빈한한 부류였다.

그때문인지 그의 집안래력에 대하여 기록된것은 별로 없다. 그의 자는 청원이라 하였고 호는 구암이라 일렀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영특하기로 소문이 났던 허준은 20대에 당시 명의로 알려졌던 류이태선생에게서 고려의학을 배웠다고 한다.

당시 명의는 시험을 쳐서 그 칭호를 받아야 하였는데 그것은 매우 힘든 일이였다. 리조초시기부터 중엽까지 명의시험은 3년에 한번씩 치르었다. 그것은 초시, 복시 두 단계로 나누어 보았으며 선발인원은 한번에 3명을 넘지 못하도록 되여있었다. 그리고 초시에 합격된 다음에야 복시를 치며 여기에 모두 통과된 의사들에게 《명의》라는 칭호를 정식으로 주었다.

허준은 30전에 벌써 여기에 모두 통과하고 공식적인 명의자격을 가지고있었으므로 민간에서도 환자들의 존경을 받고있었다. 그에 대한 기록이 처음으로 된것은 1575년에 국왕 리공(선조)의 병을 치료하였다는것이다.

당시 선조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허약하여 날마다 앓고있었으므로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병이 위독해진 상태에 있었다. 그리하여 전국의 명의들을 모두어 치료를 하게 되였다. 이때 허준도 국왕의 병치료에 선발되여 궁중에 들어가게 되였다. 이것은 허준이 벌써 이른나이에 명의로 온 나라에 명성을 떨치고있었다는것을 말해준다.

이때로부터 허준은 왕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33년간을 왕의 주치의사로 있었다.

그러나 허준은 왕의 주치의사였다는데 그 공로가 있는것이 아니라 자신이 의도하고 결심한대로 만사람을 위하여 고려의학을 집대성하여 체계적으로 묶어놓았고 우리 나라의 약제법과 침구료법을 더욱 심화시켜 새로운 의학과학분야를 개척하였다는데 그 업적이 있는것이다.

그는 먼저 고양성이 편찬한 《찬도맥결》을 수정보충하여 1581년 《찬도방론맥결집성》(4권)을 훌륭히 편집출판하였다. 이 책은 진맥(손목의 맥을 짚어 병을 진찰하는것)에 대하여 주로 서술한것이였다.

그리고 허준은 우리 나라의 3대의학고전으로 불리우는 《의방류취》, 《동의보감》, 《향약집성방》가운데서 당시까지의 고려의학의 모든 성과들을 하나의 정연한 체계로 묶어놓은 저서인 《동의보감》을 집필하였다.

그의 《동의보감》집필과정은 어려운 시련과 난관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것은 오직 의학자로서 그의 남다른 책임감과 의지의 결과에 이루어진것이다.

그가 《동의보감》저술을 시작한것은 1596년경부터였다. 허준은 이 책의 집필에 정작, 양례수, 김응탁 등 6명의 고려의학자들을 동원하여 편찬조를 뭇고 부문별로 과업을 주었다.

허준은 집필에 앞서 편찬조성원들에게 책의 저술목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벽촌시골에 의원과 약이 없어서 제 나이를 다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나라에는 약초들이 많은데 그에 대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적지 않으며 다른 나라의 의학책들은 단편적인 기록으로 되여있으므로 보잘것이 없는것이다.》

당시 의학을 한다고 으시대는자들은 대부분이 우리 나라의 의술과 약재들에 의거하는것이 아니라 걸핏하면 중국의 의학책들을 펼쳐놓고 《박식》을 자랑하는것이 하나의 관례로 되여있었다. 때문에 허준은 백성들이 의료상 방조를 받지 못하는 페단을 없애고 외국책이나 또는 비싼 외국의 약재를 바라지 말고 우리 나라 그 어디에나 있는 좋은 약재를 찾아내여 마음대로 쓰도록 하려고 하였던것이다.

편찬조가 집필을 시작하려고 하던차에 또다시 왜놈들이 쳐들어와 온 나라는 전쟁의 불길에 휩싸이게 되였다.

이렇게 되자 편찬조성원들은 모든것을 집어던지였다.

《의학책들이 불에 탔거나 볼만한 책은 왜놈들이 빼앗아갔으니 무엇을 보고 책을 쓴단 말인가? 또 이런 형편에서 책이나 만들어 무엇에 쓰며 도대체 우리 힘으로 한다는것자체가 타산이 없는 노릇이다.》

이렇게 한탄하면서 모두가 제 일을 찾아 뿔뿔이 헤쳐갔다.

그러나 허준만은 굳게 다진 결심을 조금도 굽히지 않았다. 그는 락심하지 않고 한다면 능히 혼자서도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굴함없이 불철주야로 분투하였다.

그런데 이때 천연두까지 성행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 의사들도 별다른 도리가 없어 속수무책으로 물러섰고 사람들은 의사도 약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아우성을 쳤다.

허준은 이 병을 막기 위한 사업에 달라붙었다.

《의원들이 병앞에서 물러서는것은 의원의 본분을 저버리는것이다. 약을 쓰는 경우에도 병에 맞는 처방을 써야지 무턱대고 좋다고 하는 약을 쓴다고 하여 만병이 다 낫는것이 아니다.》

허준은 이렇게 주장하면서 예방치료활동을 벌리는 한편 《언해두창집요》라는 책을 알기 쉬운 우리 말로 서술하여 사람들이 널리 리용하도록 하였다. (언해－조선말을 언어라고 하면서 조선말로 번역한다는 뜻.)

허준은 뒤이어 질병에 대한 구급치료대책을 서술한 《언해구급방》과 산부인과치료책인 《언해태산요록》을 써냄으로써 사람들의 불행을 덜어주었다.

뿐만아니라 허준은 임진조국전쟁이 더욱 확대되자 다리병을 심히 앓고있어 걷기 어려운 형편에 처해있었지만 주저없이 용약 싸움터에 나가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하였다. 그는 싸움터에서 부상병들을 성의껏 치료해주었고 질병으로 앓고있는 군사들도 형제와 같은 정으로 돌봐주었다. 그리하여 허준의 덕망은 더욱 높아지게 되였고 깊은 존경을 받게 되였다.

그 후일인 1608년 2월 허준이 어머니의 묘를 보려고 고향으로 내려간 사이 리공은 미처 약을 써볼 사이도 없이 급작스레 사망하였다.

이때라고 생각한 야심군들은 좋은 기회라도 만난듯 입을 모아 그를 깎아내렸으며 모든것이 《허준의 죄》때문이라고 피대를 세워 몰아댔다.

그리하여 아무런 죄도 없는 허준은 기약할수 없는 귀양살이를 떠나게 되였다. 그를 시기하던자들은 이에도 만족하지 않아 그에게 다시 《통행을 금지시킨다.》는 형벌을 더 가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그 어떤 모략책동도 허준의 의기를 꺾지 못하였다. 그는 귀양살이기간에도 《동의보감》집필을 중단하지 않았다. 귀양살이에서 풀려난 후 허준은 집필사업을 계속하여 1610년 드디여 《동의보감》을 완성하는 성과를 이룩하게 되였다.

이에 대하여 리조정부에서까지도 허준의 공로를 찬양하지 않을수 없었으며 이런 령을 내리였다.

《양평군 허준이 일찌기 먼저 임금때에 의서편찬의 지시를 받고 여러해를 두고 노력을 계속하여 귀양살이로 떠돌아다니는중에서도 그 사업을 중단하지 않았다. 허준에게 태복마 한필을 변대하여

주어서 그 공로에 보답하고 이 의서는 내의원에서 사무국을 두고 재빨리 출판하여 중의에 반포하게 하라.》

《동의보감》은 무려 15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집필편찬되였는데 그것은 전 25권, 25책으로 구성되여있다.

《동의보감》은 목록 2권, 내경편 4권, 외형편 4권, 잡병편 11권, 탕액편 3권, 침구편 1권 등으로 되여있다.

이 책의 내경편에는 신형, 정, 기, 신, 혈, 진액 등과 5장6부의 기능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서술되였으며 외형편에는 머리, 얼굴, 눈, 귀, 코, 입과 혀, 이발, 목구멍, 목 등과 함께 등가슴, 배, 허리, 옆구리, 피부, 손, 발 등에 대한 해부생리, 병리학적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씌여있다.

잡병편에는 진찰법에 대해서와 발병원인, 여러가지 외상질병들에 대하여 적었는데 허리상한것, 게우기, 기침, 황달, 창만, 소갈, 부종, 학질, 온역, 옹저, 외상들에 대하여 밝혔다. 그리고 이 편 마지막에서는 산부인과와 소아과학에 대하여 썼다.

또한 탕액편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많이 쓰이고있는 1 400여종의 고려약들에 대하여 그것의 산지와 약효, 적응증, 채취법, 가공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실례를 들어주었다.

침구편에서는 침자리와 침놓는 법, 뜸뜨는 법, 그 적응증에 대하여 썼으며 경락(고려의학에서 경맥과 락맥을 아울러 일러오는 말)에 대해서까지 언급하였다.

《동의보감》에서는 3 600여가지 병증에 쓰는 1 800여개의 고려약처방과 민간료법들을 실례를 들어주면서 알기 쉽게 썼다.

허준은 또한 우리 나라 어디에나 있는 향약을 귀히 여기고 병마다에 향약처방을 주면서 탕액편 고려약의 이름밑에는 사람들이 알기 쉽게 민간에서 부르는 약명을 우리 글로 보충하여 써줌으로써 어디서나 어렵지 않게 구하도록 하였다.

특히 그는 이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지적하였다.

《우리 나라는 동방에 자리잡고있으면서 의학의 전통이 끊기지 않고 하나의 줄처럼 계승되여왔으니 우리 나라 의학을 동의학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것은 허준의 애국지심을 잘 말해주고있다.

그는 이 책의 진의에 대하여 철저히 예방의학이 치료의학에 선행되여야 한다는것을 말하면서 육체와 정신을 단련하는것이 선차적이고 약과 침은 그다음이라고 하였다.

허준은 《동의보감》에서 매개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처방을 기록했을뿐아니라 국내에서 취할수 있는 명처방을 주고 그에도 부족하면 침구로 해결할수 있도록 그 방법을 기록하였다. 그러면서도 어디까지나 치료에서 심신단련과 규칙적인 생활조직에 1차적인 의의를 부여하였으며 약물치료는 2차적인것으로 보았다.

《동의보감》에서는 매개 특이한 질병들의 치료뿐아니라 예방의학적대책까지 세밀히 지적하였다. 물론 저자의 준비정도의 미숙성으로 하여 미신적이며 비과학적인것들도 없지 않다.

《동의보감》이 편찬출판되게 됨으로써 의사들은 치료의 지침을 가지게 되였으며 일반가정들에서도 상식적인 귀중한 자료들을 볼수 있게 되였다. 따라서 허준이 그토록 념원하던 일반의료상 방조를 줄수 있게 된것이다.

만사람이 칭찬하여마지않는 《동의보감》은 허준이 애국적열정과 과학적량심을 가지고 온갖 시련을 박차며 집필완성한 고려의학의 백과전서이다.

하기에 문인이였던 리정지는 《동의보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이 책이 고금을 포괄하고 여러 학설을 절충하여 근본을 더듬고 근원을 찾아서 제강을 짜고 요령을 틀어잡아 상세하되 산만하지 않고 간명하면서 빠뜨린것이 없다.》

《동의보감》은 우리 나라에서는 물론 이웃나라들에서도 이구동성으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당시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중국의 한 사절단은 이 책을 보고 너무도 탐이 나 특별히 요청하여 한부를 가지고가서 여러번에 걸쳐 출판하였다.

중국학자 릉어는 《동의보감》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하였다.

《책이름을 보감이라고 한것은 마치 해빛이 조그마한 구멍으

로 들어오기만 하여도 오랜 어둠이 당장 가셔지고 피부의 살금까지 환히 보이는것처럼 이 책을 펼쳐보는 사람은 거울처럼 환히 알수 있기때문이다. …

〈동의보감〉은 지금까지 나온 의서들의 부족점을 보충하고 누구나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게 하였으니 이 책을 인쇄하여 널리 보급시키는것은 천하의 보배를 온 천하사람과 나누는것으로 된다.》

또 일본학자 후지라는 의학서적이란 그 리론이 명확하고 정밀하여야 의혹이 생기지 않고 사람의 생명에도 도움을 줄수 있는데 《동의보감》이야말로 오늘에는 물론 후세에도 높이 평가할만한것이라고 하면서 《동의보감》이 나옴으로써 의학부문에서 걱정이 없어지게 되였다고 평하였던것이다.

뿐만아니라 한 력사학자는 이렇게 지적하였다.

《〈동의보감〉은 〈의방류취〉의 방대한것에 비하여 간결하며 그 체계와 내용이 잘 구성되고 째인것으로 하여 사실상 동방의학의 최고절정에 이르렀다고 말할수 있다.》

이와 같이 허준의 《동의보감》은 우리 나라 3대의학책의 하나로서 의학자들과 사람들의 절찬을 받게 되였다. 그후 《동의보감》은 서유럽 여러 나라 말로 각국에서 번역되여 연구의 대상으로 되였다.

허준은 이후에도 당시 굉장히 퍼지고있던 온역(급성전염성열병)과의 투쟁을 위하여 1612년 《벽온신방》을 저술하였고 1613년에는 《신찬벽온방》(권1)을 집필하는 성과를 올리였다.

우리의 고려의학을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킨 허준은 1615년 11월 자기 생애를 마치였다.

허준은 일생 우리 나라의 고려의학을 연구하였다. 그의 《동의보감》을 비롯한 저서들은 현대고려의학을 과학화하고 민간료법을 체계화하는데서 귀중한 자료로 되고있다.

울릉도를 지켜낸 안룡복

세찬 파도로 울릉도는 벌컥 뒤집히는듯 하였다.

《와수수—》 대나무숲이 마구 설레이고 주먹같은 복숭아들이 땅바닥에 떨어져 이리저리 딩굴었다. 이때 크지 않은 한척의 배가 간신히 울릉도에 닻을 내리였다.

태풍을 만나 여기에 오른것이다.

경상도 동래의 배군인 안룡복은 친구들인 배군, 고기잡이군 40여명과 함께 고기잡이를 하다가 그만 태풍을 만나게 되였다.

그들이 울릉도에 오르니 그전과는 달리 이상하게도 이곳저곳 솥을 걸고 불피운 자리들과 함께 낯설은 그릇쪼각, 천오래기들이 너저분하였다.

《이게 웬일일가?… 옳지, 왜인들의짓이 분명쿠나.》

안룡복은 제꺽 이것이 일본놈들이 우리의 섬에 기여올라 한짓임을 알아차렸다.

그놈들이 눈앞에 있다면 당장 요정을 내고싶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될 일이 아니였다.

저녁이 되자 바람도 잦고 파도도 멎었다. 울릉도는 부드러운 자기의 본자태를 드러내였다.

그들일행은 2～3일을 두고 섬에 머물면서 약초도 캐고 대나무도 찍고 전복과 미역도 따들이고 복숭아도 거두어서 한배 가득 실었다. 기분이 좋아진 그들은 안룡복이더러 이젠 그만 떠나자고 재촉했다.

그러나 그는 머리를 저었다.

(이번길에 왜인들을 아주 혼을 내놓아야 다음번에도 우리가 편안하게 여기서 물산을 거둘수 있지 않겠는가.)

《하루이틀 늦어지더라도 일본해적들을 단단히 요정을 내야 하오. 버릇은 궂히면 더해지는 법이니까.》

안룡복은 그들을 설복하여 눌러앉히였다.

안룡복은 동래의 비천한 배군의 집안에서 태여났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나서자란 고향땅을 귀중히 여기였다.

원래 배군출신인 안룡복은 수군에서 노젓는 능로군으로 군역을 지낸바 있는 사람이다. 바다가마을에서 나서자라 수군생활까지 결친지라 그는 바다를 좀처럼 무서워하지 않았다. 성격이 강직하고 정의감이 강하며 자기와 같은 처지의 가난한 배군들의 일이라면 무엇이든 두팔을 걷어올리고 나서기에 그는 친구들이 많았다.

그는 일본해적들의 손에 걸려 봉변을 당할번한 마을사람들을 구원해준 일도 한두번이 아니였다.

하기에 동래마을사람들은 안룡복을 아직 나이는 적지만 그를 받들어 무슨 일이든지 모두 그와 상론하였다.

그 시기 왜적들은 저들의 더러운 야심을 채우기 위하여 임진년에 조선을 먹으려 달려들었다가 우리 인민들의 애국적항전에 부딪쳐 수치스러운 떼죽음을 당하고도 세월이 지나자 또다시 쥐새끼처럼 쏠라닥거리면서 동해안에 나타나 로략질을 일삼았다.

특히 왜구들은 아름답고 물산이 풍부한 조선동해의 울릉도와 독도에 대하여 침을 흘리였다.

임진조국전쟁후 나라에서는 싸움에서 입은 피해를 가시기 위해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하였으나 아직 외진 섬들에까지는 그 힘이 미치지 못하였다.

좀스럽고 로략질에 이골이 난 왜적들은 이런 약한 틈을 타서 울릉도와 독도를 제놈들의것으로 만들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특히 쯔시마놈들이 경치 좋고 갖가지 물산이 풍부한 이곳을 어떻게 하나 타고앉으려고 무진 애를 썼다.

울릉도에서 제일 손꼽히는 귀물은 복숭아이다. 울릉도복숭아는 맛이 기막힐뿐더러 신기하게도 크기가 주먹을 넘으니 사람들은 그 씨를 받아 술잔으로 썼다고 한다.

그리고 울릉도에는 어른들의 아름을 넘는 왕참대나무가 무성하고 향나무와 갖가지 약초들이 푹 덮이였다. 게다가 섬기슭에는 커다란 전복이 쭉 깔려있어 참으로 더 이를데없이 살기 좋은 고장이였다.

이처럼 아름답고 물산이 풍부한 곳인 울릉도에 임진조국전쟁시기 왜적들이 기여들어 닥치는대로 략탈을 감행하였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정든 섬을 떠나게 되였고 차차 인적이 끊어지게 되였던것이다. 다만 강원도와 경상도해안의 어부들이 이따금 섬에 올라 고기잡이를 하거나 바다길에 쉬여가군 하였을뿐이였다.

왜적들은 이런 틈을 타서 울릉도를 《다께시마》로, 독도는 《마쯔시마》로 부르면서 1614년에는 리조정부에다 이 섬들에 제놈들이 거주하겠다는 정식통보를 하여왔다.

놈들이 신청서를 냈다는 그자체가 벌써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섬이라는 여실한 증거로 된다. 파렴치하고 좀스러운 왜놈들이 이 두 섬이 저희들것이라면 무엇때문에 문서요 통보요 하는 놀음자체를 벌렸겠는가. 그것은 명실공히 우리 섬에 아무러한 사전예고없이 올랐다가 조선사람들의 된주먹에 뒤통수를 얻어맞을것이 무서워 한 노릇이였으니 섬나라 해적특유의 교활성으로부터 우러나온 방책상의 수작이였다.

왜적들은 1615년에도 울릉도를 탐사하겠다고 리조정부에 제기해왔다.

정부에서는 동래부사 박경업에게 위임하여 두 섬이 다 우리 나라 땅이므로 거주요 탐사요 하는것을 허용할수 없다는 단호한 립장을 표명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후에도 왜적들은 이구실 저구실을 붙여가면서 울릉도를 저들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 갖은 못된 짓을 다하였다.

바로 그러한 시기인 1693년 여름 안룡복일행이 이 섬에 오른것이다.

이들은 하루이틀 더 묵어볼 심산으로 갓 잡은 생선으로 회를 치고 술잔을 기울이며 한창 즐거운 때를 보내고있었다.

그런데 이때 금시 7척의 배가 꺼리낌없이 섬에 닻을 내리우고 40여명의 왜인들이 기슭에 버젓이 오르는것이였다.

《너희는 누구냐?》

왜인들이 먼저 건방진투로 물었다.

《우리는 조선사람이다.》

안룡복이 선뜻 나서며 일본말로 류창하게 대답하였다. 그는 원래

부산포의 일본인과 사귀면서 일본말도 배워두었기에 막힘이 없었다.
그러자 먼저 말을 걸었던자가 호통을 쳐댔다.
《야, 왜 남의 땅에 들어와서 허가도 없이 고기를 잡고 나무를 베는거냐?》
안룡복은 순간 피가 끓어올랐다.
《뭐 허가라구?! 울릉도는 예로부터 우리 섬이다. 이 섬이 우리에게 속한다는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이다. 너희놈들이야말로 남의 땅에 침범해들어와서 무슨짓을 할 작정이냐? 누구더러 도리여 허물을 잡고 덤벼들어보자구?》
안룡복과 왜인사이에 섬의 령유권문제를 놓고 한참동안 싱갱이질이 벌어졌으나 어느 한쪽도 수그러들려고 하지 않았다.
드디여 안룡복은 두쪽 배가 각각 모두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되 자기는 일본배를 타고가서 이 섬의 문제를 결정짓겠다고 단호히 말하였다.
이리하여 안룡복은 한갖 배군으로서 박어둔이라는 사람과 함께 나라의 장래를 위해 목숨걸고 일본으로 가서 그곳 도주와 담판을 하게 되였다.
오끼시마라는 섬에 오른 안룡복은 태연하게 도주의 방으로 성큼성큼 들어섰다. 오끼시마도주는 그쯘하게 무장을 갖춘 졸개들을 량옆에 늘어서게 한 다음 자기는 높직한 자리에 올라앉아 들어오는 그들에게 얼마쯤 떨어진 아래자리를 턱으로 가리켜보였다.
안룡복은 눈섭 한오리 까딱하지 않고 도주에게 들이댔다.
《우리는 외국사람이다. 일본사람이 아니다. 도주가 우리와 만나자면 외국사람으로 대접해야 할것이 아닌가? 마치 제 부하처럼 대하니 이 무슨 례절이란 말이냐? 이런 례의에 어그러지는 대접은 받을수 없다.》
그는 경망한 도주의 위협에 조금도 굽어들지 않고 도도히 맞섰다.
《우리는 너희를 그래도 이웃으로 알고 두 나라사이의 일을 의논하자고 찾아왔다. 그런데 이렇게 무례하고 야만스러운줄 알았더라면 애초에 단 두사람이 맨몸으로 오지조차 않았을것이다. 좋다, 우리는 죽음을 각오한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으로 인해서 두 나라사이에는 반드시 말썽이 일어날것이요, 그때면 너희 섬도 편안치는 못할것이다. 피차간 좋은 말로 서로 의논해서 조용히 처리하는것만 못할것이다. 도주는 분별있게 처신하라.》

사리정연하고 당당한 안룡복의 말에 체면을 잃은 도주는 자리에서 내려와 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앉은 다음 량해를 구했다.

《처음 모르고 그랬으니 리해해주시기를 바라오.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봅시다.》

그들은 대등한 자격으로 담판을 시작하였다.

안룡복은 울릉도와 독도가 철두철미 우리 나라의 섬임을 구체적인 자료를 들어가면서 주장하였다.

《울릉도로 말할것 같으면 우리 나라에서는 하루길인데 귀국에서는 가장 가까운 곳도 닷새길이 아니겠소. 그러니 벌써 이것이 우리것이라는거야 명백한 사실이 아니요. …》

안룡복은 이 두 섬이 우리것임을 찍어말하면서 당신네 어부들이야말로 남의 나라를 침범한것이기에 다시는 이런 비법적인 일이 없도록 귀국의 백성들을 잘 단속하여야 한다고 조리있게 엮어나갔다.

《만약 앞으로 다시 그런 좋지 못한 일이 생긴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도주가 져야 할것이요.》

안룡복은 명백히 오금을 박아 판을 갈라놓았다.

그의 강경한 태도와 정당한 주장에 눌리운 도주는 이 문제는 호끼태수와 의논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를 그곳으로 압송하였다.

호끼태수는 처음부터 안룡복을 얼리려들었다.

《귀국에서 내버리는 섬을 우리가 한두번 리용한걸 가지고 말썽을 일으킨다면 두 나라가 서로 화목하게 지낼수 없지 않겠소. 소청이 무엇인지 어디 그거나 말씀해보시구려.》

호끼태수는 안룡복에게 커다란 은덩이를 내놓는것이였다.

그러나 안룡복은 그런것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나는 은덩이나 금덩이를 요구하러 온게 아니요. 오직 일본사람들이 다시는 울릉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하겠다는 글 한장만 써주시오.》

그는 놈들의 교활한 책동을 물리치고 마침내 일본관백(국왕을 대신하는 관직이라는 뜻)으로부터 울릉도가 조선땅이라는것을 확인받고 나가사끼를 거쳐 돌아오는 귀로에 오르게 되였다.

그러나 이때 쯔시마도주는 저들의 울릉도침입사건을 뒤집어 조선사람들이 그곳에 《침범》한것으로 날조하고 조선정부에서 《사죄》할것을 요구하면서 진상이 폭로될것이 두려워 안룡복을 나가사끼에 50일간, 다시 동래왜관에 압송하여 40일간 구금하였다.

그러나 그의 정당한 투쟁에 의하여 마침내 돌려보내지 않을수 없었다.

일본에서 돌아온 안룡복은 즉시 동래부에 들어가 그간의 일들을 말하고 이 문제는 반드시 강경하게 나가 우리의 섬을 지켜내야 한다는 자기의 의견도 같이 제기하였다.

그러나 동래부사는 어쩌지도 못하면서 틀만 차리는것이였다.

《조그만 백성이 중대한 나라일에 참견하여나서는것은 외람된것이니 네 소행에 대해서는 임금께 아뢰여 다시 결말을 지을터이다. 그러니 지금은 나가 기다리라.》

하지만 무능한 조정에서는 아무러한 대답이 없었다.

이에 쯔시마도주는 제 졸개를 시켜 동래부사에게 편지를 보내여왔다.

《우리 나라의 땅인 〈다께시마〉로 귀국의 어민 40여명이 침범해들어왔기에 우리는 안룡복을 비롯하여 두사람을 붙들어갔다가 두 나라사이의 화목한 정을 고려해서 돌려보내였습니다. 금후로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그 사람들은 물론이요 귀국의 기타 백성들까지도 엄하게 단속하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비겁한 관료배들은 편지를 받자 겁에 질려 황폐한 작은 섬을 가지고 불화를 일으킬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접반관(외국사람들과의 사업을 맡은 관리)을 보내여 좋게 해결하자는것이다.

안룡복은 속에서 커다란것이 꿈틀거렸다. 하여 여러차례 접반관을 만나 이야기했으나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분격한 그는 자기 힘으로라도 울릉도와 독도를 기어이 지켜내리라 마음다졌다.

1696년 안룡복은 힘꼴이 세고 글도 잘 아는 류일부, 리인성 그

리고 젊은 장정 10여명과 함께 장사를 하는 중인 뢰헌의 배를 타고 울릉도로 갔다.

그때 그는 무관들이 입는 푸른 철릭(=천릭:무관이 입던 옷의 한가지. 허리에 주름이 잡히고 큰 소매가 달렸는데 벼슬에 따라 남색과 붉은색의것이 있다.) 한벌과 붉은 갓 한잎을 준비하였다.

하루이틀 지내면서 물산을 걷어들이는데 과연 일본어선 3～4척이 기슭에 와닿더니 왜인들이 우르르 쓸어내리는것이다.

안룡복은 류일부와 장정들을 앞세우고 마주내려가 일본말로 호통을 쳤다.

《이놈들아, 다시는 우리 울릉도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태수가 관백의 명령을 받아 약속했는데 또 들어온단 말이냐. 이번에는 절대로 내버려둘수 없다.》

그러자 왜인들은 벌벌 떨었다.

《아니, 〈마쯔시마〉로 간다는것이 그만 길을 잘못 들어서…》

《〈마쯔시마〉?! 이놈들아, 독도도 우리 땅이다.》

안룡복이네들은 왜인들을 모두 섬에서 내몰고 일본 오끼시마로 들어가 도주를 만나 이번에 일어난 책임을 추궁하고 벌을 줄것을 강경히 요구하였다.

그리고 또다시 호끼태수를 만나 담판을 벌리였다.

안룡복은 자기를 울릉도와 독도의 세금을 감독하는 갑세관이라고 자칭하면서 미리 준비해가지고간 푸른 철릭에 붉은 갓을 쓰고 태수와 마주앉았다.

태수는 이미 그의 인격을 알고있는지라 요구조건을 두말없이 접수하였다.

《이번 일이 잘못되였으니 내가 조처하겠소이다. 그러니 관백에게는 알리지 않는것이 어떻겠는지요?》

태수는 이제부터는 울릉도문제에 대해서 다른 일이 없을것이라고 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다시 경계를 넘어 섬을 침범하는자가 있거나 쯔시마도주가 함부로 섬에 오르는 경우에는 역관을 통하여 국서를 전해주면 해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지요.》

태수는 많은 례물을 그들에게 주었다. 승리자의 자랑을 안고 동래로 돌아온 안룡복은 받아온 례물을 뢰헌과 어부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이후 쯔시마도주는 사람을 띄워 스스로 이 문제를 관백에게 제기하였으며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땅이라는것이 확증되였다는것을 조선정부에 알리여왔다.

이와 같이 3년간에 걸쳐 투쟁한 안룡복의 공로로 두 섬에는 왜적들이 한놈도 얼씬하지 못하게 되였다.

그러나 비겁한 관료배들은 한갖 배군에 지나지 않는 안룡복이 나라의 승인도 없이 신분에 당치 않게 제멋대로 일본에까지 오갔다는 죄아닌 《죄》를 만들어 그에게 뒤집어씌웠다. 관료배들은 만부당하게도 천한 배군이 감히 관리의 옷을 입고 그 행세를 한것부터가 잘못이라면서 죽어 마땅하다고 그를 결박지워 서울로 끌고가 사형선고를 내리였다.

봉건통치배들은 우리 땅을 목숨걸고 지켜낸 그의 애국적소행과 공로보다도 《죄》가 더 크다는 당치 않은 조건을 내걸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인민들은 안룡복이 나라를 위해 한몸의 위험도 무릅쓰고 단행한 의거에 대하여 극구 찬양하면서 강력히 항의해나섰다.

뿐만아니라 남구만을 비롯한 일부 량심적인 관리들도 그의 사형집행을 결사반대했다.

그러자 통치배들은 그 《죄》를 조금 늦추어 귀양을 보내기로 하였다.

안룡복이 귀양길에 오르자 일본에 함께 갔던 뢰헌, 류일부, 리인성들도 의롭게 따라나섰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의 애국적장거를 이렇게 처사하는것은 잘못된것이라고 하면서 끝까지 항의해나섰다.

봉건정부는 어쩔수없이 안룡복의 《죄》를 취소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안룡복의 애국적이며 대담무쌍한 공로로 하여 울릉도와 독도에는 이를 감독통제하는 기구가 새로이 나오게 되였으며 아울러 왜적들의 침입을 막을수 있게 되였다.

한갖 동래의 배군이였던 안룡복과 인민들의 과감한 의거로 두 섬은 영원히 이 나라의 한부분으로 남아있게 되였다.

선왕을 살해하고 왕자리에 오른 광 해 군

력대의 제왕들이 하나와 같이 저들의 봉건통치를 유지하고 부귀영화를 연장하기 위해 폭정을 하였지만 광해군처럼 부모조차 모르고 광기를 부린 인물은 드물다. 물론 리조시기의 왕들만 보더라도 자기의 지반을 닦기 위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을 죽이고 부시는것을 하나의 다반사로 하여왔다. 이것이 없다면 그것은 벌써 제왕이 아니였다.

광해군은 선조왕(리조 14대왕;1568～1608년 통치)의 둘째아들로서 김씨의 소생인데 그는 본 부인이 낳은 영창대군이 출생하기 전에 이미 왕세자로 지적되여있었다.

어린시절 광해군은 여러 왕자들중에서 그래도 똑똑한 편으로 일러왔다.

어느날 선조왕은 여러 자식들을 해빛이 환한 대청에 불러놓고 그들의 재주를 시험하기 위해 처음 이런 질문을 내였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선조왕의 물음에 왕자들은 제나름의 대답들을 하였다.

《떡입니다.》

《그래도 고기가 제일 맛있습니다.》

그러나 광해군의 대답은 이들과 달랐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것은 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그렇게 보느냐?》

선조왕이 되짚어 물었다.

《모든 음식에는 소금이 들어가야만 제 맛이 나기때문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고기라도 소금이 없이는 제 맛이 나지 않습니다.》

선조왕이 들어보니 과연 신통한 대답이였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선조왕은 많은 왕자들을 제껴놓고 광해군을 세자로 내세웠던것이다.

그러나 광해군은 점차 커감에 따라 광포와 악성이 살아나기 시작하였다.

그는 조신(임금이 정사를 보는 조정에서 벼슬살이를 하는 신하)들과 일반백성들에게는 더 말할것도 없고 지어 부왕과 자기 어머니에게까지도 언행이 란폭하고 주먹을 내흔들기가 일쑤였다. 조정안에서는 안하무인인 그를 당해낼자가 없었다.

선조는 지금에 와서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한것이 날마다 후회되였고 마침내는 늦게 본 영창대군을 다시 내세우려고까지 결심하게 되였다.

《아무래도 내가 서둘렀어. 지금에 와서 정해도 될걸.》

뒤짐을 진채 때없이 안절부절을 못하던 선조는 마침내 병석에 눕게까지 되였다.

(아무래도 영창이 좋음직한데…)

선조왕은 오직 이 생각밖에 없었다.

이때 조정의 간신들인 리이첨과 정인홍이 후일의 큰 벼슬을 노리고 영창대군을 세자로 책봉하려는 선조왕의 의도를 광해군에게 고해바쳤다.

《그렇단 말이지. …가만있을수야 없지 않는가.》

광해군은 자기의 왕세자자리를 지키기 위해 부왕을 죽여버릴 고금에 다시 없는 끔찍한 일을 궁리해냈다. 그는 김상궁이란 궁녀를 불러들여 비밀리에 내통하였다.

그리고 약밥 한그릇을 맛있게 해가지고는 거기에 독약을 넣어 부왕 선조에게 올리였다.

《상감마마, 이 약밥이 먹음직한데 들어보시오이다.》

이렇게 선왕인 아버지를 독살해버린 광해군은 손쉽게 왕좌에 앉

았다.
  선조는 후일도 의논하지 못한채 죽어버린것이였다.
  이처럼 세상에 저주받을 일을 하고 왕자리를 차지한 광해군은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간신들인 리이첨과 정인홍을 높은 벼슬에 올려앉히였고 그들에게 정사를 맡기다싶이하면서 자기는 술과 계집들속에 묻혀버리였다.
  그리하여 나라형편은 처참한 지경에 떨어지게 되였다. 벼슬을 돈으로 팔고사는 일이 날마다 벌어졌고 죄도 없는 사람들이 귀양을 가고 또 귀신 몰래 죽어갔다.
  그바람에 녹아나는것은 백성들뿐이였다. 수많은 이름모를 세금에 집과 세간을 떼우고 엄동설한에 한지에 나앉는 백성들이 꼬리를 물었으며 군포를 물지 못해 노비로 되는 사람들의 수는 미처 헤아릴수 없었다. 해마다 농사가 안되여 절량에 울고 관리들의 푸른 서슬에 남모르게 시들어갔다.
  그랬건만 광해군은 아무런 상관도 없었다. 그는 오직 요염한 김상궁만 끼고 밤낮이 따로없이 놀음판을 벌렸고 춤판을 펴놓았다.
  《왕자리란 이렇게 좋은걸 내 미처 몰랐구나!》
  그는 좋기만 하였다. 김상궁으로 말하면 광해군보다는 10년이나 우였다. 그래도 광해군은 그의 말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쑨대도 곧이 들었다.
  자기가 왕이 될 때 크게 도왔다는 리유이다. 말하자면 제 애비를 죽이는데 한몫을 한 녀《공신》인것이다. 김상궁의 에미와 조카들도 대궐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 판이다. 그러니 나라형편은 짐작코도 남음이 있는것이였다.
  또한 광해군은 신을 숭상하던 나머지 돈을 앗아내려는 무당들의 잔꾀에 홀딱 넘어가 숱한 토목공사를 여기저기에 벌려놓았으며 국고를 탕진하고 백성들을 부역에 내몰았다. 바쁜 농사철에 공사를 하니 떠나온 집과 아이들이 걱정되여 도망을 치게 되면 영낙없이 그자리에서 맞아죽었다. 온 나라, 온 고을마다에서 좋다는 목재는 모조리 걷어들이였고 이것을 백성들의 등짐으로 날라오도

록 하였다.

광해군의 괴이한 성격은 자기에게 아첨하는 기술자들 즉 기와를 굽거나 목재와 석재를 다듬어내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정3품이상의 품계를 주는 변덕스러운 인사조치도 례상사처럼 빚어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렇게 벼슬에 오른자들을 비꼬아 좌행당상이라 놀려댔다.

일이 이쯤되니 과거제도 역시 문란해질대로 문란해져서 엉망진창이였다.

아첨만 잘하면 실력은 상관없이 언제든지 벼락감투를 뒤집어 쓸수 있었다.

그 시기 리충이라는자는 왕에게 맛있는 음식을 바치고 호조판서가 되였고 한효순은 산삼을 올리고 우의정의 벼슬에까지 올랐다. 때문에 후날 백성들은 《산삼 바쳐 된 정승, 음식 올려 딴 판서, 권세가 놀랍구나.》하고 말하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한편 광해군의 인간이하의 포악성은 어머니를 페하고 형제들을 마구 죽이는데까지 이르렀다.

그는 걸핏하면 남을 의심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 언질에 걸리기만 하면 형이고 동생이고 가림이 없었다.

광해군은 먼저 형제들중에서 형인 임해군을 역적모의라는 터무니없는 구실을 붙여 잡아죽이였다.

《그래도 형님인데 자상히 알아보셔야 하지 않겠소이까?》

대신들이 이구동성으로 말리려들었으나 그는 무작정 소리를 질러댔다.

《아니야, 제가 왕이 되고싶어 한짓이야!》

그러니 신하들인들 이를 어찌하겠는가.

간사한 무리들이 저들의 리속을 위해 꾸민 거짓도 그는 가려보지 못하고 선뜻 형님을 없애버린것이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선조왕이 사랑하여 왕세자로까지 봉하려 했던 영창대군에게 눈초리를 돌리였다. 리이첨이 또 꼬드겨댔던것이다.

그런데 영창대군으로 말하면 겨우 5살밖에 안되였으므로 어머니

품에서 지내고있었다. 하건만 그는 강제로 떼여냈다.
광해군은 신하들에게 영창대군을 데려오도록 하였으나 어머니가 내놓지 않게 되자 미친듯이 그의 처소로 달려가서는 그가 역률을 범하였으니 내주어야 국법이 바로서겠다고 호령했다.
《아무리 국법이기로서니 5살 먹은 어린애가 무슨 역률인가. 죽이려거든 나를 죽이게. 어서 나를 죽이게.》
아무리 울며 사정을 해봤댔자 소용이 없는 일이였다.
광해군은 두말없이 와락 달려들어 대비를 억누르고 어린 영창대군을 빼앗아냈다.
《영창은 선왕의 자식도 아닌걸 가지고 무얼 그러시우.》
광해군은 영창은 선조의 자식이 아니라고 역설을 늘어놓으면서 대비에게 루명을 씌워 강화도로 류형을 보내였다. 그다음 얼마 지나서는 다른 곳으로 옮겨다가 방에 가두어넣고 불을 세차게 때서 질식시켜 죽이였다.
그때 영창대군은 겨우 7살에 잡혔는데 그는 3살에 부왕을 여의고 5살에 어머니품을 떠나 외로운 섬에 갇혀 밤낮으로 울며 지냈다.
라졸들이 그를 죽이려 달려들자 영창대군은 눈물로 구원을 청했다.
《아저씨들,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어머니곁으로 데려다주세요. 어머니를 보고싶어요.》
발버둥질해도 소용이 없었다. 그는 뜨겁게 달아오른 방안의 열기를 이기지 못하여 끝내는 죽고말았다.
이와 같이 잔인성에서 누구도 따를수 없는 가혹한 폭군인 광해군은 그다음 인목대비를 죽이려고 꾀하였다.
그는 간신들을 부추겨 모의를 꾸미게 하여 자신이 죄를 만들어놓고는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대신들의 수표를 받도록 하였다.
순순히 수표를 하는자들은 별일없지만 만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불평을 부리는 날이면 그는 정배를 가거나 목숨을 바쳐야 하였다.

광해군은 대비를 죽이는데 의견을 가진 리항복, 기자헌, 정창연 등 열명을 귀양보냈고 의창군과 20여명은 정계에서 제거했다. 그리고 늙고 병들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재상들은 모두 벼슬을 내리깎았다. 그리고는 제 뜻대로 인목대비를 서인으로 폐하여 정동 경운궁으로 쫓아내고말았다.

이렇게 되여 많은 선비들이 죄없이 죽고 정배를 가는 사변이 일어났던것이다. 이것이 바로 《계축사화》이다.

광해군은 이에도 만족하지 않고 연금된 대비를 죽이기 위해 무뢰한 수십명을 동원하여 북까지 쳐대면서 경운궁으로 쳐들어가서는 대비의 침실에 뛰여들어 누워있는 그를 칼로 찔렀다.

그런데 마침 거기에 누운 녀인은 대비가 아니라 궁녀였다. 이상한 기미를 눈치챈 궁녀가 대비를 피하게 하고 자기가 대신 누워있었던것이다.

이렇게 광해군은 부왕을 독살하고 형과 아우를 역적으로 몰아 잔인하게 죽였으며 모후를 살해하기 위해 발광하던 나머지 생사람을 마구 죽이였다. 그리고 이에도 성차지 않아 선조의 궁녀 열한명을 다만 선조왕의 애무를 받았다는 리유로 목을 베여 죽이고 약을 먹여 독살했다. 또한 선조왕의 손자들을 후일의 복수가 두려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차례로 없애버리였다.

그러고도 광기를 누르지 못해 정원군의 궁지(궁터)를 강압적으로 빼앗았으며 그 부근 농가 수천호를 헐어버리고 백성들과 군사들을 강제로 내몰아 새문안대궐을 짓게 한 후 거기에 거처하면서 위세를 돋구었다.

광해군의 이름도 모를 가지각색의 패륜패덕은 안으로는 대신들을 불안하게 하였고 밖으로는 백성들의 생활을 령락시켰다. 그리하여 날에날마다 수많은 충간이 올라오고 백성들이 일어섰다.

그러나 그의 폭정은 날마다 더해만갔던것이다.

광해군이 집권한지 15년이 되는 계해(1623)년 3월 12일 밤 드디여 오래동안 꾸준히 준비되여오던 반정이 일어나게 되였다. 이것이 력사에 《인조반정》으로 전해진 반정부기도였다.

술과 계집에 취하여 몽롱해있던 광해군은 벼락치듯 하는 소리에 정신이 들었다.

《아이구, 큰일났어요! 큰일났어요!》

내시의 아우성에 일어나 대궐담을 뛰여넘은 광해군은 죽기내기로 도망쳤다.

반정군은 온밤 그를 찾았으나 끝내 못찾고말았다.

한편 대궐담을 뛰여넘어 살길을 찾아 도망을 친 광해군은 송현의 어느 한 약국으로 정신없이 달려들었다.

《신세를 잊지 않겠으니 몸을 좀 숨겨주시오. 어찌겠소. 좀 살려주시오.》

광해군은 애걸복걸하였다.

약국집주인은 자신이 아버지의 상중에 있었으므로 얼른 상복을 가리켰다.

《상복을 입고 이 방에 들어오시오.》

그를 안방에 숨겨둔 주인은 큰길에 나가 형편을 살피였다. 훈련대장이 지휘하는 군교들이 집집을 샅샅이 뒤지고 서슬이 등등한데 백성들은 뒤따라 만세를 부르며 기뻐서들 야단이다.

《이제는 살았구나.》

《그놈을 찾기만 하면 그저!…》

약국주인은 그냥 있다가는 어떤 화를 당할지 모를 일이였다.

《이럴 때가 아니야. 알려야 하겠어.》

그는 급히 북문으로 뛰여가 자기 집 안방에 그놈이 있다는것을 고발하였다.

이렇게 되여 력사에 이름난 폭군이였던 광해군은 상복을 입은채로 군졸들에게 잡힌 몸이 되였다.

백성들과 신하들은 그를 용서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처음 강화도로 귀양을 갔다가 다시 제주도로 이송되였으며 그후 또다시 교동이라는 섬으로 쫓겨갔다.

광해군의 아들은 땅을 파고 울타리밖으로 기여나가 도망치려다가 붙들려 스스로 목숨을 끊고말았다. 그후 그의 처는 7일간이나 굶다가 절로 죽었고 여러명의 첩들도 모두 자결

하였다.

광해군은 치밀어오르는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병들어 앓다가 화김에 죽어버리였다.

이렇게 광해군은 추악한 폭군의 말로를 걷고말았다.

이것이 바로 선정을 베푼다고 하는 봉건왕의 또하나의 모습이다.

왕이라고 하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인물이다. 그들의 말로 하면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국가를 튼튼히 지켜 나라의 부강발전을 가져오며 만백성이 태평성세를 노래하게 한다는것이다.

그런데 이런자들중에 광해군과 같이 제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는 무지막지한 추물들이 있으니 그런것들이 정사를 하면 어떻게 하고 또 얼마나 잘하겠는가. 항차 나라가 망하는 길에 들어서는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말로는 백성을 사랑한다는 왕이 백성의 목숨을 파리만큼도 여기지 않고 제 비위에 거슬리기만 하면, 또 제 리속에 조금이라도 저촉되기만 하면 그자리에서 무참히 죽여버리니 불보듯 짐작이 가는 것이다.

때문에 공정한 력사는 광해군을 왕관을 쓴 인간추물로, 폭군으로 평가한다.

생물학자 박세당

박세당은 과수원에 나와앉았다. 해지기 전에 세 가지를 접목해보려는것이다. 그것도 그럴것이 복숭아를 따보니 전번과는 달리 새로운것이 또 나타났다. 웃가지와 아래가지 접목이 다르지 않는가? 나무는 한나무인데 이처럼 다르다는것은 무엇을 말해주고있는가?

그리하여 박세당은 웃가지, 아래가지, 중간가지를 다시 접목해보기로 한것이다. 해볼수록 신비로운것들이 하나하나 착착 풀려나왔다.

박세당은 날마다 들에서, 과수원에서 살았다.

마을량반들이 그를 두고 미쳤다고 놀려댔지만 그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술상이나 펴놓고 허무한 나날을 보내는것보다 이런것들을 알아내여 후대들에게 물려주면 얼마나 좋은가! 더우기 요즘은 해마다 농사가 잘되지 않아 걱정인데 백성들을 도와나선다면 이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 아니겠는가. 박세당은 이렇게 생각했다.

호를 《서계》라고 부른 박세당은 1629년 8월 전라도 남원에서 태여나 거기에서 자랐다. 그 시기 아버지는 남원부사로 있었기에 그는 그리운것이란 없었다.

그러나 박세당은 어릴적부터 아버지의 등을 대고 우쭐거리거나 틀을 차리는것을 몰랐으며 언제나 공부에 열중하였다. 더우기 그는 어떤 이상한 현상에 부닥치기만 하면 그것이 스스로 납득이 될 때까지 들이파는 성격을 가지고있었다. 그는 책읽기를 시작하면 그 리치를 따져가면서 마지막페지가 끝날 때까지 놓을줄을 몰랐다고 한다. 부모들은 때식때가 되여서야 그를 겨우 밥상에 앉힐수 있었고 수저를 놓기가 바쁘게 또다시 하던 일에 접어들었다는것이다.

박세당은 32살에 과거에 급제하여 생원이 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균관 전적이라는 벼슬에 올랐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벼슬자리보다 한심한 처지에 놓여있는 백성

들의 살림을 어떻게 하면 추세울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심혈을 기울이였다.

당시로 말하면 임진조국전쟁의 후과가 아직 가셔지지 않은데다가 또 두차례에 걸치는 녀진족의 침입으로 하여 나라의 생산력은 여지없이 파괴되고 백성들의 생활은 극도로 령락되여있었다. 하건만 여기에는 아랑곳없이 봉건관료배들은 저들의 권력다툼과 토지쟁탈을 위한 싸움으로 계절이 바뀌는줄도 모르고있었다.

이러한 상태이지만 박세당은 일련의 새로운 문제들을 내놓았으며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창발적의견들도 발기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허사로 돌아갈뿐이였다.

박세당은 단호히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모든것을 단념하고 오로지 학문연구에만 몰두하였다. 그는 당시 파괴된 경제의 복구를 위해서도 농업기술을 발전시키는 문제가 가장 급한것이라고 보았다. 때문에 그는 먼저 그때까지 우리 나라에서 저술된 농업과학서적들을 모조리 탐독하는 한편 중국의 농학, 생물학도 참고로 연구하면서 실정에 맞는 농업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였다. 그는 《농사직설》, 《급양잡록》 등 우리 나라에서 나온 농사에 관한 책들을 완전히 통달하였고 이것을 자신의 실험을 통하여 확증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는 우리의 기후풍토에 맞는 농사리론을 창조하기 위해 하나하나 경험을 쌓아나갔다. 박세당은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 농사계절이면 그는 언제나 발을 벗고 논판이나 밭에서 살면서 자신이 심고 가꾸고 농민들의 귀중한 의견을 들었으며 토양의 비옥도와 기상상태, 퇴비를 주는데 따라 생물이 어떻게 자라며 발육하는가를 관찰해나갔다.

박세당은 자기가 심은 식물이 날마다 자라는것이 더없이 사랑스러웠다. 어떤 날에는 점심도 잊고 그것이 커가는것을 흐뭇이 바라보면서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였다.

《주인님, 점심시간이 퍼그나 지났는뎁쇼.》

집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아 하인이 찾아나온것이다.

《아, 벌써 그렇게 되였는가. 이제 들어가지.》

걷어붙인 바지가랭이를 털면서 그는 밭두렁으로 나온다. 이런 일

은 한두번이 아니였다. 밭에 나오면 한정이 없는것이다.

특히 박세당은 과수재배에서 우량품종을 육종해내기 위한 접목에 관한 연구에 힘을 넣었다. 물론 당시까지 접목에 대하여 많이 써오기는 하였지만 아직까지는 확고한 리론이 없었으므로 활발히 리용되지 못하고있었다.

박세당은 먼저 자신이 손수 접목을 하고 관찰하는 과정에 그 우월성을 확증하였다.

그리고 어떤 과일나무에는 접목이 어떻게 좋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할수 있으며 어떤 나무에는 불필요하다는 등 이 문제를 완성하기에 노력하였다.

박세당은 어언 40여년간에 결쳐 이런 피타는 노력을 농학과 생물학연구에 바쳤다. 그리하여 자신의 연구성과를 《색경》이라는 저서에 수록하였다.

이 책은 우리 나라 중세농업과학서적중에서 가장 우수한것이다.

박세당은 《색경》의 서문에서 이렇게 밝히였다.

《내가 일찌기 벼슬할 때 정치를 하는데 있어서 부족함을 알아 벼슬을 그만두고 농사를 하려고 생각한지가 오래였다.

왕궁내의 도서실에 있는 책들을 읽고서 내 스승을 얻은것처럼 기뻐하여 즉시 이를 기록하였다. 그 번거로운것을 자르고 중복되는것을 제거하여 한질로 만들어서 보는데 편리하게 하여 〈색경〉이라 이름하니 〈색경〉이라는 말은 〈농사짓는데 기준되는 방법〉이라는 말이다.

오곡백과와 오이, 호박, 삼 등과 닭, 돼지, 오리, 게사니, 벌, 물고기류와 재목, 약초, 양잠을 다 포괄하여 무릇 민생을 리롭게 하는것은 그 대소를 불문하고 쓰지 않은것이 없다.》

이 책은 4권으로 되여있다.

1권에서는 각종 작물의 재배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그의 성질, 생활습성, 유효성을 구체적으로 적어내려갔다.

여기에서는 우선 생물이 사는 땅문제, 그 종자문제, 파종시기와 방법문제 등 일반적인 농업지식을 주면서 우리들이 주식으로 리용하는 벼, 밀, 보리, 기장, 콩 등 곡식과 함께 역삼과 면화 등 공예작물, 오이, 호박, 가지 등 남새류, 지어는 파와 마늘에 이르는

조미료까지 빠짐없이 알기 쉽게 서술하였다. 때문에 누구든지 보기만 하면 환히 알수 있도록 된것이다.

2권에서는 과수에 대하여 쓰고있다. 배, 복숭아, 사과, 앵두, 대추 등 과일들의 토양조건, 접목방법, 벌레를 죽이는 방법 등을 세밀히 주었다.

특히 박세당은 자기의 생물학적연구성과를 여기에 집대성하였다.

그는 수목을 옮겨심을 때 북남을 표시하여두고 그 방위를 절대로 바꾸지 말아야 하며 이것을 어기면 별치 않은것 같지만 나무는 살지 못한다는 문제, 이런 경우 어린 나무는 다르다는 문제, 접목방법문제와 그 유리성 등 여러가지에 대하여 상세히 언급하였다.

그리고 또한 버섯, 담배, 오미자 등의 여러가지 재배방법과 그 효과성에 대해서도 자기의 연구성과를 밝혀나갔다.

3권에서는 누에치기와 기타 특이한 약초들의 재배방법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들을 주었다. 그 시기 우리 나라에서 누에치기가 대대적으로 진행되였으므로 조선비단이 세상에 이름을 떨치고있었다. 때문에 이것은 생물학분야에서 놓칠수 없는 문제의 하나였다. 박세당은 이에 대해서도 자신이 직접 집에서 실험을 거쳐 얻은 귀중한 자료들을 실례를 들어가면서 써내려갔던것이다.

4권에서는 개, 돼지, 닭, 오리 등 집짐승의 사양관리와 새끼낳이에 대하여 취급하였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농산물가공방법 몇가지에 대하여 첨부하였다.

이처럼 박세당은 저서 《색경》에서 농업기술전반에 대한 자기의 연구성과를 구체적으로 썼다. 그의 연구를 통털어 볼 때 높은 수준에 이른 점들이 적지 않았다. 그는 생물체가 주위환경조건에서 어떤 생활양식을 나타내며 어떤 특성을 드러내는가 하는 문제를 해명하였고 이에 따라 자신이 여러종의 새로운 품종들을 만들어내기까지 하였다.

그는 생물체와 주위환경과의 호상관계를 깊이 파고들어 연구함으로써 환경의 변화에 생물체가 어떻게 따라가는가를 알아내였다. 다시말하여 환경조건이 달라지면 어린 나무는 쉽게 거기에 순응하여 살지만 큰 나무는 그렇지 않다는 등 자기의 견해를 내

놓았던것이다.

특히 접목에 대한 박세당의 연구성과는 매우 귀중한것이였다. 접목을 할 때 곁가지를 잘라쓰면 나무의 키가 낮게 되며 가운데가지를 쓰면 키가 커지고 밑둥의 가지를 쓰면 5년후에야 결실을 보게 된다는 리론이다.

그리고 늙은 가지를 쓰면 7년이후에야 결과를 낼수 있다는 견해도 내놓았다.

이것은 당시에 있어서 실천적으로 매우 의의가 큰 리론일뿐아니라 오늘에 와서도 과수의 수확량을 늘이는데서 누구나 참고를 하는 문제이다. 바로 유전학에서의 이질성에 관한 리론의 기초로 된다고 볼수 있다.

박세당은 유전의 이질성문제를 접목에서 실지 자신이 확증하였다. 날마다 점심까지 잊어가면서 과수밭에서 보낸것이 결실을 맺은것이다.

그가 찾아낸것은 여러번 다른 나무가지를 접목한 나무에서 딴 열매를 보면 처음것과 다르므로 종자선택에서는 접목에서 나온 열매를 쓰는것이 효과적이라는 리론이다.

이것은 현대생물학의 유전성문제의 기초이다. 다시말하여 유전의 보수성문제가 그것이다.

이와 같이 박세당은 온 생을 농학과 생물학연구에 바쳤으며 여기에서 응당한 성과를 얻어낼수 있었다. 이것은 꾸준하고 인내성있는 그의 노력이 낳은 열매라고 볼수 있다.

남들이 무어라고 하건말건 오직 자기가 목적한바를 달성하기 위해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거나를 가리지 않고 밭에서 곡식이 자라는것을 바라보며 기쁨과 행복을 찾은 과학자의 성공의 결과물인것이다.

박세당은 또한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였다. 그 제자들에 의하여 그의 연구성과들은 손색없이 계승되였다.

박세당은 75살의 고령에 이르기까지 연구사업을 계속하다가 고향에서 사망하였다.

그의 문집으로는 《서계집》(20권)과 《색경》이 남아있다.

국문소설작가 김만중

밤은 깊어 초생달도 서켠으로 다 기울어졌는데 아직까지 잠이 들지 못한 윤씨는 조용히 일어나 곯아빠진 두 아들을 뜻깊게 바라보았다.

저것들이 아버지를 잃은지도 10여년, 맏아들은 11살이고 유복자로 태여난 둘째 만중은 10살이다.

어머니는 아들들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다시금 이불깃을 치여들고 그들의 종아리들을 어루만지였다. 아까 저녁녘에 공부를 버리고 뛰놀기만 하는 아들들을 회초리로 닥달질한것이다.

…

《만중아, 오늘 공부를 하지 않고 놀기만 한것이 잘못이라는것을 알겠느냐?》

《어머니, 조금만 논다는것이 그만 잘못했어요. 다시는…》

《잘못했으면 종아리를 걷어라.》

어머니는 만중의 종아리를 붉은 줄이 죽죽 가도록 회초리로 내리쳤다. 그리고는 두 아들을 앞에 꿇어앉히였다.

《너희 아버지는 나에게 두 형제를 맡기고 가셨다. 그런데 너희들이 공부를 잘못하여 훌륭한 사람이 못되면 저승에 가서 내가 너희 아버지를 무슨 낯으로 대한단 말이냐.》

대가 곧고 옳은것을 위해서는 칼날에라도 서슴없이 올라설 그였기에 남편이 바라던대로 두 아들을 잘 키우려는것이 윤씨의 결심이였다.

그런데 자식들이 이것을 몰라주니 안타까와 매질을 한것이다.

그러나 아들들을 때리고보니 좀처럼 그 아픔이 가시지 않았다.

그것은 래일이 남편의 제사날이여서 더한듯 하였다.

김만중은 1637년 개풍군의 외가집에서 윤씨의 유복자로 태여

났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벼슬을 한 이름있는 선비의 가문이였다. 아버지 김익겸은 《병자호란》(1636. 12～1637. 1)때 청나라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싸움에 떨쳐나 강화도에서 원쑤들을 징벌하였다. 그러던중 성이 함락되고 침략자들과의 《화평》이 벌어진다는 소식에 접하자 뜻있는 사람들과 함께 적의 포로로 수치를 당하기를 원치 않으며 순결한 죽음을 택했던것이다.

그는 울분을 참을길 없어 화약고에 불을 지른 후 그속에 뛰여들어 자결하고말았다.

그때 그의 나이는 23살이였다.

대단히 현숙한 녀성으로 알려졌던 어머니 윤씨는 남편이 죽자 자기도 그를 따라 그길을 가고싶었다. 그러나 하나는 배속에, 또 하나는 젖도 떼지 못한 두 아이가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강화도를 빠져나오기로 결심하였다.

윤씨는 나무배를 얻어타고 풍덕의 본가로 옮겨와 만중을 낳은 후 두 아들의 교육에 모든것을 바쳤다.

윤씨는 학식이 높은 녀성으로 전해지고있다. 그는 두 아들의 공부를 위해서는 그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았고 혼자서 아이들을 키워가는 구차한 살림이지만 그애들이 요구하는 책이라면 그 값을 따지지 않았다. 또한 귀한 책은 자신이 온밤 밝혀가며 등잔불밑에서 손수 베껴서 보장하였다. 그리고 《천자문》을 비롯하여 《소학》, 《사략》 등은 모두 자기가 가르쳤다.

오늘도 그들의 종아리를 치고나니 마음이 저려들었다. 윤씨는 이불깃을 다시금 꼭꼭 눌러주고 조용히 일어섰다. 그는 아들들을 뜨거운 눈길로 정겹게 바라보고는 베틀에 올랐다. 이밤으로 몇자를 더 짜내야만 래일 부탁한 책을 가져올 때 값을 물수 있는것이다. 이전에는 많은 경우 밤에 베껴주군 했지만 이제는 그들이 커가니 감당할수 없었다.

윤씨는 아들들의 잠에 방해가 될세라 가만가만 일을 했다. 어머니의 마음을 다 아는 아들들이 어느새 일어나 그 따뜻한 품에 안긴다.

《어머니, 다시는 안그럴래요. …》

아들들을 껴안는 윤씨의 손은 가볍게 떨리였다.

이렇게 그는 모진 마음을 먹고 아들들을 뜻있게 키워나갔다. 이런 정성속에서 자랐기에 그들은 후날에도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남달리 지극했다고 한다.

윤씨의 뜻대로 두 아들은 그후 모두 과거에 급제하였고 높은 벼슬에까지 오르게 되였다.

김만중은 숙부인 김익회에게서 학문을 배웠으며 27살에는 진사시험에 통과되였다.

그리고 그 다음해에는 문과에 장원으로 합격하여 처음에는 사간벼슬을 하게 되였다.

이때 그는 조선지도를 고증편찬하는 중요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그의 벼슬길이란 결코 고르롭지 못하였다. 그는 벼슬의 첫 시기에 벌써 당쟁에 말려들어 2년간의 귀양살이를 하게 되였다.

리조 19대왕인 숙종은 민씨를 왕비로 맞아들였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어린애를 보지 못하자 궁녀로 있던 장희빈을 다시 왕비로 하게 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만중이 속하였던 서인파는 왕에게 고시를 올리게 되였다. 그리고 김만중도 역시 상소문을 올리였다.

그러나 왕은 이들을 처벌하였다. 이것을 력사에서는 《기사환국》이라고 하였다.

김만중이 류배를 떠나자고 하니 오직 자식들을 위하여 일생을 바친 어머니의 여생을 마지막까지 돌보지 못하는것이 제일 가슴에 걸렸다.

《어머니, 형님도 안계시는데 저마저 떠나니 이 불효를 용서해주십시오. …》

귀양지에서도 그의 마음은 항상 어머니곁으로만 달리였다.

그는 어머니를 위하여 여러편의 시도 썼다.

해마다 어머니 생신날이면
형제 마주서서 색동옷 입고 춤을 추었건만

이제 아들 하나마저 어머니곁을 떠났으니
아, 어찌 어머니마음이 즐거우시겠는가

김만중은 류배지에서 풀려나지 못한채 1692년 5월 55살을 일기로 세상을 하직하고말았다.

그의 저서로는 22권 2책으로 된 《서포집》, 《서포만필》이 전해지고있다.

김만중의 생애에서 가장 주목되는것은 국문으로 된 소설을 창작한것이다.

그는 국문소설에 대하여 매우 진보적인 립장을 가지고있었다.

당시 량반지배계급들은 한시만을 중시하였으며 소설은 란잡한것으로 천시하였다. 그러나 김만중은 소설이라는 형식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크게 보았으며 그렇기때문에 자신은 소설을 짓는다고 하였다.

김만중은 우리 문학은 반드시 우리 글로 지어야 한다는 주장을 가지였는데 이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인간의 심정이 입을 통하여 나간것이 말이요, 그 말에 일정한 선률이 동반할 때는 곧 시, 가, 문, 부로 된다.

여러 나라 언어가 비록 같지 않더라도 사람이 저마다 자기 말로써 자기 사상감정을 선률을 통하여 표현한다면 어느것이나 다 천지라도 움직일수 있으며 귀신에게라도 통할수 있는것이다. 어찌 한문에 한정할것이냐?

지금 우리 나라의 시와 산문은 자기 나라 말을 버리고 남의 나라 말을 배우니 설사 그것이 십분 서로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다만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흉내내는데 지나지 않는다.

시골에서 나무하는 아이들이나 물긷는 아낙네들이 부르는 노래를 속된 말이라 하여 상스럽다고 하나 그 참됨과 거짓을 말한다면 이른바 학사대부들의 시와는 비교할수도 없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김만중은 당시 언어예술의 긍정면을 한문에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국문에서 찾았으며 국문시가의 작가인 정

철, 김상헌의 글들을 높이 평가하였다.

후일 그의 증손자인 김준택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회상하였다.

《서포께서는 일찍 우리 말로 글쓰는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하시면서 우리가 한문으로 글을 짓는것은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흉내내는것이라고 한탄하신바 있었다.》

이것은 김만중의 모국어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보여준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사씨남정기》와 《구운몽》을 들수 있다.

그는 소설 《사씨남정기》를 류배지에서 썼다고 한다. 소설 《사씨남정기》의 창작경위를 보면 《기사환국》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였다고 전해진다.

그는 숙종이 정실왕비를 내쫓고 궁녀인 장씨를 왕비로 맞아들인데 대하여 봉건륜리에 어긋나는 일로 불만을 품고있었고 이로 하여 류배까지 가게 되였던것이다. 그는 궁중생활을 직접 비판하지는 못하고 한림벼슬을 하는 류연수의 가정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줄거리로 하였다.

작품의 긍정적주인공은 사정옥이다.

사정옥은 량반집아들인 류한림과 결혼하여 10년이 넘도록 어린애를 낳지 못하는것을 자신의 죄악으로 여기였다.

봉건적유교도덕에 충실한 사정옥은 남편에게 첩을 맞아들일것을 권고한다.

처음 류한림은 이를 반대한다.

그러나 사정옥은 끝내 자신이 나서서 교채란이란 녀자를 후실로 맞아들인다.

교채란은 16살밖에 안되는 어린 나이였으나 원래 교활하고 흉악한 성미를 가진 녀자였으므로 그가 들어오자 집안에는 없던 랭기가 서린다.

얼마후 교채란이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정옥이도 지금까지 낳지 못하던 아들을 낳게 된다.

교채란은 사정옥을 질투하던 나머지 류씨집 서사(부자집에 고용되여 문서를 정리하고 사무처리를 해주는 사람)로 들어온 동청

이라는 협잡군과 짜고들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죽이는 무서운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기화로 사정옥을 모해하여 끝내는 집에서 내쫓기게 한다.

쫓겨난 사정옥은 친정으로 가는것이 아니라 시부모의 묘소밑에 나지막한 초막을 하나 지어놓고 묘를 돌보는것으로 락을 삼는다.

그러나 교채란은 이것까지 알아내가지고 불량배들을 보내여 사정옥을 위협하게 한다. 사정옥은 겨우 도망쳐 먼 남쪽땅으로 가게 된다.

이 시기 류한림은 교채란과 동청의 음모의 《덕》을 입어 벼슬에서까지 떨어져 귀양살이를 떠난다. 이렇게 류씨가문은 교채란이 들어옴으로 하여 풍지박산이 된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류한림이 귀양살이를 마치고 쓸쓸히 돌아오는데 벼슬에 올라 거들먹거리는 동청과 교채란이와 맞다들린다. 류씨는 악한들을 피해 큰 강에 이르게 되는데 강웃쪽에서 느닷없이 내려온 쪽배에 두서없이 오른다. 여기에는 뜻밖에도 소복단장을 한 사정옥이 있었다.

소설은 사악한자들의 간계를 모두 알아내여 밝히고 또 벼슬이 회복되여 례부상서로 된 류한림이 사정옥을 데려다 다시 행복하게 사는것으로 끝을 맺는다.

소설은 교채란을 비롯한 부정인물들의 형상과 류한림일가의 비극적가정사를 통하여 봉건제도가 얼마나 썩어빠졌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또한 한림학사라는 높은 직책에까지 있으면서 가정내부문제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류한림의 어리석은 형상을 통하여 관료배들의 무능력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제 집일처리도 바로하지 못하는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무슨 일인들 똑똑히 할수 있겠는가!

이것은 무시할수 없는 생활의 순리인것이다.

소설은 구성이 비교적 째이고 방대하며 일반적인 장편소설의 갖춤새를 원만히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성과작이라고 할수 있다. 특히 국문으로 서술한 소설이므로 그 진가가 더욱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씨남정기》는 시대적, 계급적제한성으로 하여 축첩제도의 해독성을 비판하면서도 봉건유교사상은 긍정하고있는 부족점을 가지고있다.

이것은 긍정적주인공 사정옥의 형상이 잘 말해준다. 그는 자신이 스스로 교채란을 끌어들이며 또 쫓겨나서는 집으로 가는것이 아니라 시부모의 묘소에 머무른다. 이것은 다 작가가 봉건유교교리에 동감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소설은 당시의 사회현실을 폭넓게 보여주며 봉건적축첩제도의 불합리한 리면과 지배계급들의 타락한 생활을 폭로한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 중세장편소설의 대표작으로 된다.

또한 김만중의 장편소설 《구운몽》은 랑만적인 필치로 된 작품으로서 작가자신이 어머니를 위해 류배살이를 할 때 하루밤사이에 썼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작가가 사신으로 중국에 갈 때 어머니가 재미있는 옛이야기책을 구해오라는 부탁을 하였는데 그만 잊어버리고 돌아오던중 의주에서 서울까지 가마를 타고오면서 쓴것이라는 말도 있다. 하여튼간에 둘이 다 김만중의 소설가적인 재치를 말해주는 일화인것이다.

소설은 이렇게 되여있다.

중국 당나라시대 형산이라는 산에 8선녀가 살고있었다.

이때 인디아로부터 형산에 온 륙관대사는 제자 성진에게 동정호의 룡왕을 찾아 문안인사를 하고 오도록 하였다.

성진은 룡궁에 갔다오다가 돌다리에서 8선녀와 마주치게 된다.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다.

이것을 알게 된 륙관대사는 성진에게 벌을 내리기로 한다. 그리하여 도술로써 그를 인간세상에 다시 태여나게 하는것이다. 성진은 수주고을 양처사의 아들 양소유로 태여나며 8선녀도 옥황상제의 벌을 받아 인간세상에 태여난다.

양소유는 과거에 오르며 정승으로 된다. 그리고 8선녀를 모두 처로 맞게 된다. 높은 벼슬에 올라 8명의 처를 거느리며 온갖 복을 누리던 양소유도 세월이 감에 따라 늙은이로 되고 벼슬에서 물

러난다. 역시 8명의 처도 늙은 녀인들로 변해간다.

양소유는 장차 불교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찾으려 하는데 늙은 중 하나가 나타나 짚고있던 지팽이로 란간을 내리친다. 이 소리에 놀라 깨여보니 연기가 사라진 곳에는 화려한 집도 처들도 없고 자신은 머리를 빡빡 깎은 중이였다. 그제야 그는 이것이 헛된 환각임을 깨닫게 된다.

성진은 륙관대사앞에 나가 무릎을 꿇는다.

《그래 세상의 부귀영화가 어떠하더냐?》

《대사님, 어리석은 저에게 많이 가르쳐주십시오.》

그후 륙관대사는 인디아로 돌아가고 8명의 선녀는 성진을 찾아와 도를 닦는다.

이야기거리는 별치 않으나 환상체소설로서 의의가 있다.

김만중은 류배지에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슬픈 소식을 전해듣게 되였다. 그리하여 말년에 그는 《윤씨부인행장》을 썼다. 이것은 어머니인 윤씨부인의 전기로 되여있는데 남편이 나라 위한 싸움에서 전사한 후 두 아들을 애국자로 키운 어머니에 대한 존경의 반영이였다.

이와 같이 김만중은 17세기 후반기 국문소설작가로서 우리 나라 중세문학발전에 기여한 인물이다.

풍경화가 정선

꼬끼요— 꼬끼요—

《아니 벌써 새벽이 되였는가. 얼마 그리지도 못했는데…》

정선은 닭이 막 미웠다. 등잔심지를 다시 돋구고 밖을 내다보니 과연 동쪽하늘이 훤하게 밝아오는것이다.

《오늘밤 이 바위는 다 그리자고 했는데 안되겠구나.》

이제 또 밭일을 나가야 하는 어린 정선은 밤이 좀더 길었으면 좋으련만 어쩐지 날마다 더 짧아지는것 같았다.

《얘가 또 어제밤 꼬박 새웠구나.》

어머니의 푸념이다. 그래도 정선은 그림만 그리고싶었다.

이것이 산천을 그대로 옮겨다놓았다는 호평을 받군 하였던 17세기말～18세기 중엽의 풍경화가 정선의 아이적모습이다.

정선은 1676년 서울의 가난한 선비의 가정에서 태여났는데 어려서 일찍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의 손에서 자라다나니 생활은 말할수 없이 구차하였다.

그러나 벌써 어릴 때 그림에 뜻을 둔 그는 어려운 살림이지만 그 모든것을 개의치 않고 여기에 몰두하였다. 그는 짬나는대로 붓을 들었고 일을 하다가도 땅바닥에 그림을 그렸을뿐아니라 밤에도 그림에 열중한 나머지 새우는 일이 한두번이 아니였다.

그러나 그림은 그릴수록 더 그리고만싶어졌다. 특히 그는 아름다운 산천을 그리고싶었다. 많은 화가들이 인물도 그리고 짐승도 그리고 여러가지를 그려냈지만 정선은 이 땅의 수려한 산천을 화폭에 담는것이 소원이였다.

그는 자기가 나서자란 고향산천을 바라볼 때면 이처럼 경치가 아름다운 고장에 태여난 긍지로 가슴이 흐뭇해왔다.

《야, 정말 고 여울목은 신묘한데. … 내 그려보아야지.》

그는 한생 이 산천만을 그리리라 속다짐하였다.

그 시기 량반선비들의 그림을 보면 술이나 마시면서 제 흥에 겨워 현실에 있지도 않는 추상적인 산수를 그려놓는것이 하나의 풍류로 되고있었다.

그러나 정선은 그들과는 달랐다. 그는 실지 이 나라의 산발을 누비며 정말 보기만 해도 가슴이 시원하게 열리는 산천을 그대로 화폭에 재현하기에 힘썼다. 때문에 그의 그림에는 반드시 지명이 붙는것이 특징이였다.

실례로 《박연폭포》, 《삼부연폭》, 《금강십이폭》, 《문암도》, 《동소문밖 산수도》, 《로량강도》, 《백악산도》, 《사인암도》, 《로적봉도》, 《만장암도》, 《옥봉서원》, 《림강서원》, 《명경대》, 《인왕산도》, 《대음암도》, 《고산정도》 등을 들수 있다. 그는 반드시 우리 나라에 있는 그대로의 산수를 그려냈던것이다.

정선은 자기의 그림에 당시 인민들의 향토에 대한 사랑, 민족적 자부심 등 정신적풍모를 그대로 재현하기에 힘썼다.

그것은 그가 그린 《만폭동도》를 보아도 잘 알수 있다.

그림은 전면하단에 시내물흐름이 모이는 점에서 시작하여 서로 어깨를 드러내고 기세좋게 솟아있는 산정에 이르는데 여기에서는 원근관계를 은은하게 나타내면서도 깊이와 폭을 알수 있도록 조화를 맞추었다. 그런가 하면 구도의 웅장함에 비하여 매우 안정감을 주며 가운데 흐르는 물결을 통하여 산악과 대조를 주었다. 그는 다만 몇오리의 선으로 물결을 묘사했지만 그 깊이와 속도도 어렵지 않게 짐작이 가게 하였다. 여기에 소나무들이 줄지어서고 부드러운 안개가 산중턱에까지 련련히 감돌아들게 하여 깊은 골의 정서를 한층 돋구어주었다.

활달한 필치로 방대한 심산유곡의 아름다움을 드러낸 그의 그림에는 이 땅에 대한 화가의 무한한 애정이 맥맥히 흐르고있다.

정선은 특히 금강산에 애착을 가지고 많은 그림들을 그려내였다. 그는 좁은 화면이지만 금강산의 수려한 산발을 격조높은 운률인양 줄기차게 그려냈다.

《만폭동》, 《옹천의 파도》, 《금강산전도》, 《혈망봉》, 《너럭바위》 등은 금강산그림의 대표작이다.

그는 조용한 서재에 앉아서 금강산을 그린것이 아니라 해마다 여기에 올라 곳곳을 살피였고 눈비를 맞으며 구석구석을 제발로 헤치였으며 만져보고 더듬어보았다. 어떤 해에는 몇차례씩 만폭동이며 해금강이며 구룡연이며를 돌아보고 곧장 그곳에 틀고앉아 해저무는줄 모르고 자기의 심혼을 화폭에 쏟아붓기도 하였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눈앞에 선히 떠오르는 그 신비경의 금강산을 재현하기에 온갖 넋을 다 바쳤다. 때문에 그가 그린 금강산풍경만 해도 몇백장이 넘었다고 한다.

정선의 금강산그림과 관련해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어느때인가 그의 집에서 귀한 손님을 맞게 되였는데 그림밖에 모르는 가난한 살림살이라 안해는 치마가 없어 할수없이 이웃에서 비단치마를 빌려입게 되였다. 그런데 한창 상을 차리느라고 고기국쟁반을 들고나오던 그의 안해는 문턱에 살짝 걸리는 바람에 그만에야 국그릇을 치마폭에 쏟아버리는 실수를 하였다.

《아이, 이를 어쩌나. 이 치마는 어찌한담.》

안해의 얼굴은 금시 홍당무로 되였고 손님생각보다도 치마걱정이 더욱 컸다. 아쉽게도 비단치마는 고기국물기름이 엉켜들어 얼룩이 지게 되였다.

손님이 돌아가자 안해는 치마를 급히 벗어 행주로 닦아도 보고 물로 씻어도 보는 등 무진애를 썼지만 얼룩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다.

《치마를 돌려줘야 하겠는데 이를 어쩔가?…》

새로 사자고 해도 그럴 살림형편이 못되여 참으로 난처한 일이였다. 안해는 방안구석에 앉아 한숨만 짓고있었다.

이 모습을 바라보던 정선은 안해에게 사연을 물었다.

《어찌된 일이요? 한숨만 짓고있으니.》

《글쎄 이웃집에서 치마를 빌려입었는데 그만 국물을 엎질러서 얼룩이…》

안해의 말을 덤덤히 듣고있던 정선은 이왕 그렇게 된 일이니 치

마를 뜯으라는것이였다.

안해는 큰일이나 난것처럼 안된다고 하였지만 남편은 뜯으라고 다시 일렀다.

《장을 먹어도 내가 한 독은 더 축냈겠는데 남편의 말을 들어 랑패될게 없을게요. 어서 뜯소.》

그리하여 안해는 남편이 속궁리가 있는것으로 알고 그를 쳐다보면서 치마를 뜯어 깨끗이 빨아 말리웠다. 하지만 얼룩자리는 그냥 그대로였다. 이것을 본 정선은 의미있게 머리를 끄덕이더니 그대로 잘 간수해두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며칠 아무말없이 깊은 생각에 잠겨 뜨락만 오가는것이였다.

안해는 임자가 치마를 찾을것만 같아 속이 조마조마해있는데 남편은 무엇인가 골똘히 사색에만 파묻혀있을뿐 치마말은 꺼내지도 않았다.

며칠이 지나 해가 밝게 비치고 새들이 정답게 지저귀는 이른 아침 정선은 기분이 좋아 푸른 하늘을 이윽토록 바라보더니 이어 안해를 찾았다.

《여보, 그 치마를 얼른 가져오오.》

그는 치마폭을 마루에 반드시 펴게 하고는 천천히 붓을 들어 거기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드디여 치마폭에는 금강산 일만이천봉이 거연히 솟아오르고 비단필을 늘인듯한 폭포수들과 그 깊이를 헤아릴길 없는 소들이 잠간사이에 나타났다. 천은 언제 얼룩이 졌던가싶었다. 힘을 주어 붓을 한번 당기기만 하여도 그자리는 씻은듯 자취를 감추고 천하기암절벽이 하나씩 솟아오른다. 정말 희한한 재간이였다.

옆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안해조차도 넋을 잃을 지경이였다.

정선은 치마를 빨아놓은 후 이 며칠사이에 바로 이 그림의 구도를 시종 구상하여왔던것이다.

그후에 마침 치마를 빌려주었던 옆집녀인의 남편이 볼 일이 있어 정선의 집에 잠시 들리게 되였다. 그는 들어서자바람으로 벽에 걸린 그림에 그만 정신이 온통 팔렸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금강산을 그대로 들어다놓은것 같구

만요!》
그는 참으로 솜씨가 놀랍다고 칭찬에 칭찬을 거듭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옛날 외국의 어떤 사람이 〈원컨대 고려국에 태여나서 금강산을 단 한번이라도 보고 죽는다면 한이 없겠다.〉고 하였다는데 이 그림만 보아도 우리 나라 금강산이 천하명산인줄 알게 되리다.》
그러자 정선은 자기의 구차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사실 금강산을 비단천에 그리고싶었는데 좋은 비단이 없어 그리지 못하고있었지요. 그런데 마침 댁의 부인의 치마가 우리 집에 와있는것을 보고 그림 그릴 생각이 간절해 주인의 허락도 없이 이렇게 금강산 일만이천봉우리를 옮겨놓았으니 이 딱한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아니, 무슨 말씀을. 그 치마가 이 그림의 비단천이 되였다면 정말로 다행한 일이옵니다.》
옆집의 주인은 펄쩍 뛰다싶이하면서 잘되였다고 제가 더 기뻐서 야단이다.
정선은 고맙다고 거듭 인사를 하고나서 그림을 걷어 그에게 주어보내려 하였다. 그러나 옆집주인은 굳이 사양하는것이였다.
《비단치마는 내 집의것이라 하더라도 이 그림으로 말하면 천하의 둘도 없는 보물이니 한폭의 비단을 어찌 보배에 비기오리까. 아니됩니다.》
하지만 정선은 좋은 비단에 금강산을 그리고싶던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더 바랄것이 없다면서 기어이 그림을 옆집주인에게 들려보내고말았다고 한다.
정선은 금강산뿐아니라 우리 나라의 산과 들, 이르는 곳마다를 자기 그림에 담았다. 이것은 무릇 인민들이 좋아하는 소재였기에 정선의 그림은 더욱 사랑을 받게 되였다.
그는 또한 자연을 그리는데서도 인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련관이 있는 풍경을 그림으로써 자기의 화폭속에 그들의 소박한 념원을 진실하게 재현하였다.

그는 자연을 대하는데서 그저 주위에 응당히 있는것으로 무심히 본것이 아니라 《나의것》으로, 또 《우리 나라의 산수》로 귀중히 여기였으며 그로 하여 그림에 끝없는 애정을 쏟아부었다. 때문에 그의 그림들에는 이러한 사랑이 맥맥히 살아숨쉬였으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가슴을 들먹이군 하였다.

정선의 능란한 그림솜씨는 멀리 청나라를 비롯한 주변나라들에도 소문이 났었는데 그의 많은 그림들이 봉건군주나 관료들에게 기증하는 《선물》 또는 《기념품》의 명색으로 그곳들에 넘어갔다.

하기에 청나라의 한 인사는 자기 나라에서 본 정선의 그림의 진가를 압록강을 건너 조선땅에 들어와 실지로 그 산천경개를 보고서야 잘 알게 되였다고 하면서 그의 그림재간을 《귀신의 솜씨》라고까지 높이 평가하였다.

정선은 60여년간이나 정력적인 창작활동을 벌리였다.

정선은 풍경화뿐아니라 《경서》의 삽화도 그렸고 인물화, 잡화, 초화도 그리였다고 한다.

당시 실학자였던 연암 박지원의 회상에 의하면 정선은 나이 80이 넘도록 눈이 잘 보이지 않으면 등잔불을 켜놓고서라도 정력적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털끝만치도 어긋남이 없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정선은 17세기말～18세기 중엽에 풍경화분야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함으로써 사실주의화단을 더욱 풍만하게 장식한 우리 나라의 재능있는 미술가였다.

실학자 리익

리익은 실학발전상에서 가장 륭성기를 이루었던 18세기의 전반기에 주로 활동한 이름난 실학자이다.

리익은 1681년 아버지의 류배지인 평안북도 벽동군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당파싸움에서 몰리운 아버지가 류형을 가게 되고 벼슬을 지내던 둘째형이 또한 관료배들과의 암투끝에 무참히 살해된 이후로 여기에 환멸을 느끼고 부패한 벼슬길과는 완전히 인연을 끊은 후 경기도 광주군 첨성촌에서 일생을 학문연구에 바쳤다.

그가 첨성촌에서 일생을 보낸것이 연원이 되여 리익의 호를 성호라고 하였다.

리익은 어려서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여 시문에도 능하였으며 모든 사물현상에 대한 관찰이 예리하고 그 평가에서도 정확하여 사람들을 감탄케 하였다.

리익이 활동하던 18세기 전반기는 전쟁으로 인하여 심히 파괴되였던 생산력이 일정하게 장성하고 대내외상업도 번성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한쪽에서 봉건통치배들은 생산의 발전과 인민들의 생활안정에는 관계없이 날마다 술판이나 펴놓고 공리공담을 일삼았으며 저희들의 리속이나 채우려들었다.

이 시기 리익은 자신의 체험을 통하여 관료배들이 주장하던 《주자학》을 완강히 반대하였고 실학자 류형원이 내세웠던 문제들을 이어받아 사회의 각 방면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나갔다.

그는 시골에 앉아 당시의 토지제도, 법률제도, 관직제도를 하나씩 따져보면서 나쁜 점들을 고쳐나가기 위한 안들을 제기하고 력

사, 지리, 풍속, 종교, 생물 등 많은 분야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실학을 처음으로 체계화해놓았다.

또한 천문, 군사, 문학 등 광범한 령역을 포괄하여 깊은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후세학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었다.

리익은 언제나 공리공담이 아니라 실사구시의 태도를 가지고 학문들을 연구했고 소박하게 일생을 농촌생활로 보내였으며 착취받고 천대와 멸시를 당하고있는 농민들과 빈민들의 처지에 대하여 세심히 관찰하였다.

당시는 문벌이나 교제상 가까운 사람들끼리 한개 학파를 형성하였는데 리익이 속한 학파는 《성호학파》라고 하였다. 여기에는 주로 안정복, 리중환, 정상기, 윤동규, 전합령, 신후담 등이 들어있었다.

이 시기 실학자들이 주장한 《개혁》에서 기본은 페쇄적인 봉건적신분제도를 그 테두리안에서나마 조절하여 여러 계층의 불만을 완화시키자는것이였다.

리익은 문벌제도를 증오하고 반상차별, 지방차별, 적서차별의 페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반상차별—량반과 상놈간의 신분적차별)

《지금 세상에 사는 백성들이 원통하고 울분할수밖에 없다. 그 풍속이 인재를 천시하니 유능한 사람은 반드시 물러나게 되며 그 풍조가 문벌을 숭상하니 서자, 중인의 구별이 있어서 그들은 100대가 지나도 좋은 벼슬을 할수 없다.

또 서북3도사람들의 벼슬길을 가로막은지는 이미 400여년이 되였다.

노비법이 엄격하여 그 자손은 평민과 나란히 서지 못하니 전국인구의 10분의 9가 원한과 울분에 싸여있다.

게다가 오늘날에 와서는 량반당파싸움이 공공연하게 벌어져 끼리끼리 모여서 패를 만들어 한패가 득세하면 다른 패들은 모두 구축을 당하니 이와 같은 살풍경에는 천지도 변하며 초목도 마를 지경이다.》

리익은 농민을 천시하지 말고 량반(선비)도 벼슬살이하지 않

으면 농사를 짓도록 하자는 《사농합일》사상을 제기하였다.

그는 《평등》에 대한 문제를 내놓고 이를 점차 심화시켜 노비제도를 고칠데 대해서도 진보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리익은 노비세습제가 있음으로 하여 일없이 허송세월하는 량반들이 생겨난다고 보면서 이것을 없앨데 대하여 강력히 요구하였고 노비매매를 반대하고 점차 그 소유한도를 제한하는 등 각종 방법으로 천민들에게 《면천》(《천인》의 신분을 면하는것)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것을 주장하였다.

리익은 당파가 형성되고 파벌싸움이 벌어지는것은 량반들이 저저마다 리속을 추구하는데 있으며 또한 과거시험을 함부로 실시하여 마구 등용하는데 있다고 보았다. 때문에 과거시험회수와 응시자수를 줄이고 문벌의 귀천을 따지지 말고 《어진 인재》를 공정하게 내세우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서자출신, 중인출신,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출신에 대한 차별대우도 없애야 한다는데 대하여 자기의 정당한 견해를 력설했다.

그는 재물은 하늘에서 내려오는것이 아니라 백성들에 의하여 창조되며 따라서 인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나라가 강성해질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근본문제의 해결은 토지제도의 개혁에 있다고 보았다.

그는 토지가 세력있는자, 재산이 있는자들의 수중에 많이 들어가있고 농민들이란 일년내내 힘써 일해도 지세와 조세를 물고나면 빈털터리가 되며 더우기는 그나마 남의 소작도 못하는 가난한 백성들은 살길이 없기에 이를 해결하자면 문란한 토지문제부터 개혁하는것이 시급한것이라고 하였다.

리익이 주장한 《균전법》의 내용을 보게 되면 국가토지의 표준을 정하고 그것을 해당 농가에 떼여주며 한정된 량보다 땅이 적은자는 늘일수 있으나 팔지는 못하며 자손들에게 나누어주면 오래지 않아 균일해진다는것이다.

리익은 중요하게 토지가 잘 개간되지 않고 농사를 잘하지 못하는 원인은 량반관료배들의 혹독한 착취에 있다는것을 찍었고 이를 해결하자면 농민들을 땅에 안착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나라가 번성하지 못하는것은 《여섯좀》이 있기때문이라고 밝혀놓았다.

그 첫째는 상전이라는자가 호의호식하는 노비제도이며, 둘째는 벼슬을 리용하여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것이며, 셋째는 문벌이라는 명목하에 백성들을 내려다보는 썩은 량반제도이며, 넷째는 요술과 미신으로 백성을 기만하고 재산을 랑비케 하는 현상이며, 다섯째는 로동과 병역을 도피한 승려의 무리들이며, 여섯째는 근로를 천시하고 사기와 절도에 떨어지는 라태이라고 하였다.

이 여섯가지의 좀은 도적의 해독보다도 더 크다고 지적하였다. 때문에 리익은 쓸데 없는 관료기구들을 페지하고 랑비를 없애면 토지에서 받은 세만으로도 국가경비와 관리들의 록봉은 될수 있다고 하였다.

리익은 특히 교육을 중시하였다. 그는 사람을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지 말데 대하여 강조하였으며 자녀교양에서도 그 첫 시작으로 되는 가정교양이 중요하다는데 대하여 주목을 돌렸다.

이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망아지때부터 길들이지 않으면 좋은 말이 될수 없고 어린 소나무싹때부터 가꾸지 않으면 좋은 재목이 될수 없다.》

리익은 제 자식교양을 변변히 못하는 부모는 죽은것이나 같다고 했다.

그는 아이들이 놀음에만 정신을 팔고 공부하기를 싫어하고 싸움질만 하는것을 그냥 내버려두는것은 간사한 버릇을 길러주는것이라고 하면서 가정에서 이런 버릇을 타이르지 않으면 패가망신하도록 가르쳐주는것으로 된다고 하였다. 때문에 언제나 부모들이란 자식들의 심리상태를 잘 알고 너무 엄격하게도 아니며 너무 풀어놓지도 말며 지나치게 칭찬하지도 말고 되게 욕하지도 말며 사랑하면서도 엄하게 대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리익은 나라의 안전을 걱정하여 군사분야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였다.

당시 그는 나라방비가 허술하고 병제가 문란한 원인이 군

정에 대한 과중한 착취에 있다고 보면서 군대에 대해서는 국가가 경비를 대주어야 하며 농민들도 일상적으로 훈련을 시켜 일단 유사시에는 모두가 동원되여 한몫을 맡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군역을 지는데서 다섯가지 불균등을 없애고 그 부담을 골고루 지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군대를 강화하자면 먼저 무장을 잘 준비하고 훈련을 꾸준히 시켜야 하며 특히 세면이 바다로 되여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바다방어에 힘을 넣어 18~50살의 용감한 바다사람들로 수군을 조직해야 한다고 하였다.

뿐만아니라 군사방어수단을 준비하는데서도 성곽축조, 수레, 싸움배가 중요하다는것을 들고 자신이 전함연구에 달라붙어 일정한 성과도 거두었다.

성쌓는데서는 석회, 흙, 자갈을 고르게 섞어쓰는것이 좋으며 성밖으로는 아성(기본성이 아닌 보조적인 성)을 두어 포대로 쓰자는 창발적인 의견도 내놓았다.

리익은 자연과학중에서도 천문, 수학, 지리, 생물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였다.

그는 코페르닉스의 태양중심설이 아직 동방에 이르지 못한 당시에 벌써 천원지방설을 반대하였고 가설의 형태로나마 지구가 둥글다는것을 인정하고 사람들이 지구표면에서 산다는것을 시인하였으며 지구주위에 사람이 붙어사는 리유를 지구인력의 원리로 설명하였다.

그는 《우아래사방의 물체들이 다 중심으로 향하도록》 끌어당기는 힘이 지구중심에 있기때문이라고 하면서 지구가 움직이지 않고 해와 달, 별들이 도는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마치 사람이 배를 탔을 때 배가 돌면 강언덕이 도는것같이 보이고 자기 몸이 도는것을 느끼지 못하는것과 같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지전설을 주장하였다.

리익은 여러가지 천문리론들을 연구하여 해명하고 정밀한 기구들로 관측하였으며 계산하였다고 한다.

생물학에도 조예가 깊었던 그는 자기의 저서 《성호새설》에

서 유럽의 해부생리학설을 소개하였다.

그는 또한 건살이나 물살이를 할 때보다 모를 내게 되면 그 2배의 수확을 낼수 있으며 아무리 가물어도 5～6월이면 비가 오니 그때에 모를 낼수도 있다는것을 적극 내세우면서 모내기를 장려할것을 요구해나섰다.

그는 이 시기 실사구시의 실학적학풍을 철학분야에 구현하여 실학파의 철학적기초를 닦아놓았다.

리익은 자연계의 사물현상들의 시원에 대한 견해에서 일부 유물론적인 사상들을 내놓았다. 그는 천지사이에 가득찬 사물은 모두 기아닌것이 없으며 그것은 살아도 죽어도 기이며 따라서 우주공간은 기로써 충만되여있다고 하였다.

리익은 사물의 기초를 이루고있는 이 기는 모였다 흩어졌다 하면서 끊임없이 운동하며 또한 그 기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다. 말하자면 자기의 철학에서 기의 불멸설을 내놓았다. 이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천지의 대기에 대하여 말하면 어디나 대기가 충만되지 않음이 없다. 그러므로 크고작은 사물에는 기가 차있지 않음이 없다. 가령 여기에 있는 그릇에 대기가 차있다고 하면 시간이 오래됨에 따라 그릇은 마사져 없어질수 있으나 기만은 소멸되지 않는다. 그 그릇이 백번 마사져 바뀌여도 대기가 차있는것은 마찬가지이다. 먼저 있던 대기는 없어지고 뒤에 오는 대기가 새로 생긴다고 말할수 없다. 이른바 대기는 원래 이와 같은것이다.》

이것은 소박하지만 당시에 있어서 일정한 의의가 있는것이다.

리익은 자연계의 사물현상들의 발전의 원인에 대해서도 진보적인 견해를 내놓았는데 그는 모든 사물이 시간이 오래되면 변하지 않는것이란 없다고 보면서 그것은 음기와 양기의 호상관계에서 오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하였다.

리익은 인식론에서도 자기의 견해를 내놓았다. 그는 사람이란 일반 동물들과는 구별되는 의식을 가지고있다는데 대하여 인정하면서 심, 바로 의식은 수동적인것이 아니라 능동적인것으로서 그것은 인간에게 사물을 식별판단하여 인식할수 있게 하는 능력을

주는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한개 사물의 리치를 알아내고 래일 또 한개 사물의 리치를 알아내여 리치를 캐는것을 거듭하면 지식은 발전하고 사물의 조리를 리해할수 있다.》고 하였다.

리익은 송나라의 학자 윤화정이 《경전을 읽을 때에 신기한것을 좋아하면 위험하다.》고 한 말에 대하여 신랄히 비판하면서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는 창발적인 견해와 예리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리익은 당시 문장가로서도 이름이 높았다. 그는 글짓는데서 모방주의에 빠진 일부 사람들의 작품에 대하여 《지금 사람들의 시는 선비들의 관도 빌려오고 옷과 신발도 빌려오고 그릇등속도 빌린것과 같이 비록 겉보기는 우아하여 볼만 한것 같으나 모두 제것이 아니고 이웃집에서 빌려온것이니 어찌 찬양할수 있겠는가.》 하고 비난하였다.

그는 자기의 시 《서리 맞은 콩농사》에서 여름에는 가물고 가을에는 일찍 서리가 내려 정처없는 류랑의 길을 떠나가는 농민들의 애달픈 모습을 노래하면서 이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부역과 략탈만을 더욱 들이대는 통치배들의 죄행을 신랄히 폭로하였다.

또한 시 《송충이》에서는 소나무는 어진 사람으로, 송충이는 악한에 비유하여 나무를 갉아먹듯 하는 악질관료들의 비행을 폭로했다.

다른 하나의 주제로서 시 《목화노래》에서는 농민들의 생활에 대한 깊은 동정과 함께 실사구시적인 립장을 표명하고있다.

목화 송이송이 천을 짜내서
모두가 옷을 지어 입게 됐구나
만고에 끼쳐준 고마운 그 은혜
길이길이 전하며 자랑하누나

이 나라에 그 종자 심어주신 이

묻노니 어느때 누구였더냐
사람들 말한다 모두다 같이
《강성군 문선생 그리셨다》고

제나라 흰 비단 로나라 생견사도
이제부터 그것만으로는 자랑 못하리
꽃무늬 오색채단 구름무늬 릉직들
사치한 습관에 지나지 않는다

번화한 저 거리 부자집자식들
영생토록 비단만 자랑하며 건들거리네

리익은 이와 같이 실학에서 하나의 학파를 형성하고 불철저하게나마 백성들을 위하고 나라의 발전을 위하는 학문연구에 자기의 생애를 바쳤다.

하지만 리익도 어디까지나 량반가문의 출신학자로서 봉건통치계급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그의 사상은 많은 제한성을 품고있는것이다.

그는 일생동안 시골에서 학문연구에 몰두하다가 82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리익의 저서로서는 《성호집》과 천지, 인사, 경사, 만물, 시문 등 5개의 편목으로 묶어진 130여항목의 《성호새설》(10권)이 남아있다.

자연과학에 뜻을 두었던 홍대용

오늘밤도 홍대용은 마당에 나가 별을 세였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백, …이백, …》

별은 끝이 없었다. 어떤 날에는 2천이 되는가 하면 또 다른 날에는 그 수가 넘기도 한다. 정말 이상한 일이였다.

《아버지, 저 하늘엔 별이 과연 몇개나 될가요? 어제는 2천여개가 되였는데 오늘은 더 넘어요.》

《아니, 네가 그걸 세여봤단 말이냐?!》

아버지는 금시 놀라 눈이 휘둥그래졌다. 아들이 매일밤 마당에서 중얼대기에 저녀석이 무얼 끙끙대는가 했더니만 그런 엉뚱한 일을 해왔던것이다. 생각할수록 심상치 않은 놈이라는 대답밖에 나오지 않았다.

홍대용은 아무때건 하늘에 올라가 꼭 미지의 그 수를 헤아려 보고만싶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늘에 오른단 말인가? 새들처럼 날개라도 있다면 훨훨 날아 제꺽 오르련만 나에게는 그것도 없으니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날을 따라 그의 마음속엔 우주의 비밀을 밝혀보려는 욕망이 더해만 갔다.

하늘의 별을 그리도 열성스레 세보던 소년, 바로 그 조그마한 소년기의 홍대용이 후날에는 과학자로 이름을 날렸던것이다.

홍대용은 1731년 서울의 이름난 량반의 집에서 태여났다. 그의 자는 덕보이고 호는 담헌이다. 아버지는 라주목사를 지내였다. 그는 어릴 때부터 엉뚱한 생각만 줄곧 해내여 부모들을 놀래우기가 일쑤였다.

6살부터 동네서당에서 글을 읽기 시작하였는데 다른 애들이 한줄을 외우면 그는 다섯줄, 여섯줄을 뛰여넘었다.

그뿐이 아니였다. 서당훈장에게 늘쌍 기이한 질문만 들이대여 진땀을 흘리게 만들었다. 몇십년을 두고 훈장을 하였건만 천자문의 뜻을 가르쳐달라는 아이는 오직 그 하나뿐이였다. 그것도 리치를 따져가면서 하나하나 캐고드는데 자기의 수준으로는 당해낼수가 없었다. 하나를 배워주면 다음, 또 그다음을 물으니 야단이 아닌가!

선생에게서 시원한 대답을 얻어들을수 없었던 홍대용은 12살에 이르자 자체로 사서삼경을 다 떼고 여러가지를 배웠지만 그가 알고싶은것은 저 하늘의 조화였다.

그리하여 홍대용은 시골로 내려갈 마음을 먹었다. 홍대용은 시골 사랑방에 《담헌》이라는 현판을 걸어놓고 방안에는 수백권의 책을 끌어들이였다. 그리고는 수학과 천문학연구에 몰두하였다.

때로는 여가에 논판으로 나가 농민들과 팔을 걷어올리고 함께 일도 해댔고 말타기, 활쏘기도 부지런히 하였다. 그는 연구를 위해 한밤을 지새우는 일이 드문하였다. 홍대용은 34살이 되던 해 동지사의 수행원으로 연경을 다녀오게 되였다. 그는 여기서도 발전되였다고 하는 청나라의 문물을 살피는데 여념이 없었으며 천문학과 수학의 리치를 파고들면서 그 나라의 학자들과 친숙해지기까지 하였다.

그후 홍대용은 기술자들인 라경적, 안처인 등의 방조를 받아가면서 여러가지 관측기구들을 만들었고 그것으로 자기 집의 한개 방을 내여 소규모의 관측대를 꾸리였다. 그리고 그 이름을 《롱수각》이라고 달았다. 그는 여기서 자신이 직접 하루 세차례씩 관측사업을 하면서 우주의 비밀들을 들춰내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되자 수많은 학자들과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왔다.

실학자 박지원도 그를 찾아왔다.

홍대용은 자기의 《혼천의》를 두고 설명을 하였다.

《하루는 어떻게 됩니까?》

박지원이 물으면 홍대용이 대답하였다.

《땅덩어리가 한바퀴 돌면 하루가 되는것이지요.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자 박지원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한달은 또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그야 달이 지구를 한바퀴 돌면 되는것이지요.》
홍대용은 손세를 써가며 가차없이 설명을 해댔다.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지구에서 보이는것외에 은하세계와 같은것들이 몇천만억인지 알수 없으니 우리의 조그마한 눈을 믿고 경솔하게 은하를 제일 큰 세계라고 할수는 없지요.》
홍대용은 지구를 그 어떤 특수한 존재로가 아니라 은하계를 구성하고있는 수천만개의 천체들중의 하나라고 보았다. 때문에 그는 그 시기까지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놓여있고 태양계의 중심위치에서 움직이지 않는채로 있다고 하던 지구중심설을 철저히 반대해나섰다.
이에 박지원이 선참으로 공감하였다.
홍대용은 《태양도 우주세계의 중심이 될수 없는데 하물며 지구가 중심이 될수 있겠는가?》고 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세웠던것이다.
그러면서 홍대용은 자기의 실험을 통하여 지구보다 태양을 더 중요한 천체로 보는 견해를 밝히였다. 이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사람과 일반생물의 발생과 운동은 태양의 불기운에 의존하고있다. 만일 하루아침에 태양이 없어지면 지상세계는 춥고 떨리며 온갖 물체가 소멸될것이다.》
또한 그는 지구가 둥글며 끊임없이 돌고있다는 지구지전설도 주장했다. 이것은 그 누구의 리론에서 도출한것도 아니며 오직 자신의 피타는 노력으로써 과학적인 실험을 통하여 얻어낸 고귀한 결실이였다.
홍대용은 벼슬도 높은 관직도 바라지 않았다. 오직 그는 과학연구에만 심신을 쏟아부었다.
부모들의 모진 권유로 25살적에 과거를 보았지만 성의없이 시험을 치른 그가 붙을리 만무하였다. 36살에 다시 과거에 응시했지만

그 뜻이 과거에 있지 않았기에 역시 《실패》하고말았다.

44살되던 해에 그는 특별히 보는 관례에 따라 선공감 감역이라는 말단벼슬을 차지했고 그후 사헌부 감찰로, 다시 얼마간 영천군수로도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보다도 과학연구가 더 귀중했다. 때문에 모든것을 버리고 다시 시골에 내려가고말았다.

홍대용은 그 시기 실사구시를 주장한 철저한 실학자로서 《북학파》의 기본인물이였다.

《북학파》란 이름이 생기게 된것은 이들이 주로 북쪽나라들의 앞선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나라의 생산력을 추켜세울것을 주장해나선것과 관련된다고 한다.

그들은 공리공담을 반대하고 《실용지학》, 《부국유민》, 《리용후생》에 절실히 필요되는것을 자체로 연구할것을 목적하였고 가능한껏 그 실천에 헌신하였다.

홍대용을 놓고보아도 그는 재산도 권세도 바람이 없이 오직 여기에만 심혼을 쏟아부었다. 그리하여 천문학과 수학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홍대용은 수학에서 《주해수용》이라는 저서를 내였다. 여기에서 그는 특히 원의 반경을 알고 그에 내접하는 정14각형과 정18각형의 변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결국 3차방정식을 푸는 문제), 고차방정식을 근사적방법으로 푸는 문제 등 복잡한 수학적문제들을 알기 쉽게 풀어놓았다.

뿐만아니라 일상 경제생활에서 나서는 수학문제들과 측지측량에서 제기되는 문제, 천문관측계산에서 나서는 문제들에서 자기식의 독특한 풀이법을 내놓았다. 측지측량에서는 하나의 대상을 두곳에서 측량할 때에 생기는 각도의 크기에 따라 그 대상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 지구중심으로부터 태양까지의 하지날의 거리를 알고서 동지날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 도량형의 단위를 정하는데서 나서는 문제 등 여러가지를 해결하였다.

물론 《주해수용》은 중세기수학의 틀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결함들을 가지고있으나 많은 점에서 실용수학의 수준을 갖추는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홍대용은 철학적견해에서도 새로운 주장들을 내였다.

그는 자기의 저서 《의산문답》, 《림하경륜》 등을 통하여 자신이 도달한 자연과학지식에 기초하여 유교관념론을 반대하였다. 그는 물질적인 기를 중심으로 하는 우주자연에 대한 견해를 제기했다.

홍대용은 우주공간에 가득차있는것은 오직 기뿐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태허〉는 텅 비여있는듯 하나 충만된것은 기이다. 거기에는 안팎도 없고 시초와 끝도 없으며 기가 쌓이고 널리 퍼지여있는바 그것이 모여서 응결되면 질을 이루어 허공에 두루 분포되여 돌고있으니 이른바 땅, 해, 달, 별들이 그것이다.》

그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가 났다.》고 하는 유교의 《천원지방설》에 《지구는 둥글고 부단히 운동하고있다.》는 과학적인 자기 리론을 대치시켜놓았다.

또한 그는 유교에서 하늘은 움직이나 지구는 우주 한복판에 고요히 서있다고 하는 《천운지정설》을 반대하여 지구는 우주공간에서 부단히 운동하고있는 수많은 별가운데서 하나의 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는것은 마치 우물안에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고 하는 소리와 같은것으로서 옳지 않다고 신랄히 비판해나섰다.

뿐만아니라 《령혼불멸설》에 기초한 《풍수설》도 반대하였다. 그는 살아있는 몸도 아닌 죽은 사람의 백골이 자손에게 무슨 영향을 줄수 있겠는가고 하면서 이것은 복이 아니라 화의 근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생불사》란 빈 그림자에 현혹된 사람이 허공을 그러잡으려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조소하였다.

홍대용은 나라가 가난한것은 놀고먹는자들이 많고 백성들을 가혹하게 수탈하는데 있다고 보면서 여러가지로 자기의 제안을 내놓았다.

그는 교육제도를 고칠데 대한 건의서를 내였다.

홍대용은 8살이상의 아이들을 모두 모아 공부시키고 그가운데서 재능있는 아이들은 웃학교에 보내여 관리로 키워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면에서 가르치되 뜻이 높고 재능이 많은 아이는 우로 올려보내여 조정에서 쓰고 그 성질이 둔하고 용렬한 아이는 아래로 내려보내여 전야에서 쓰며 교묘한 생각이 있고 손이 잰 아이는 장공인으로 돌리고 리속에 밝고 물화를 좋아하는 아이는 상인으로 되게 하며 꾀쓰는 일을 즐겨하고 용맹이 있는 아이는 무인이 되게 한다. …놀고 먹으면서 하는 일 없는자들에 대해서는 임금이 처벌을 주고 한동네 사람들은 내버리도록 한다.

재능과 학식이 있으면 농민이나 장사군의 아들도 조정에 앉아 외람될것이 없고 재능과 학식이 없으면 정승이나 판서의 아들도 가마군, 하인이 되여도 한스럽게 여길것이 없다.》

특히 홍대용은 교육과 관련하여 《4민개학》론을 들고나왔는데 전국의 행정단위구역을 각각 9개씩의 도, 군, 현, 사, 면으로 갈라서 설정하고 (수도는 9부) 매 단위에 학교를 하나씩 세워 아이들을 공부시키자고 하였다. 그리고 그 내용에서도 틀에 박힌것이 아니라 실지 생활에 쓸모가 있고 나라의 운영에 도움이 될수 있는것을 요구하였다.

홍대용은 《효, 제, 충, 신》 등 봉건적도덕과 활쏘기, 말타기, 글쓰기, 셈세기 등 필수과목을 가르치자고 하였다.

물론 사람의 재능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지만 노력하고 수양을 한다면 누구나 다 할수 있다는것이 그의 주장이였다.

더우기 그가 4민(사, 농, 공, 상)의 자식들을 다 공부시키며 그 가운데서 우수한자들을 선발하여 《인재본위》로 벼슬을 시키자고 한것은 당시로서는 진보적인 사상이였다.

홍대용은 또한 토지 및 조세제도에 대해서도 자기 주장을 세웠다.

그는 정전제도를 리상적인 토지제도로 간주하였다.

《정전제도를 실시하기 어렵다는것은 선배들이 이미 말하였다. 그러나 토지를 나누어주고 재산을 제정해주는 방도가 없이 그 나라를 능히 다스릴수 있다고 하는것은 다 헛된 말이다.》

그는 전국의 토지를 골고루 나누어 장정 한사람당 2결씩 받도록

하며 죽은 뒤 3년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도록 할것을 주장하였다.

홍대용은 국방에도 각별한 관심을 돌려 많은것을 연구하였다.

그는 전국을 수도와 9개의 도로 나누고 한개 도는 9군, 한개 군은 9현, 한개 현은 9사, 한개 사는 9면으로 나누어 단위마다 해당한 무력을 두며 《병농일치》, 《만민개병》(모든 사람이 다 군사복무를 해야 한다는 뜻.)의 원칙에서 전국적으로 100만명의 군대를 무을데 대하여 제기하였다. 그의 이러한 《만민개병》사상은 당시 량반계급을 비롯하여 주민의 태반이 이러저러한 명목으로 군역에서 제외되고있던 실정에서 진보적인 견해로 된다. 또한 이것은 류형원처럼 이미 있던 군사제도를 다소 조절하며 신분적차별을 많이 둔 《변혁》이 아니라 전국의 군사통수체계, 군대편제를 일원적인것으로 하며 군사적부담을 균등하게 할것을 예견하였다는 점에서 한걸음 더 앞선 견해로 된다.

또한 홍대용은 성곽시설을 비롯한 군사시설문제에서도 성돌을 상하좌우로 맞물리게 하며 꼭대기성돌부터 밑바닥성돌까지 직경 한치의 구멍을 뚫고 쇠물을 녹여부으면 매우 견고한 성이 될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성가퀴를 한길로 높여 성벽우로 자유로이 다닐수 있게 하며 옹성을 쌓는 외에 성벽의 곳곳에 벼루돌을 뒤집어놓은것 같은 감시 및 공격용시설물들을 갖추어놓아 다가오는 적을 제때에 발견하고 소멸할수 있게 할데 대한 안을 내놓았다.

그는 국방을 일상적으로 강화해야 나라를 튼튼히 보위할수 있으며 한개 나라로써 자기의 역할을 떳떳이 할수 있다고 주장해나섰다.

홍대용의 이상의 견해들은 당시 실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그는 일생동안 수학과 천문학, 실학연구를 하였다. 그러던중 52살이 되는 해인 1783년 10월 중풍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는 많은 저서들을 남기였으나 후날에 이르러 그의 자손들에 의하여 《담헌서》(14권 7책)가 출판되였다.

실학자이며 작가였던 박지원

오늘도 박지원은 어머니의 문초를 당하였다. 장난으로 얼굴에는 때물이 흐르고 옷주제는 흙탕에 매닥질하여 말이 아니였다.

《네 잘못이 무엇인지 말해보아라.》

어머니의 엄한 목소리가 방안을 무겁게 울리였다.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지나가는 동리아낙네의 물동이를 깨뜨려서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울먹울먹하는 아들애를 바라보던 어머니는 아무래도 그냥 둘수 없다는듯 시렁에서 회초리를 내리우는것이다. 박지원은 눈앞이 아뜩하였다. 시작을 하면 회초리 2~3개는 부러져야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 종아리가 또 어떻게 견디여낼것인지 알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때 마당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아마도 감영에서 나오는 모양이다. 금방 달려가 안기고싶었지만 문초를 당하는중이라 어찌할수 없는 몸이다. 어머니만 힐끔힐끔 쳐다보는데 할아버지는 박지원을 부르는것이아닌가.

《지원아, 어디 있느냐?》

《…》

《어서 대답을 해라.》

어머니의 말씀이다.

《여기 있습니다. 할아버님 인제 나오십니까?》

지원은 달려가 인사를 드린다.

《그런데 네 모양이 왜 그 꼴이냐?》

그는 대답을 못하고 어머니를 쳐다본다. 때마침 할아버지가 들어와 엄한 문초에서 벗어나게 되였으니 천만다행스러웠다.

《빨리 나가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도록 해라.》

어머니도 할수 없는듯 회초리를 다시 선반에 올려놓으며 이른다.

박지원은 나는듯이 앞내가로 달려나갔다.

어린시절의 이런 장난꾸러기가 바로 후날에는 저명한 인재로 이름을 날리였으니 인생사의 오늘과 래일을 어찌 한눈에 다 담을수 있다 하랴.

박지원은 18세기 우리 나라의 가장 이름있는 실학자였으며 작가였다. 그는 1737년 3월 서울에서 박사유의 둘째아들로 태여났다.

박지원의 자는 중미, 호는 연암, 시호는 문도라 하였다.

어려서 장난밖에 몰라 어머니, 아버지에게 가끔 문초를 당하였건만 그 부모들은 일찍 세상을 떠나다보니 박지원은 그후 할아버지의 슬하에서 남다른 사랑을 받으며 자라났다. 그의 할아버지인 박필균은 관찰사로서 성품이 청렴결백하고 정직했으며 마음에 꺼리끼는 일에는 일체 손을 대지 않는 성미였다. 모든 생활이 검소했고 오직 자신이 맡은 직책에만 충실하였다. 그리고 문장에 재주를 가지고있었다.

어릴적 박지원은 몸이 약했으므로 할아버지는 그가 장난에 팔려있어도 그냥 두었으며 서당공부도 늦게야 시켰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그를 두고 한가지를 가르쳐주면 열가지를 터득할 애라는것을 알아보았다. 때문에 강요하지도 않았다.

박지원은 가문의 풍속대로 16살의 이른 나이에 장가들게 되였다. 그는 당시 학자로서 이름났던 리보천의 딸과 결혼하였다. 결혼하면서부터 공부를 시작한 그는 남들이 10년이 걸려야 할 학문을 3년에 마쳤다. 리보천은 사위인 그에게 실학과 접촉하도록 기회를 마련해주었고 학문을 깊이 연구하도록 이끌었다.

그리하여 박지원은 점차로 현실적모순을 깨닫게 되였으며 나라의 력사, 문화를 연구하면서 제땅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게 되였다. 결과 그는 20전에 벌써 사회에서 상당한 자리를 차지하였고 반대파들과의 싸움에 나서게 되였다.

이 시기 실학사조가 발전하면서 친우, 사제관계, 문벌을 위주로 하여 두파로 갈라지게 되였다. 한개의 파는 《성호학파》라고 하였는데 여기에는 리익과 그의 친우, 제자들이 주요인물로 되여있었다.

그리고 다른 학파는 《북학파》로서 홍대용, 박지원과 함께 박제가, 리덕무, 류득공 등 당시 사회에서 서자들로서 차별대우를 받던 인물들이 속해있었다.

실학자들은 한결같이 쓸데없는 공론으로 세월을 보내는 공리공담을 반대하고 《실용지학》, 《부국유민》, 《리용후생》에 절실히 필요한 현실적인 학문을 연구할것을 지향하였으며 또 그들자신이 이 분야에서 적지 않은 성과들을 거두었다.

실학자들은 먼저 여러가지 개혁안들을 내놓았는데 박지원은 여기에서 사노비를 철폐하여 평민으로 만들것을 주장해나섰다. 이것은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억압당하는 노비들의 《해방》을 요구하는 기운이 더욱 세차가던 현실을 민감하게 반영한것이였다. 노비들을 평민으로 하여줄데 대한 그의 주장은 이 시기 실학자들이 내세운 문제에서도 가장 선진적인것이였다.

박지원은 적서차별을 없앨데 대하여서도 들고나왔으며 화폐개혁, 빈민구제문제들에 대한것도 직접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그는 정승으로 있던 자기 조카 박종익에게 이렇게 제기하였다.

《혹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혹은 계집이 사내로 되고 혹은 시집도 안갔는데 그 소생을 매기고 혹은 가짜이름인데 진짜 사람을 내여놓으라 독촉하며 두목이 이르는 곳마다 호통치고 욱박지르고 간악한짓을 하는 핑게거리로 되여있는 사노를 철저히 폐기하고 나라를 위하여 화기를 돕고 덕을 펴는데는 빨리 이 폐단을 없애는데 더 지날것이 없다.》

박지원은 토지문제에 대해서도 한 농호가 가질수 있는 토지면적을 규정해놓고 땅을 사고팔지 못하게 하며 한도액에서 넘쳐나는자들은 그것을 처리하도록 하여야 나라의 토지소유가 균등해질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이것은 봉건지배계급의 리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토지문제를 합리화하려는 불철저한것이였지만 이 문제가 매우 복잡하였던 당시의 조건에서는 그 모순을 푸는데서 진보적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그는 1799년 영농법과 토지법에 대하여 서술한 《과농소초》와 《한민명전의》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박지원은 당시 우리 나라의 농업기술과 다른 나라의것들까지 참고로 하고 자기의 실천적경험에 기초한 《과농소초》(전 6책)에서 영농기술과 영농도구들의 력사적발전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또한 그것들이 지방에 따라서 다르다는것을 밝혔다. 그는 모내기에서도 여러가지 기술적문제들을 실지 경험으로 확증하였다.

그는 보습에 대해서도 산중에서 쓰는것은 두껍고 타원으로 되여 소 두마리를 나란히 세워서 갈며 늪지대에서 쓰는것은 좁고 길게 만들어 소 세마리를 한줄로 세워 갈고 서울근처의 보습은 뾰족하고 작아 소 한마리만으로 가는것이 좋다고 하였다. 이것은 토양에 따라 차이가 있고 또 습도에 따라 다르다는 자기의 연구성과에 기초한것이다.

박지원은 농민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농민들에게 땅을 주며 또한 영농법을 깊이 연구하여 농업을 과학적기초우에서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박지원은 이 시기 발표한 자기의 글들에서 헐벗고 굶주리는 농민들을 끝없이 동정했으며 무위도식과 음풍영월로 세월을 보내는 봉건사대부들을 신랄히 규탄하였다.

박지원은 과학연구사업에도 큰 힘을 기울였다.

그는 홍대용과 함께 지구지전설을 주장했다.

《중미, 자네는 지구가 군다는것을 믿는가?》

《만약 이 땅이 허공에 자리를 잡은채로 움직이지도 않고 굴지도 않으며 그대로 둥둥 공중에 매달려있다면 즉시로 물이 썩고 흙은 죽고 모두가 썩어빠져 산산이 흩어져버리는것을 당장에 볼수 있을것입니다.》

《자네는 역시 내 말의 뜻을 리해해주는구만. 그러면 작게 보이는 저 달이 땅덩어리만 하다는것도 믿겠지.》

《제 생각은 그러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박지원의 대답은 추측이 아니라 자체의 관측과 계산에 의한 실험과학적결과에 따른것이였다.

그는 또한 썰물과 밀물현상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음력으로 그믐날과 보름날 기타 다른 날들사이에서 달라지는 원인은 지구와 달,

태양이 하나의 직선우에 놓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인력의 크기에서 차이가 나기때문이라는것을 밝혀냈다.

박지원은 실학자로서 철학에서도 역시 선진적인 사상을 내놓았다. 그의 저술인 《연암집》(17권)의 자연에 대한 견해에서는 유물론적요소들을 다분히 보이였다. 그는 자연계의 사물현상의 본질과 발전에 대하여 모든것은 물질적인 기의 산물이며 기의 운동에 의하여 변화발전한다고 보았다.

그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해나섰다.

《만물의 발생은 그것이 모두 기 아닌것이 없다. 하늘과 땅은 큰 그릇과 같은것인데 거기에는 기가 가득차있으며 음과 양이 서로 운동하고있다. 리는 그속에 있으면서 기가 그것을 둘러싸고있는데 이것은 마치 복숭아가 그 배속에 씨를 품고있는것과도 같다.》

그는 이 기를 《먼지》로 보면서 먼지와 먼지가 서로 의존하는데 먼지가 엉키여 흙이 되고 먼지가 거칠게 엉킨것은 모래가 되고 먼지가 굳어져서 돌이 되고 먼지가 습한것은 물이 되고 먼지가 더워서는 불이 되고 먼지가 맺혀져서는 쇠가 되고 먼지가 피여서는 나무가 되고 먼지가 움직여서는 바람이 되고 먼지가 끼고 기가 엉키여 온갖 생물로 되였다고 하면서 사람들도 그 여러 생물과 같은 한족속이라고 하였다. 박지원은 자연계의 모든 사물현상들의 변화발전과 그 합법칙성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모든 사물에서 운동은 고유한것이고 필연적인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모든 사물형성과정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그 시초에는 아주 작고 미미한것으로부터 점차 확대되여 큰것으로 되며 이미 형성된 물건은 반드시 쇠약해지고 쇠약해지면 낡은것으로 되고 나중에는 망하여 없어지고만다. 모든것이 오래되면 변화할것을 생각하게 되며 낡아지면 새것을 생각하게 된다.》

박지원은 자기의 유물론적인 견해에 기초하여 허위적인 종교의 세계관을 비판하였다.

또한 량반도덕의 허위성을 폭로하면서 자기의 견해를 내놓았다.

그는 량반들을 가리켜 이렇게 비판하고있는것이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분주하게 팔뚝을 휘두르며 눈알을 부릅뜨

고 잡아채고 훔치고 하지만 부끄러운줄 모르고 심한 놈은 돈을 〈형님〉이라고 하니 잔인하고 악착스러운것이 너희보다 더한것이 어디 있겠는가.》

연암 박지원의 이름은 이와 같이 여러 분야에 걸쳐 진보적인 사상을 제기하고 실천에서 의의가 큰 문제들을 연구하였다는데도 있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우리 나라의 소설문학발전에서 새로운 경지를 열어놓았다는데 있다.

18세기는 조선중세문학의 개화기였다.

이 시기 문학에서는 중세문학의 테두리에서나마 봉건사회의 분해과정의 촉진, 자본주의적경제관계의 발생발전 등 새로운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여 근대적요소들이 싹터 자라나기 시작하였다.

박지원은 우리 나라 산문문학에서 많은 글을 썼지만 소설창작에서 두각을 나타내였다.

박지원은 려행을 즐기여 금강산을 비롯한 우리 나라의 이름난 명승지들인 묘향산, 약산, 속리산, 가야산, 천마산 등을 자주 돌아보면서 조국강토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더욱 깊이 가지게 되였으며 이 과정에 백성들의 생활도 구체적으로 체험하였다. 그로부터 현실에 대한 불평불만을 품게 되였고 량반도덕의 부패성을 폭로하고 진보적인 견해와 주장들을 내놓게 되였다. 이로 하여 그는 일찍부터 량반들의 미움을 사게 되였던것이다.

박지원은 1755년 18살에 자기 집 종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소설로 옮기여 처녀작 《광문전》을 세상에 내놓았다. 이것으로 그의 창작생활이 시작되였다.

《광문전》에서 박지원은 쪽박을 차고 서울거리로 먹을것을 얻으러 다니는 어린 거지아이의 불쌍한 형상을 통하여 비록 그들이 재산과 권리도 없는 불쌍한 존재이지만 비인간적인 량반들과는 대비도 될수 없는 뜨거운 인정과 의리를 가지고있다는것을 묘사하였다.

작가는 이 주제를 《말거간전》에서 더욱 심화시키였는데 작품에서는 몰인정하고 돈과 재물밖에 모르는 량반사대부들과는 달리 가난한 백성들은 진심으로 벗을 사귀고 의리로써 친구를 얻는다는것을 보여주면서 신의가 두텁고 의리가 깊은 인간은 바로 백

성들임을 힘있게 주장하였다.
주인공 덕홍은 이렇게 말하였다.
《대관절 재산을 지니고있는 사람은 린색하다는 소문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네. 천한 사람이라야 아끼는것이 없으니까 어려운것도 헤아리지 않고 덤벼드는것일세. 왜 그런고 하니 물을 건느는데 옷을 걷지 않는것은 헌 바지란 말일세. 수레를 타는 사람은 신우에 덧신을 신고도 오히려 진흙이 묻을가 념려하네그려. 신바닥도 덧신을 아끼거든 하물며 제몸이겠나. 그렇기때문에 충성이라거니, 의리라거니 하는것은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이 할 일이지 부하고 귀한 사람에게는 의논할것이 못되네.》
박지원은 《예덕선생전》에서 인간의 로동이 고귀하며 위대하다는것을 형상하고있다.
박지원은 20대전후에 단편소설집 《방경각외전》을 내놓았다. 여기에 들어있는 《민옹전》, 《김신선전》, 《우상전》에서는 봉건제도가 인간의 독창적인 개성을 파멸시키며 그 발전을 억제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작가는 작품들에서 자기의 고유한 재능은 있으나 오직 신분적처지로 인하여 재능과 힘이 썩어가고 세상을 등지게 된다는것을 예술적형상으로 실감있게 보여주었다.
단편소설 《민옹전》은 주인공 민옹의 기발한 생각을 통해 현실의 부정적현상들을 적발하고 웃음과 신랄한 풍자로써 탐욕을 드러내면서 인민들의 고상한 도덕적우월성을 반영하고있는것이다.
특히 이 주제에서 《량반전》은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볼수 있다.
단편이라는 작은 그릇에 풍부한 사회적문제를 담아 훌륭히 형상해낸 《량반전》은 소설의 명수로서의 그의 재능을 남김없이 드러냈다.
《량반전》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글읽기만 일삼던 정선고을의 한 량반이 천섬이나 꾸어먹은 관가의 빚을 갚기 위해 부자이기는 하지만 량반이 못되여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람에게 쌀 천섬을 받고 량반칭호를 파는것으로 발단된다. 작품에서는 량반들의 허례허식과 거치장스러운 례의범절, 철면피한 략탈행위, 극심한 전

횡을 발가내였다.

소설은 량반들의 위선과 부패성에 대하여 이렇게 풍자하였다.

《량반이란 비천한 일은 일체 하지 말며…손으로 돈을 만지지 말며 쌀값을 묻지 말며 더워도 버선을 벗지 말며 상투바람으로 밥상을 받지 말며 국을 마시지 않고는 밥을 떠먹지 말며 무엇을 마실 때는 훌쩍거리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이 소설을 통하여 량반들의 허례허식, 구차스러운 《례의범절》을 드러내놓았다.

또한 소설은 《밭도 갈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고 책권이나 약간 훑으면》 벼슬을 할수 있고 벼슬은 하지 않더라도 《이웃집 소를 끌어다가 밭을 갈리고 동리백성들을 붙들어다가 김을 매일것이로되》 듣지 않으면 코에 재를 불어넣으며 상투를 풀고 살점을 허트러서 잡아들이여도 원망 못한다는 등 량반들의 기생충적인 생활과 전횡을 폭로하였다.

작가는 소설에서 각이한 성격의 인물형상을 개성이 있게 그려나갔으며 량반들의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을 통해 외형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안으로 파고들면 썩을대로 썩어 더러운 냄새가 난다는 것을 풍자의 수법으로 훌륭히 묘사하였다.

그러나 작가는 작품들에서 자신이 바로 량반이였으므로 그자체를 타도할 혁신적인 대안은 내놓지 못하였고 다만 《명예와 절개를 조심하지 않는》 량반관료배들을 비판하는데 그치고말았다.

이것이 그가 쓴 소설들의 제한성인것이다.

이 작품을 통하여 박지원은 단편구성의 뛰여난 솜씨를 잘 보여주었다.

박지원은 1780년 중국으로 가는 대표단과 함께 2~3개월간 청나라에 다녀오게 되였다. 그리하여 이 려행과정의 체험에 기초하여 《열하일기》라는 장편려행기를 쓰게 되였다.

근 4년간에 걸쳐 온갖 심혈을 기울여 집필한 박지원의 《열하일기》는 그의 진보적사상이 반영된것으로서 봉건시기 우리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려행기이다.

《열하일기》는 로정에 따르는 기계적인 기록이 아니라 기행체,

수필형식, 소설형식, 사화형식 등 그 대상의 성격에 따라 다채로운 형태로써 통일적인 려행기를 구성하였다. 이것은 이 시기 박지원의 세계관과 문학예술의 새로운 경지를 반영하고있다. 여기에는 박지원의 실학사상이 뚜렷하게 드러나있으며 중국인민들의 생활과 풍습, 과학발전수준 등 그의 탐구정신과 해박한 지식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반영되여있다.

또한 《열하일기》에는 소설의 구성을 가지고 실감있게 씌여진 작품으로서 《허생전》, 《범의 꾸중》이 들어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 문학사에서도 큰 자리를 차지하는 작품들이다.

《허생전》은 허생이 부자에게 돈을 꾸어가지고 장사를 하여 생긴 리익금으로 농민봉기군을 구제하고 그들을 무인도로 데리고 가서 살기 좋은 리상사회를 꾸리며 어영대장 리완과 담판하는 사건을 통하여 건달량반들을 없애고 그들도 모두 상업이나 농업 기타 다른 부문들에서 일하게 한다면 생산력은 더없이 발전하리라는 경제실용주의를 표현하였다.

특히 소설에서는 당시 봉건제도를 반대하여 일떠선 농민군들을 등장시켜 빈부의 차이가 없는 백성들의 리상사회를 만들려는 그들의 절절한 념원을 그려나감으로써 봉건제도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살기 좋은 사회에 대한 소박한 리상을 그리였다.

또한 《범의 꾸중》에서는 봉건사대부들의 도덕적파산에 대한 주제를 심화시킨 북곽선생의 형상을 통하여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위선적인 사고에 단호한 죽음을 선고하고있다.

《열하일기》가 나오자 량반들은 박지원을 더욱 미워하고 헐뜯었다.

음모군들은 《열하일기》가 《오랑캐이름》을 가졌다느니, 《사문란적》으로 목숨을 바쳐야 할 죄를 졌다느니, 문체가 어떻다느니 하면서 《속죄》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연암 박지원은 그 모든것을 일축해버리였다.

《열하일기》와 관련하여서는 이런 일화가 전해지고있다.

어느 달밝은 밤 박지원은 친구들과 함께 박산여의 정자로 올라갔다.

그는 자신이 뼈심을 들여 쓴 《열하일기》를 열심히 내려읽고 다른 사람들은 그옆에서 다리들을 펴고 흥미있게 듣고있었다. 그런데 그때 이 글을 듣고있던 다른 패의 박남수란자가 시비를 걸어왔다.

《선생님의 문장은 참 잘되였으나 선비들로서 쓸만한 바른 문장이 못됩니다. 한낱 이야기책투의 글귀에 지나지 않으며 패관문학따위 기괴한 글로 되였으니 이것으로 하여 고전적인 옛글이 흥성해지지 못할가 두렵소이다.》

말투는 평이하였으나 그 속심은 그런 잡스러운 글때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적인 옛 문장이 쇠퇴된다는 비난이였다.

박지원은 금시 기분이 흐려졌다.

《네가 뭘 안다고 나서서 잡소리를 치느냐!》

박지원의 말에 박남수는 지지 않으려 달라붙으면서 이런 잡스러운 글은 없애버려야 한다고 뇌까려댔다. 그는 술기운이 얼근한것을 구실로 《열하일기》를 잡아채여 초불에 대려 했다. 이 위급한찰나에 옆의 한 친구가 급히 일어나 막아나서면서 책을 나꿔챘다.

그리하여 력사에서 자취를 감출번 했던 《열하일기》는 위기를 모면하고 보존되게 되였다.

그날저녁 그는 누운채로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아침이 되여서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상우에 있는 술잔을 집어들고 서글픈 목소리로 좌중의 기분을 돌려세우면서 너그러운 도량을 보이였다.

이와 같이 그의 글과 관련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남아 전해지고있다.

그가 창작한 작품으로는 현재 40여편의 시와 9편의 소설 기타 려행기, 수필, 정론적산문들이 남아있다.

박지원의 대표적시편으로는 그가 1764년 금강산과 동해안일대를 려행하면서 조국산천의 아름다움에 대한 긍지를 담아 노래한 시 《총석정의 해돋이》와 농민들의 생활을 반영한 《농사집》을 들수 있다.

시 《농사집》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있다.

할아범 새를 보러 밭머리에 앉았건만
개꼬리같은 조이삭엔 참새가 매달렸네
맏아들 둘째아들 들일로 다 나가고
해종일 농가집은 삽짝문 닫혀있네

소리개 병아리를 차려다 못챘지만
박꽃 핀 울밑에서 뭇닭이 야단만 치네
새아씨 합지이고 내 못건너 하는데
누렁개 발가숭이 앞뒤로 쫓아가네

박지원은 이처럼 20대에 진보적인 사회정치적견해들을 내놓은 실학의 중심인물로, 문학사에 기록될 우수한 작가로 알려졌다. 하여 많은 청년들이 그에게서 배우려고 찾아들었다.

그의 제자로서 이름있는 사람들은 박제가, 리덕무, 류득공, 리서구 등의 학자들을 들수 있다.

이들중 앞의 세사람은 당시 사회에서 차별대우를 받던 서자들이였다.

박지원과 그의 제자들이 내세운 실학사상은 국왕 정조와 보수적인 량반통치배들의 반대와 압력에 부딪쳐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특히 1801년 카톨릭교신자탄압사건(《신유사옥》)을 계기로 그에 대한 량반통치배들의 공세는 더욱 강화되였다.

그리하여 그는 양양부사의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가 독서로 세월을 보내다가 1805년 68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이처럼 박지원은 우수한 문학작품들을 적지 않게 창작하고 진보적인 사회정치적견해도 내놓은 이름있는 작가였으며 실학자였다.

그러나 그는 계급적 및 시대적제한성으로 하여 봉건왕권자체를 부정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량반계급의 립장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가 쓴 글, 책들은 《연암집》(57권)에 종합되여 오늘까지 전해지고있다.

풍속화가 김홍도

단원 김홍도는 15세기의 화가 안견과 함께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였을뿐아니라 필치가 힘있고 아름다운것으로 하여 리조시기의 사실주의화단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김홍도는 조선화에서 새로운 창작분야인 풍속화령역을 개척한 화가로서 조선회화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김홍도는 1760년 서울에서 출생하였다. 김홍도가 생존한 당시로 말하면 실사구시의 학풍이 보수적인 유교정신을 누르고 발전하고있던 시기였다. 뿐만아니라 미술분야에서는 안견(15세기), 신사임당(16세기), 리상좌(16세기) 등의 출현을 바탕으로 하여 눈부신 전진을 보던 때였다. 인물화분야에서 김두량, 김득신, 신윤복들이 활약하고있었으며 풍경화분야에서는 정선에 뒤이어 심사정, 리인문 등이 자기의 뚜렷한 얼굴을 가지고 우리 나라 회화를 발전시켜나가고있었다.

단원 김홍도는 이러한 시기에 우리 나라 회화의 우수한 전통을 집대성하고 더욱 발전풍부화시킨 화가라고 볼수 있다.

김홍도는 어린시절부터 그림을 잘 그려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으며 벌써 15～16살때는 당당한 화가로서 그와 견줄이가 별로 없었다.

원래 인물이 환하고 성격이 너그러웠으며 또한 겸손하고 소박했던 김홍도는 그 좋은 측면으로 하여 친구가 많았으며 사람들의 커다란 사랑을 받고있었다. 그는 인물화, 산수화 등에 모두 능하였는데 그중에서도 특징적인것은 신선(인간세계를 떠나 온갖 고통, 질병 또는 죽음이 없이 산다는 상상적인 사람)을 잘 그렸다고 한다. 특히 강조해야 할 점은 그가 그린 그림은 하나와 같이 생동하고 생활의 진실이 반영되여있는것이였다. 그중에서도 그의 능란한

기질이 유감없이 발휘된 분야는 인물화이다.

당시 봉건량반들은 그림을 그려도 우리의 아름다운 산천과 우리 인민의 생활을 그리는것이 아니라 덮어놓고 중국의것이나 또는 다른 나라의것만을 추구했다. 또한 옛것을 숭상하였으며 현실에서 숨쉬는 인간보다도 감상적인 산수화나 그리였다.

17살때 벌써 궁중화가로 뽑힌 김홍도는 자기의 감정보다도 봉건량반들이 요구하는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밭에서 일하는 백성들에 대한 따뜻한 감정을 가지고 그들의 근면한 로동생활과 락천적이며 소박한 성품을 자기의 수많은 작품들에서 풍속주제로 하였고 이로 하여 사실주의회화발전에 기여하였다. 그가 그린 인물들은 어디까지나 혈관에 피가 흐르는 근로하는 현실적인 인간들이였다. 봉건정부의 《도화서》에 근무하는 종속된 몸이였지만 그는 언제나 자기 식의 인물을 살려내고야말았다.

김홍도는 소박한 필치로 농민들의 생활을 주제로 한 많은 인물화들을 그렸는데 여기서도 같은 시대 인물화가들과는 달리 매 인물들의 풍부한 정서와 생활을 담기에 노력했다.

그는 량반관료들의 부패타락한 생활을 증오하였으며 농쟁기를 들고 일하는 농민들의 생활과 감정에 무한한 애착을 보내였다.

때문에 김홍도의 업적을 들면 중요하게 소박하고 근면한 인민들의 현실적인 생활을 생동하게 묘사한것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그는 인물성격창조에서 진실성과 심리묘사의 예리성, 표현적인 구도와 독특하고 힘있는 선에 의한 소묘의 효과성으로 하여 특징적이다. 그는 종래의 낡은 틀을 마스고 새로운 형상수법을 창조하였는바 그림의 중심에 언제나 인물을 배치하고 년령심리적성격에 맞는 특징적인 자세와 운동, 표정을 포착하여 그려냄으로써 내용을 한층 돋구어주었다.

또한 함축성있고 힘있는 선으로 처리한것이 특징적이다. 특히 활달하면서도 섬세한 필치, 탄력있는 선에 의한 대상의 묘사는 화가의 능숙한 붓놀림을 잘 드러내고있다.

김홍도의 남아있는 그림들로는 《집짓기》, 《야장간》, 《서당》, 《씨름》, 《약초를 캐고서》 등 많은것을 들수 있다.

김홍도의 대표적성과작의 하나인 《씨름》은 승부를 겨루고있는 씨름군들과 구경군들의 다양하고도 개성적인 형상을 통하여 우리 인민들이 쉬는 날이나 명절날 또는 쉴참의 한때에도 즐겨하던 민속놀이의 한 장면을 생동하게 묘사하였다. 화면에는 구경군들이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는 가운데 이를 악물고 상대방을 들어넘기려는 씨름군의 모습과 이에 절대로 지지 않으려고 안깐힘을 쓰는 상대방씨름군의 모습을 긴장된 극적정황속에서 형상하였다.

또한 누가 이길가 하는 생각으로 두눈을 부릅뜨고 씨름군 못지 않게 긴장되여있는가 하면 몸을 뒤로 제끼고 통쾌하게 웃어대는 인물도 있으며 손을 들어 이렇게 또는 저렇게 훈수를 하며 훈수를 하는데도 듣지 않으니 이제는 맥이 나서 벌렁 나가넘어지는이도 있다. 또한 얼굴을 부채로 가리우고 슬며시 바라보는 인물도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의 락천적이면서도 각이한 성격을 집약적으로 드러내고있는것이다.

그리고 또하나의 형상으로서 그토록 긴장한 씨름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듯 픽 돌아서서 머리를 치켜들고 엿을 팔기에만 정신이 팔린 더벅머리 엿장사총각의 모습도 역시 이채를 띠고있다.

이와 함께 벗어놓은 씨름군들의 신발 또한 시선을 끄는 세부이다.

이처럼 김홍도의 《씨름》은 원형구도로서 선묘(사물의 형태를 주로 선으로 그리는것), 담채(색을 연하게 칠하면서 그리는것)의 수법을 조화롭게 리용하여 성과를 거둔 작품이다. 좁은 장소에 많은 인물들을 배치하였지만 안정감과 시원스러운 여유를 주는 공간묘사의 수법은 화면의 폭을 넓혀주고있다.

조선화 《씨름》은 18세기 우리 나라 인물풍속화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명화로 꼽히고있다.

김홍도의 작품에서는 묘사기량도 자기 특유의것을 썼는데 선을 그을 때 농담(짙음새)의 차이를 주면서도 굵은 선과 연하고 가느다란 선을 재치있게 교차해서 활용하여 인물의 심리세계를 그려내고있다. 그러면서도 화면에서의 조형미를 한층 올려주고있다.

단원 김홍도의 능란한 회화술에 대하여 조희룡(리조후기의 화가)

은 자기의 저서인 《호산외사》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어느날 김홍도는 벽에다 〈해상군선도〉를 그리게 되였는데 시중군에게 먹을 갈게 한 다음 갓을 벗고 옷깃을 여미고서서 벽면을 오래동안 바라보며 구상에 잠기다가 이윽고 붓을 들자 폭우같이 순식간에 작품을 완성하니 물과 구름의 움직임과 인물들의 모습이 생동하게 벽면우에서 가득히 피여났다고 한다.》

그림 《집짓기》는 근로인민들의 생활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로동생활을 진실하게 형상하려는 화가의 의도가 가장 뚜렷이 발현된 작품이라고 할수 있다.

화가는 화면에서 농촌마을들에서 흔히 볼수 있는 새 집짓기가 한창인 장면을 형상하였다. 화면좌측에 배치된 새 집은 벌써 골격이 다되고 기와와 흙을 던져올려 완성단계에 이르렀는데 미장을 하고 또 한편에서 대패질에 여념이 없는 목수 등 모두가 자기의 뚜렷한 모습을 가진 인물들이다.

올려던진 기와를 받아놓기에 열중한 나머지 옷고름이 다 풀어진것도 모르고있는 인물이며 일군들이 흥이 나서 일하는 모습을 재미나게 바라보기에 여념이 없는 령감의 모습도 개성적이다.

그림에는 근면하고 소박한 농민들에 대한 화가의 성근한 감정이 그대로 반영되여있으며 그들을 대하는 기분이 확연하게 안겨진다. 화가는 집짓기에서 가장 절정에 이른 장면을 선택하여 화면에 옮김으로써 보는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이것은 화가자신이 그 생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수법은 조선화 《야장간》에서도 볼수 있다. 작품은 야장간에서 벼림질하는것을 묘사하고있는데 둥근 쇠모루가 한가운데 배치되고 늙은이가 집게로 쇠쪼박을 쇠모루우에 올려놓게 되면 동시에 젊은이들이 메를 들어 휘둘러치는 장면의 그림이다. 메를 잡은 두 인물의 중심중력이 정확하게 설정되고 그 휘둘러치는 원운동은 금시 보아도 당장 빙글빙글 돌아가는것으로 보이도록 함으로써 률동의 세심한 묘사를 주었다. 그리고 저편 뒤쪽에서 열심히 풀무질을 하는 젊은 청년과 숫돌에 대고 칼을 썩썩 갈고있는 총각의 모습도 인상적이다. 여기에서는 인물배치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면서

자기들의 성격을 나타내고있으며 쇠를 벼리는 긴장한 한순간을 해부학적으로 세부에 이르기까지 묘사했다.

《춤》도 역시 인민들의 락천적인 생활을 구김새없이 드러내였다.

작품은 장구를 치고 북을 두드리고 피리, 저대, 새납을 불어대면서 흥성거리는 춤판을 그린것이다. 여기서는 춤추는 주인공과 함께 어깨를 으쓱대는 풍악쟁이들의 세련된 동작도 표현적이다. 그리고 《마당질》에서도 화가는 농민들의 힘겨운 낟알털기작업을 중심에 주면서 반면에 좋은 삿자리를 깔고 담배대를 물고 늘어져 감시하는 지주놈의 몰골을 대조시킴으로써 그들사이의 모순을 웅변적으로 드러내고있다.

이와 같이 김홍도는 인물화에서 근로하는 인민들의 생활을 선명하게 묘사하는데 주되는 관심을 돌리였다. 때문에 그가 그려낸 인물들은 모두가 소박하고 락천적이며 굳센 의지의 소유자들이며 한결같이 로동속에서 형상되였다.

김홍도의 그림들은 극히 단편적인 화면들이지만 인민들의 생활을 누구보다도 깊이 파고들어 보여주었을뿐아니라 그 당시까지만 하여도 없었던 풍속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김홍도의 그림들은 그 시기 그 누구도 손을 대보거나 주의를 돌린것이 없는 새로운것이였다.

그는 자기의 그림들에서 당시의 계급적모순을 예리하게 발가놓지는 못하였으나 근로하는 인민을 자기 작품의 주인공으로 하였으며 그들의 아름다운 생활을 깊이 반영하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김홍도는 먹으로 그림을 그리던 리조시기 회화의 제한성에서 탈피하지는 못하였지만 당시의 고루한 테두리에서 벗어나 풍속화라는 새로운 경지를 열어놓은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 회화미술발전에 기여하였다.

나라를 위해 한생을 바친 박제가

박제가는 18세기 발전된 과학과 상업류통을 주장한 실학자로서 널리 알려지고있다.

박제가는 1750년 11월 서울에서 박평의 서자로 태여났다. 그는 신분이 량반이라고는 하였지만 서자출신이였기에 일생을 불우한 처지에서 보내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 시기로 말하면 서자에 대하여 특히 천대하고 멸시하였기때문이였다. 그나마 11살에 잡히던 해에는 이따금 집에 들리군 하던 아버지마저 급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니 더욱 믿을 곳이 없어졌다.

어머니의 눈물나는 삯바느질과 남의 집 일을 해주는것으로 겨우 목숨을 부지해가는 기막힌 형편이였다.

하건만 박제가는 머리가 총명하여 어릴 때부터 마을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점차 크면서 시에 밝고 글씨 또한 명필이여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그리하여 리덕무와도 친구가 되였고 당시 실학자로서 이름있던 연암 박지원의 지도도 받으면서 실학에 접촉하게 되였다.

이런 환경으로부터 박제가는 누구보다도 현실에 대하여 예리하였고 빈곤한 농민들과 서민들의 생활에 동정을 보내게 되였다.

그는 어머니의 다함없는 사랑속에서 여러 방면에 걸쳐 지식을 가지게 되였다.

그는 벌써 20대에 이르면서 선진적인 실학자로 나서게 되였다. 때문에 박제가는 이 시기 비굴한 봉건관료배들의 위선에 대하여 날카로운 눈초리를 돌리였고 빈궁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구원할 해결책으로서 공업과 수공업을 발전시키며 상업과 대외무역의 장려를 주장하였다.

그는 서자들이였던 리덕무, 류득공들과 활발히 교제하면서 자기

들의 울분을 터놓기도 하였으며 더우기는 나라를 선진국으로 일으켜세우기 위한 문제들을 활발히 토론하군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소박한 소원이였을뿐이였다.

그런데 다행히도 정조왕이 왕위에 오르면서 서자들에 대한 견해도 약간 달라졌다. 그는 서자들중에도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을수 있다고 보았던것이다.

23살때 벌써 《초정집》이라는 자기의 문집을 제출하여 사람들의 절찬을 받고있던 박제가는 정조왕의 우대를 받아 규정각(궁중의 도서관)의 검서관으로 뽑히여 도서고증과 편찬사업에 참가하게 되였다. 이 과정에 그는 세차례에 걸쳐 사신의 수행원으로서 청나라를 다녀오게 되는 기회를 가지게 되였다.

그는 그곳의 많은 학자, 문인들과 접촉하면서 견문을 넓혔을뿐아니라 우리 나라의 우수한 문화도 널리 소개함으로써 그들에게 새로운 인식을 주게 되였다. 그는 청나라의 문물들을 살피면서 우리보다 앞선것들은 빨리 도입하여 은을 내도록 하려고 부지런히 목책에 적어넣었고 두번세번 다시 보았다. 특히 유리를 만드는 공장과 벽돌을 만드는 공장이 인상깊었고 수레를 리용하여 짐을 나르는 것도 마음에 들었다. 이것들을 우리도 한다면 사람들의 집을 좋은 벽돌로 짓고 안을 들여다볼수 있는 유리로 창문을 장식할수 있지 않겠는가?

박제가는 한시바삐 이것을 해보고싶었다.

한편 그의 시들은 그곳 문단에 소개되여 찬양을 받게 되였고 그 과정에 여러 학자들과도 친교를 맺게 되였다.

후일 그는 그곳에서 보고 느낀것을 《북학의》라는 책에 묶어 내놓았다. 그는 여기서 청나라의 우차, 성쌓기, 배를 뭇고 운영하는 문제, 벽돌로 집을 짓는 일, 농사와 누에치기, 상업과 대외무역, 지어 과거제도문제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히였다. 뿐만아니라 상업의 중요성과 함께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도 할데 대한 의견도 제기하였다.

하지만 이것이 조정관리들의 귀에 들어갈리 만무하였다.

정조왕은 《너의 의견은 잘 알았다.》하는것으로 그치였다.

특히 이 시기 박제가가 주요인물로 되여있던 《북학파》는 북방나라들에서 앞선 기술을 배워 우리의 락후성을 없애고 백성들의 살림을 보다 유족하게 하자는데 대하여 정부에 강력히 제기하고있었다. 박제가는 우리가 못살고 뒤떨어진 원인은 생산과 상업이 발전하지 못한데 있다고 보았다. 그는 우리 나라로 보면 사방이 수천리나 되고 백성들속에 이름있는 인재도 많고 토산물도 갖추어지지 않은것이 별로 없는데 백성이 잘살지 못하고 나라가 허리를 펴지 못하는것은 바로 이 풍족한 부원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정부가 경제발전에 주의를 돌리지 않으며 그 방도부터 똑똑히 세우지 않는데 있다는데 대하여 론리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는 남들은 같은 면적의 땅에 세고랑을 내는데 우리는 두고랑을 낸다면 벌써 3분의 1을 거저 잃는것으로 되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적은 씨를 뿌리고도 비배관리를 잘하였기에 많은 수확물을 거두는데 우리는 많은 씨를 뿌리면서도 잘 가꾸지 못하니 적은 수확밖에 내지 못하므로 실지로는 경지면적의 몇분의 하나밖에 가지지 못한것으로 된다는것을 자기의 저서 《북학의》에서 지적하였다.

그는 또한 누에치기, 실낳이, 벼알털기, 목화씨뽑기를 포함하여 농업과 수공업 등 여러 분야에서 앞선 기술을 받아들이면 몇배로 생산할수 있다고 《농잠총론》에서 밝혔다.

박제가는 외국의 침략을 다시 받지 않고 큰 나라들앞에 굽신거리는 비굴한 태도를 청산하려면 반드시 나라의 부강발전을 이룩하는것이 중요하며 그렇게 하자면 조금이라도 앞선 경험은 다 배우고 따라잡아야 한다고 하였다. 박제가는 여기에서 바로 통치배들이 떠드는 《존명사대》를 배격하고 청나라의 발전된 기술과 문화를 허심하게 받아들여 도입함으로써 나라의 부강과 백성들의 복리를 가져와야 한다는것을 주장하였다.

이런것은 당시의 조건에서 선진적이며 진보적인 견해였다.

때문에 박제가는 백성들의 생활에 관심이 없고 머리조차 돌리지 않는 관료배들을 꾸짖었다.

《지금 민심은 날로 곤궁하고 재정은 날로 궁핍한데 사대부로서

어찌 수수방관하면서 이것을 구원하려 하지 않는가? 또 옛것만 따르면서 홀로 잘 먹고 전혀 모르는체 하는가?》

그는 이 시기 국력의 침체와 산업의 쇠퇴, 백성들의 생활이 령락되고있는 문제를 분석하면서 그 근원을 이렇게 지적하였다.

《이렇게 그 의식(입는것과 먹는것)이 넉넉치 못하며 재화가 통하지 못하게 된 원인은 학문이 과거제도때문에 발달하지 못하고 기풍이 문벌에 속박되여 견문이 넓어질수 없으며 재주와 지식이 열릴수 없기때문이다. …

그렇기때문에 랭전에 쓰기를 옳은 덕은 오직 리용후생에 있다고 하였으며 재부를 생산하는데 큰 원칙이 있으니 일을 하는자는 생산속도를 빠르게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빨리 일을 한다는것은 생산기술을 유리하게 리용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며 리용후생을 한다는것은 의식을 넉넉하게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박제가는 평범한 백성들속에서 우수한 인재를 뽑아 등용할것을 강경하게 요구하였다.

그는 《한가지 재주나 한가지 기술이 있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추천하며…》 신분은 비천하나 훌륭한 포부를 가진 인재들을 모두다 조정에 등용해야 한다는데 대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건의서를 내였다.

박제가는 특히 상업을 매우 중시하였다.

그는 《상업은 4민의 하나이며 하나로써 넷을 통하게 하는것만큼 10분의 3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면서 그 시기 량반계급들이 장사군이라고 상업을 천시하는것은 그릇된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상업이 발전하게 되면 우리 나라의 풍부한 물산으로써 유무상통하며 그에 따라 수입이 늘게 될것이고 생활이 넉넉해지고 또한 사람들의 문화수준도 높아지게 될것이라고 보았다. 때문에 박제가는 금속화폐를 널리 류통시키고 수레, 배에 의한 교통운수도 발전시키며 수공업도 중시하며 더우기는 대외무역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해나섰던것이다. 여기에서도 린근인 청나라와의 통상무역을 발전시키자고 하였다. 그는 무역을 하면 우리 나라의 특산인 무명, 모

시, 해산물들을 가지고 청나라의 비단과 약재들, 무기 등과 바꾸어 올뿐만아니라 견문을 넓히게 될수 있다고 하였다.

박제가는 의학과학연구에도 관심을 돌렸으며 그 시기 성행하던 천연두를 막기 위해 정약용과 함께 몇밤을 지새워 끝내 종두술연구에 성공하였다. 이것은 우리의 의학발전사에서 큰 공적으로 되는것이다. 이와 같이 박제가는 봉건관료배들의 우민화와 보수적인 쇄국정책을 타개하고 새로이 변천된 현실적요구에 맞게 나라의 과학기술과 생산력, 국방력을 추켜세워보려고 일생을 다 바치였다.

그러나 박제가의 진실한 주장은 통치배들의 기분만을 거슬리였다. 이를 시끄러운것으로 생각한 봉건관료배들이 그를 가만둘리가 없었다. 더우기 1800년 6월 정조왕이 사망하고 보수파들이 재집권함으로써 그는 잡힌 몸이 되였으며 악형끝에 겨우 목숨이 붙어 함경도로 귀양을 가게 되였다.

이때 그의 스승이였던 정약용도 《신유사옥》으로 류배를 떠나게 되였고 실학을 주장하던 여러 친구들이 함께 벌을 당하게 되였다.

나라의 부강발전과 백성들의 살림을 펴보려고 그토록 애쓴것이 죄가 되였던것이다. 낯설은 북쪽땅에서 외로운 가슴을 부여안고 한생을 돌이켜보는 박제가의 마음은 걷잡을수 없었다. 그래도 나라가 앞으로 나가자면 자기들의 주장이 십분 옳았다고만 생각되였다. 농업도 상업도 기술도 무역도 하여야만 될 일이 아닌가.

박제가는 수년후에 귀양살이에서 풀려났지만 생활이 너무도 빈곤하고 더우기는 서자라는 불우한 처지로 하여 자기의 뜻을 다시 펴보지 못한채 1805년 한스러운 한생을 마치고말았다. 그의 저서로서는 《북학의》가 있고 그밖의 문집으로 《초정집》, 《정유각집》이 전한다.

실학의 대표적인물 정약용

18세기말～19세기초 실학자이며 작가인 다산 정약용은 1762년 8월 경기도 광주군 초부면 마현리에서 정재원의 넷째아들로 태여났다.

정약용은 자를 미용, 송보라고 하였고 호는 다산, 여유당이라 불렀다.

이름있는 실학자였고 작가로 불리웠던 정약용은 어려서부터 유교교육을 받았다. 아버지를 따라 서울로 올라온 그는 리익의 손자인 리가한과 사돈간이였던 리승훈의 영향을 받으면서 점차 실학에 뜻을 두었으며 천문, 지리, 력사, 의학, 농업, 수리기술, 측량 등 과학연구사업을 벌리게 되였다.

정약용은 선행시기 이름있는 실학자들이였던 리익, 박지원, 홍대용 등의 저서들을 읽으면서 실학의 세계에 깊이 들어서게 되였고 박제가, 리덕무 등 학자들과의 교제과정을 통하여 이에 더욱 공감하게 되였다. 때문에 그는 이 시기에 벌써 《신아지구방》(낡은 우리 나라를 새롭게 하자)의 지향을 품게 되였다. 그리고 《일가지언》(자기 독자적인 학설)을 창조하려는 포부와 탐구로 청춘의 가슴을 불태우기도 하였다.

정약용의 사물에 대한 관찰과 분석, 사고력은 어려서부터 크게 두드러졌는데 이런 일화가 전해진다.

그가 어려서 《산》이라는 글자를 넣어 짧은 글을 지은적이 있었다.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리웠어요
멀고 가깝기가 다른 까닭이지요

7살 어린아이의 글치고는 너무도 사물에 대한 관찰과 분석판단이 정확하였다.

하기에 사람들은 현상의 본질을 명확히 탐색하려는 그의 재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이다음 큰 인물이 될것이라고 떠들었다.

정약용은 27살이 되던 해인 1789년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들어섰다.

정약용의 사회활동은 1801년을 계선으로 하여 두 시기로 나누어 볼수 있다.

첫 시기는 주로 학자로서 벼슬을 하면서 실학의 리념을 구현해보려고 하던 시기이다.

그때 그는 홍문관 수찬을 거쳐 사헌부 지평, 사간원 정언, 병조참의, 곡산부사, 형조참의 등의 벼슬을 지내였다.

봉건관리로 있는 기간 그는 《인재책》, 《기민시》, 《응지론농정소》 등을 내놓았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봉건제도의 불합리한 측면들을 비판하고 《어진 왕의 어진 정치》를 실시할데 대하여 썼다.

1801년의 《신유사옥》(카톨릭교신자들에 대한 탄압사건)을 계기로 카톨릭교도들과 내통했다는 루명을 쓰고 통치배들의 미움을 산 그는 근 18년이라는 기간 경상도 장기, 전라도 강진 등지에서 정배살이를 하였다.

귀양살이기간을 통하여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직접 보게 된 그는 봉건제도의 각종 《페단》과 불합리한 측면들 그리고 량반관료배들의 전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게 되였다.

18년간의 류배살이는 정약용에게 있어서 참으로 귀중한것이였다.

정약용은 그곳 백성들과 허물없이 지내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그는 어느 한 음식점에서 백성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 주인이 낟알쭉정이를 고르고있는것을 보게 되였다.

정약용이 주인에게 사연을 물으니 마을창고를 맡아보는 아전이 돈을 주면서 부탁하더라고 사실대로 대답해주었다. 정약용은 짐작되는바가 있어 그 아전의 동생집에 가보았다. 거기에서도 역

시 쭉정이를 고르고있었다.

정약용은 창고를 보는 아전이 나라의 쌀을 훔쳐 팔아먹고는 부족되는 량을 쭉정이로 보충한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는 이 사실이 확인되자 아전의 철면피한 비행을 폭로하는 글을 썼다.

이렇게 그는 류배지에서 많은 사실들을 보고 듣고 느끼게 되였으며 봉건관료배들의 비행에 대하여 더 큰 증오심을 품게 되였다.

그리하여 그는 이 시기에 《낡은 우리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애국적념원에서 출발하여 토지제도, 통치기구, 통치방법에 대한 여러가지 《개혁》안을 구상하였고 철학, 력사, 문학, 사회정치 등 여러 부문의 학문을 직심스럽게 연구하여 많은 글들을 내놓았다.

대표적인 저작들로는 《목민심서》, 《경세유표》, 《대동수경》, 《아언각비》, 《흠흠신서》, 《애절양》, 《송충이》, 《더운 날에 술을 마시며》등을 들수 있다.

정약용은 이 시기 실학을 종합정리하고 최한기에 이르러 근대적계몽사상에 접근시키였으며 개화사상발전에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그의 글들에 일관되고있는것은 봉건유교적《애민》이며 유학에 실천적의의를 부여하면서 자기의 정치적《개혁》론을 주장하려 한것이다.

그는 이렇게 썼다.

《진정한 유학이란 본래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히 하고 외적을 물리치고 국가재정을 유족하게 하며 학문과 군사기술에 능통하여 무엇이든 감당 못하는것이 없도록 하는것이다.》

정약용은 학문연구의 목적을 《부국유민》(나라의 부강과 백성들의 유족한 생활)을 위한 실용에 있다고 하였다.

때문에 빈말공부가 아니라 철저히 《리용후생》을 주장했고 발전된것은 외국에서라도 배워야 한다고 하였다.

정약용의 학풍에서 특징적인것은 자기 나라의것을 깊이 연구하며 사대를 반대한 애국적립장이다.

그는 자기 아들 연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 나라 사람들은 걸핏하면 중국의 고사만을 사용하니 이 역시 비루한 문풍이다. 응당 〈삼국사기〉, 〈고려사〉, 〈국조보감〉, 〈여지승람〉, 〈징비록〉, 〈연려실기술〉 및 기타 우리 나라 저작들에서 그 고사를 취하며 해당 지방의 현실을 연구하여 시에 써야》한다고 썼다.

그는 《먼 나라를 숭상하고 자기 나라를 홀시》하는 병집이 우리 나라 선비들에게 심하다고 비판하면서 《저작들과 기록들은 마땅히 자기 나라를 밝혀야 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나라와 백성들을 가난속에 몰아넣는 봉건관료체계와 그 착취에 대하여 신랄히 비판하였다.

정약용은 백성들의 생활이 한심한 지경에 이른것은 지방관료배들의 수탈과 억압에 있다는것을 밝히고 감사를 《큰 도적》으로, 지방토호들을 《작은 도적》으로 락인하였고 아전들의 모습은 《주린 범이 돼지를 만나고 굶주린 매가 꿩을 본것 같이 혹독하다.》고 묘사했다.

그는 봉건적신분제도에 대하여서도 비판하였는데 량반의 세습적특전을 부인하고 할 일이 없이 해종일 놀고앉아 사치를 누리는 건달량반들을 모두 평민으로 만들어 로동에 종사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에 대하여 《응지론농정소》에서 이렇게 쓰고있다.

《지금은 벼슬살이도 하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으며 글 한자 읽지 않으면서도 도리여 선비로 자처하며 빈 이름만 내걸고있는자들이 많다.

이들은 거만하게 백성들을 멸시하며 농사를 짓는 일을 아주 〈천한〉 직업으로 인정하고 로동하기 싫어하며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가만히 앉아있다.》

정약용은 특히 관리선발에서 철저히 인재본위를 주장해나섰다.

그는 낡은 신분제도에 의해 진짜인재의 80～90%가 버림을 받고있다고 하면서 《오직 버림을 받지 않는자라고는 이른바 명문벌족이라고 하는 수십가문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때문에 과거제도를 강화하며 학문과 정사에 능통한자들을 추천하여 등용한다면 나라의 인재들이 흥성해지고 문화도 개변될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역시 량반제도 그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으며 사, 농, 공, 상의 신분적구별은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약용자체가 바로 량반인것으로 하여 그 울타리를 크게 벗어날수는 없었던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현실문제를 론할 때는 왕권을 신성화하면서 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관리들의 《그릇된》행동에 대해서만 비난하였던것이다.

그러나 그가 초계급적인것으로 《합리화》한 국왕은 명실공히 봉건사회의 최대의 압박자이며 착취자인것이다.

정약용은 토지문제에 대한 자기의 견해도 내놓았다.

그는 토지의 주인은 오직 나라와 소농민들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농호의 5%가 지주이며 이것들이 70%이상의 농민들을 착취하는것은 백사람의 로력을 짜서 한사람만 살찌게 하는것과 같은 불공평한 일이라고 하면서 사적지주가 50%의 소작료를 받아낸다는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이며 《지주들이 농민들에게서 받는 소작료는 비록 쌀 한알, 콩 반알이라도 의리에 맞지 않는것》이라고 단정해나섰다. 그는 지주적토지소유를 없애고 국가와 인민을 다같이 부유하게 하는 과도적조치로서 《정전제》를 실정에 맞게 고친 《개혁》안을 내놓게 되였는데 《정전제》의 불철저성과 모순을 곧 인식하였으므로 마침내 《려전제》에 대한 사상을 정립하게 되였다. 여기에서는 토지에 대한 모든 사적소유를 부인하고있으며 공동소유, 공동경작하고 수확물은 로력에 의한 분배로 되여야 한다고 하였다.

정약용이 고안해낸 《려전제》의 기본내용은 《1－농사짓는 사람만이 토지를 얻고 농사짓지 않는 사람은 토지를 얻을수 없다. 2－자연지형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만들고 30호안팎을 기준으로 하여 한개의 〈려〉를 만든다. 3－1려의 토지는 려안의 사람들이 네것내것없이 려장의 지휘밑에서 공동으로 경작한다. 려장은 매일 려

민들의 일역(말하자면 로력공수)을 장부에 적어둔다. 4—가을에 오곡을 걷어들이면 모두 려의 창고에 넣었다가 먼저 공세(전세)를 나라에 바치고 다음 려장의 봉급을 주고 나머지를 일역에 따라 려민들에게 분배한다. 5—수공업자는 자기 제품으로, 상인은 자기의 상품으로써 낟알과 바꾸어 먹게 한다. 6—놀고먹던 건달량반들은 모두 농사짓게 한다. 농사를 지을수 없는 량반은 수공업과 상업에 종사하게 하며 또는 부자들의 자식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거나 관개수리, 림업, 축산 등 기술로동에 종사하게 한다. 이들의 〈공로〉는 육체로동에 비할바없이 크기때문에 일역은 보통로력의 10배로 쳐준다. 7—려전의 〈공세〉는 평년수확고를 기준으로 하는 정액전세이다. 그러므로 국가와 인민들에게는 일정한 수입이 있게 되며 전세를 통한 롱간은 제거된다. 8—려장의 지휘밑에 군사훈련을 일상적으로 하며 려민의 3분의 1은 군사에 복무하고 3분의 2는 호포를 내며 군수에 충당한다.》로서 당시까지 국내외의 전제《개혁》사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것이였다.

정약용은 전세부담을 덜기 위해서 지주, 토호량반들이 전세를 부담하는데서 빠지는 현상을 엄금하며 토지조사사업을 추진시켜 대장에 등록하지 않고 경작해먹는것을 적발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환자제도를 통한 착취의 가혹성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는데 지방관료배들이 제 배를 불리기 위해 중간에서 떼여먹는 폐단에 대하여 신랄히 야유하였다.

그는 요술과 협잡을 부리여 모래도 섞고 물도 추겨 불구기도 하는것으로서 관리놈들이 잘라내는 현상에 대하여 이것은 조세가 아니라 철저히 략탈이라고 락인했다.

이와 함께 군포부담을 고르롭게 하며 량반들도 사람이라면 여기에서 빠지는 현상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정약용은 《민보의》에서 국방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안도 내놓았다.

그는 임진조국전쟁시기의 의병투쟁의 경험을 참작하고 앞선 시기 실학자들의 사상을 계승하여 《백성들이 자체로 나라를 지키게

한다》는 《민보》의 구상을 내놓았다. 그는 백성들로 하여금 군사복무를 자원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우리 군대가 강화될수 있다고 하면서 의무병역제를 철저히 지키며 수천수만의 군대가 있다 해도 낡은 무기를 가지거나 군사장비와 그 시설이 락후하면 없는것과 같다고 하였으며 성들을 늘 보수하고 무기들을 만들어 새로운 기술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모든 주민들이 신분, 재산, 권력의 차이에 관계치 말고 자기 힘으로 자기 고을의 보루와 성을 쌓고 전쟁이 일어나면 누구나 다 들어가게 하며 16살이상 55살까지 남정들로써 정군을 조직하여 부대를 편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정약용은 군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크고작은 배의 제작에 자신이 직접 참가하였고 여기에서 주도세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는 선박이 바다물에서 부식되는 작용을 미리막기 위해 이전부터 써오던 방부제를 사용할데 대한 현실적인 방안도 내놓았다.

뿐만아니라 조선서해의 수질로 보아 전선을 정박시켜둘것이 아니라 계속 운행시키고 류동시킴으로써 선체의 수명을 연장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정약용은 《원목》이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썼다.

《통치자가 백성을 위하여 존재하는것인가? 인민이 미곡과 포백을 바쳐서 통치자를 섬기며 인민이 거마와 종곡을 내여서 통치자를 살리게 하니 이런것으로 보아서는 인민이 통치자를 위하여 존재하는것이다.

태고시대에는 인민뿐이니 어찌 통치자가 있었으랴!》

그는 옛날에는 몇개 고을의 사람들이 한사람을 추대하여 어른으로 삼고 임금이라고 불렀다고 하면서 임금의 근원은 마을어른에서 시작되였기에 통치자는 본래 인민을 위하여 있어야 한다고 강경히 요구하였다. 그는 왕조도 백성들에 의하여 세워지고 백성들의 의사에 따라 뒤집힐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 《민본》사상도 본질에 있어서는 다만 특권량반들의 정권독점과 전횡을 반대하는 사상이였다.

정약용의 이와 같은 선진적인 견해의 기초로 된것은 중요하게 자

연과학에 대한 정확한 리해와 그 지식을 실천에 적용한것이다.

그는 지구가 둥글고 자체로 운동한다는 설을 인정하였고 비, 눈, 우뢰, 밀물, 신기루 등은 결코 신비로운 현상이 아니며 지구우에는 모든 지역에 사람이 살며 여러 나라들이 있다는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렌즈의 초점현상도 물리학적으로 해명하였다.

정약용은 사회생활에서 기술이 노는 역할을 인식하였고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해나섰다.

이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기술을 습득하는 사람들의 지혜와 기교는 그 연구에 순차가 있고 그 발전에 한계가 있어서 일조일석에 그 완비한것을 얻을수 없으며 비록 성인의 예지로써도 그가 개인인 한에는 천만인의 합의와 중지를 당할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의 집단이 크면 클수록, 세대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기술의 정교성도 발전하는것이다.》

정약용은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기술이 발전하면 경지면적이 적어도 곡물수확량이 많을것이고 그 로력투하가 적어도 곡물이 잘될것이라고 하였으며 자신이 직접 농업과학연구를 진행하여 적지 않은 성과들을 내놓았다.

그는 방직, 건축, 의학도 연구하였다.

정약용은 수원성설계에 참가하였는데 그는 이미전에 나온 설계방법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여기에 다른 나라의 선진적인 경험도 일부 참작하여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그는 성벽의 형태규정에서 그전에는 배가 밖으로 불러서 무너지기 쉬웠다는것을 고려하여 밑으로부터 중허리까지는 한치씩 안으로 들여쌓고 허리로부터 우로는 한치씩 밖으로 내여쌓음으로써 그 허리를 오목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특히 정약용은 그 시기 운반용으로 쓰이던 수레의 불편함을 포착하고 새로 유형차를 제작해냈다.

더우기 거중기(기중기)를 만들어 물동을 들어올리는 작업능률을 4～5배 높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 거중기는 바줄을 여러개

의 활차에 걸고 량쪽끝에 있는 큰 활차를 거쳐서 소차(물레차)의 굴대에 감기도록 한것인데 이때에 사람들이 좌우켠에서 물레차를 똑같은 속도로 돌리면 무거운 짐이 달려올라가게 되여있었다. 량쪽물레차옆에 15명씩 서서 돌리면 1만 2 000근(약 7t)의 짐 즉 한사람이 평균 400근 (약 230㎏)을 들어올릴수 있었다.

거중기는 건설에서뿐아니라 나무를 싣거나 돌을 들어올리는 일, 배에서 짐을 싣고 부리는 일 등에서도 효과적으로 리용되였다.

그가 창안제작한 거중기로 하여 수원성건설에서는 4만냥의 건축비를 절약하게 되였다.

정약용이 축성설계한 수원성은 1790년 1월에 착수하여 1796년 9월 완공되였다.

정약용은 한강배다리건설도 맡아하였다.

그는 설계를 맡았을뿐아니라 다리시공에서도 여러가지 창안을 내놓아 사람들의 절찬을 받았다.

더우기 그는 류형살이의 고달픈 기간에도 나라의 안전을 우려하여 배무이법을 연구하였으며 배의 현판을 뚫러 좌우량쪽에 수레를 달고 그것을 배안에서 움직임으로써 배가 앞으로 나가게 하는 륜선을 많이 무어낼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오동나무기름에 재를 섞은것을 배에 발라서 나무가 썩지 않도록 할것을 제기하였다.

의학에서도 정약용은 당시 천연두(마마)가 만연하던것을 막기 위하여 연구를 거듭한 결과 종전의 종두법을 더욱 실용성있는것으로 발전시키는 성과를 올리였다. 그는 1835년에 다른 나라 책을 통하여 우두법을 알게 되였다. 그는 곧 소에게서 마마부스럼딱지를 뜯어서 어린아이의 웃팔에 상처를 낸 다음 그자리에 소의 마마부스럼딱지를 문대주는 방법으로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우두를 놨다.

그는 이 방법을 더 깊이 연구하고 실천해본 후 그 경험을 이미 1799년에 써놓았던 그의 대표적인 의학책인 《마과회통》의 마지막권(제7권)에 《신증종두기법상실》이라는 제목밑에 체계적으로 보충소개하였다.

정약용의 철학적견해는 그가 정배살이기간에 쓴 《원목》, 《탕

론》, 《전론》, 《감사론》, 《기예론》, 《오학론》을 비롯한 여러 글들에 표현되였다.

그는 사람들을 둘러싸고있는 자연계는 본질에 있어서 물질적인 《기》라고 인정하였다.

때문에 이 《기》를 《태일》, 《태극》, 《원기》등 여러가지 말로 표현하면서 태일이 갈라져 하늘과 땅이 형성되고 사람이 존재하며 네 계절의 변화나 해와 달의 운동 그리고 만물의 형성발전과 그 운동, 인간의 정신활동, 사회적운동변화 등 모든것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는 자연계의 물질적시원을 이와 같이 《태일》 즉 태극일기라고 하면서 모든것의 기본바탕을 《기》로 인정하였다.

그는 또한 사물의 발전과 합법칙성에 대해서도 일부 긍정적인 견해를 내놓았는데 자연계의 모든 사물은 끊임없이 운동변화발전하고있다고 보면서 변하지 않는 물질이란 하나도 없으며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것은 다 변한다고 밝히였다.

그는 사람의 얼굴생김에 따라 그 운명이 미리 예정된다고 하는 미신적인 관상법을 극력 반대해나섰고 풍수설의 허황성과 해독성을 지적하면서 영웅호걸의 총명과 위엄은 능히 한세상을 거느리고 만민을 부릴만 하지마는 그 자손의 질병과 생사를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하물며 무덤속에 있는 마른 뼈다귀가 아무리 좋은 산천의 지기를 받는다 해도 어떻게 자손들에게 혜택을 줄수 있겠느냐고 하였다.

정약용은 실학파의 작가로서 또한 그 이름이 뚜렷하다. 그가 남긴 문집 《여유당전서》에는 2 000여편의 시가와 여러가지 형태의 산문이 있다.

그는 자기의 글들에서 현실과 예술의 관계를 소박하게나마 유물론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는 우선 작가들이 자기 나라 력사, 고전을 잘 알고 거기서 소재를 취해야 한다고 하면서 창작에서 문장수식에만 매여달릴것이 아니라 묘사의 생동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세웠다.

그는 구전문학을 인민들의 생활감정의 반영으로 인정하면서 그에 관심을 돌리고 《이담속찬》이라는 속담집을 내놓았다.

정약용의 창작에서 중요한것은 그 당시 농민들의 생활처지에 대한 시적일반화를 통하여 불합리한 현실을 적라라하게 드러낸것이다.

시 《적성촌의 오막살이》에서 그는 이렇게 쓰고있다.

시내가에 찌그러진 집 게딱지 같은데
새바람에 이영걷혀 서까래만 앙상하네
묵은 재에 눈이 덮여 부엌은 차고
허물어진 벽틈으로 별빛이 비쳐드네

시 《기민시》(굶주리는 백성의 노래)에서도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처지를 심심히 동정하였다.

시의 1장에서는 이렇게 썼다.

관가창고엔 나쁜 놈이 엿보거니
어찌 우리들이 굶주리지 않을소냐
관가마구엔 마소들도 살졌구나
이건 바로 우리들의 피땀이여라

시의 2장에서는 여위여 뼈만 남고 병들어 메마른 산송장으로 된 백성들이 길을 메우면서 류랑의 길에 나선 모습을 생동한 형상으로 그려내고있다.

이것이 3장에서는 더욱 심화되여 굶주린 백성들과는 달리 부화사치한 생활로 방탕한 나날을 보내는 봉건통치배들의 반인민적행위를 대조적으로 규탄했다.

작품은 현실에 대한 시적일반화의 폭과 심각성, 강한 비판으로 일관되여있다.

또한 다른 주제로서는 봉건적조세제도에 대한 비판이 구현되여있다.

시 《애절양》, 《범사냥》, 《솔뽑는 중》, 《룡산촌의 아전》, 《해남촌의 아전》은 그 대표작들이다.

범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한다는 구실밑에 범보다도 더 무섭게 인민들을 못살게 구는 지방관료들의 죄행을 폭로한 시 《범사냥》의 마지막절에서는 이렇게 썼다.

흉악한 관리들 밤중에 문두드리면
아, 소름끼치고 치가 떨려라
차라리 남아있는 호랑이 문간에 세워두고
오는 관리 막았으면

또한 세태적인 생활소재를 통하여 인민들의 감정을 민요적정서로 노래한 작품들도 들수 있는데 대표작으로는 《장기농가》, 《탐진촌요》, 《탐진농가》, 《탐진어가》, 《보리마당질》을 들수 있다.

뿐만아니라 정약용은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보려는 자기의 지향도 힘있게 시에 담았다.

대표적인것으로서는 정론시들인 《고시》, 《여름날에》이다.

시 《여름날에》에서는 당시의 불합리한 토지제도, 군포제도, 환자제도, 관리등용제도 등을 빚어내는 통치제도를 폭로하고 이러한 《어질지 못한 법》을 뜯어고칠데 대한 지향을 표시하였다.

정약용은 극도로 썩고 병든 리조말기에 생존하면서 당시로서는 진보적인 사회적견해들을 내놓고 많은 과학기술성과들을 이룩하였으나 그것은 무능한 봉건통치배들에 의하여 응당한 빛을 보지 못하였다. 물론 정약용자체도 자신의 계급적, 시대적제한성으로 하여 봉건국가의 관료체계를 보존하려는 립장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정약용은 1836년 74살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문집으로는 《여유당전서》 (7집 76책)가 전해지고있다.

생활의 시인 김려

18세기말 19세기초에 걸쳐 활동한 김려는 자기의 고유한 시적재능으로 하여 우리 나라 서사시문학에 기여한 시인이다. 20세기에 들어와서도 김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문학사에 크게 기록되지 않았고 인민들속에서도 널리 알려져있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후 전반적인 문학사적을 정리하면서 그에 대한 평가는 정당하게도 제자리에 들어서게 되였다.

김려는 벼슬을 사는 량반가문의 장남으로 태여나 젊은 시절을 서울에서 보냈다.

그의 출생년도는 전해지는것이 없고 카톨릭교전파관계자로 함경도 부령에 류배살이 간 그때(1797년)를 대략 30이 갓 넘은 시기로 보고있다.

김려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교육을 받았다.

그의 아버지는 매우 청렴결백하고 꾸준한 성품을 지니였다고 전해진다.

김려는 자기의 글에서 아버지에 대하여 이렇게 회고하였다.

《자제들을 항상 박식한 기풍으로 가르쳤으며 시가, 문장, 글씨쓰기 등 일체에서 부화한것을 금하였다.》

아버지는 원예를 즐기는 취미가 있어 자신이 과수와 화초를 가꾸었으며 항상 력대 명가의 서화를 수집하였고 우리 나라 명인들의 글씨들, 귀한 서적들을 집에 많이 보관하고있었다.

김려는 아버지의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언제나 부지런하고 탐구적인 성격을 키워나갔고 점차로는 그 시기 진보적학파였던 실학에 접근하게 되였다. 김려의 증손자인 김기수가 할아버지에 대하여 돌이켜본데 의하면 그는 15살에 벌써 학문이 높아 명성이 자자했고 또 글씨가 명필이였으며 이로 하여 정조왕에게까지 알려져 장

차 크게 등용하려 하였다는것이다.

김려는 1797년 《서학》의 신도였던 강이천사건의 련루자로 함경도 부령으로 류배를 갔으며 1801년에는 《신유사옥》이 일어나면서 다시 경상도 진해로 이배되였다.

그는 류배지에서 많은 시들을 썼다고 전해진다. 그자신이 남긴 기록에 의하면 류배살이기간 《귀현거사고》, 《연음수필》, 《련희언행록》, 《찰나미사》, 《침전록》, 《산신사》, 《부춘풍속계》, 《리하기문》, 《정체활요기》, 《년성충렬전》, 《감담일기》, 《설고령인》등 수많은 시들을 썼는데 대부분이 없어져 전해지지 않고있다.

김려는 1806년 류배지에서 풀려나온 후 충청도 련산현감, 함양군수 등 일정한 벼슬을 하였으나 인차 그만두고 대체로는 창작과 저술로 여생을 보내였다.

현재 그의 문집으로는 《담정유고》(16권)가 남아있다.

이 문집에는 많은 창작품들이 들어있는데 《귀현관시초》, 《간성춘예집》,《의당별고》, 《만선와잉고》, 《사유악부》등과 함께 그의 대표적인 서사시 《방주의 노래》가 있다.

김려는 생활의 시인이였다.

물론 많은 창작가들이 생활을 반영하였지만 그처럼 깊이 접근하여 구가한 시인은 많지 못하다.

그것은 류배살이를 비롯한 그의 생활체험과 중요하게 관련된다고 보고있다.

김려는 시와 산문에 모두 재능이 있었으며 특히 서사시분야에서 독창적인 경지를 개척하였다는데 그의 이름이 있는것이다.

《사유악부》는 부령에서의 여러가지 일들을 회상하여 악부시형식으로 묶었다.

여기에는 272수의 시가 들어있는데 북방사람들의 성격과 인정, 고유한 풍속, 그 기간의 잊지 못할 사건들을 노래하였다.

《사유악부》의 서문에서 그는 창작동기를 이렇게 밝히였다.

《사유는 내가 살고있던 오른편 창문의 편액(방안에 거는 액자)이다.

내가 북에 있을 때에는 남쪽 (고향)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후 남쪽으로 와서는 북쪽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생각은 본래 날을 따라 변하는것인데 그러나 그 괴로움은 더욱 심해졌다.

워낙 생각에는 즐거워서 생각하는것도 있고 또 슬퍼서 생각하는것도 있다.

나는 어데 있거나 생각한다.

서서도 생각하고 앉아서도 생각하고 걷거나 누워서도 생각하고 혹 잠간 생각하고 혹 오래 생각하고 혹 생각이 더욱 오래되면 더욱 잊을수 없다. 나는 어데 있거나 생각한다.

생각에서 느낀바는 소리가 없을수 없고 소리를 따라 운을 붙여 이에 시가 되는것이다.

비록 음조는 속되여서 음악으로 연주할만 하지는 못하나… 또한 가이 스스로 울릴만 하다.

이에 그 생각을 읊은 시 약간수를 베껴서 〈사유악부〉라고 이름한다.》

시인은 매 시편마다에서 《너 무엇을 생각하느냐, 생각하는건 북녘의 바다가일세》라는 구절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시인자신이 두고온 북쪽땅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으로 추측된다.

《사유악부》에서는 북쪽사람들의 용감하고 기백이 넘치는 성품과 애국의 감정을 노래하였다.

부령은 오랜 옛날부터 북방으로부터 기여드는 외적을 반대하는 싸움에 먼저 나선 고장이며 서울로부터 멀리 떨어져 류배지로 정해진 곳이다.

산이 깊고 나라지경인것으로 하여 이곳 백성들은 사냥과 함께 무예를 즐기였다.

보통 농군도 오랜 기간 우리 나라를 넘겨다본 녀진족을 비롯한 외적들이 쳐들어오면 일선에 나서야 하기에 말을 타고 달리며 활쏘는것은 응당한것으로 여기였다.

하기에 나이 70에 나는 늙은이들도 선참으로 과녁을 뚫었고 병

서를 통달했으며 새처럼 말을 달렸다고 한다.

시인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노래하였다.

너 무엇을 생각하느냐
생각하는건 북녘의 바다가일세
말을 잘 타고 활이 또한 명수라
백발백중 과녁을 맞힌 황대석
듬성듬성 흰머린데 좀좀한 웃수염
긴 허리 긴 팔에 힘은 곰같았네
경성과 부령고을 무예를 겨룰 때
세번이나 뽑혔으니 얼마나 장한가를
죽일 놈의 관리들 딴속이 있어서
상은커녕 거들떠보지도 않어라
긴 한숨 내쉬며 돌아온 장사는
저물도록 소를 몰아 돌밭 뒤지네

시인은 언제나 6진의 하나로 자랑떨친 부령사람들이 임진조국전쟁때에는 의병을 무어 잘 싸운데 대하여 북방사나이들의 기질을 두고 자랑차게 노래하였다.

너 무엇을 생각하느냐
생각하는건 북녘의 바다가일세
위풍름름한 차씨네 세 장사
범처럼 용맹한 한집안 형제라네
총과 칼 비껴들고 내달아가면
왜놈의 백만군사 꼼짝을 못했네
벽력같이 쳐들어가 적장을 베고
하늘땅 바로잡아 나라를 건졌네

시인은 또한 시에서 봉건관료배들의 가혹한 착취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너 무엇을 생각하느냐
생각하는건 북녘의 바다가일세
부춘땅의 젊은 아낙네 류씨는
밤마다 강변에서 소리쳐우네
지난 가을 한장목 싣고간 남편
홍원앞바다에서 파선해죽었는데
고을원은 물건싣고 도망쳤다고
열달동안 부모처자 고문한다네…
하늘아 하늘아 아느냐 모르느냐
저따위 류도호 어째서 벼락을 안치느냐

시인은 자기 시에서 버림받고 천대받던 최하층 백성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아름답고 고상한 정신세계를 그림으로써 우리의 시가문학을 더욱 풍부히 하는데 기여하였다.

김려는 마치 들에 핀 청초한 붉은 꽃과도 같은 근로하는 녀성들에 대하여 존경을 가지고 노래하기도 하였으며 살림은 눈물겨우나 래일의 희망을 안고 락천적으로 살며 일해가는 농민들을 소리쳐 자랑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좁쌀은 기름돌고 기장쌀은 구수하며 밭벼쌀 풍족하고 물고기도 맛좋은 그곳 특산에 대하여 담기도 하였다.

시인은 이와 같이 《사유악부》에서 북방사람들의 생활과 풍토에 대하여 진실하게 보여주었다.

또한 83편의 시작품으로 이루어진 시집 《의당별고》에서도 정들었던 부령에 대하여 노래하였다.

《황성리곡》205수와 《상원리곡》25수로 엮어진 《간성춘예집》에서는 충청도일대 인민들의 풍속과 생활세태, 정월보름날의 민속놀이 등을 노래하였다.

시에서는 농민들의 가난과 불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밤깊어 부엌에서 소곤소곤하는 소리
을해년에 굶어죽던 이야기하네
밀싹은 말라죽고 보리싹은 얼었으니
이해 또한 배고파서 어이 지내뇨

…

무명천치마에 짧은 속바지
규전땅 각시들은 눈물삼키네
날마다 짝지어 광주리 끼고나가
밭두렁 풀뿌리 캐여 모으네

시에서는 또한 임금과 정승들은 《어버이》같다고 선비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하건만 실은 백성들의 생활을 돌보지 않고 그들의 등뼈를 깎아내리는데 대해 저주와 규탄을 보내고있다.

정승이 청렴하단 새빨간 거짓말
백성들의 산판을 제것으로 만들자네
순순히 말하노니 여보 최계백
그따위 못된짓을 함부로 말게

《만선와잉고》에서는 그의 실학에 대한 주장을 보여주고있는데 이것은 1811년 서울 삼천동에 있을 때 《눈에 띄는대로 읊은》것이라고 한다.

시들에는 현실에서 시를 발견하여 각이한 형식으로 노래하려고 한 시인의 지향이 반영되였다.

김려는 시가창작에서 그 주제가 다양하고 폭이 넓으며 특히는 생활을 반영하고 천대받던 평민들을 동정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을 찬양하였으며 봉건관료배들을 여지없이 규탄한것으로 하여 인민들의 사랑을 받게 되였다.

김려의 서사시 《방주의 노래》는 그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인 동

시에 중세서사시문학의 대표작으로 된다.
방주는 작품의 주인공녀성(백정의 딸)의 이름이다.
시의 본제목은 《장원경의 안해 심씨를 위하여 지은 고시》로 되여있다.
그러나 그이후 《방주의 노래》로 널리 불리웠다.
서사시에서 시인은 최하층 천민인 백정과 어민들의 생활을 통하여 관료배들에게서는 도저히 찾아볼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진실한 인간의 고귀한 모습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서사시는 계수나무우에서 짝을 잃고 슬픔에 싸여있는 이상한 새의 처량한 신세를 어린 딸 하나 고이 기르며 살아가는 주인공의 아버지에 비유하여 묘사하였다.
머리시에서는 방주의 출생과 함께 젖떨어질무렵에 벌써 어머니를 잃고 홀아버지의 손에서 자란 그에 대하여 끝없는 동정을 보내고있는것이다.
시인은 3살에 말을 하고 4살에 셈을 세고 5살에 이웃집아이들과 소꿉놀이를 하고 6살에 나서는 물레질을 배웠으며 7살에 국문을 깨치고 8살에 제손으로 머리를 빗고 등잔앞에 앉아 《사씨남정기》를 읽었던 방주에 대하여 회상의 형식으로 쓰고있다.
삼복더위가 한창인 어느날 방주가 빨래감을 가지고 개울로 나갔는데 때마침 북쪽에서 파총(봉건시대 군대의 관직의 하나)이 말을 몰아 달려오더니 그에게 물 한그릇 청한다.
왼손으로 빨래감을 거두고 오른손으로 쪽박을 들어 깨끗이 씻은 후 맑은 물을 정히 떠서 꿇어앉아 공손히 두손으로 드린다.
방주를 본 파총은 그의 아름다움과 친절한 례절에 그만 황홀해진다.

바라보면 정신이 황홀해지고
몸을 가누기도 힘들듯 하여라
온 누리가 환하게 빛나는 얼굴
산과 물도 고움을 시새우는듯
아기자기 요염한건 더러 있으나

저렇게 덕성스러움 천하에 드물도다

몸매가 어데나 두루 원만하고
이마가 넓고도 밝게 빛나며
눈섭사이가 곧고 바르고
입술은 너그럽고 윤기가 난다
코는 아름답게 봉황모습인듯
눈섭은 검은 활을 그린듯
열개의 손가락은 죽순처럼 곧고
두손가락은 무르익어 붉어라

그 마음 밝고도 은혜롭고
그 얼굴 곱고도 깊이가 있으니
저런 처녀 부귀를 누리고
세상에 드문 복을 받아야 하리

하얀 발길 옮겨서 가는 모습
염염히 꽃다움이 피여올라
태산처럼 무거운듯 하고
호수처럼 깊은듯도 하고
머리숙일 때는 내려앉는 가을기러기
머리들 때는 날아나는 봄기러기
앞으로 보면 관세음보살인듯
뒤로 보면 석가여래인듯

장엄하고 단정한 얼굴에
마음도 맑고 한없이 넓어
꽃다웁기 란초같고
령롱하기 구슬같으니
가깝게 보면 모래우의 물새요
멀리서 보면 숲속의 사슴이요

얼른 보면 바람앞의 꽃이요
자세히 보면 물결속의 달이여라

시인은 백정의 딸인 방주를 량반집딸들과는 대비도 되지 않게 현숙하고 재능있고 아름다운 녀성으로 극구찬양하였다.

다음장면은 방주의 집에서이다.

방주의 아릿다움에 놀란 파총은 그의 집을 찾아들어 그날 밤 묵어가기로 한다. 소가죽이 널려있고 짐승들의 털이 쌓여있는데 그밑에 여러 사람들이 둘러앉아 버들가지로 고리를 엮고있는 방주의 집에 파총이 들어서자 놀란 백정들은 산지사방으로 흩어지고 집주인은 너무도 황송스러워 어쩔바를 모른다. 주인은 황급히 손님앞에 꿇어엎드려 인사를 올린다.

어제밤에 꿈자리 좋고
오늘아침 까치가 짖더니만
이렇게 귀한 손님 오셨으니
조상이 주신 복인가 하외다

파총은 신분적차별을 개의치 않는 인물이므로 엎드린 주인을 일으켜앉히면서 이렇게 말한다.

이 늙은이도 세파를 헤쳐온 사람
모든것 소상이 잘 아외다
온 세상은 모두 동포
겸손도 지나치면 허물이 되오
늙은이 이미 이곳에 왔으니
이제 다시 혐의를 두지 마오

인사를 마친 후 파총은 밥을 좀 지어달라고 부탁한다.

주인은 량식도 있고 기르는 짐승도 살진것이 있는데 다만 그릇이 없다고 한다.

당시에는 량반과 천민이 먹는 그릇이 달랐던것이다.

파총은 크게 웃으며 산중에서 바리와 대접을 가릴게 무엇이며 밥과 찬을 한데 담은들 탓할게 무엇이냐고 허물없이 말한다.

그리하여 주인은 기쁨을 가지고 방주를 시켜 정성껏 밥을 지어올린다.

상을 받은 파총은 그들의 지성에 감격해마지않는다.

식사를 마치고 주인을 불러드린 파총은 량반과 백정이 한자리에 같이 앉을수 없다고 몸둘바를 모르는 그를 눌러앉히고 서로 사돈을 맺자고 청한다.

주인은 금시 숨이 막혀 량반과 백정은 천지차이라고 차라리 허물이 있으면 매를 쳐달라고 한다.

다음부분은 파총의 이야기로 되여있다.

파총의 인생담은 봉건사회말기의 사회관계와 어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보여준다. 그는 본래 량반이였으나 우여곡절로 하여 추운 겨울 나무를 해다 팔기도 하고 밥을 빌어먹으며 다리밑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지새기도 하였으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물장사도 한다.

파총은 어물장사로 양양에 가서 본 해녀들의 생활을 이야기한다.

한밤중에 개들이 짖어대는데
아전놈들 마을에 와서 야단하네
해녀들 바다로 몰아내며
채찍질을 마구 하누나
사또의 다담상에
두번이나 생선이 못올랐다고

그리하여 해녀들이 바다에 전복을 따러 나갔는데 열흘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는다.

할머니 가슴치며 통곡하니
곡소리 하늘에 비껴서 가네

바다벌레가 참으로 원쑤로구나
아가야 네 어찌 돌아오지 않느냐

옆집에서 구리차관 전당잡히고
뒤집에선 단벌바지 팔았도다
돈냥을 구하기 어려워라
참으로 팔것조차 없구나
아아 어부의 구실에서
전복따기보다 더한 고생 없으리

시인은 어민들의 이 고통이 바로 량반관료배들의 착취와 억압에 있다고 밝히면서 《살기가 어려있다》는 주정을 토로하는것으로써 당대의 험악한 현실에 비판을 가하고있다.

서사시의 뒤부분은 전해지지 않고있다. 시인자신이 미완성으로 남겼는지 아니면 후반부가 잃어졌는지 편찬자들의 부주의인지 그 리유는 알수 없다.

서사시 《방주의 노래》는 최하층 백성들의 생활을 소재로 잡았고 더우기는 천민녀성을 주인공으로 하였으며 봉건적신분차별제도의 불합리와 《만인은 공평해야 한다.》는 사상을 뚜렷이 보여준것으로 하여 매우 의의있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다.

물론 서사시는 당시 인민들의 거세찬 진출을 반영하지 못하였고 《왕의 선정》에 기대를 가지거나 또한 자기들의 처지를 《팔자》로 여긴다든가 방주를 형상하는데서 지나치게 리상적인 인물로 그리는 등 일련의 약점을 가지고있으나 소재자체를 인민들의 생활에 접근시키고 진실하게 그린것으로 하여 문학사에 크게 남는 작품이다.

김려는 산문작품도 여러건 남기였다.

《감담일기》는 그가 류배지로 가면서 쓴 일기체기행문이다. 그는 1797년 11월 12일부터의 기행행정을 일기체로 썼는데 그날그날의 일들을 예술적으로 엮어나갔다.

《감담일기》는 산문이라고는 하지만 기행시라고 할 정도로 시

가 우세를 차지한다. 그는 여기에서 여러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나라형편을 보여주었고 법이 없는 무질서를 비판하였다.

또한 수려한 이 나라 땅의 아름다움과 인민들의 소박한 풍습을 긍지를 가지고 노래하기도 하였다.

《우해이어보》는 그가 진해에 있을 때 그곳을 중심으로 한 남해바다어류들의 서식상태와 그것들의 생태적특성에 대하여 서술한 과학적성격의 산문이다.

김려가 류숙하고있던 집에 자그마한 고기배 한척이 있었는데 이에 의거하여 고기들의 생김새, 습성, 용도, 그 이름의 유래 등에 대하여 기록했던것이다.

또한 《단량패사》라는 전기소설의 형식으로 된 단편소설집이 있다. 여기에는 8편의 소설이 들어있는데 작품들에는 작가의 서술이 위주로 되고 주인공이 뚜렷치 못한 약점이 있으나 그 시기 소설로서의 독자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이외에도 그는 력대의 패설집들을 모아 《광사》라는 방대한 규모의 패설총서를 편찬하고 《총서제후》와 같은 패설집들의 해제도 썼다.

이와 같이 김려는 자신이 겪은 생활체험에 토대하여 시종일관 가장 천대받던 백성들의 생활을 모체로 작품들을 완성해나간 생활의 시인이며 작가이다.

금석학자 김정희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우리 조선은 이르는 곳마다에 유적유물이 있고 가는 곳마다에 사화전설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저절로 오늘에까지 잇닿은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력사학자들의 고심어린 노력과 연구가 깃들어있는것이다.

여기에 이야기하려는 김정희 역시 민족의 이 귀중한것들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친 량심적인 인간이였고 재능있는 고고학자의 한 사람이였다.

19세기전반기 실사구시를 지향하는 실학사상가의 한 사람이였던 김정희는 1786년 6월 충청남도 례산군 룡단에서 호조판서를 지내던 김로경의 맏아들로 태여났다. 그는 태여날 때부터 재미있는 일화들을 가지고있는데 어머니배속에 다른 애기들보다 무던히도 끈지게 더 있었다는 사실이 있다.

어머니 유씨는 첫번째로 하는 해산이라 근심걱정이 많았다. 그런데 어인 일인지 열달이 훨씬 넘도록 애기는 배속에서만 꿈틀거릴뿐 나올 기척이 없으니 유씨는 남편을 부여잡고 자기의 무거운 마음을 터놓았지만 남편 역시 무어라 할 말이 없었다.

《아마도 큰 장수가 태여날 모양이지. 조금만 기다려보기요.》

남편은 안해를 달래는수밖에 없었다.

아기는 14개월만에야 출생하였다 한다. 온 집안이 그대로 경사이고 웃음이였다. 모두가 장수감이라고 좋아하며 야단들이였다.

이렇게 태여난 그는 어렸을 때부터 글씨를 잘 쓰고 그림 또한 잘 그려 뭇사람들의 칭찬이 그칠 날이 없었다. 더우기 무엇을 하나 잡으면 끝장을 볼 때까지 기어이 파고드는 직심스러운 성격으로 하

여 부모들의 사랑을 받았다.

김정희는 유학과 문학에 깊은 조예를 가진 아버지의 직접적인 교육을 받았으며 당시 이름있는 실학자의 한 사람이였던 박제가의 제자였다.

그는 호를 여러가지로 불렀는데 추사로 많이 알려져있다.

김정희는 어렸을 때부터 탐구심이 강하였다.

그는 벌써 젊은 나이에 민족은 자기 인민이 걸어온 과거를 잘 알아야 하며 그 빛나는 력사를 밝혀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가지였으며 그로 하여 온 생애를 여기에 바치였다.

16살되던 해 그의 스승인 박제가가 중국에 다녀오면서 그 나라 학자들과의 교류를 가지게 되였는데 그곳 소식을 들려주자 자신도 그들과의 열렬한 토론을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이름난 선비들이 천하에는 많다네
내 이제 그들속에 지기를 맺으련다
서로 마음맞으면 목숨인들 아끼랴

김정희는 33살에 과거에 급제하여 시강원 설서를 지내였고 규장각 대교 (궁정기록편찬을 맡은 직무)를 거쳐 성균관 대사성, 병조참판에까지 올랐다.

그러나 그의 생활은 결코 순탄치 못하였다.

그는 아버지가 죄인으로 몰린것을 변호하였다 하여 그리고 친구인 권돈인의 무죄를 나서서 증언했다 하여 정배살이를 강요당한 결과 13년간의 고생스러운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김정희는 류배지에서나 벼슬을 사는 기간이나 추호의 동요와 변함이 없이 고고학연구에 몰두하였다.

그는 24살에 처음 나라일로 중국에 가는 아버지를 따라 연경으로 가게 되였는데 여기서 당시 중국의 대학자였던 78살의 옹방강, 완원 등의 학자들과 안면을 익혔고 그들속에 조선학자의 기풍이 어떠한가를 보여주었다.

한달남짓한 체류기간 김정희는 여러 분야의 학문과 시문, 서예에 대하여 그들과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누었고 특히 고고학문제에서 뚜렷한 주장을 가지고 당당하게 론쟁하여 중국의 학자들을 놀라게 하였다.

옹방강은 그 시기 중국의 으뜸가는 학자로서 특히 금석학(돌이나 쇠붙이에 새겨진 글을 연구하는 학문)에서 뛰여난 인재로 알려져있었다.

중국의 학자들은 김정희의 깊은 지식에 놀라 《경술문장이 조선이 제일》이라고 찬양하면서 그를 환영하고 대접하였으며 특히 옹방강은 자기의 두 아들을 김정희와 친교를 맺게 하고 앞으로 학술적인 면에서 서로 도와줄것을 굳게 약속하게까지 하였다.

그후 그들은 서면을 통해 자기들의 연구성과에 대한 토론을 진지하게 계속해나갔고 글씨를 보내고 받으면서 서예문제도 론의하였다.

그의 고고학과 금석학에 대한 연구성과는 귀중한것이였다. 사실 나라에서 연구조건을 보장해주는것도 없는 당시의 실정에서 누구도 돌아다보지 않고 사람들의 발길에 채이거나 높은 산꼭대기에 서있는 비석들이나 가지고 황당한 전설들로 미화분식된 미지의 세계에 파묻힌 자료를 찾아내고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야 하는 이 분야의 과학연구란 말로 다할수 없는 고생을 동반하는것이였다.

그는 먼저 자료수집정리에 정력을 다하였다.

그는 궁전의 서고는 말할것 없고 나라지경을 벗어나 중국의 옛문헌들도 낱낱이 뒤지였으며 은, 주나라시기, 위, 진나라시기의 생활도구, 옛 비문, 옛돈, 막새(처마끝기와)와 벽돌, 옛 무기, 불상, 거울, 인장 등들을 직접 보고 확인하였다.

그의 연구성과에서 특별히 지적해야 할것은 《석노가》, 《신라진흥왕릉고》, 《례당금석과안록》등의 저서들이다.

《석노가》에서 김정희는 그때까지만 하여도 귀신의 조화로만 보아오면서 제사를 지내고 받들던 돌도끼, 돌활촉들을 처음으로 옛사람들이 쓰던 생활도구이고 무기라는데 대하여 고증

하였다.

그리고 그 이름도 지금 부르는것처럼 《돌도끼, 돌활촉》으로 새롭게 명명하였다.

그는 석기유물과 토성유적들을 반드시 갈라보아야 하며 이것은 시기적으로 다르다는데 대하여 증명하였다.

력사학자로서의 김정희의 공적은 경상북도 경주의 조산(인공적으로 만든 산)이라고 전해오는 무덤들을 고증하고 《신라진흥왕릉고》를 저술해낸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은 모두 일반적으로 신라의 왕과 대신들의 무덤으로만 보았지 누구의것인가에 대해서는 모르고있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하여 《삼국사기》, 《삼국유사》등 문헌에 기록된 왕릉의 위치와 사적들을 모두 대조확증하여 이것은 진흥, 진지, 문성, 헌안 등의 왕릉이라는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내였다.

그는 북한산과 황초령의 진흥왕순수비를 현지답사로 발견하고 거기에 새겨진 글들을 파고들어 읽어냈으며 진흥이라는 칭호가 죽은 후의 시호가 아니라 바로 살아있을 때의 칭호였다는것도 알아내였다.

이것이 확증됨으로써 후신라전후의 왕릉제도에 관한 문제, 벽화를 통한 세나라시기의 미술문제, 서예문제 등 많은 문제들에 명백한 대답을 줄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그의 공적중에서도 큰 공적으로 된다.

《례당금석과안록》에서는 주로 비문들에 대한 고고학적고찰을 주었다.

현재까지 전해진 세나라시기 비석중에서 온천군에 있는 점제비를 제외하고 가장 오래된것이 마운령비, 황초령비, 북한산비, 창녕비 등인것이다.

이 비문들로 말하면 해당 시기 신라의 경계를 구획짓는 증견물이였는데 황초령비와 북한산비는 김정희에 의해서 처음 발견되고 고증되였으며 마운령비는 1829년에 발견되였다.

김정희는 이 비문들을 찾아내고 고증하기에 자기의 정력을 다하였다.

북한산비 하나만 놓고보더라도 이를 고증해내기 위해 수십 차례에 걸쳐 험한 산발을 오르내리였고 힘이 진하여 어떤 날에는 산중턱에 주저앉기도 하였다. 그럴 때면 그는 자기의 머리를 쳤다.

《내가 왜 이럴가. 아직 못찾은 비들이 수다한데.》

그는 완강한 의지를 가지고 또다시 일어나 살펴나갔다. 그리고 비문에 새겨진 한자 한획에 이르기까지 수백번에 걸쳐 들여다보고 또 보면서 철저히 고증하였다.

그러다나니 어떤 날에는 해가 지는것도 모르고 열중해있다가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여서야 무거운 다리를 지팽이에 의지하여 마을로 돌아왔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비문검토를 하면서 사고를 집중하려고 문을 닫아매고서 연구하였다고 한다.

그의 이러한 학구적이고 탐구적인 노력에 의해 바로 우리 나라에서 근대적의미에서의 고고학의 일정한 기틀이 처음 마련되게 되였다.

이러한 그의 연구사업은 비록 철저한것이라고는 볼수 없지만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것은 《벼락귀신》의 조화로만 보아오면서 두려워하고 감히 만지기도 어려워하던 돌도끼, 돌활촉 등을 석기시대의 우리 조상들의 생활도구로 보고 증명해낸것만 보고도 알수 있다.

이것을 종래의 관점대로 신의 조화로만 보고 대했다면 이와 같은 연구성과를 바랄수 없었을것이다.

어느해 여름 가물이 들어 밭에서는 곡식이 탄다고 아우성치는데 사람들은 물을 끌어다댈 생각은 하지 않고 밤낮으로 하늘에 비를 오게 해달라고 빌고있었다.

그러나 이때 김정희의 생각은 달랐다.

《허허허, 여보시오, 그렇게 자꾸만 빌지 말고 빨리 웅뎅이를 파고 물차를 만들어 물을 끌어다 밭에다 대여야 하지 않겠소.》

그는 자신이 먼저 마을앞에 저수지를 팠다.

그리고 물을 끌어다 밭에다 대였다. 그랬더니 물을 먹은 밭에서

는 강냉이가 푸르싱싱하게 자랐지만 온종일 빌고만 앉았던 사람들의 밭에서는 거둘것이 한이삭도 없이 모두 말라죽었다.

이것만 보아도 그의 세계관을 가늠할수 있는것이다.

김정희는 서예에서도 이전에 없는 독특한 성격의것을 창조하였다. 그의 글씨는 신라의 김생이후의 가장 이름난것으로서 추사체라는 새로운것이였다.

김정희의 글씨는 획 하나, 점 하나에도 특색이 있었는데 이것은 단순한 노력만이 아니라 고고학을 연구하면서 많은 비문들을 다루고 옛 문자들을 보면서 형성된것이였다.

그의 글씨는 곱기만 한것이 아니라 기운차고 활달하여 사람들이 쥐고 놓치를 못하였다 한다.

어려서부터 글씨를 잘 쓴 그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다.

립춘이 되면 사람들은 립춘서(립춘때 벽이나 문짝에 붙이는 글)를 써서 대문들에 붙이였다.

김정희집에서도 7살난 그가 립춘서를 써서 들어오는 바깥 큰문에 붙이였다.

그런데 그앞을 지나가던 한 정승이 이것을 보더니만 그 글씨가 하도 마음에 들어 집안으로 찾아드는것이였다.

김정희의 집에서는 대감을 맞은것으로 하여 들썩했다.

《그래, 이 립춘서를 누가 썼는가?》

정승이 그의 아버지에게 물어왔다.

《제 아들녀석의 변변치 못한 글이옵니다.》

아버지는 황송스럽게 대답을 올리였다.

곧 김정희를 불러오게 한 정승은 자못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여 의미있게 머리를 쓰다듬어주었다.

《과연 기특한 명필이로다. …》

이렇게 어려서부터 사람들의 눈길을 모은 김정희가 마침내는 고금에 없던 독특한 성격의 서예를 창조해냈던것이다.

웅건한 박력과 자유분방한 필치, 기발한 구성으로 예술적 풍격을 자랑하는 그 독특한 필체를 창조하는 과정에 그는 10개

의 벼루를 먹을 갈아 뚫렀고 1 000자루의 붓촉을 닳아 없앴다고 한다.

그는 《자기의 정신상태가 바로서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지 않는다면 좋은 글씨를 쓸수 없다.》고 하면서 글씨는 글씨를 위한 글씨가 아니라 반드시 정확한 지식과 옳바른 정신으로 뜻있는 내용을 써야만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의 서예작품은 조선미술박물관에 소장되여있는 《초가삼간도 비바람을 피할수 있다.》, 《자손을 가르치려면 마땅히 뉘우침없는 떳떳한 도리로 가르치라.》를 비롯하여 국내외의 여러 박물관에 많이 전해온다.

그는 제주도류배시에도 영국과 프랑스의 해적선들이 계속 기여들어 백성들의 재물을 로략질하자 해안방어를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정부에 건의서를 내였으며 백성들에게는 그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것들을 힘자라는껏 해설해주었다. 그리고 그 해적선들과의 싸움에도 앞장섰다.

김정희는 71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의 저서들로는 《완당척록》(2권 2책), 《담연재시고》(7권 2책), 《례당금석과안록》, 《완당집》(5권 5책), 《완당선생전집》(10권 5책) 등이 있다.

김정희는 이와 같이 고고학자로서 또한 서예가로서 많은 업적을 남겼으며 그밖에도 문학예술분야에 특색있는 작품들을 남기였다.

평안도농민전쟁의 지휘자 홍경래

19세기 들어서면서 상품화페관계가 농촌에로 침투되고있던것과 때를 같이하여 봉건관료들의 착취는 더욱 강화되였다. 인민들의 생활은 더없이 령락되였고 사회계급적모순은 날을 따라 격화되였다.

당시 국권을 쥐고있던 안동김씨일파와 지방관리들에 의하여 뜯기울대로 뜯기운 농민들은 심한 빈궁과 무서운 재난속에 허덕이고 있었다.

농민들은 봉건통치배들의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여 투쟁에 일떠섰다. 이 의로운 싸움을 지휘한 사람이 홍경래였다.

홍경래는 1780년 평안도 룡강군 다거면의 한 농가에서 태여났다.

그는 어린시절부터 남달리 의협심이 강하고 의지가 굳세였다. 그러므로 동네아이들과 패를 지어 군사놀이를 할 때도 몰리는 편을 도와나서기가 일쑤였다.

또한 그의 성격은 한번 마음먹은 일이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어이 끝장을 보고야마는 특이한것이였다.

그는 군사놀이뿐아니라 달리기, 던지기, 높이뛰여오르기 등 못하는것이 없었다. 그래서 언제나 아이들의 대장이 되군 하였다.

특히 글공부에서는 총명하고 학문적재질과 열성이 뛰여난것으로 하여 사람들을 놀래운 때가 한두번이 아니였다.

그는 중화에 있는 외삼촌인 류학권이 운영하는 서당에서 글을 배웠는데 1년이 채 못되는 어느날 요포강기슭으로 학도들이 모두 나가게 되였다.

강기슭은 단풍에 곱게 물들고 맑은 하늘이 높이 솟아 아름답기 그지없었다.

이런 가을풍경에 가슴이 넓어진 선생은 학생들에게 모두 시 한수씩 지어내라고 하였다.

해압산에 걸터앉아
요포강에 발을 씻으리

8살밖에 나지 않는 홍경래의 시는 너무도 대담하고 포부가 컸다.
금시 온 강산을 한손에 넣고 흔들것만 같았다.
또한 이런 이야기도 전해진다.
그가 13살되는 해 어느날 서당선생은 연나라의 이름난 장수인 형가에 대하여 자초지종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중국의 전국시대에 진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린근의 나라들을 빈번히 쳐들어가서는 백성들의 재물을 략탈하고 나라지경을 문란시켰지요.》
이야기를 시작한 선생은 장수에 대하여 엮어나갔다.
이런 때 연나라 형가가 연왕으로부터 진나라왕의 목을 베여오라는 령을 받았다. 형가는 임금의 이 어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진나라에 거짓으로 손을 들고 들어가서는 기어이 왕궁에까지 이르게 되였다.
어느날 드디여 왕과 대면하는 절호의 기회가 마련되자 형가는 준비했던 칼을 서슴없이 왕에게 던졌다.
그러나 아쉽게도 칼이 빗나가는 바람에 즉석에서 포졸들에게 잡힌 몸이 되였으며 그이후로 무참히 살해당했다.
선생은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에 대한 느낌을 학생들이 글로 지어보라고 하였다.
깊은 사색에 잠겼던 홍경래는 그자리에서 《형가를 보냄》이라는 시를 지었다.

가을바람 설레이는 역수를 건너
무쇠같은 장사의 주먹으로
백주에 함양 천자의 머리를 부시리라

홍경래의 뛰여난 재질을 심상치 않게 여긴 외삼촌은 그로 하여 장차 자신의 신변에 화가 미칠가봐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러자 홍경래는 외삼촌의 소심한 태도에 침을 뱉고 외면하면서 자기는 절대로 그처럼 비겁하고 연약한 선비가 되지 않으리라고 굳게 다짐하였다.

그는 청년기에 들면서 유교경전뿐아니라 력사와 지리, 의학서적들과 국내외의 군사서적들을 탐독하였으며 검술도 부지런히 익혔다.

그후 홍경래는 집으로 돌아와 자습으로 공부를 계속해나갔다.

홍경래는 18살이 되는 해에 주위사람들이 안된다고 말리였지만 과거에 응시해보려고 서울에 올라갔다. 시험은 괜찮게 치르었다고 생각했는데 불행하게도 떨어지고말았다. 평안도출신이며 또 재산도 없으니 될턱이 없었다.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은 이미전에 다 정해진듯싶었다.

그는 분을 삭일수가 없었다.

《이놈들, 어디 보자. 내 네놈들을 그냥 두지 않을테다.》

어릴적부터 누구에게 져본 일이 없는 그였으니 가슴속은 더욱 타번졌다.

홍경래는 사람을 권세와 재산에 따라 또한 얼토당토않게 출신지방에 따라 평가하고 등용하는 부패무능한 이 세도정권을 쓸어버리고 굶주림에 빠져 헤매이는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이때부터 뜻을 같이할 사람들을 하나씩둘씩 모으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평안도백성은 봉건관료배들로부터 다른 지방들에 비하여 더욱 혹독한 수탈과 억압을 받았으며 더우기 인간적으로 멸시를 당하였다.

서울에서 내려온 지방관리들은 평안도에서 금, 산삼, 짐승가죽 등 지방특산물들을 파렴치하게 빼앗아갔으며 청나라사신들이 오갈 때의 뒤바라지도 다른 지방보다 더 큰 몫을 먹이였다. 그리

고 백성들뿐아니라 평안도량반들도 멸시와 차별대우를 받아왔으므로 원한이 높았다.

이리하여 평안도지방에서는 안팎으로 분노가 극도에 달하였으며 싸움에 일떠설수 있는 유리한 정세가 도래하고있었다.

홍경래는 이런 정세를 예리하게 간파하고 폭동준비를 시작하였다.

그는 풍수쟁이로 가장하고 전국각지를 돌아다니면서 형편을 살피는 한편 지휘부성원들을 꾸려나갔다.

어느해 여름 찌는듯한 더위가 한창이더니 소나기가 쏟아져내리였다. 그는 비를 피하여 평안도 가산군에 있는 청룡사에 잠시 들리였다.

이때 또 한사람이 비를 긋기 위해 여기에 들어서는것이였다.

홍경래는 어딘지 모르게 의젓한 그의 풍모가 마음에 끌리였다. 그리하여 옆으로 다가가 통성을 하게 되였다.

그는 상인 겸 광산경영주인 우군측이라는 사람이였는데 평안도 구성출신이며 서자이므로 재능이 있건만 출세의 길이 막혀버린 젊은이였다.

두사람은 손을 마주잡고 자기들의 기막힌 신세를 털어놓았다.

《당신이 앞장에 서면 나는 모든것을 다 바쳐 도와나설것이요.》

우군측은 서슴없이 동의해나섰다.

《고맙소. 우리 서로 힘을 합치여 큰뜻을 꼭 이루기요.》

홍경래는 이어 청천강이북출신인 리희저와도 손을 잡았다. 리희저는 자금을 해결하는데 한몫 단단히 할 인물이였다. 홍경래는 이어 관료배들에게 커다란 불만을 품고 떠돌아다니는 김창시, 홍총각, 리제초와도 통하게 되였다.

김창시는 학문과 재주에서 평안도적으로 손꼽히는 인물이지만 평안도사람이라는 리유로 벼슬길에 나가지 못하고있는 사람이였다.

또한 홍총각은 곽산의 부자집머슴군이였는데 그 힘은 누구도 당하지 못할 천하장사였다. 홍경래는 홍총각도 끌어들이였다.

그리고 개천고을의 리제초도 찾아가 자기 마을의 호랑이를 잡

아달라고 하고는 진짜 호랑이를 잡을데 대하여 진지하게 공론하였다.

뿐만아니라 용맹과 지혜가 뛰여나기로 소문난 태천의 김사용도 인입시켰다.

홍경래는 용사들을 수하에 모으는 한편 평안도를 중심으로 30여개의 고을과 련계를 가지면서 폭동준비를 위한 본거지를 가산군 다복동(운전군)으로 정하였다.

또한 만일의 경우를 고려하여 다복동앞에 있는 신도를 비밀장소로 하고 싸움에 필요한 인적 및 물질적준비를 갖추어나갔다. 그리고 폭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광을 경영하고 인삼무역도 하였으며 비밀리에 돈도 주조하여 축적했다.

그리고 기본부대를 꾸리여 체계적인 훈련을 시키였고 일부 성원들은 각지의 관청들에 박아넣어 정보를 정상적으로 수집하였으며 농민들을 폭동에 궐기시키기 위해 격문과 투서도 작성하였다.

이와 함께 은밀히 무기를 제조하고 한편으로 태천, 박천 등지의 군교, 아전들을 통해 정부의 무기들을 빼내오는 등 무기와 군수물자를 마련하였으며 특별히 만든 《은패》(병부)와 군호를 정하고 그것을 각처의 농민군지휘자들에게 알렸다.

홍경래를 비롯한 농민군지휘자들은 면밀한 사전준비에 기초하여 1811년 7월이후 다복동의 우군측의 집에서 평양, 녕변, 개천, 박천, 재령, 황주, 중화, 자산, 순안, 태천, 정주, 가산 등지에서 온 대표들의 모임을 가지고 그해 12월 20일에 폭동을 일으킬것을 결정하였다.

이런 때 세월은 연거퍼 3년째 가물었다. 농민들은 때식이 없이 풀뿌리와 나무껍질로 겨우 목숨을 부지해갔고 나라의 질서는 말이 아니였다.

홍경래는 농민군지휘성원들의 회의를 신도에서 열었다. 여기에는 폭동군대표 70여명이 참가하였는데 필요한 분담을 하고 폭동정세가 성숙되였다고 인정하면서 그 개시날자를 재확정하였다. 그리고 싸움에 일떠설수 있는 력량확보 및 군량준비정형을 재검토하

였다.

홍경래는 이들을 둘러보며 의미있게 입을 떼였다.

《여러분,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찾아오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자리에 모이게 된것은 한몸의 출세나 부귀영화를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

자 보십시오!

권세를 잡은 량반놈들은 저희들의 멋대로 법과 제도를 지어내 권세없는 우리 백성들을 얽어매여놓지 않았습니까?

승냥이보다도 더 못된 량반놈들은 죄없는 백성들을 함부로 잡아다 죽이기가 일쑤이고 리유없이 재물을 빼앗아가기를 밥먹듯 하니 오늘날 우리가 못살게 된것도 다 이놈들때문입니다.

량반놈들은 백성들의 목숨과 재물을 빼앗을뿐아니라 나라의 벼슬자리마저도 뻔뻔스레 도적질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제놈들끼리 패를 갈라 당파싸움과 세도싸움을 일삼으며 서로 죽일내기를 하고있는것입니다.》

홍경래는 량반놈들은 우리 평안도사람들에 대해서 알아주려고조차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제 세상을 뒤집어엎고 권세를 쥐고있는 량반부자놈들을 쳐없앨 때는 왔다고 소리높이 웨치였다.

그리고 홍경래는 자신을 대원수로, 부원수로는 김사용을, 총참모는 우군측, 참모는 김창시로, 도총(후방사령)에 리희저, 좌우선봉장에 홍총각, 리제초를 각각 임명하였다.

드디여 홍경래는 1811년 12월 다복동에서 싸움을 개시하였다.

그들의 초기계획은 평양 대동관에 불을 지르고 그것을 신호로 평양성인민들을 폭동에 궐기시키는것이였다. 그런데 12월 14일 한밤중에 폭동군에서 선발된 인원들이 은밀히 평양성에 들어가 대동관에 불을 질렀는데 뜻하지 않게도 화약통에 눈비가 스며들어가 발화시간이 늦어져 초기계획이 실현되지 못하였다.

또한 신도에 들어가 모임에 참가했던 인원중의 한 농민이 공교롭게도 관가에 잡혀 그만 비밀이 루설되였다.

그리하여 폭동날자를 예정일보다 이틀 앞당겨 12월 18일로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던것이다.

며칠후 1 000여명의 폭동군이 다복동에 집결하여 출전식을 거행하였다.

여기서 홍경래는 폭동군들에게 백성들을 다치지 말며 관가의 재물을 몰수하여 빈민들에게 나누어주며 이를 위반할 때는 농민군법에 의해 처단할것이라고 엄명하였다.

홍경래는 폭동군을 남진군과 북상군의 두개 부대로 편성하여 자신이 직접 한개 부대를 거느리고 가산읍으로 진출하였으며 다른 부대는 김사용의 지휘하에 곽산에서 봉기하여 북으로 진격하도록 하였다.

농민폭동군은 가는 곳마다에서 탐관오리들을 숙청하고 창고들을 열어 빈민들에게 쌀과 천을 나누어주었으며 무기고를 털어 새로 들어오는 농민들을 무장시켰다.

그리하여 그 대오는 삽시간에 6천～7천명으로 불어났다.

홍경래는 각 도에 호소문도 발표하였다.

그는 호소문에서 관서지방 부모형제들과 공사, 천민들에 이르기까지 모두다 자기의 호소를 들으라고 하면서 먼저 관서지방의 자랑을 렬거하였다.

《우리 관서지방은 원래 성인의 옛땅이요, 단군의 옛터이라 의관이 정제되고 문물이 찬란하다. 더구나 임진왜란, 병자호란과 같은 때에도 관서사람들의 그 공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조정의 고관들은 우리 관서사람들을 구박하고 저버리여 두엄더미나 다름없이 보며 깔아뭉개고있다.》

홍경래는 세상이 이러하니 큰 기근이 거듭되고 주림에 쓰러진 시체가 길을 덮었으며 늙은이, 어린이들이 도탄에서 헤매고 만인간의 목숨이 바로 경각에 달하였으므로 모두다 이 의로운 싸움에 한사람같이 나설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그리고 지방장관들도 동요하지 말고 성문을 열어 폭동군을 맞이하라고 격조높이 웨쳤다.

농민군은 진격을 개시한지 열흘이 못되여 가산, 박천, 태천, 곽산, 선천, 철산 등 고을을 일시에 점령하였으며 청천강이북지방에

서 가장 큰 고을중의 하나인 정주성까지 수중에 넣는 성과를 이룩하게 되였다.

농민폭동군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관청을 점령하고 군수를 체포처단하였으며 무기고를 헤쳐 무기들을 빼앗아냈다.

곽산군에서는 청나라에 갔다가 돌아오는 사신들의 짐을 실은 10여바리의 재물을 몰수하여 군자금으로 충당하였고 군수의 관인과 병부를 압수하고 처단해버리였다.

당황한 봉건정부는 봉기군을 기만하기 위해 썩은 견률곡을 농민들에게 선심이나 쓰는듯이 나누어주었지만 이들은 이에 속지 않고 더욱 기세드높이 진격해나갔다. 봉건정부는 어떻게 하나 홍경래를 잡아보려고 갖은 모략을 다 꾸미였지만 그것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들은 새로 《토벌》군을 편성하여 수많은 병력으로 대항해나섰다.

그러나 홍경래는 청천강이북의 전지역을 점령한 성과에 기초하여 안주를 치고 평양을 거쳐 서울로 남진하려고 작전하였다.

12월 25일 농민군은 처음 청천강을 건너온 1 000여명의 정부군과 싸워 그들을 여지없이 녹여내는 전과를 올리였다.

그리고 29일 아침에는 다시 강을 건너온 2 000여명의 정부군을 상대로 들판에서 격전을 벌리였다.

평안병사 리해우가 거느린 정부군은 농민군을 포위할 태세로 3개 방향으로 송림에 밀려들었다. 적들의 이러한 발악적공세에 대처하여 농민군은 부대를 세개로 편성하여 반공격하였다. 한개부대는 정부군의 우익을 에돌아 대담하게 후면으로 쳐들어갔고 다른 한개 부대는 적현을 에돌아 풍진쪽으로 정부군의 주력과 중군의 뒤통수를 후려갈겼으며 또 다른 한개 부대는 정면으로 공격했다.

이 전투에서 홍총각은 말우에서 장검을 휘두르며 《승패는 오늘의 싸움에 달렸으니 나를 감당할자 있거든 지체없이 나서라!》고 큰소리로 웨쳤으나 정부군은 누구 하나 감히 맞서나서지 못하였다.

그는 한목숨 내걸고 결사전을 벌리였던것이다.

하지만 정부군의 예비부대 500여명이 불의에 농민군의 후면에 접어들고 싸움이 오래 지속되면서 폭동군속에서도 사상자가 늘어나 평시에 훈련이 부족했던 대오속에서는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홍총각은 앞에서 기발을 높이 들고 북을 요란히 치면서 고무하였으나 이미 퇴각하기 시작한 농민군을 멈춰세울수 없었으며 농민군의 전투서렬은 급속히 무너졌다. 그리하여 농민군은 안주공격을 뒤로 미루고 진두에 물러나 대오를 수습한 다음 정주성으로 들어가게 되였다. 이 틈을 타서 정부군은 공세를 취하여 송림과 박천, 가산읍을 점령하였다.

정부군은 또한 다복동에 있는 농민군의 본거지를 기습소각하고 도처에서 불을 지르며 무고한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학살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송림전투는 농민군의 차후행동에 커다란 영향을 준 전투였다. 첫번째 큰 전투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하는 문제는 직접 농민군의 전투사기와 련관되여있으며 따라서 농민군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겨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군은 이 첫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였으며 이 실패는 투쟁에 일떠선 농민군과 인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광범한 농민들과 여러 계층들을 전쟁에 참가시키는데 부정적영향을 주었다.

농민군이 송림전투에서 실패한 중요한 원인은 수적으로 우세하였던 적이 포위하려들 때 그것을 다시 역포위하여 공격을 들이대지 못한데 있었다.

정부군은 이듬해 1월 11일 서울에서 파견된 1 000여명의 군대를 포함한 도합 8 000여명의 인원으로 정주성을 완전포위하였다.

그러나 이때 성안의 농민군은 2 000여명에 불과하였다.

이런 조건에서 홍경래는 적들을 성벽가까이 접근시켜놓고는 불의에 기습소탕하였고 성문방어에 최대의 관심을 돌리였다. 홍경래는 4개의 성문방비를 총지휘하여 성문밖에 마름쇠를 뿌리고 안에는 목책을 세웠다. 그는 또한 정부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

북쪽에서 응원군이 곧 나온다는 소문을 돌리고 성밖까지 들리도록 풍악을 요란히 울리면서 기세를 보이였다.

여러차례의 공성전투에서 련속 참패를 당하고 농민군의 기습전에 숱한 병력까지 소모한것으로 하여 봉건정부로부터 되게 추궁을 받은 관군은 더욱 교활한 계책에 매달리면서 결정적인 공격에로 나왔다.

관군은 전부대를 7개로 재편성하여 성을 6개 방향에서 공격해들어왔다. 그들은 정주성을 포위공격하면서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놓치지 않았다.

그러나 홍경래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앞질러 방비를 계속하면서 능숙한 전법으로 정부군의 공격을 물리치고 된벼락을 안기였다. 농민군은 관군의 주공방향인 성동북쪽에 력량을 집중하고 그들이 수십보앞에까지 기여들었을 때 불화살사격을 들씌워 석회석을 넣은 가마니를 불태워버리고 가마니뒤에 숨어있던 놈들을 여지없이 쏘아눕힘으로써 석회산을 쌓고 그것을 발판으로 성을 넘으려던 놈들의 계획을 파탄시켰으며 적들이 두대의 륜차(륜제 또는 전차라고도 함.)를 끌고 성에 접근했을 때에는 긴 장대기에 매달아놓았던 돌로 내려치기도 하고 마른 나무를 넣은 가마니에 장약한 폭탄을 떨구어 륜차에 불을 질러놓았다. 그러니 정부군은 석회가마니가 타면서 회가루가 튀여날려 눈을 뜨지 못하였으며 전차에 불이 일자 그안에 탔던 총수들과 차몰이군들이 뛰여나왔으나 역시 농민군이 쏘는 총, 활, 돌의 집중사격에 맞아 쓰러졌다.

(륜차－네바퀴가 달린 공성용사다리. 그 높이가 성을 굽어볼수 있을 정도인데 웃층 앞, 좌, 우면은 두터운 널판자로 막고 안면은 철갑을 댔으며 5～6명의 총수들이 앉아서 사격할수 있게 총구가 뚫려있었다.)

계속되는 싸움의 승리로 폭동군의 사기는 높았으나 포위된 상태에서 후방이 없는 조건이므로 시간이 흐를수록 무엇보다도 식량사정이 긴박해갔다.

때문에 성안에서는 하루식량량을 절반으로 줄이지 않으면 안

되였다. 그리고 화약과 총알, 화살도 떨어져갔다.

이런 조건에서 홍경래는 부족되는 전투기자재들의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가마를 거두어들이고 화약원료를 캐내는 등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다 동원하였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보장할수는 없는것이였다.

폭동군은 초근목피로 끼니를 에우면서도 굴하지 않고 억세게 성을 지켜나갔다. 이즈음 홍경래는 청천강이남지역에서 자기들의 투쟁을 지지하여 싸우기로 약속한 사람들의 활동에 더는 기대를 걸수 없게 되였다. 서울에서 봉건정권을 내부로부터 뒤집어엎기 위한 폭동계획을 추진하던 유한순, 한기조 등 주요인물들이 체포처형되고 사옹원봉사 박종일과 리진채의 반정부계획이 3월초에 탄로남으로써 마지막희망과 기대마저 잃게 되였던것이다.

홍경래는 방어전만 벌린다는것은 승산이 없는 죽음이라는것을 간파하고 전국적인 공세에로 넘어갈것을 결심하였다. 2월 25일 전투는 마지막으로 정부군이 더는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조건에서 반격에로 넘어가기에 유리하였다. 반격은 원쑤들을 더욱더 피동에 몰아넣을것이며 부족한 식량과 전투기재를 해결할수 있게 할뿐아니라 최상의 경우에는 정부군의 포위도 허물수 있었다.

농민폭동군은 3월 9일 이른새벽 안개를 리용하여 정부군의 진지를 앞뒤에서 기습해들어갔다.

첫번째 큰 기습전에서 폭동군은 207명의 적살상자를 내는 전과를 거두었다.

《서정일기》에서는 정부군의 패배상황을 이렇게 썼다.

날밝은 뒤에 보니 정부군의 《시체는 들을 덮었고 창검은 지저분하게 널려져있었으며 군막에 남은것이란 하나도 없는데 불길은 꺼지지 않고있다. 죽은 사람, 산 사람이 한데 섞여 누워있어 시체를 구별할수 없으니 차마 눈뜨고 볼수 없다.》

15일 낮의 두번째 큰 습격에서도 정부군을 혼란피로케 하였으며 많은 손실을 주었다.

농민군이 벌린 가장 큰 습격전투는 3월 22일에 있은 정부군지휘부에 대한 기습작전이였다.

이날 농민군의 주력은 홍경래의 지휘밑에 달천교까지 진격하여 복병들을 살상하고 감시막을 소각해버렸으며 정부군지휘부에 육박하여 천막들을 불사르고 군량창고로 돌입하였다. 그러나 이때 관군의 필사적인 집중사격으로 물러서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날 폭동군은 정부군의 화약고와 무기 그리고 진지들을 파괴해버리고 수많은 적을 섬멸하는 등 큰 전과를 올리였지만 그들도 다시 습격전을 조직할수 없을 정도로 많은 손실을 입었다.

그리하여 홍경래는 또다시 방어로 넘어갔으며 식량절약을 위하여 성안의 비전투원을 줄이기 시작하였다.

먼저 200여명의 녀성들과 어린이들을 성밖으로 내보냈으며 이어 100여명의 녀성, 어린이, 허약자들을 내보냈다. 이제 성안에 남은 것은 봉건통치배들과는 한하늘아래서 같이 살수 없다고 생각하는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뿐이였다. 그들은 소나무껍질로 끼니를 에워가면서도 전투사기는 여전히 높았으며 밤에는 풍악을 울리고 총포를 쏘아대면서 기세를 돋구었다.

관군은 정면공격으로써는 절대로 성공을 기대할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성밑으로 땅굴을 파고들어가 폭파하려고 시도하였다.

관군은 밤낮으로 공사를 다그쳐 4월 18일 저녁때에는 드디여 성밑까지 땅굴파는 일을 끝내였으며 19일 새벽에는 1 800근의 화약으로 성을 폭파하였다.

별안간 천지가 무너지는 천둥소리가 일어나고 뒤이어 관군이 성안으로 물밀듯이 기여들었다.

그리하여 생사를 판가리하는 최후의 결전이 벌어졌다.

홍경래는 칼을 비껴들고 그 복판에서 수많은 관군의 목을 베고 또 베였다.

농민군은 총탄이 떨어지고 칼이 부러져나가는 마지막순간까지 목숨을 바쳐 치고 부시였지만 수적으로 우세한 정부군을 당해내기는 어려웠다.

홍경래는 이 싸움에서 마지막까지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폭동군을 지휘하여 용맹을 떨치였으나 원쑤들의 탄알에 맞아 그만 쓰러지게 되였다.

《아, 내가 여기서 죽다니…》

이리하여 4월 19일 정주성안에서의 싸움을 마감으로 만 4개월동안 서북지방을 뒤흔들어놓았던 홍경래지휘하의 평안도농민전쟁은 끝을 마치였다.

홍경래는 불과 32살의 새파란 청년으로서 자기의 생애를 마친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 짧은 일생에 자신이 품었던 뜻을 대담하게 실현함으로써 봉건통치배들을 전률케 하였으며 우리 나라 농민폭동사에 한페지를 크게 장식하였다.

홍경래가 지휘한 평안도농민들의 싸움은 단순히 먹을것이나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봉기가 결코 아니였으며 썩어빠진 봉건지배계급과 현존정권을 타도할것을 목적한 반봉건전쟁이였다. 따라서 이것은 철저히 농민전쟁의 성격을 가지게 되였다.

그러므로 홍경래농민전쟁은 일정한 정치적목적을 가지고 면밀한 계획과 준비밑에 전개되였던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전쟁은 봉건통치배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봉건제도의 붕괴를 촉진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 뿐만아니라 력사의 주체이며 창조자인 인민대중의 힘이 얼마나 크며 그들의 자주성에 대한 지향이 얼마나 높고 큰것인가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그후 농민들의 진출에 고무적힘으로 되였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에서 봉건제도의 붕괴과정을 촉진시켰으며 자본주의적관계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다재다능하였던 시인 조수삼

다재다능한것으로 이름을 남긴 시인 조수삼은 18세기말부터 19세기 중엽에 걸쳐 활동한 작가들중의 한사람이다.

조수삼은 1762년 9월 전라도 전주 사천진에서 출생하여 1849년 6월 87살에 이르러 세상을 떠난 장수자이다.

그는 호를 추재 또는 경원이라고 하였으며 그의 아이적이름은 경유라고 불렀다.

그의 문집으로는 활자본으로 간행된 《추재집》이 있다.

조수삼의 특징은 다재다능이였다.

그는 남보다 특출한것이 열가지나 되므로 친구들로부터 한가지만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청을 받군 하였다.

그 첫째는 풍모, 둘째는 시문, 셋째는 과문, 넷째는 고려의학, 다섯째는 바둑, 여섯째는 글씨, 일곱째는 기억력, 여덟째는 웅변, 아홉째는 덕행, 열번째는 장수이다.

이처럼 조수삼은 재능과 조예를 겸비한 시인이였다.

그러나 가난한 중인의 가정에서 태여난것으로 하여 다재도 그를 출세시킬수 없었다.

조수삼은 벼슬길에 나서서부터 말년까지 하급무관직인 종사관으로 있었다.

그의 집은 무척 가난하여 하루하루를 겨우 넘기였으며 아버지는 아들 삼형제를 글이나마 읽도록 하기에 모진 애를 태웠다.

때문에 조수삼은 후일 자기의 시에서

추세로인 갖은 고생 다 겪으며
주리면 죽 먹고 곤하면 잠자더라

하고 읊조리였다고 한다.

조수삼은 4살에 글을 배우기 시작하여 5살에 글귀를 뜯어 읽었으며 6~7살에는 벌써 력사책들과 경서를 읽었고 8살에 시를 지었다고 한다.

8살에 조수삼은 《학을 노래함》이라는 시를 지어 마을사람들을 놀래웠고 12살에는 백일랑(지방에서 실시하던 시험)에 나가 붓을 휘둘러 이름이 났다.

그는 리덕무, 조희룡, 정수동, 천수경 등 당시 이름난 문장가들과 친구지간이였고 실학자들인 박지원, 박제가, 김정희의 지도도 많이 받았으며 그들을 자기의 선배로 하였다.

조수삼은 자신의 신분적처지로 하여 불공평한 현실에 대한 불만이 컸으며 그 시기 새롭게 출현하였던 실학에 깊이 공감하였다.

그는 자기의 자서전에서 울분의 감정을 이렇게 썼다.

《나는 본래 술을 잘 마시지 못하지만 료동벌을 지나거나 발해바다에 림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나와 같이 한미한 사람과 더불어 놀 때에는 능히 큰 잔을 가지고서 하루저녁에 몇되의 술을 다 마시군 하였다.》

조수삼은 사신의 수행원으로 몇번 중국에 들어가는 기회에 그곳의 이름있는 문필가들과 사귀면서 친교를 가지였고 자기들의 진의사를 소통하는 과정에 깊은 관계를 맺게 되였다.

조수삼은 통치계급의 착취에 항거하는 문인들의 집단인 위항시인들과 더불어 창작활동을 벌리였는데 여기에서도 그의 글은 언제나 뛰여난 자리를 차지하여 동료들을 경탄시키군 하였다.

김정희는 조수삼에 대하여 이렇게 썼다.

《그대의 시는 뜻이 깊어서 두자미에 비길수 있다. …

경원선생의 시문은 읽을수록 새롭다.

정주에서 지은 시는 모두 웅장하고 호방하여 두자미의 시, 한페지의 글과도 못지 않으며 북방의 흰눈과 변방의 칼바람을 련상케 한다.》

또한 이름난 문인이였던 한치요도 자기의 저서 《동랑집》

에서 《추재의 시를 삼십년이나 거듭 읽어오지만 예전에는 기이하지 않던것도 근래에는 더욱 신비롭게 읽혀진다.》고 칭찬하였다.

그의 시집을 편찬한 《벽오당》유고도 이렇게 지적하였다.

《신선인가, 부처인가, 늙을수록 더욱 호화롭고 활달하다. 83살에 비로소 란삼을 입었으나 그의 뛰여난 시문으로 인하여 다른 방면의 재능이 가리워졌다. 그는 의학, 약학, 거문고, 바둑 등 모든데서 능수라고 할수 있었다.》

그의 다재를 두고 평가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조수삼은 우리 나라 여러 지방을 돌아보면서 농촌의 암담한 현실을 직접 체험하였고 또한 자기의 생활처지에 기초하여 누구보다도 현실주제의 시들을 많이 써냈다.

조수삼의 시에서 가장 특징적인것은 농민들의 생활감정을 소박하고도 진실하게 노래한것이다.

대표작으로 《씀바귀》를 들수 있다.

그는 들판에서 나물캐는 수수한 늙은이를 통하여 당대 사회현실의 불합리성을 예리하게 꿰뚫어보고 시 《씀바귀》를 썼다.

천한것은 쓴것이니 귀족이 없어야 하며
가난도 또한 쓴것이니 부자가 그르니라
아낙네의 씀이란 판포를 바침이요
사나이의 씀이란 조세를 무는 일이다

시인은 봄갈이에는 가무는것이 쓴것이며 추수에는 긴 장마가 쓰며 풍년에는 가렴잡세가 쓰고 흉년에는 환자처리가 쓰다고 관료배들의 폭정을 시적으로 일반화하였다.

그리고 시의 마지막부분에서는 부자는 더 탐내여 더 큰 부자되렴이 쓰고 귀한자도 욕심내여 더 높이 되렴이 쓰다고 함으로써 자기 울분의 감정과 함께 당대의 불합리한 현실을 비판하였다.

특히 《씀바귀》에서는 《쓰다, 달다, 괴롭다》등을 다양하게 활

용하여 세련된 시적기교를 보여줌으로써 《씀바귀》는 예술적측면에서도 성공의 경지에 이르렀다.

시 《가을날의 봉천에서》는 백성들의 처지와 통치배들의 정사에 대하여 대조의 수법으로 폭로하고있다.

사람들은 아침저녁
끼니에 근심인데
나라에는 한때의 계량도
일년의 저축도 없구나

관가의 세금독촉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백성의 살림은
시래기죽생활이라

닥쳐올 이 봄에는
열집에 아홉집은
먹을것 찾아서
사방으로 흩어져 떠나리

시인은 원한만을 자아내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심각하게 드러내고있는것이다.

조수삼의 대표작의 하나로 되는 《북행시 백편》(1822년)은 함경도일대에 대한 려행을 통해 체험한 사실에 기초하여 서술한 시집이다.

그는 60이 훨씬 지난 나이에 서울에서부터 백두산까지 2백여일간이나 걸쳐 바람을 맞으며 찬비속 한지에서 자면서 기행하였는데 이 과정을 시집(100편의 짧은 시가 들어있다.)에 묶었다.

시인은 자연풍경에 의탁하고 대비하면서 현실을 반영하였다.

여기에서 특히 《보리여울》, 《삼방골짜기에서》, 《추가령

에서》, 《마랑도에서》, 《칠보산에서》 등의 시편들은 도탄에 빠져 허덕이는 백성들의 고달픈 처지와 봉건관료배들의 략탈성과 부패성에 대하여 자기의 립장을 밝히고 폭로하였다.

시인은 《보리여울》에서 농민들이 피눈물로 넘는 《보리고개》에 대하여 끝없는 동정을 가지고 노래하였으며 그들의 가난에 시달리는 구차한 살림형편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흰것은 갖다 찧어서
저자에 팔고
푸른것은 막 빻아
저녁거리로 삼는다

보리고개도
넘기 어렵거니
보리여울은
또 어이 건느랴

또한 시 《뽕따는 처녀》에서는 부자집녀자들은 좋은 옷 걸치고 그네우에 앉아 즐기지만 가난한 집 딸들은 피땀흘려 누에치기, 길쌈낳이로 눈코뜰새없으나 가을에는 모두다 부자놈들에게 빼앗겨야 함을 통탄하였다.

조수삼은 이와 같이 자그마한 사실을 가지고도 사회현실을 일반화하였으며 문제성을 끄집어내군 하였다.

시 《정평》에서는 호수를 부감하면서 《해마다 복숭아꽃 필 때면 배엔 기생만 실리네》라고 함으로써 고관대작들의 부화방탕한 생활을 조소하였다.

그리고 다른 시편들에서도 고리대금업자와 봉건관료배들의 악랄하고도 교활한 착취적수법을 여러모로 찾아내여 폭로하였던것이다.

조수삼의 시에서 다른 특징의 하나는 농민들의 일솜씨와 미풍량속을 찬양하여 아름답게 구가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대표작으로는 46수의 짤막한 시들로 엮어져있는 《밭갈고 길쌈낳이》를 들게 된다.

그의 앞부분에서는 씨담그기와 밭갈이로부터 시작하여 가을걷이, 마당질, 조세바치기, 두레놀이에 이르기까지의 한해영농절차와 농민들의 풍속을 노래하였고 뒤부분에서는 녀성들의 길쌈과정과 작업모습을 주고있다.

《가을걷이》라는 소제목에서 시인은 이렇게 썼다.

석새 베잠뱅이 신선한데
새벽이슬이 마르노니
논물과 해볕을
아울러 살피여라

허리에 비껴찬 낫은
하늘가의 초생달같은데
황금물결 다 헤치며
저녁늦게 돌아오네…

시인은 가을날의 농촌전경과 부지런한 농민들의 일솜씨를 소박하고도 담담하게 또한 눈에 보이는듯 생동하게 묘사하였다.

이와 함께 시인은 소제목 《관가창가로》에서 모든것을 관리놈들에게 빼앗기는 슬픈 사실을 동정하고있다.

소달구지에 한섬두섬
저마다 분주하다
시월달 관가창고로
조세를 바치노라

조세를 바치고나니
남은것 없어 살길이 아득코나
간신히 시래기로

목숨이나 이어갈가

이와 같이 조수삼은 자기의 시들에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였고 관료배들의 폭정에 대하여 주저없이 드러내였다.

조수삼은 또한 구전설화와 지난날의 력사에서 소재를 취한 작품들도 여러편 남기였다.

그 대표작으로는 《추재이기》, 《안시성에서》, 《첨성대에서》를 들수 있다.

그리고 1811—1812년 평안도농민전쟁을 내용으로 한 장편서사시 《홍경래》도 있다.

작품은 봉건관료배들을 강하게 비판부정하지 못한 부족점은 있으나 후손들에게 홍경래의 의로운 업적을 길이길이 전하려는 그의 념원이 담겨진것으로서 성과작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조수삼은 자기의 글에서 일부 산문들도 남기였다.

그러나 기본은 시문학이다.

그는 자기의 수많은 시들에서 현실에 대하여 가차없이 드러내고 비판하였지만 봉건제도 그자체를 부정하지는 못하고 호미를 쥐고 땅에서 일하는 농민들의 근본리익을 옹호하여 강하게 주장하지 못한 본질적인 약점을 나타내였다.

그러나 조수삼은 다양한 주제의 시들을 현실에 발을 붙이고 차근차근 써나간것으로 하여 18세기말～19세기초의 시가발전에 크게 기여한 시인으로 된다.

방랑시인 김삿갓

과거시험장에서 나오는 김삿갓의 어깨는 축 처져있었다.

19살 김삿갓은 시험에는 선참으로 합격되였으나 그의 처지가 밝혀짐으로써 그만 벼슬길이 막혀버렸던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벼슬이 발표되였지만 그는 물러서라는것이였다.

《아, 이 무슨 변고인가. 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인가?》

그의 가슴속에서는 불덩이가 치밀어올랐다.

그러나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었다.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벼슬이 부러워서가 아니라 인간축에 넣어주지 않으니 이 세상에서야 살수 없지 않는가. 이 세상을 등져야 한다.》

김삿갓은 주먹으로 땅을 치며 분연히 일어섰다.

김삿갓으로 말하면 1807～1863년기간에 활동하면서 방랑생활로 일생을 마친 우리 나라 시인들중의 한사람이다.

그의 본명은 김병연이였는데 늘 헌 삿갓을 쓰고 방랑생활을 하였기에 《김삿갓》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였다.

그는 원래 서울의 이름있는 량반의 가정에서 출생하였다.

그러나 그가 5살이 되던 해에 선천부사를 지내던 할아버지 김익순이 홍경래가 지휘한 평안도농민군에 투항하였다는 《죄명》으로 온 집안이 처형당할 운명에 처하였다.

그는 형인 김병하와 함께 머슴의 도움을 받아 황해도 곡산 산골로 피신해가서 숨어살았다.

그후 조정에서 가족들의 목숨은 보아준다는 《사사》가 내리자 아버지인 김안근에게 가서 자라났다.

김삿갓은 과거시험에 들었으나 할아버지의 죄가 드러나게 됨

으로써 벼슬길에 나서지 못하게 되였다.

이것을 계기로 하여 김삿갓은 통치배들을 증오하여 삿갓을 쓰고 방랑의 길에 나섰던것이다.

이런 뼈아픈 체험을 가지고있기에 그는 남달리 현실에 대한 안목이 날카로왔다.

뿐만아니라 봉건관료배들에 대한 그의 불평불만은 방랑생활과정에 백성들의 비참한 처지를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고 체험하면서 더욱 커갔다.

그는 전국각지를 떠돌아다니면서 량반들의 비인간적행위를 눈여겨 살펴보았으며 이와 함께 인민들의 생활에 대하여 끝없이 동정하게 되였다.

그의 시들에 반영된 예리한 풍자와 비판은 이런 그의 처지로부터 오는 산물이였다.

김삿갓은 시에서 자신의 방랑생활의 고달픔과 백성들의 빈궁한 처지에 대해 읊은것이 아니라 부패한 량반들의 죄를 폭로하고 그밑에서 신음하는 인민들의 생활에 심심한 동정을 표시하였다.

오늘은 이 마을, 래일은 저 거리를 걷고걸으면서 김삿갓은 날마다 시를 남겼고 백성들과 함께 량반들의 죄행을 폭로하고 야유하였다.

사람들이 그를 위해주고 사랑해주면서 그 어디에서나 한술의 밥을 나누어준것은 바로 그가 그들의 생활을 진실로 알아주었으며 시들에서 그 요구와 념원을 반영하고 통치배들을 비판하였으며 백성들의 비참한 처지를 동정하였기때문이다.

김삿갓은 근 40년간이나 방랑생활을 하였다.

그 과정에 그는 수많은 시들을 남기였던것이다.

김삿갓은 시 《옳고그름을 노래》에서 옳고그름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여 똑똑한 정신으로는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는데 대하여 쓰면서 이 세상에서는 옳은것이 그른것으로 되고 또 반대로 그른것이 옳은것으로 되고있다고 풍자하였다.

이것은 시대의 반항아인 시인자신의 경향을 그대로 드러낸것이였다.

그는 일생 가는 곳마다에 수많은 시들을 남기였으나 없어진것들

이 많고 다만 구전으로 전해오는것이 대부분이다.

그의 시에서 주되는것은 량반들의 비행과 위선, 우매성, 허장성세를 비판한것인데 주로 량반들을 놀려대는데 예리한 화살을 돌리였다.

때문에 김삿갓을 풍자시인이라고 하는것은 정당한 평가로 되는것이다.

그의 시적특징은 바로 풍자였다.

그의 대표작인 시 《온종일 머리숙인 나그네》에서는 몸에는 연록색 두루마기를 떨쳐입고 진분홍빛부채를 손에 들고 거드름을 피우면서 잘난체 하는 량반들이란 책 한권 읽은것이 없이 귀한 재물만 탕진하고 랑비해버리는 방탕아들이며 높은 벼슬아치들앞에서는 해종일 비굴하게 머리를 수그리고 설설 기다가도 시골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잘난체 머리를 쳐들고 으시대는 비렬한들이라고 놀려대였다.

즉 량반들이란 겉으로는 아주 《점잖고》 《위엄》이 있는듯 하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빈 깡통들이며 돈만 알고 물쓰듯 하는 건달들, 권세에는 빌붙고 탐욕과 출세만을 바라보는 추물들이라는것이다.

그는 시에서 이렇게 쓰고있다.

몇근씩 솜을 두어 기운 버선에
가죽신까지 받쳐신고는
이른아침부터 저물 때까지
대신집 심부름만 싸다니누나

연푸르게 물들인 두루마기는
길어서 땅우에 질질 끌리고
진분홍 값비싼 자루부채로
하늘의 뙤약볕을 가리고 걷네

시집 한권 읽고도
시를 안다 떠들고

천금을 다 쓰고도
아직 돈에 바치누나

세도집 문앞에서 해가 지도록
머리만 숙이고있는 저자가
고향사람 만나면 제가 잘난척
기세를 올리며 떠들어대네

또한 《량반의 아들을 조롱함》에서는 이렇게 조롱하였다.

모난 관에 긴 담배를 꼬나문 량반의 아들녀석
명자책을 사들고 소리쳐읽는
그 모양 천연 갓 생긴 원숭이요
그 목소리 흡사 와글거리는 개구리다

작품은 이렇게 시작하여 량반의 자식을 원숭이, 개구리에 가져다 비겼고 아는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호통치기만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량반들이란 어디에도 쓸데가 없는 인간들이라고 풍자하였다.

그는 시에서 아는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신분상 다른것으로 하여 과거에 급제한다고 놀려대면서 비판의 주제를 이 시기 과거제도의 불공정성에 결부시켰다.

또한 김삿갓은 시 《원생원》에서 동음이의어의 독특한 수법을 리용하여 량반들을 조소하였는데 이것은 그의 창작에서 매우 이채롭다.

시에서는 원씨, 문씨, 서씨, 조씨성을 가진 시골량반들을 원숭이, 모기, 쥐, 벼룩으로 묘사하면서 놀려대고있는것이다.

그리고 김삿갓의 시 《돈》에서는 돈은 그 힘이 《나라를 일으키고 집을 일으키는 세력》을 가지고있을뿐아니라 또한 산사람을 죽이고 죽은 사람도 능히 살리는 힘을 가지며 바보머리라고 하여도 돈만 있으면 상당한자로 이름을 떨칠수 있다고 빙자하였다.

이것은 당시 상품화페관계가 발전하면서 점차 돈에 대한 환상이

비할바없이 높아지게 된 현실을 비판한것이다.

김삿갓의 시 《스무나무아래 서러운 나그네 망할 놈의 집에서 쉰밥을 얻어먹었네》에서도 량반들의 비인간적인 처사를 날카롭게 해부하였다.

시인은 작품에서 량반이라고 체면차리는자들은 그의 외적행동과 내면세계의 모순으로 하여 하나같이 쓸것들이 없다고 비난하면서 과장과 비유로 경멸감을 자아내게 하고 웃음을 터뜨리게 하였다.

또한 김삿갓은 틀에 박힌 지난 시기의 한자시 작시법에서 대담하게 탈피하여 자유로운 파격시들을 많이 쓴것이 특징적이다.

이것은 고루하고 격식화된 한자시가 아니라 자유분방한 시가형식을 찾으려는 지향의 표현이였다.

이것은 또한 그의 성격적반영이기도 하였다.

김삿갓은 이와 같이 기발한 착상과 능숙한 수법으로 량반들을 무위도식하는 무리라고 조소하였다.

량반을 풍자한 그의 시들에는 바로 량반계층에 대한 백성들의 끝없는 증오와 규탄, 경멸의 감정이 반영되여있는것이다.

여기에 바로 풍자시인으로서의 그의 진보성이 있다.

그는 기발한 시적기교, 독특한 시가형식, 그 내용에서의 선진적인 측면으로 하여 당시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졌으며 사랑을 받게 되였다.

김삿갓에 대해서는 많은 일화들이 있다.

그중에서 특히 금강산에 올라 조국산천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면서 량반들을 놀려댄 이야기가 인기를 끌고있다.

어느날 김삿갓이 내금강의 만폭동으로 가려고 허줄한 행색으로 표훈사쪽에 나섰는데 나무그늘아래 량반들이 둘러앉아 시짓기내기를 하면서 법석 고아대고있었다.

호기심에 끌려 가까이 다가가 들어보니 그들의 시라는것은 모두 허황한 빈소리뿐이고 그 앞뒤도 맞지 않아 시라고 할수 없는것들이였다.

김삿갓은 참다못해 슬쩍 한수 읊었다.

나는 청산이 좋아 들어가는데
록수야 너는 어이하여 나오느냐

김삿갓이 지나치려는데 량반들이 그를 불러세웠다.

차림새는 볼꼴없지만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시는 보통이 아닌것이다.

그들은 김삿갓에게 자기들과 같이 시짓기내기를 하자고 걸어왔다.

그러자 김삿갓은 자기는 시를 지을줄은 모르지만 부를줄은 안다고 하였다.

《시를 부를줄만 안다구? 그것 참 흥미있는 말일세. 그럼 불러라도 보게나.》

《량반님들의 소원이라면 거저 지날수 있겠소이까? 그럼 내 시를 부를테니 써보시구려.》

그리하여 김삿갓이 시를 부르고 량반들이 받아쓰게 되였다.

그는 별로 생각지도 않고 소나무를 가리키는 글자를 나란히 두자 쓰라고 하였다.

다음에는 잣나무를 가리키는 글자 두자, 다시 그옆에 바위를 가리키는 글자 두자, 그옆에다는 돌아간다는 글자를 한자 더 쓰게 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김삿갓은 줄을 바꾸어서 산과 물을 가리키는 글자를 각각 두자, 이곳저곳 가리키는 글자를 두자 쓴 다음 나중에는 기이하다는 글자 한자를 더 놓게 하였다.

다 받아쓰고난 량반들은 골이 나서 시를 부르라고 했지 언제 이런것들을 부르라고 했는가고 하면서 고아댔다.

김삿갓은 성큼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게 나야 시를 부를줄만 안다고 하지 않았소. 나는 대상이 못되니 그만 물러가겠수다.》

그는 도고한 태도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김삿갓이 떠난 후 량반들은 그가 부른것을 읽어보았다.

송송백백암암회
산산수수처처기

(소나무, 잣나무, 바위들이 뒤섞인 사이를 돌아드니
산은 산마다, 물은 물마다 곳곳이 기이한것뿐이구나)

시의 뜻을 새기니 저절로 머리가 숙어들었다.

과연 명시였던것이다.

량반들은 주눅이 들어 그가 사라진쪽을 멀거니 바라보기만 하였다.

또한 시의 《신선》이라는 일화도 있다.

어느날 김삿갓은 내금강 마하연이라는 암자(큰 절에 달린 작은 절 또는 중이 림시로 거처하는 작은 집)에 살고있는 한 중을 찾아갔다.

그가 당시에는 소문이 자자한 시인이였기에 내기를 하려는것이였다.

그를 맞은 중은 제풀에 노여워하는것이였다.

《나는 이 산속에 오십여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문객들을 맞고 보냈지만 아직 이 금강산에 알맞는 글귀를 남기고간 사람은 보지 못했소.

그런데 당신은 얼마만한 글재주를 가졌길래 감히 금강산에 대한 시를 가지고 내기를 하자고 청하는것이요?》

김삿갓은 남아답게 호탕한 큰웃음을 터뜨렸다.

《금강산은 천하명승인데 그에 대한 시가 졸작이라 어이 근심하시오? 금강산이 생긴 그대로 읊으면 시도 또한 천하명시가 될것이 아니겠소.》

그러자 중은 김삿갓을 찬찬히 바라보는것이였다.

《그대의 담력이 그러하다면 내 응하겠네만 만약 청렴하고 신령스러운 금강산에 털끝만치라도 손상을 주거나 욕되는 시구가 나타나면 그대의 이발을 빼버리고말겠네.》

《뉘의 이발이 빠지겠는지 겨루어보아야 할 일이겠지만 금강산의 절경을 보고 감회를 누를길 없어 두사람의 마음을 합친다면 필경 흡족한 시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옵니다.》

그리하여 이들 둘은 비로봉 높은 꼭대기에서 시작하여 만폭동골안을 흐르는 사선계개울에까지 이르면서 전구를 떼면 화답하는 방

법으로 시를 읊어나갔다.

중: 이른아침 립석봉에 오르니
구름은 발아래 생기고
삿갓: 저녁에 황천수의 물을 마시니
달이 입술에 걸리더라
중: 사람의 그림자는 물속에 잠기였어도
옷은 하나도 젖지 않았고
삿갓: 꿈속에 청산을 오르고내렸어도
다리는 하나도 아프지 않네
중: 산에서 돌이 굴면
천년이 걸려야 땅에 닿을듯 하고
삿갓: 산이 한자만 더 높으면
손이 하늘에 닿을듯 하여라
중: 가을구름이 만리에 뻗었으니
흰 고기비늘이 겹쌓인것 같고
삿갓: 천년묵은 고목의 뻗친 가지는
사슴의 뿔이 높이 솟은듯 하구나

시로 이름이 나서 감히 당할 사람이 없다는 중이 연송 불러대도 김삿갓은 거침없이 화답하는데 그 뜻을 따지니 신기할 지경이였다.

중은 자신이 아껴두고 쓰지 않던 시구를 불러댔다.

중: 달이 희고 눈이 희니 천지가 희고
삿갓: 산이 깊고 물이 깊으니 나그네 수심도 깊다

중은 그만 감동되여 멍하니 바라보기만 하면서 더 내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러자 김삿갓이 빈정대기 시작하였다.

《아니 왜 바라보기만 하시우. 어서 이발을 빼버려야 하지 않겠수.》

중은 금강산에서 나서자라며 시로 명성을 떨치였지만 이런 훌륭한 시인을 대해보기는 난생처음이였다. 그는 새로운 시의 친구를 찾은 기쁨과 감탄이 뒤섞여 가슴이 들먹이였다.

《그대는 누구이시오?》

《나는 보잘것없는 김삿갓이라는 사람이요.》

《김삿갓, 소문에도 시에 귀신이라 하더니만 오늘 보니 그대는 과연 시의 〈신선〉일세.》

중은 김삿갓의 두손을 뜨겁게 잡아쥐였다.

이와 같이 김삿갓은 금강산에만 하여도 여러건의 일화를 남기였다.

또한 꽃놀이터를 지나가면서 남긴 명시에 대한 일화도 남아있다.

온 나라 산과 들판에 진달래꽃이 만발한 화창한 봄날 김삿갓은 여느때와 다름이 없이 걸인의 행색으로 헌 삿갓을 푹 눌러쓴채 시내물이 졸졸 흐르는 돌다리를 건느고있었다. 좋은 때라 돈많은 량반선비들은 개 한마리를 잡아놓고 술놀이를 하면서 제흥에 겨워 시들을 엮어댔다.

그런데 김삿갓이 듣자 하니 그 시라는것이 모두 젖비린내가 나는것뿐이였다. 이들을 놀려대고싶었던 김삿갓은 그옆에 가까이 가서 시름없이 한마디를 던지였다.

《에, 구상유취로구나.》

이 소리에 여러 선비들이 낯을 돌리니 볼꼴도 없는 걸인이 하는 소리이다.

선비들은 달라붙어 그 뜻을 따지였다.

김삿갓은 입에서 젖비린내가 난다는 본뜻과는 달리 해석해주었다.

《구는 개요. 상은 죽는다는 말이요. 유는 선비 그리고 취는 모인다는 글자이니 결국 개죽은 상사에 모여왔다는 뜻이 아니겠소.》

말문이 막힌 선비들은 그에게 시 한수를 지으라고 권하였다.

김삿갓은 처음에는 사양하는척 하였으나 다음에는 못이기는척 하면서 선비들이 주는 술잔을 받아 쭉 들이키고는 돌가마를 건 지짐판에서 먹음직스러운 진달래꽃전 한개를 제꺽 집어들어 입으로 가져가더니 다음과 같은 시 한수를 거침없이 엮어내려갔다.

자그마한 시내가에
돌가마 걸어놓고
흰 가루 풀어넣어
진달래꽃전 지졌구나
쌍저가락으로 집어먹으니
꽃향기는 입안에 하나 가득차
한해의 봄기운이
배안으로 전해가도다

선비들은 입을 딱 벌리고 저희들이 지껄이던 젖비린내나는 시구들을 돌이켜보았다. 그들은 그제사 그 결인이 바로 유명한 김삿갓이라는것을 알아보았고 황급히 그앞에 엎드리였다.

《로형이 그 유명한 김삿갓선생이시구려.》

김삿갓은 대답도 없이 찌그러진 갓을 주어들어 오던 때와 다름없이 스적스적 떠나가버리였다.

김삿갓은 풍자시들과 함께 백성들의 어려운 생활처지를 동정하고 그들의 아름다운 마음씨와 의리를 노래한 시들도 많이 썼으며 일화에서 보는것처럼 자연경치를 노래한 서정시들도 남기였다.

대표적인것으로는 《가난살이 어려워라》, 《제목없이》, 《금강산》, 《대동강 련광정》, 《부벽루》등이 있다.

김삿갓은 시 《가난살이 어려워라》에서 이렇게 노래하였다.

이 땅우에 신선이 있다더냐
부자가 신선일세
사람에게 죄가 있다더냐
가난이 죄라네
말하지 말라 부자와 가난뱅이
종자가 따로 있다고
가난한 사람 부자되고
부자도 가난뱅이 되리니

또한 시 《거지의 주검을 보고》에서는 이렇게 읊었다.

내 그대의 이름도 성도 몰라라
그 어느곳이 그대의 고향이더냐
아침에 쉬파리떼 그대의 몸을 괴롭히고
저녁에 까마귀들 외로운 혼을 조상한다
짤막한 지팽이는 그대 남긴 유물인가
몇되박 남은 쌀은 빌어먹던 량식인가
부탁하느니 앞마을의 여러분네들
한삼태기 흙으로 비바람 가려주려무나

이처럼 김삿갓은 백성의 편에 서서 그들의 처참한 생활을 끝없이 동정하고 착취에 시달리고 권세에 눌리우는 인민들의 원한을 자기의 시에 담아 읊고 또 읊었으며 기발한 착상과 익살, 풍자로 량반관료배들을 조소하였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그는 우리 나라 각지를 다섯번이나 돌아다녔는데 그의 둘째아들과 가족들이 세번이나 찾아와 집에 돌아가자고 손목을 끌었지만 끝내 가지 않았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그의 가까운 친구였던 정현덕이 서울에서 벼슬을 지내면서 김삿갓을 가긍히 여겨 왕에게 간을 올려 임금의 《특사》까지 베풀도록 하였지만 자기의 지조를 굽히지 않았다.

그는 찬바람부는 겨울날 한지에서 한밤을 지새웠고 길가의 날무우와 생감자를 씹어삼키면서 걷고걸으며 수많은 시들을 썼다.

김삿갓은 1863년 56살이 되던 해 전라도 동북땅의 길가에 그만 쓰러지고말았다.

한 선비가 불쌍히 여기여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치료를 하였지만 이미 병은 기울어진 때였다.

선비는 그가 김삿갓임을 알자 반가와하며 정성을 다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어느날 밤 그는 헛소리를 치는것이였다.

《저 등잔불을 꺼주오.》
그리고는 조용히 숨지였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시는 《난고평생시》이다.

새도 짐승도 제 집이 있는데
나는 한평생 혼자서 쓸쓸히 떠돌아다녔네
미투리, 지팽이로 천리길을 걸었고
구름따라 닿은 곳이 집이였다네
사람을 탓하랴 하늘을 원망하랴
흘러간 세월속에 내 마음만 아플뿐이네

…

강산따라 구걸한 대문은 천만호에 이르렀고
풍월시음의 행장으로는 텅빈 주머니 하나뿐일세
만석군의 아들로 태여나서
후하고 야박한 세상의 온갖 인심을 다 맛보았네

기구한 팔자라 천대받다보니
흐르는 세월속에 흰머리만 늘었다네
가도오도 못하고 서있지도 못하며
수많은 나날을 나그네로 떠돌았을뿐이네

그는 이렇게 객사하고말았다.
김삿갓은 일생동안 떠돌아다니면서 시를 썼으나 그의 시에서는 개별적인 량반들을 풍자조소하는데 그쳤을뿐 사회제도자체를 비판폭로하는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것은 당시 시대적조건과 함께 그의 계급적처지의 제한성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하지만 그는 량반관료배들과는 달리 백성의 편에 서서 착취자들을 풍자하고 조롱하였다.
때문에 오늘도 그의 이름은 문학사에 기록되여 전해지는것이다.

지리, 지도학자 김정호

김정호는 그렇게도 소원하던 서울 규장각의 지도를 친구의 도움으로 손에 넣게 되였다.

그는 먼저 이 지도가 정확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해보았으나 그것은 믿을만한것이 못되였다. 실지와 엄청나게 틀리였다.

《지도라는것이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겠는가? 아니다. 나는 반드시 정확한 지도를 만들리라.》

김정호는 어린시절 서당에 다닐 때부터 산과 강의 위치, 시내의 위치를 모래바닥에 그리면서 크거들랑 반드시 지도를 만들것이라고 속다짐하였다.

《내 일생을 다 바쳐서라도 한번 해보리라.》

그는 거듭 마음다졌다.

지리, 지도학자 김정호는 본래 황해도사람으로서 서울 남대문밖 만리재에서 살았다고도 하고 또는 서울 서대문밖 공덕리에서 살았다고도 한다.

그의 출생과 생애에 대하여 명확히 알려진것은 없고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전해오고있을뿐이다.

이런것으로 보아 그의 집안이 당시에 있어서 그리 지체가 높은 가문이 아니였으며 매우 가난한 살림을 이어가고있었다고 짐작할수 있다.

김정호는 자를 백원 또는 백온이라고 하였고 호는 고산자라고 불렀다.

그는 일찌기 실학파의 한 사람이였던 최한기와 친교를 가지였으며 실학자들과 많이 접촉하면서 그들의 《실용지학》에 공감하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매우 근면하였고 학구적인 태도를 가지고있

었으며 의지가 강하여 한번 먹은 마음은 변함이 없는 성격이였다. 그것은 그가 혼자의 힘으로 《대동여지도》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잘 말해주고있다.

원래 지도제작이란 일개인이 할 일이 아니라 응당히 국가적인 사업으로 되여야 한다.

하지만 김정호는 이러한 큰일을 혼자의 힘으로 그것도 가정과 일생을 다 바쳐 해내고야말았다.

그러니 김정호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로 높이 내세워야 할것이다.

김정호가 활동하던 19세기 중후반기는 봉건통치배들의 당파싸움으로 하여 나라형편이 말이 아니였다.

밖으로는 유미자본주의렬강들이 우리 나라를 먹어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있었다. 그러므로 이를 막아내자고 하여도 지도는 반드시 필요한것이였다.

뿐만아니라 상품류통과 사람들의 왕래가 점차 활발해지는 사정은 지리학적지식과 실용적인 지도를 요구하였다.

때문에 김정호는 정부에 정확하고 상세한 지도작성문제를 여러차례 제기하였다.

일찌기 실학자들과 접촉하면서 김정호는 《보물을 잘 지키려는 사람은 그 보물을 똑똑히 알아야 하는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나라 강토를 잘 지키자면 먼저 자기 나라의 산천과 거리의 모양이 어떻게 되여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한 선배 리익의 말을 항상 명심하고 이 사업을 추진시키려고 한것이였다.

김정호는 정부에 제기한 건의서에서 나라의 경제, 군사상 모든것을 바로잡기 위하여서는 정밀한 지도가 있어야 한다는것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지도작성절차와 방법, 세칙에 이르기까지 밝혔다.

그리고 지도에는 매개 주, 현들에서 먼저 읍을 쓰고 다음에 읍이 생긴 연혁과 고읍, 방면, 물과 산, 성곽, 역과 참, 선척, 다리, 섬, 언제, 토산물, 무덤과 절간, 정자와 루각, 명승고적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내용을 세밀하게 기록할데 대하여 분석적이고 과학적인 의견을 냈다.

그러나 제놈들의 권세와 물욕에 눈이 어두워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봉건관료배들은 지도제작문제따위는 거들떠보지조차 않았고 오히려 국가기밀을 루설한다는 죄를 뒤집어씌우기까지 하였다.

자기 힘으로 지도를 기어이 만들어내리라는 김정호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그리하여 김정호는 괴나리보짐을 등에 지고 헌 삿갓을 쓴채 지팽이에 의지하여 전국의 땅을 자신이 직접 조사하기 위한 길에 올랐다.

지금처럼 기차나 자동차가 있는것도 아니고 오직 걸어서만이 모든 곳을 돌아야 하는 어려운 환경에서 그의 연구사업이란 실로 고생스러운것이였다.

그러나 김정호는 모든것을 이겨내면서 산과 강, 바다모양을 적어넣었고 도로와 그 리수를 표시했다. 때로는 산 하나를 두고 하루를 넘기기도 하고 허기진 배를 그러안고 바위밑에 쪼그리고 한밤을 지새우기도 하였으며 짐승들이 울부짖는 무서운 산골짜기에서 온밤을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의 결심은 확고하였다.

하나하나의 자료가 늘어나는것이 무척 기뻤다.

김정호는 백두산에만 해도 다섯차례나 올랐으며 제주도 한나산에도 올라 그 높이를 재고 정확히 기록하였다.

그러던 김정호는 그만 병이 나서 할수없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였다.

집에 와보니 집안살림은 말이 아니였다. 안해는 남의 집 삯일을 해주고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있는 형편이였다. 그보다도 근 10년만에 돌아오니 인정에 주린 딸과 안해는 그의 팔을 붙들고 놓아줄념을 안했다.

김정호는 먼저 지금까지 확인한 자료에 기초하여 《청구도》라는 지도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지도를 작성하는데 안해와 딸도 적극 도와나섰다. 전하는데 의하면 딸은 근면하고 재능있는 문필가였다고 한다.

그는 늦도록 시집을 안가고 아버지의 연구사업을 도와 직접 글을 쓰고 판을 새겼을뿐만아니라 여기에 가산이 탕진된 이후에는 어머니와 함께 기름장사, 광주리장사를 하여 그 비용을 보장했다고 한다.

이것은 김정호의 가정이 지도제작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가 하는것을 말해준다.

온 가정의 고심어린 노력끝에 1834년에 마침내 새로운 지도인 《청구도》를 만들어냈다.

《청구도》는 18세기 정상기가 만든 《동국지도》보다 훨씬 정밀하며 조선 8도를 세로 22개, 가로 29개의 방안(눈금)으로 나눈 다음 그 지형을 통일적으로 정확하게 그려놓은것이였다.

김정호는 《청구도》를 만들면서 지도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이전시기에 만든 지도들을 참작하는 한편 이름이 있다고 하는 산들의 위치, 산줄기모양, 강, 호수의 형태를 표시하고 지방의 중요한 지점들과 군사시설, 교통 및 그밖의 시설들을 체계적으로 표시하였다. 또한 앞부분에는 고대조선, 세나라, 후기신라, 고려시기의 지도를 따로 만들어붙이고 리조시기의 8도주현총도에서는 도, 주, 현들의 위치를 한눈에 알아볼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러가지 기호들의 알아보기까지 붙이였다.

뿐만아니라 지도에서 다 표현하지 못한 내용은 지도안의 빈자리에다 간단히 써넣어 정확히 인식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김정호는 자신이 만든 《청구도》에 대하여 다시 깊이 연구한 결과 몇가지 부족점들과 함께 부정확한 문제들이 있다는것을 발견했다.

그는 안해와 딸이 그렇게도 매여달렸지만 다시금 자료조사의 길에 올랐다.

《당신은 저 딸애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하는 부인의 마지막말이 발등에 밟혀왔지만 김정호는 큰 마음을 먹고 다시금 이 길에 나섰다.

《남들이 믿을수 있고 우리 백성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정확한 지도를 만들자!》

그는 이 하나의 생각으로 온 나라 8도의 방방곡곡을 돌고 또 돌았다. 이렇게 하기를 또한 10여년간, 김정호는 이 땅 그 어디를 막론하고 세차례나 돌았던것이다. 그러니 그가 집을 나서서 20여년간을 이처럼 떠돌이생활을 한셈이다.

해여진 옷에 찌그러진 갓을 눌러쓰고 온 나라, 온 고을들과 층암절벽을 오르고내리기를 어찌 헤일수 있으랴. 한번에 안되면 또다시 오르고 또 안되면 다음날에 다시 오르고 하니 한해가 언제 어떻게 갔는지 자신도 몰랐다. 그 누가 반겨주는이도 없는 심산유곡 수백리 산길과 아득한 들판을 걸었고 깊고 얕은 수천갈래의 크고작은 강과 하천을 건넜으며 때식을 넘기면서도 그는 끝내 목적을 이루고야말았다.

김정호는 이제는 자료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서 지도를 새롭게 제작하려는것이였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 한평생 고생하던 부인은 벌써 이 세상사람이 아니였다.

다만 딸만이 헌 오막살이를 지키고있을뿐이였다.

《아, 조금만 더 살지 벌써 가다니! 이제는 지도도 얼마간만 있으면 되겠는데…》

김정호는 땅을 쳤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는 늦게나마 혼처를 구하여 딸을 시집보낸 후 자신이 때식을 해먹으면서 지도제작에 달라붙었다.

이제는 목판을 새길 차례가 되였다. 그런데 이때 시집보낸 딸이 또 남편을 잃고 집으로 돌아오는 불행이 겹쳐졌다.

그는 설음에 겨워 침식마저 잃은 딸을 위로하며 또다시 지도제작에 심신을 바쳐나갔다.

김정호는 칼을 들어 목판을 새겨나갔다. 손에서는 살갗이 터져 피가 흘렀다. 그는 이런 힘든 일을 딸에게도 시켰다. 딸애의 손바닥에도 어느덧 못이 박혔지만 김정호는 그보다도 그 한획, 한선이 더 귀중하였다.

그리하여 김정호는 27년이라는 오랜 기간의 꾸준하고도 의지있는 노력을 바쳐 1861년에 마침내 《대동여지도》를 완성해내

고야말았다. 순조임금때 만들기 시작한 그의 지도는 현종, 철종 세 임금을 거쳐서 매듭을 짓게 된것이다.

《대동여지도》는 우리 나라를 지구우의 위도선에 따라 22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16만 2 000분의 1 줄임자에 기초하여 만든 매우 정확하고 근대적인 체계를 갖춘 전조선적인 지도이다. 22개의 개별적인 이 지도들을 전부 펴서 련결시키면 그 넓이가 33㎡나 된다. 《대동여지도》22책은 함경도 온성으로부터 제주도까지를 22개의 단으로 나눈것을 각각 한책으로 접어서 첩본으로 만든것인데 첩본의 한쪽면은 통일적인 줄임자에 따라 북남방향으로 120리, 동서방향으로 80리가 되도록 하였고 그 첩본을 펴면 서로 련속된 하나의 도면으로 이어지도록 하였다.

특히 김정호는 작업에서 지도에 올릴 자료들과 표시하는 기호체계를 짜는데 모든 심혈을 기울이였다. 그는 지난날의 성과뿐아니라 자신이 직접 답사한 자료에 토대하여 고도의 통일성과 정밀성, 과학성을 보장하였다. 때문에 현대에 와서 만든 조선지도를 그때의 크기인 16만 2 000분의 1 지도로 만들어놓고 《대동여지도》와 맞추어보면 두 지도가 거의 일치하게 된다. 이 하나만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여기에 정력을 쏟아부었으며 지도의 정밀성에 심혈을 기울였는가를 알수 있게 된다.

그는 지도에 나라의 상업, 교통운수발전과 외래침략자들의 침공을 막을 때에 필요하다고 생각한것들은 선참으로 올렸으며 중요하게는 도로표시에 10리를 사이에 두고 점을 찍어놓음으로써 지도상에서 거리도 알수 있게 하였다. 《대동여지도》는 19세기 중엽 우리 나라 지리, 지도학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 볼수 있다.

김정호는 애국자로서, 학자로서 자신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기 한생과 가정까지도 다 바쳤다.

김정호는 언제나 책과 지도를 손에서 떼여놓은 일이 없으며 그의 상우에는 《방여기요》를 비롯한 수많은 서적들과 함께 싸리로 만든 지구의가 놓여있었다고 한다.

김정호는 진정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애국적인 지향으로부터 《대동여지도》를 조금이라도 더 정확히

만들기 위해 자신의 온갖 지혜와 정력을 다 바치였다.
그는 또한 《대동여지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어 그들이 리용하도록 하기 위해 인쇄판을 자체로 짜고 출판까지 하였다.
《대동여지도》의 방대한 판각인쇄작업은 오늘의 현대적인 기술로도 사실상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김정호는 이 련폭지도를 자신이 제도해내였고 판각하였다. 이것은 그가 목판인쇄기술에서도 남다른 재주가 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김정호는 먼저 인쇄한 지도 몇권을 자기 친구들과 신세를 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다. 그리하여 서당친구였던 리용희는 이 지도를 참고하여 우리 나라 해안에 기여든 프랑스군함들을 일격에 물리쳤다.
후날 그는 김정호를 위하여 이 지도첩을 대원군에게 바치였다. 그러나 쇄국정책에 빠진 대원군이 김정호의 수고를 알아줄리 없었다.
그는 노발대발하여 김정호를 당장 잡아들이라고 하였다.
《고얀 놈같으니, 나라의 비밀이 새여나가게 하다니!》
리용희가 뜻밖의 일에 놀라 아무리 그 지도가 이번 싸움에 요긴했다고 하였건만 대원군은 듣지 않았다.
포도대장이 김정호의 집으로 달려들고 그는 결박지운 몸이 되였다. 포도청에 끌려온 그에게 곤장이 내려지고 무서운 악형이 들씌워졌다. 온갖 고초를 락으로 삼으며 살림을 털어 근 30년간을 바쳐온 노력의 대가가 과연 이것이란 말인가?
그러나 이때 그의 생각은 쓰다가 만 《대동여지고》를 어떻게 하면 끝내겠는가 하는것뿐이였다. 옥중에서 마저 쓰려고 했지만 고문에 팔의 뼈가 부러져 그러지도 못했다.
딸이 날마다 조밥 한덩이를 들고 옥바라지를 왔다. 살창으로 밥을 들이밀고는 하염없이 서서 눈물만 흘리였다. 무지한 옥졸들은 가혹한 고문끝에 끝내 김정호를 옥사시키고야말았다.
만사람의 찬사와 축복을 받아야 할 학자는 이렇게 옥중에서 역적의 루명을 쓰고 생을 마치고만것이다.
그후 김정호의 과학적재능과 지울수 없는 활동을 찬양하여 《리

향견문록》에서는 이렇게 썼다.

《김정호는 본래 재능이 많았고 지리학을 몹시 사랑하였으므로 널리 자료를 수집연구하였다. 일찌기 지구도를 제작하였고 〈대동여지도〉를 제작하였는데 자기 손으로 잘 그리고 잘 새겨서 인쇄하여 세상에 배포하였다. 상세하고 정밀하기가 고금에 비할바없다. 나도 한권을 얻어 정성껏 베꼈는데 참으로 보배로 되고있다.

또 그는 〈대동여지고〉 10권을 쓰다가 탈고하지 못하고 서거하였으니 매우 애석한 일이다.》

또한 리규경의 저서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는 이렇게 지적했다.

《…요사이에 김정호라는 사람이 〈대동여지도〉20권을 지었는데 특별히 바둑판모양과 글자번호를 따라 펴보게 되였으니 참고하기가 아주 편리하고 선뜻 보고도 환하게 잘 알수 있으며 조금도 착오가 없다. 그 고산이 옛날사람들보다 훨씬 우수하고 정밀한 정도가 보통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지도의 내용이 정확하고 상세하며 풍부하므로 이 지도책은 반드시 세상에 전할만한것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김정호는 《대동여지도》와 함께 지리지인 《대동지지》(32권 15책)를 남기였으며 《천구도》, 《지구의》 등도 서술하였다.

무지몽매한 봉건통치배들은 그를 리해할수 없었지만 인민들과 학자들은 그를 알았으며 적극 내세워주려 하였다.

오늘도 지리, 지도학자 김정호가 나라의 크고작은 산발들을 누비며 고심끝에 만들어놓은 《대동여지도》는 후대들에게 귀중한 유산으로 물려져 훌륭히 리용되고있다.

4상의학의 창시자 리제마

온갖 꽃이 만발한 봄날 충원공은 잠시 낮잠에 들었다. 그런데 꿈속에서 흰 옷을 단정히 입은 어떤 사람이 보기에도 귀여운 망아지 한마리를 끌고 들어와서 그에게 고삐를 쥐여주는것이였다.

《여기 망아지 한필을 가져왔소이다. 그런데 이놈은 보통말이 아니라 제주도 룡마로서 힘이 세고 주인에게 고분고분하니 잘 길러주시기를 부탁하오이다. 이 마을을 두루 보았지만 이 집이 적임자인듯 하옵니다.》

충원공이 정신이 번쩍 들어 일어나니 꿈이였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마당에는 한 녀인이 조그마한 사내애를 안고 서있는것이 아닌가?

너무도 신기하여 얼떨떨해진 충원공은 녀인에게 물었다.

《댁은 뉘시기에 거기에 서있는게요?》

《저, 저 아래마을 주막집녀인인데…》

그리고는 머리만 숙이고 발끝만 내려다본다.

《어서 말을 하라는데두, 어서》

충원공은 녀인에게 재촉했다. 그러자 녀인은 큰 마음을 먹은듯 한발 나서더니 이런 말을 하는것이였다.

《소첩이 이 댁 아드님인 진사어른과 우연하게도 인연이 맺어져 생긴 아들이온데 오늘 여기로 데리고왔나이다.》

순간 충원공은 꿈속의 애마가 떠오르고 이 일이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다.

충원공은 금시 허리를 펴더니 잠든 사내애를 한참이나 내려다보았다. 어딘가모르게 정이 끌리는데가 있었다.

《음, 그렇단 말이지. 꿈속의 망아지가 나타난셈이지.》

충원공은 이 손자애를 잘 기르리라 속다짐하면서 받아안았다. 그

리고 이름은 할아버지의 꿈을 따서 제마라고 하였다.

리제마는 1837년 3월 함흥에서 서자의 운명으로 태여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기로 소문이 났었다.

5살부터는 할머니에게서 국문을 배웠고 6살에는 마을에 있는 서당에 다니면서 학문을 익혔다.

장난이 심했던 그는 아이들이 군사놀이를 하면 언제나 대장이 되였고 그가 대장이 된 편은 틀림없이 이기군 하였다. 글에서도 힘에서도 재주에서도 리제마를 따를만한 애들이 없었다.

그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하루는 서당선생이 비 우자를 가지고 글을 짓도록 하였다.

여러 아이들이 나란히 앉았는데 리제마는 즉시에 이런 시를 지어 선참으로 바치는것이였다.

비맞은 창포는 씻은 칼같고
바람앞에 약한 풀은 소인과 같다

이 시를 받아든 선생은 너무도 경탄하여 《나의 자격으로는 이 아이를 맡아서 가르칠수 없다.》고 하면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한다.

그리하여 리제마는 할아버지에게서 어려운 글자의 뜻을 물어가며 자습을 하게 되였다.

그가 12살되던 어느날에 있은 일이다.

하루는 제마의 큰아버지가 선비들과 제자들을 모여앉히고 《집은 가난하나 책읽기를 좋아한다.》는 제목을 주면서 글을 짓도록 하였다.

모두들 글귀를 고르느라 여념이 없는데 밖에서 장난을 치던 리제마가 들어와보더니 얼른 붓을 들어 제꺽 몇줄 써놓더니만 다시금 나가는것이였다.

큰아버지는 이놈이 무슨 소리를 썼는가싶어 무심코 들여다보니 과연 놀라운 글이였다.

《천하를 주름잡던 진시황(중국 첫 통일국가의 황제)의 권력

에도 마침내는 황혼이 찾아들었고 양무제(중국 한나라의 7대 황제)가 득세하여 제왕이 되였으나 그의 방에도 깊은 밤 등불밑에 수심만이 덧쌓이더라.》

《아니, 이 녀석이 재주가 보통이 아니로군!》

큰아버지는 무릎을 쳤다. 여기 선비들도 이만한것을 내놓지 못하였던것이다.

리제마는 집안에서 더욱더 사랑을 받게 되였다.

그는 14살에 이르러서는 《춘추》, 《좌전》까지 통달해냈고 막히는데가 거의 없게 되였다.

이렇게 되자 그의 할아버지는 리제마가 너무 영민하므로 장래 큰일을 저질러 집안에 화단이라도 가져올가보아 글을 대강 읽히고 장가를 보내여 분가시켰으며 농사를 짓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의 불타는 지식욕을 막을수는 없었다. 리제마는 자기가 보고싶은 책이 있다는 곳을 알기만 하면 식량을 지고라도 찾아가 기어이 읽고서야 돌아서군 하였다.

당시 리제마는 협심증의 발작으로 고통을 받고있었다. 여러 의원들에게 보였지만 효과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의학서적을 탐독하기 시작하였다.

리제마가 의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데는 이런 일화도 있다.

그가 멀리 타향에 나가 1년간 직심스럽게 공부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떤 알지 못할 나그네와 며칠간 동행하게 되였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같이 오는 그 길손에게 자기의 짐보따리를 맡기고 잠시 어디에 갔다와보니 사람도 짐도 모두가 없었다. 나그네가 가지고 도망쳐버린것이다.

한참동안 어이없어 그자리에 서있던 리제마는 이렇게 탄식했다.

《내가 글을 많이 읽었다고 하지만 아직 사람의 마음을 아는 법은 몰랐구나. 사람이 처세하려면 사람을 잘 료해하는것이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일이다.》

이것이 바로 리제마가 의학을 연구하게 된 동기로 되였다고 한다.

리제마는 학자인 기로사를 찾아가 자기의 병을 보이면서 《병을 고치려면 우선 과격한 성질을 삼가해야 하느니라》는 충고에 병이란 음식을 잘 조절 못하거나 외부환경의 변화만이 원인으로 되는것이 아니라 정신상태와도 관계가 있다는것을 느끼게 되였고 이것으로 하여 더욱 4상의학연구에 전심하였다.

그후 리제마는 23살이 되는 해인 1860년부터 근 8년세월을 충청도 계룡산에 들어가 의학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1877년에는 중국에 가서 3년간에 걸쳐 많은 의학서적을 직심스럽게 탐독하였다.

이 기간에 그는 4상의학의 연구를 더욱 심화시켰다.

리제마는 1892년경부터 진해현감으로 또 고원군수로 있은 기간과 그 이후에도 의학연구와 제자들을 교육하는데 모든것을 다 바쳤다.

리제마는 사람의 체질, 내장기관의 상태와 기능, 정신심리상태의 작용, 질병들사이의 호상관계를 깊이 연구하였으며 여기로부터 인간의 체질을 네가지 모양 즉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으로 나누고 같은 병이라 할지라도 해당되는 상에 따라 그 증상이 다르며 치료방법도 다르다는 4상의학설을 내놓았던것이다.

이와 함께 오장륙부의 크고작음에 관한 불균형이 모든 질병의 원인으로 된다는것과 이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하여 체질에 맞는 약물을 적용해야 하며 발병원인을 외부적인데서 찾을것이 아니라 정신심리상태에서 먼저 찾아야 한다는 리론을 내놓게 되였다.

리제마는 사람들을 관찰하기 위하여 일부러 일을 만들어내고는 상대방의 반응을 보군 하였다.

그는 4상인에 따라 약물작용이 달리 나타나므로 수백종의 개별적인 고려약들을 이에 맞게 구분해놓았다.

그 실례를 들면 태음인처방으로는 《태음조위탕》, 《갈근탕》, 《열다한소탕》을 들수 있고 소양인처방으로는 《형방패독산》, 《지황백호탕》, 《량격산화탕》을 들수 있다.

또한 소음인처방으로는 《궁귀향소산》, 《보중익기탕》, 《적백하오관중탕》을 지목할수 있으며 태양인처방으로는 《오가피장척탕》,《미후등식장탕》, 《오가피탕》 등을 들수 있다.

또한 개별고려약도 태음인에게는 록용, 우황, 칡뿌리, 소음인에게는 인삼, 단너삼, 흰삽주, 당귀, 소양인에게는 지황, 구기자, 시호, 강호리, 태양인에게는 오가피(오갈피), 갈뿌리, 목과를 쓰는것 등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치료에서 효과성을 배로 높이도록 하였다.

4상인에 의한 분류를 보면 태음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소양인과 소음인이 다음차례이며 태양인은 극히 적다.

그때까지 사람의 체질에 관하여서는 이미 여러가지 류형으로 제기되였으나 그것이 림상실천에는 적용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리제마에 의하여 제기된 리론은 처음부터 림상치료에 도입되여 커다란 효과를 나타내게 되였다.

리제마는 자기의 저서들에서 인간의 장수를 근본문제로 제기하면서 수명을 늘이자면 정신적수양을 잘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것을 강조하였다.

리제마는 의사로 활동하면서 할아버지가 가르친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무한히 동정하고 사랑하였다. 그는 빈곤한 집의 환자에 대해서는 돈을 적게 받거나 받지 않았고 또 환자를 찾아다니면서 친절히 치료해주군 하였다. 하기에 백성들로부터 어진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의 치료를 받고 병이 나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갚을길 없어 닭이며 쌀이랑을 들고 리제마를 찾아왔다.

그때마다 리제마는 그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고 하면서 굳이 사양하였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그가 약초를 알아보기 위해 시골길로 들어섰는데 골목 어디서인지 처녀애의 애절한 울음소리가 간간이 들려오는것이였다. 리제마가 소리나는 곳을 찾아들어가니 조그만 처녀애가 늙은이옆에 앉아 울고있었다.

《왜 이렇게 울고있느냐?》

처녀애는 울먹울먹하면서 처음보는 그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였다.

《어머니는 일찌기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만 계시는데 몇해째 병

이 나서 암만해도 살아계실것 같지 못하니 나는 어쩌면 좋아요?》
리제마는 처녀애를 달래여놓고 환자를 진맥하였다. 그리고 환자 곁에서 침을 놓으며 정성껏 구완하였다. 그리하여 환자의 병은 나날이 차도를 보이였다.
한편 리제마의 집에서는 소동이 일어났다. 약초를 구한다고 나간 그가 며칠이 넘도록 종무소식이니 어찌 그렇지 않았겠는가. 그러던중 가난한 집 병자를 구원하고왔노라고 하며 문득 그가 들어서니 집안사람들은 기쁨보다 아연함이 더 컸다.
그러나 리제마는 돈많고 권세를 부리며 못되게 노는 량반들에 대해서는 적당한 구실을 붙여 치료와 왕진을 거절하군 하였다.
어느날 소화불량증에 걸린 한 량반이 리제마를 찾아왔다. 그는 환자를 보더니 병이 쉴대로 쇠였다고 하면서 자기 힘으로는 치료하기가 힘들다고 머리를 저었다. 돈과 권세로 거만해질대로 거만해진 량반이였지만 죽는다는데는 더 어쩔수 없었던지 엎드려 빌기 시작했다.
리제마는 량반에게 그 병에는 백약이 무효하나 다만 한가지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량반으로서는 실행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량반은 무엇이든지 선생님이 지시하는대로 하겠다고 다짐해나섰다.
리제마는 웃으며 이렇게 일렀다.
《집에 돌아가면 밭에 나가서 강냉이뿌리를 매일 50포기씩 한 보름간 뽑고나서 다시 오시오.》
유명한 의사를 찾아갔다가 약 한첩 받지 못한 량반은 어찌할수없이 집에 돌아와 체면을 무릅쓰고 난생 해보지 못한 일을 시작하였다. 그랬더니 며칠째부터는 소화가 되고 닷새후에는 밥을 많이 먹어도 쑥 내려가는것이 알리였다. 이것이 바로 약치료에 앞서 원인료법을 쓴 리제마의 명처방이였다.
리제마는 엎드려 절을 하는 량반에게 이렇게 일러주었다.
《사치하지 말고 근면하게 사시오. 그러자면 권세도 탐욕도 다 버려야 하오. 그래야 바라는대로 건강하게 장수하리다.》
1893년 56살이 되던 해 리제마는 경기도 남한산성에 들어가서

4상의학의 원본으로 되는 《동의수세보원》집필에 착수하였으며 전 4권에 달하는 저작을 완성하여 1894년에 내놓았다.

제1권의 성명론에서는 자연과 인간유기체와의 호상관계문제를 주었고 사단론에는 정신작용이 육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썼으며 확충론에서는 4상인성격의 장단점을 해명하였고 장부론에서는 4상인의 기질적불균형을 서술하였다.

제2권 의원론에서는 의학의 간단한 유래를 밝히면서 4상의학의 발견동기에 대하여 자기의 견해를 썼다.

제3권에서와 4권에서는 4상인에 대한 진단과 치료법에 대한 치료의학체계를 서술하였다.

특히 제4권 광제설에서는 예방의학적방법에 대하여 강조하였는데 질병발생을 예방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4상인분류방법을 체격과 용모, 성격, 행동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서술하였다.

리제마는 이 저작에서 사람들모두가 위생의학적지식을 가져야 한다는것을 주장하였으며 책의 이름도 그런 의미에서 《동의수세보원》이라고 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만호가 사는 고을에 한사람만이 그릇을 만들면 그릇이 부족할것이요, 백집이 사는 마을에 한사람의 의사가 있어서는 사람살리기 부족하다. 반드시 의학을 널리 밝혀서 집집이 다 알고 사람마다 병증을 알게 되여야 세상사람이 다 무병장수하여 자기의 원기를 보존할수 있을것이다.》

이것이 바로 리제마의 주장이였다.

리제마는 1895년에 쓴 《5복론》과 《권수론》에서 수명이 감소되는 원인에 대하여 외부환경이나 음식부주의 등에 의한 질병 이외에 보다는 정신적인 요인을 중시하였다. 그는 질병의 원인을 첫째로 교만과 사치, 둘째로 라태한것, 셋째로 성격이 조급한것, 넷째로 탐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장수하기 위하여서는 이렇게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첫째 검박과 절약이다. 검박한 사람은 사치하지 않는다. 둘째는 근면이다. 근면한 사람은 술마실 시간이 없다. 셋째는 경계심이니 그런 사람은 권세를 쓰기에 뇌를 쓰지 않을것이며 넷째는 많은

문견으로 지식을 넓히는것인데 그렇게 해야 하는것은 재물을 탐내지 않기때문이다.》

리제마는 또한 《4상론》과 《약질론》도 서술하였다.

리제마는 의학자이기 전에 애국자였다. 애국의 지조가 남달리 강했던 그는 당시 외적들이 우리 나라를 노리고있고 국세는 점점 위기에 빠져들어가게 되자 나라의 정세에 대하여 항시 근심하면서 국방력강화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지였다.

1897년 그가 60살이 되던 해 한 대감으로부터 기울어져가는 나라형편을 어찌하면 바로 추세울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받게 되였다. 의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국력에 관한 문제이건만 리제마는 평소에 품어온 자기의 소박한 생각을 주저없이 터놓았다. 그는 량반이나 상민을 가림없이 일체동심하여 전민이 군병이 되여야 하며 그래야만이 망국의 화를 면하게 될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집집마다 군량을 바치고 모두가 군사훈련을 하며 총 잘 쏘는 군사 10만을 3～4년에 양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던것이다.

리제마의 4상의학은 의학의 한 류파로 계승되여 발전하였다.

이 학설은 종래의 음양오행의 철리적공론을 배격하고 림상학적인 방법에 따라 환자의 체질을 중심으로 치료방법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도식적인 틀에 맞추어 사람을 분류한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이와 같이 리제마는 자신이 직접 의사로서 실천을 통하여 의학과학을 연구하였으며 생애의 마지막까지 《동의수세보원》을 보충풍부화하였다.

리제마는 1900년 63살을 일기로 고향인 함흥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가 사망한 후인 1901년 《동의수세보원》초판이 세상에 출판되였다.

오늘날 리제마의 이름은 《4상의학》이라는 고려의학과 함께 널리 전해지고있다.

애국의 지조를 끝까지 지킨 반일의병장 최익현

상소문을 써나가는 최익현의 눈에서는 뜨거운것이 소리없이 흘러내리고있었다.

《아, 5천년 력사국이 왜놈쪽발이들에게 유린당하다니! 조약이란 웬말인가. 눈을 뜨고 앉아서 그놈들을 강화도에 들어오게 하다니 될 일인가? 아니된다, 절대로!》

최익현은 1833년 12월 경기도 포천에서 봉건유생인 최대의 둘째 아들로 태여났다.

그의 호는 면암이고 애명은 기남이였다. 어려서부터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용서할줄 모르는 최익현은 당시 대원군정치(1864～1873)에서 잘못된 점은 어김없이 상소를 올렸다.

애국심이 강한 봉건유생이였던 그는 어지러운 정세에 부딪치자 봉건통치배들의 사대주의적이며 매국배족적인 정책과 외래침략자들의 강도적인 행위를 폭로하는 투쟁을 벌리였다.

최익현은 《강화도조약》(일명 《조일수호조규》)이 체결된다는 소식에 접하자 1876년 1월 류린석을 비롯한 50여명의 유생들과 함께 상소투쟁에 나섰다. (《강화도조약》－1876년 2월 일본침략자들이 《운양》호사건을 구실로 리조봉건정부에 강요한 불평등조약, 조선항구의 개항, 치외법권 등 12개 조로 되여있는데 우리 나라를 반식민지화의 길에 빠져들게 하였다.)

이러한 그였기에 눈물로 상소문을 써나갔던것이다.

최익현은 상소문에서 이렇게 지적하였다.

《화친하는것이 그들의 구걸에서 나왔고 우리에게 강한 힘이 있

어 그들을 넉넉히 제압할수 있는데서 나왔다면 그 화친은 믿을수 있겠지만 겁이 나서 화친을 요구한다면 눈앞의 림시방편으로는 될것이지만 이후에 그들의 끝없는 욕심을 무엇으로 채워주겠는가, 이것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첫째 리유이다.

그들의 물건은 다 사치하고 기이한 노리개들이고 우리의 물건은 백성들의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것이므로 통상을 한지 몇해 못가서 더는 지탱할수 없게 될것이며 나라도 망하게 될것이다.

이것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둘째 리유이다.

그들이 비록 왜인이라고 핑게하지만 실지는 서양도적들이니 화친이 한번 이루어지면 그리스도교가 전파되여 온 나라에 가득차게 될것이다. 이것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셋째 리유이다.

그들이 상륙하여 왕래하면서 집을 짓고 살게 되면 재물과 부녀자들을 자기 소원대로 취할것이니 이것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넷째 리유이다.

…

그들은 재물과 녀자들만을 알고 사람의 도리는 전혀 모르는데 그들과 화친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것인지 모르겠다. 이것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다섯째 리유이다.》

최익현은 인민들의 분노를 조리있게 적어나가면서 이것은 우리 나라가 하루아침에 시궁창에 빠지는것이라고 힘주어 박았다.

위정척사운동의 대표적인물이였던 최익현은 들끓는 인민대중의 투쟁열의에 편승하여 이와 같이 상소투쟁에 나섰던것이다. (위정척사운동－19세기 중엽에 봉건유생들이 중심이 되여 자본주의의 침략으로 조성된 리조봉건제도의 위기를 구원하기 위해 벌린 반침략운동. 《위정척사》란 《바른 학문》 즉 유학을 지키고 《사학》 즉 요사스러운 학문인 카톨릭교를 배척한다는 뜻)

당시 서울장안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합류하였다.

1876년 1월 3일의 기록에는 《사람들은 안타까와하고 항간의 여론은 떠들썩》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하였다.

정부가 화친을 요구하고있다는것을 알게 된 나라의 포수들은 분개하여 죽을 힘을 다해 싸울것을 결의하여나섰고 인민들의 의향은

모두 한번 싸우겠다는것이였다.

그러나 반동적인 봉건정부는 끝내 매국적인 《강화도조약》에 도장을 찍고야말았다.

격분한 최익현은 민가일당의 투항주의적정책을 반대하는 유생들을 결속하여 상소투쟁을 하는 한편 인민들을 각성시키는 일도 함께 벌려나갔다.

이렇게 되자 봉건통치배들은 최익현을 먼곳으로 귀양 보내였다.

그러나 그의 굳은 결심은 꺾이지 않았다.

《아, 사내로 태여나 나라가 이 지경이 되는것을 보고도 구원치 못하다니.》

그는 두주먹으로 땅을 쳤다.

최익현은 류배지에서도 상소투쟁을 계속하였다.

민가일당은 그를 얼리여 새로운 벼슬까지 내렸으나 그는 단호히 거절해버리였다.

뒤이어 1905년 매국적인 《을사5조약》이 강압날조되였다.

최익현은 통치배들의 무력함을 한탄하며 《조약》을 반대하여 유생들을 모아가지고 서울로 올라가 궁궐앞에서 버티기투쟁을 벌리면서 자기들이 제기한 상소안이 해결되기를 완강하게 요구해나섰다.

그는 유생들앞에서 열변을 토하기도 하였다.

《여러분, 매국적인 〈을사5조약〉을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그속에는 우리의 간을 도려내려는 왜놈들의 흉악한 내심이 깔려있습니다. 때문에 조약은 반드시 취소되여야 합니다!》

그러나 드높은 궁궐은 들었는지 말았는지 대답이 없었다.

(청원으로서는 안되겠구나. 일어나 칼을 들고 싸워야 하겠구나. 내 살아서 그놈들을 그대로 둘수 없다. 일어나야 한다.)

칠순이 넘는 그의 백발은 일제와 매국노들에 대한 증오로 날리였고 두팔에는 거인의 힘이 솟아올랐다.

그리하여 최익현은 1906년 전라북도 태인으로 와서 사랑하는 제자였던 림병찬을 불러 의병투쟁에 떨쳐나섰다. 밤이 깊도록 술

한 격문을 준비하였고 의분에 불타는 젊은이들을 모아들였다.
고을과 마을에는 싸움에로 부르는 최익현의 격문이 나붙었고 이에 호응한 청년들이 그를 찾아 순창지방으로 달려왔다.
그는 찾아온 사람들의 두손을 뜨겁게 잡았다.
《고맙소, 고맙소. 우리 같이 원쑤놈들을 치기요.》
이렇게 최익현은 반일의병투쟁을 시작하였다.
그들은 첫 싸움으로 정읍을 쳤고 이어 순창을 들이쳤다. 처음에는 무기가 없어 쇠도리깨를 들고 싸웠으나 이제는 어지간히 무기도 잡게 되였다.
두곳을 치면서 무기를 빼앗아 자신들을 무장하였다.
여기서 힘을 얻은 최익현부대는 련이어 부근의 각 고을을 하나씩 쳐들어가면서 자기들의 힘을 늘여나갔다. 이에 고무된 각지 인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나섰고 물심량면으로 지원하였다.
부대장 림병찬이 최익현에게로 달려와 부대의 장성된 면모를 기쁨에 넘쳐 보고하였다.
《대장님, 어제까지 부대에 들어온 대원수는 500이 넘습니다.》
《그렇단 말이지. 기세를 부쩍 올리세.》
최익현은 수염발을 쓸어내리며 만족한 기분이다.
그러나 애로는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무기와 식량이 문제였다.
최익현은 림병찬과 짜고들어 밤마다 고을의 식량창고들을 털어내여 저장하였고 무기들을 빼앗아 새로 들어오는 대원들을 무장시켰다.
새벽바람을 쏘이며 최익현은 강변을 거닐었다.
《앞으로는 어디를 칠것인가? 확대된 부대는 어떻게 움직여나가면 좋단 말인가!》
그리고는 또다시 림병찬이와 의논하였다.
최익현은 련이어 전라남도 남양, 동북, 곡성지방을 공격하여 타고앉았다. 그리고 태인, 정읍을 거쳐 순창으로 들어갔다.
이리하여 왜놈들이 이 일대에 꾸려놓았던 침략적인 통치체제

는 허물어지고 넓은 지역을 의병들이 장악하게 되였다.

그러나 왜놈들도 가만있지 않았다. 놈들은 어리석게도 국왕의 이름을 빌어 최익현을 기만하려들었다.

《병찬이 이보게, 내가 손을 들면 꽃방석에 앉히겠다누만. 하하하.》

《어디 한번 편안한지 올라앉아보시지요. 하하하.》

《에끼 이 사람, 롱담도 분수가 있지.》

최익현이 웃음어린 얼굴로 발을 구르자 병찬도 죄스러운듯 머리를 숙인다.

《선생님, 그전날 글을 배워주시던 때와 꼭같이 엄하십니다.》

그들 둘은 또다시 웃어버렸다.

최익현은 놈들의 회유문에 대통의 불을 달아버렸다.

《너 갈대로 가거라. 우린 또 나가 싸워야겠다.》

왜놈들은 남원과 전주, 광주지역의 《토벌》대와 친일주구들이 거느린 《천위》대까지 긁어모아 순창지구의 의병부대를 포위공격해들어왔다.

최익현은 인민들의 지성어린 도움을 받아 벌써 여러차례 적군을 물리쳤으나 워낙 력량상대비가 안되였다. 그러나 그들은 손을 들수 없었다.

최익현부대는 마지막결전을 벌렸다.

온 부대가 하나같이 싸웠으나 많은 의병들이 희생되였고 림병찬과 함께 최익현도 적의 손에 잡힌 몸이 되였다.

참으로 통분한 일이였다. 끝까지 일제와 그 주구놈들을 요정내려 하였는데 이렇게 놈들의 손에 잡히게 되였으니 최익현의 가슴은 원쑤에 대한 증오로 타번졌다.

며칠후 최익현과 림병찬 등 10여명의 의병지휘자들은 서울로 압송되였다.

원쑤놈들은 온갖 회유기만술책을 다 써보았으나 굽어들 그들이 아님을 알게 되자 재판이라는것을 벌려놓았다. 놈들은 최익현에게 3년, 림병찬에게 2년형을 지워 기후가 나쁜 제놈들의 땅인 쯔시마로 류형을 보냈다.

《아, 내 생에 국권을 회복하려 하였건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원쑤의 손에 잡힌 몸이 되였구나.》

쯔시마의 시꺼먼 하늘을 쳐다보는 최익현의 마음속에서 애국의 뜻이 담긴 시가 흘러나왔다.

이 몸을 일으키여 북두성 빛나는 조국을 바라보니
백수로 잡힌 몸의 통분함을 억제할수 없어라
만번 죽어도 적국의 부귀를 탐낼소냐
오로지 일생에 내 나라 잊지 못하노라

구절구절 애국의 피가 끓게 하는 시구였다.

하기에 바다를 건너 조국에 와닿은 이 시는 당시 우리 인민들을 반일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최익현은 쯔시마에서도 마지막까지 머리를 깎지 않았으며 왜놈들이 주는 밥을 절대로 입에 대지 않았다. 점차 그는 혀바닥이 굳어지더니 며칠후에는 그만 눈을 감고말았다.

이렇게 73살고령의 최익현은 왜놈들에게 잡힌 몸이 되여 조국에서 멀리 떨어진 왜놈땅 쯔시마에서 희생되였다.

그의 문집으로는 《면암집》이 남아있다.

13도의병도총재 류린석

류린석은 우리 나라가 비운에 처하였던 일제강점초기 나라를 구원하려는 큰뜻을 품고 의병을 조직하여 왜적들을 족쳤으며 13도의병도총재로 선출된 유생출신의 반일의병장이다.

류린석은 1842년 1월 강원도 춘천의 봉건유생의 가정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14살때부터 당시 이름있는 유학자이며 위정척사운동의 대표적인물인 리항로에게서 글을 배웠다.

그 시기 그는 애국지사들인 김평묵, 최익현 등과 함께 글공부를 하였었다.

류린석은 스승과 친구들의 영향으로 하여 청년시절부터 애국사상을 품게 되였다. 그의 성격은 대담하고 용감한것이 특징이였다. 그리고 나서자란 고향산천이 침략자의 발길에 닿는것을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며 원한에 넘쳐 단죄하였다.

류린석은 자기의 시 《양포》에서 유미자본주의렬강들이 다른 나라 백성들을 살해하고 침략하는 수단으로 리용하였던 양포의 죄악에 대하여 이렇게 규탄하였다.

이것은 사람을 해치고
또 사람을 죽이는 기계
이처럼 죄악에 찬것을
날마다 다투어 새로 만드누나

시에서 그는 이 양포를 만들어내는 유미자본주의침략자들을 사나운 짐승으로 락인하면서 살인적인 이런 흉기를 없애버릴수 있는 영웅의 출현을 바랐고 반드시 소멸해야 한다는 자기의 심정을 담

았다.

또한 류린석은 시 《강화도양요》에서 1866년 10월 우리 나라를 먹으려 기여든 프랑스해적선을 쳐물리치는 의로운 싸움에 떨쳐나섰던 애국적군인들의 모습에 대하여 노래하였다.

세월이 태평한지 하도 오래서
사람들은 안일하게 살아왔더니
오랑캐 검은 연기 바다를 뒤덮으니
강화도초소에서 파발이 급하더라
온 서울 들끓어 정부도 당황한데
조국이 고귀할사 의용병은 떨쳐섰다

싸움으로 대항하라 우리 선생 바른 주장
분분하던 강화론을 통쾌하게 부셨구나
장하여라 량장군 충천하는 그 기세
하늘인들 무심하리 정녕코 위훈 세우리라

(파발—빨리 전달할 공문을 가지고 역참사이를 달리는 사람.
역참—공무로 다니는 벼슬아치들이 말을 갈아타고 쉬기도 할 수 있도록 몇십리어간에 일정한 시설을 갖춘 곳)

시에서는 무능한 통치배들의 굴욕적인 《화평》체결을 반대하고 침략자와의 싸움의 선두에 선 량헌수를 찬양하면서 승리의 확신을 표명하였다.

시는 침략자와는 결코 타협할수 없다는 견결한 립장을 가지고 싸움에 나선 인민들의 애국적기상을 잘 반영한것이다.

이처럼 그는 젊은 시절부터 정의감이 강하고 인민들의 투쟁에 커다란 찬사를 보내였다.

류린석이 활동하던 시기는 우리 나라의 대내외정세가 가장 어지럽던 때로서 자본주의침략자들과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진출이 그칠새없이 전개되고있었다.

《갑신정변》, 《임오군인폭동》, 《갑오농민전쟁》, 《할빈

당투쟁》, 《의병투쟁》이 다 이 시기에 벌어졌다. 바로 이러한 때 류린석은 위정척사의 기치를 높이 들고 애국운동에 나섰다.

1895년의 민비살해사건(을미사변)과 정부의 《단발령》을 계기로 충청도 제천지방에서도 의병이 일어났다.

이때 인민들의 열렬한 지지로 의병장이 된 류린석은 이에 대하여 자기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병들고 늙은 몸이 어찌 의병장의 책임을 감당하랴만
부끄럽고 분한 마음 스스로 금할수 없도다
빌리지 못할 손재주라더니 내 무슨 도움되리

기상은 해별아래 산악과 같고
마음은 바다처럼 맑고 푸르리라
망국단 높이 쌓고 절하고 비나니
태평세월 이제 다시 이 나라에 깃이 드소

의병장 류린석은 8도에 고하는 글을 발표하였다.

《우리 강토는 비록 작으나 사람은 백배의 기운을 낼수 있으니 불구대천의 원쑤에 대한 복수심은 더욱 절절하다. 오늘 이때는 얼마나 위급한가. 우리 인민이 원쑤들의 밥이 되는 재난을 면하기 어려운 때다. 나는 일찌기 훌륭한 문화를 가진 인민이 오랑캐로 변했다는것을 듣지 못하였거늘 오늘 우리가 어찌 얼굴을 들고 세상에 나설수 있겠는가. 우리는 원쑤들을 치기 위하여 죽기로 맹세하고 나섰으니 승패여하는 우리의 관심하는바 아니다. …

정의의 투쟁에 일떠선 애국자들을 당해낼자가 없음을 의심치 말라.》

류린석은 곧 싸움을 시작하였다.

1896년 2월 제천을 들이친 의병대는 이어 충주로 쳐들어가 일제침략군과 친일주구들을 무자비하게 처단하였다.

류린석은 이해 가을 새로운 반일투쟁을 준비하기 위하여 중국 료동지방으로 갔다가 다음해 초산으로 나왔다. 그때 그는 나라가 파

멸하고 백성이 다 죽는다 해도 적은 반드시 쳐야 하며 원쑤는 기어이 갚아야 한다고 왕에게 상소하였다.

그는 《각도 의병창의소에 준 글》에서 이렇게 썼다.

《나라에는 강한 나라도 있고 약한 나라도 있다. 그러나 강한 나라라고 해서 반드시 언제나 강한것도 아니요, 약한 나라라고 해서 언제나 약한것도 아니다. 또는 강한 나라가 언제나 존재하고 약한 나라가 언제나 망하는것이 아니다. 만약 그 강한것을 믿고 교만하거나 방자하다면 도리여 약해지고 망할것이요, 약한것을 우려하여 분발하면 강하게 되여 존재할수 있을것이다.》

이것은 온 나라가 다같이 일떠나서 침략자와 싸워야 한다는 자각에서 우러나오는 열렬한 호소였다.

류린석은 세계각국도 반드시 우리가 옳다는것을 인정하고 저놈들을 치고 우리를 도와주려 하는 날이 있을것이라 하면서 다른 나라가 인정하고 도와줄것만 바랄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의 손으로 싸워야 할것이므로 모두가 의병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류린석이 1900년 7월 다시 강계로 나와 의병활동을 개시하려 하자 매국적통치배들은 전국에 그에 대한 체포령을 내렸다. 그는 은밀히 황해도, 평안도, 강원도 등지를 래왕하면서 평산에는 산두재, 은률에는 관암서사, 개천에는 송화재, 춘천에는 수양정제를 설치하여 애국지사들을 규합하였고 인민들을 나라찾는 싸움에 궐기시켰다. 1904년 로일전쟁이 폭발하는 때를 노린 일제는 대군을 이끌고 우리 나라를 먹으려 들었다.

당시 류린석은 신병으로 의병들의 싸움에 앞장서지는 못하였으나 절대로 그 뜻만은 굽힘이 없었다.

그는 의병들에게 기지에 의거한 지구전으로 넘어갈것을 호소하였다. 의병투쟁이란 지구전이므로 반드시 그 기지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는 가장 적합한 곳으로 백두산근방을 지목하였다. 그 리유는 바로 백두산이 우리 나라의 근저일뿐아니라 무산, 갑산, 삼수, 장진강, 자후강 등을 끼고 지세가 험준하여 방어에 유리하며 다음으로는 서북지방 인민들이 용맹하고 총도 잘 쏘며 호

상련계를 맺기에도 편리하므로 여기에서는 병력도 충분히 키울수 있고 식량과 자금도 보장할수 있을뿐더러 무기도 자체로 만들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백두산일대는 중국과 국경을 접하여 그곳 사람들과 련계도 지을수 있으며 산악도 충분히 리용할수 있다고 하였다.

류린석은 1908년 《의병규칙》을 비롯한 반일의병투쟁에서의 군사적경험을 일반화한 책들도 써내여 의병들의 반일항쟁에 이바지하였다.

의병규칙은 35조로 되여있는데 그 하나인 2조만 보더라도 적의 세력이 강하니 어떻게 적에 저항할것인가? 우리에게 있는것은 오직 하나로 뭉친 마음의 힘뿐이라고 하면서 두사람이 한마음으로 뭉치면 쇠라도 끊을수 있으니 하물며 천사람, 만사람 나아가서 한나라 인민이 마음을 같이하면 어찌 원쑤를 대항하는데 근심이 있겠는가고 지적하였다. 내려가면서 그는 이 단결에 대하여 더욱 강조하였는데 일치단결이 없으면 반드시 성공하지 못할것은 리치로 보아도 명백하다고 하였다. 의병규칙에서는 이밖에도 근거지설정문제, 전국적으로 반일력량을 단합시킬데 대한 문제도 제기하였다.

류린석은 1908년 7월 왜놈의 감시를 피해 반일운동을 더욱 확대하고 지도하기에 유리한 울라지보스또크로 갔다. 그곳에서 그는 의병투쟁을 점차로 더욱 크게 벌려나갔다.

그는 반일의병투쟁을 지휘하면서도 인민들을 애국주의와 단결의 정신으로 교양하는것을 잊지 않았다. 그는 1909년에는 자신이 집필한 《관일약》에서 우리 인민의 의리에 대하여 렬거했으며 《애국심》과 《애도심》(도의를 존중하는 정신), 《애신심》(자기자신을 보호하는 정신), 《애인심》(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신), 《중만동심》(모든 사람들이 마음과 뜻을 같이하는 정신), 《회정단성》(모든 힘과 정신을 단합하는 것)으로써 일제를 물리치고 나라를 기어이 독립해야 한다고 열렬히 주장하였다.

1910년 6월 연해주 우쑤리지방에서 각도 반일의병장들과 애국문

화운동자들은 《창의회》를 결성하고 류린석을 13도의병도총재로 임명했다. 리범윤이 창의총재로, 리남기는 장의총재로, 우병렬은 도총소참모로, 리상설은 외교대원으로 되였으며 홍범도를 비롯한 여러명이 동의원으로 되였다.

이러한 반일의병투쟁을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조직의 출현은 반일력량이 하나의 선에 묶이워지고있음을 보여주었다.

류린석은 이 시기 일제놈들이 우리 나라를 완전히 강점한다는 소식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일제의 강제 《합병》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그는 왜놈들의 야만적침략행위를 준렬히 규탄하고 조선인민이 일치단결하여 기어코 국권회복을 이룩해야 한다는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그는 연해주와 중국에 거주하고있는 조선청년들을 무장시켜 국내로 파견하기 위해 그 준비를 서둘렀다. 그러나 이것은 일제와 결탁한 로씨야관헌들에 의해 성사되지 못하였다.

류린석은 의병도총재로서 중국에서 만청정부를 전복하는 신해혁명이 일어나자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도 유리하다고 하면서 중국정부에 축하서한을 보내였다.

그는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청장년들을 계속 묶어세우는 한편 《우주문답》이라는 책을 집필해냈다.

여기에서 류린석은 발전된 과학과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선진적인 견해를 내세웠다. 특히 무장력을 강화하는데서도 이것은 례외로 될수 없으며 근대적기술로 장비해야 더 큰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이 시기 류린석은 반침략애국투쟁을 주제로 한 많은 시들을 썼다.

대표작으로서는 《세상을 걱정하여》, 《국내인민들에게》, 《의병들에게》, 《망국노를 저주한다》, 《5적7적놈들에게》, 《노래읊기를 그만두리라》, 《애국렬사를 추모하여》, 《앞마을 가난한 집》 등을 들수 있다.

시 《세상을 걱정하여》에서는 왜놈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
우리 조선을 사랑하노니
왜놈은 원쑤로다
왜놈의 머리, 왜놈의 입
왜놈의 온몸을 미워하노라

몸, 머리, 입만 미워하랴
그놈들의 정치를 더 미워하노라
어떤것은 가볍고 어떤것은 무거우랴
그 모두가 원쑤로다

또한 왜놈들과 결탁한 매국노들의 더러운 몰골을 격분에 넘쳐 단죄하였다.

시 《망국노를 저주한다》에서는 이렇게 규탄하였다.

들어보라
높은 벼슬아치들아
이 나라 망한 까닭
너희들이 아느냐

구중궁궐 어두운 곳에
권력을 도적질해
만백성 더운 피를
진탕 빨아마시고서

나라사정 위급하나
아무 마련 하지 않고
인민의 운명에는
아무 걱정 없었더라

그러고도 부족하여
공작 후작 받아먹고
적앞에 허리굽혀
매국노 된단 말가

류린석은 1914년 봄 남만 관전현으로 나와 의병력량을 키우면서 저술과 의병들의 교양에 전력을 기울이던중 1915년 1월 병으로 생을 마치였다.

그의 뜻과 포부는 컸으나 그것은 원쑤들의 악랄한 준동, 이와 결탁한 매국노들에 의하여 실현되지 못하였다.

중요하게는 통일적인 지도를 받지 못하고 명확한 목표가 없었으므로 단결을 주장하였지만 끝까지 이를 성사시키지 못하고만것이다.

그러나 의병도총재로서의 류린석의 애국적지향과 견결한 모습은 우리 나라 의병투쟁사에 력력히 남아있다.

그가 남긴 저서로서는 《의암집》과 《소의신편》이 있다.

조선화의 전통적화법을 계승발전시킨 장승업

깊은밤 장승업은 사랑방을 넘겨다보았다. 초저녁에 주인집 아이들이 그림그리던것을 봤기때문이다. 그들은 그림을 그리다가 그자리에 고꾸라져 잠들어있었다. 주인집 아이들의 화구들을 부러운 눈매로 바라보던 장승업은 불쑥 거기에 몇장 그려보고싶은 생각이 치밀었다.

《한번 그려보아도 될가?…》

그는 애들이 쓰던 그림종이를 잡아당겨놓고 여기저기 널려진 화구들을 가져다 얼른 몇장 그려보았다. 소나무며 꽃들이 저절로 되는상싶었다. 반질반질한 종이와 고급화구들은 그의 손에서 춤추듯 움직였다. 며칠이라도 그냥 그리고싶었지만 그럴수 없는것이 안타까왔다. 얼마후 장승업은 아쉬운대로 제자리로 오고말았다. 뒤를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소용없는 일이였다.

《아, 나에게도 그림종이와 색감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가.》

그러나 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주인령감은 자식들의 공부를 검열하다가 그림장들을 뒤지게 되였는데 그속에 뛰여나게 그려진 몇장의 그림이 하도 신기하여 깜짝 놀랐다.

《이게 누구의 그림이냐?!…》

주인은 자식들에게 그 그림을 누가 그렸는가고 물었다. 그러나 아이들은 모두 의아한 눈으로 아버지만을 쳐다볼뿐 대답을 못하는것이였다. 며칠 지난 후 주인은 그것이 바로 자기 집 종인 장승업의 그림이라는것을 알게 되였고 퍼그나 놀랐다.

이 장승업이 바로 19세기 후반기 사실주의화가로서 화단에 이름

을 남긴 사람이다.

그는 1843년에 태여나 1897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장승업은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서울거리를 헤매던중 관수동 리응원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였다.

어린시절 종살이를 하는 신세여서 그는 그림공부란 말조차 모르는 형편이였다. 하지만 장승업은 무엇을 보아도 그림을 그리고 싶었고 더우기는 주인집 애들이 좋은 화구를 가지고 제 마음대로 그림그리는것이 제일 부러웠다. 그 화구들을 만져보기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그들과 자기와의 거리는 너무도 멀었다. 그들은 빈둥빈둥 놀고먹으면서도 저녁이면 눈처럼 흰 종이우에 이름모를 갖가지 채색감을 찍어가면서 한가로이 그림을 그려대는것이였다.

그러나 종의 신세라 장승업은 우선 한가한 시간이 없었고 화구들이란 말그대로 그림의 떡이였다. 그는 틈나는대로 꼬챙이로 그림을 그렸고 불을 때다가도 시꺼먼 숯으로 땅바닥에 줄을 그어나가기를 그치지 않았다. 손바닥으로 지우고 또 그리고 하기를 얼마였으랴.

그러던중 주인이 장승업의 그림재간을 알게 된것이다.

다음날 주인은 장승업을 불렀다.

《그림에 재주가 있는것 같은데 일을 다하고 여가에는 그림을 그려보아라.》

그래도 어느 정도 동정이 갔던지 주인령감은 그의 재간을 기특하게 여기고 소원대로 그림을 그려볼수 있도록 화구 한조를 주는것이였다. 그리하여 그는 더욱 직심스럽게 그림공부에 열중했으며 마침내는 화단의 인재로까지 되였다.

장승업은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등불을 밝혀 그림을 그려나갔다. 그 밤이 좀더 길었으면 하는것이 그의 유일한 소원이였다. 한밤이 지나면 그의 초막에는 하나의 그림이 련속 생겨났다. 동네 늙은이들은 그것을 보려고 모여들었다.

《아니, 저 말 좀 보구려. 금방 달려나올것 같지 않소?》

《저 꽃병은 어떻구. 난 저렇게 고운건 처음 보겠소.》

이구동성으로 그림의 신묘함에 감탄들이다.

장승업은 가지가지의 고초들을 드센 발걸음으로 타개해나가면서 그림그리기에 더욱 정력을 쏟아부었다. 저절로 피는 꽃이 없듯이 그가 유명한 화가로 된데는 그의 피타는 노력이 깃들어있는것이다.

그의 그림을 보는 사람마다 너무도 생동한 화폭에 매혹되여 화가의 가문도 물어보고 생애와 활동에 대하여 알려 하였지만 그는 너무도 비천한 종의 신세였다. 하건만 사람들은 그로 하여 그의 그림을 더욱 사랑하였고 그 재주에 감탄하였다.

그러나 봉건통치배들은 그의 그림을 빼앗아갈 궁리만 하였지 그를 내세워주고 받들어줄 생각은 꼬물만큼도 하지 않았다. 실컷 부려먹다가 기운이 지나면 죽겠지 하는 식이였다.

그러나 장승업은 그에 개의치 않고 선행시기의 그림들을 구체적으로 연구해나갔다. 그 앞선 시기인 18세기에는 김홍도의 화초들과 풍속화들, 변상벽의 《고양이와 닭》, 김두량의 《소》, 조정규의 《게와 물고기》, 신명연의 《꽃과 나비》 등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창작되였다.

장승업은 이들의 화법들을 보면서 자기의것으로 재현하기에 힘썼고 특히 화초뿐아니라 산수와 인물, 산천경개 등 여러 분야에서 성공한 작품들을 많이 내놓았다.

대표작으로서는 《련못가의 물촉새》, 《목동》, 《매화》, 《게》, 《꽃병》, 《말떼》, 《달리는 말》, 《새매》, 《가을》, 《미인도》 등을 들수 있다.

여기서 특징적인것은 맑고 고상한 색갈을 드러내는것과 함께 우리 인민들의 생활과 정서에 잘 어울렸다는것이다.

그는 자기 작품들에서 구도를 대담하게 잡아나갔을뿐아니라 그 묘사대상을 진실하게 그려내는데 자기 힘을 다 바쳤다. 때문에 그의 그림들은 실물을 보는것과 같았고 금시 꽃이 피여나고 말이 걸어나오고 매가 저 하늘을 날아오를것 같은감을 주는것이였다.

그가 가장 정성을 넣은 그림은 《새매》이다.

대상의 특질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독특한 성격을 찾아내여 단필로써 한순간에 그려나간 그의 이 작품은 완전히 성공적인것이였다.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이 그림앞에서 떠나지 못하고 보고 또다시 보군 하였다.

풍경화에서도 나무, 풀 하나라도 금방 살아서 일어설듯이 그려내고야 붓을 놓는것이 그의 기질이였고 성미였다.

장승업은 어떤 그림재료든지 거기에 구애되지 않았으며 그 대상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고 진실로 자기의 심혼을 쏟아부음으로써 사람들이 요구하는 화폭을 그려냈다. 또한 그는 선배들의 화법에만 따른것이 아니라 자기의 독창적인것을 창조하기에 힘썼다.

그가 그린 과일, 꽃, 문방구 등과 특히 기러기떼를 그린 그림이 대표적인 실례로 된다. 여기서 그는 선 하나, 색감 하나도 자기의것을 나타내였고 그것으로 하여 화단을 장식했다.

그렇지만 오원 장승업은 한평생 가난을 면치 못하였다. 그는 나이 40이 넘어서야 겨우 초가 한칸을 얻고 거기에 자기 몸을 의탁하는 신세가 되였다. 통치배들은 그를 끌어다 그림을 그리게만 하였지 그의 생활에는 털끝만한 관심도 돌리지 않았다.

하기에 그는 자기와 처지가 꼭같은 인민들이 더는 참지 못하고 통치배들을 반대하여 련이어 일으키는 의로운 싸움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였으며 그들이 요구하는 그림들은 다른것을 다 밀어놓고라도 해주었다고 한다. 그는 이 땅의 물을 마시고 사는 백성으로서 장차 나라의 운명에 대하여 더없이 걱정하였고 따라서 왜놈들과 봉건관료배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깊이 간직하게 되였다.

그는 왜놈들이 요구하는 그림은 절대로 그려주지 않았고 또한 왕이 명하는 그림이라 하더라도 눈길조차 돌리지 않았다고 한다.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당시 궁중의 병풍을 그려야 할 과제가 제기되자 신하들은 고종왕에게 오원 장승업의 그림재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를 추천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궁중의 임금앞에 불리워가 앉게 되고 그림

을 그리라는 직접적인 분부를 받게 되였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달랐다.

(병풍을 그렸대야 백성들에게 무엇이 좋단 말인가? 일본놈까지 끌어들여 잡세상을 만드는 주제에 병풍은 해서 무얼 해.)

장승업은 왕의 무능력으로 하여 왜놈들이 우리 땅에서 개 싸다니듯 제멋대로 날치고 우리 백성들은 날마다 더한 고통을 당하고있다는것을 직접 보고 페부로 느끼고있었기에 이 령을 기꺼이 받아들일수 없었다. 그는 왕앞에 대령하여 일생에서 처음되는 풍성한 대접을 받았지만 병풍을 그릴 마음은 꼬물만치도 없었기에 빠져나올 구멍수만 찾고있었다. 생각끝에 그는 물감을 구실로 붙이였다.

그는 심부름을 들기로 된 신하들에게 밖에 나갈것을 요청하고는 궁중을 빠져나왔다. 그러나 군졸들에게 잡히여 다시 궁궐로 들어간 그는 그림을 구상하는체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파수병들이 졸고있는 틈을 타서 또다시 탈출하였다. 하지만 끝내 붙잡히여 포도청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말았다. 왕명을 어겼으니 틀림없는 사형이였다.

그런데 장승업을 본래부터 잘 알고있으며 그의 덕을 본적 있는 한 재상이 어전에 나가 그의 성격을 아뢰면서 살리자고 거듭 간청해나섰다. 이에 왕도 하는수없이 그대로 둘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여 겨우 목숨을 부지할수 있었다고 한다.

이번에는 또 어느 한 높은 급의 재상의 집에서 그림을 그려달라는 청을 받았지만 이것 역시 이구실 저구실을 붙여 끝내 그려주지 않았다.

이것은 바로 그의 굳은 성미와 함께 봉건관료배들에 대한 항거정신의 발현인것이다.

장승업은 서예에서도 자기의 특이한 기법과 재능을 보이였다.

그의 사실주의적화법은 화단에 남아 후세에 전해지고있다.

대원군과 민비

리조 말엽에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싸움으로 력사를 망친 대원군과 민비의 이야기는 실로 우리 민족의 수치이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였다.

왕위에 올라 15년 당년 스물셋의 헌종왕이 국사는 돌보지 않고 주색에 빠져 헤매다가 일찌기 세상을 떠나자 이번에는 왕족으로서 파벌싸움에 목숨이 두려워 강화도로 피신을 가있던 나무군 총각인 철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였다.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한 철종이여서 정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가 예상치도 않게 왕자리에 앉게 되니 꿈만 같았다.

철종이 집권한지 얼마후 영흥부원군으로 있던 김문근의 딸을 왕비로 들이였는데 이 왕후인 안동김씨는 왕의 무식함을 악용하여 모든 권력을 한손에 거머쥐였다.

모든 권세는 친정아버지인 김문근이 잡고 조카인 병학이 대제학을 차지했으며 병국은 훈련대장을, 또 병기는 좌찬성을 함으로써 실권을 장악하였다.

이렇게 되니 나라법은 문란해질대로 되여 벼슬을 사고파는 일들까지 벌어졌고 활도 쥐여보지 못한것들이 병권에 들어앉았다. 이리하여 나라형편은 날을 따라 험악해지기만 하였다.

철종당시 안동김씨의 세도정치는 특히 왕족인 젊은 남자일수록 꽁무니를 사려야만 하는 판이였다. 좀 똑똑해보이는자이면 안동김씨의 그 세도에 견디여낼수가 없었다.

흥선군 리하응은 원래 리조 16대왕 인조의 6대손인 남연군의 넷째아들로 태여났으나 김씨일파의 멸시와 학대, 수모를 받지 않으면 안되였다.

일찌기 부모들을 여읜 그는 나이 22살이 넘도록 이렇다할 벼

슬도 하지 못하고 겨우 현록대부로서 흥선정이라는 직위를 받았다. 걸핏하면 목숨이 날아나는 판이라 리하응은 서울장안의 불량배들과 술이나 마시고 놀음이나 하였다. 그는 이 어지러운 판에서 자신을 주색에 빠진 주정군으로 가리우면서 속으로는 조대비와 내통하여 김씨세도파들을 쓸어낼 발판을 꾸준히 닦아나갔다.

해는 바뀌여 철종 14년 봄이 되였다.

얼마전부터 급기야 병이 더해진 철종왕은 갑자기 사망하게 되였다.

누가 이제 왕위를 차지하는가 하는 문제가 나섰다. 벌써 수년간 조대비와 내통이 되여있었으므로 안동김씨일파의 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흥선군의 둘째아들인 고종이 왕이 되게 되였다.

흥선군의 아들이 왕이 되면 그가 권력을 쥐게 되므로 김씨일파들은 죽을 힘을 다하여 반대하였지만 이미 왕은 정해진 뒤였다.

《야, 잘 난다. 저것 봐. 내것이 더 높이 떠올랐구나!》

11살의 고종은 연띄우기에 여념이 없어 열심히 연줄을 당기고있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벽제소리와 함께 어마어마한 가마가 자기를 모시러 온것이다. 지금까지 왕이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철부지 고종은 저으기 놀래였다.

《아, 내가 조선이라는 나라의 왕이란 말인가?》

고종은 모든것이 어리둥절해졌다.

이리하여 조금전까지만 해도 저 하늘높이 연을 날리며 손바닥을 치던 소년이 일약 국왕이 되고 장안의 술주정뱅이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그 흥선군이 대원군의 지위에 올라 모든 권력을 쥐게 되는 대사변이 급기야 터졌다.

대원군은 아들 고종왕의 정사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근 10년간 나라의 모든 실권을 차지하게 되였다. 원래 대원군이란 죽은 왕의 뒤를 이을 자손이 없을 경우 왕족들가운데서 다른 집 아들이나 손자가 왕자리에 올라앉을 때 새 임금의 친아버지를 이르는 말이다.

대원군의 집권시기는 농민들의 반봉건적진출로 하여 봉건제도가 무너져가고 또다른 편으로는 자본주의렬강들의 침략이 강화되여가고있던 때였다. 때문에 대원군은 《폐정쇄신》(낡은 정치를 반

대하고 새로운 정치를 실시한다는 뜻)의 구호를 들고 봉건적《개혁》들을 실시하였다.

그는 왕실의 강력한 지배권을 구축하기 위해 우선 60여년간이나 지속되여온 안동김씨세도정치의 청산에 달라붙었다.

《음, 언제까지나 세도를 부릴줄 알았지. 안될걸.》

그는 속으로 코방귀를 뀌면서 1864년 4월 령의정으로 있던 김좌근부터 멀리 밀어냈으며 그 일파들을 차례로 정계에서 내몰면서 오래동안 눌리워살던 왕족들에게 벼슬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파쟁의 희생물이 되여 갇혀있거나 류배지에서 헤매이던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시키였다.

또한 1866년부터 1868년까지 전주리가의 족보였던 《대동보》도 발간하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왕권의 《위엄》을 돋구고 국가의 면모를 새롭게 할 목적밑에 3년 2개월이란 긴 기간과 700여만량의 막대한 돈을 들여 경복궁을 개건하였다.

대원군은 봉건왕실의 기본수탈체계로 되여있는 군포제도를 호포제도로 바꾸고 환자제도 역시 사환제도로 고쳐놓았다. 그러나 그 본질상 내용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그는 중소지주들의 발판이며 소굴인 서원을 철폐할데 대한 령을 전국에 내리고 600여개이상의 서원을 없애버리였다.

이 모든 조치들은 인민들의 마음을 누잦히고 저들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에 불과한것이였다.

대원군은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1868년 3월에는 군대의 최고기관인 《3군부》를 다시 내오고 군대수를 늘이는 한편 해안방어에 힘을 들이였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철저한 《쇄국정책》을 실시해나갔다.

대원군은 외세의 침략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침략의 길잡이로 되는 카톨릭교도들을 탄압하였다.

우리 나라에 카톨릭교는 정조왕때(18세기 말엽)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중국을 왕래하는 과정에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였고 프랑스와 여러 나라 선교사들이 성경

책을 들고 나타나는 바람에 널리 퍼지게 되였다.

고종 3년에는 원산항에 들어온 로씨야군함에도 카톨릭교인들이 끼여들었다는것을 알고 대원군은 사람들을 파하여 그들의 목을 베여버리였다. 그리하여 당시 많은 카톨릭교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는 교인이 발견되기만 하면 사지를 묶어놓고 얼굴에 백지장을 덮고 랭수를 뿜어서 숨이 막혀 죽게 하고는 그 시체를 던져버렸다.

대원군은 자본주의나라들의 밀수입상품들을 몰수하여서는 여하를 불문하고 불을 달았으며 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을 가차없이 처단하면서 극심한 쇄국정책을 실시해나갔다.

그리하여 그는 다른 나라의 선진과학기술이 우리 나라에 들어오는 길을 무자비하게 차단하여 나라안에 발전된 과학기술이 들어올수 없게 만들었고 경제와 문화가 제자리에서 앞으로 나갈수 없도록 하였다.

대원군의 이런 정책들은 멸망에 직면한 봉건왕조를 구원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 유지해보려는 강경한 보수적인것이였으며 반동적인것이였다.

대원군은 고종의 왕비를 들이는데서도 안동김씨의 세도를 보았던지라 친정아버지도, 오라비도 없는 첨정 민치록의 딸을 골라 1866년 3월에 맞아들이였다. 그가 바로 민비였다.

민비의 친정아버지는 이미 고인이 된지가 오래고 그의 양자인 민승호는 한쪽으로 대원군의 친속이 되므로 안심하고 그를 며느리로 맞아들이였던것이다. 그는 고종보다 한살 더 먹어서 15살이였다. 처음 궁중에 들어왔을 때 민비는 조대비와 궁중의 어른들에 대하여 공손하고 잘 받들며 궁녀들도 잘 통솔하는것으로 칭찬이 자자했었다.

하지만 그 민비가 바로 왕을 조종하여 마침내 시아버지를 내몰고 자기의 친정 룩촌, 팔촌 지어 민씨라면 덮어놓고 벼슬에 올려앉혀 또다시 외척시대를 낳게 할줄이야 누가 짐작이나 하였겠는가.

큰 키에 얼굴이 좀 검은 편이고 그닥 아름답지 못하였으므로 고종왕은 처음 그를 시답지 않게 여기였고 궁녀 리씨를 더 좋아하였다.

하건만 민비는 대궐책방에서 글만 읽었다. 그는 많은 책을 읽었

고 수완이 지나치게 비상한 인간이였다.

이를 간파한 대원군은 활달한 민비의 성품을 고려하면서 경계를 두어 고종과 멀리 있게 하였다. 그 기간에 민비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다.

그사이 고종은 궁녀인 리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보게 되였다. 민비와의 관계에서도 아들을 보았으나 사흘만에 죽어버렸던것이다.

대원군은 리씨가 낳은 완화군을 몹시 사랑하여 그를 세자로 책봉하려고 하였다.

이에 시기가 난 민비는 드디여 대원군을 몰아낼 활동을 개시하였다.

민비는 이제 고종의 나이 22살이 되였으니 아버지의 실권을 접수해야 한다는것과 대원군의 정치에서 잘못되였다고 생각하는 점들을 렬거하였다. 여기에 또한 대원군의 독재에 인민들의 생활이 극도로 령락해졌고 내외의 민심이 소란해졌다.

그리고 고종왕자신도 아버지의 지나친 독재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이제는 자기도 정치를 해보고싶은 욕망이 생겨났다. 고종은 민비의 말에 넘어가 대원군의 정권을 강제로 접수하기로 하였으며 그를 궁궐에 들여놓지조차 못하게 하였다.

대원군이 궁궐로 들어서려 하자 군졸이 앞을 막아나섰다.

《어명이요. 들어오지 말라는 분부이시오이다.》

《무엇이라구?!》

순간 피가 거꾸로 치솟아올랐다. 그러나 왕은 역시 고종이니 할 수 없는 일이다. 대원군은 말없이 돌아서서 무겁게 발걸음을 옮기였다.

《아들이라는것이 이런것인가. …》

대원군은 이렇게 정권에 앉은지 십년만에 날아가던 새도 능히 떨어뜨릴만큼 세도가 대단하고 기승을 부리던 그 정사에서 하루아침에 밀려나고말았다.

이 모든것이 민비일당의 책동이라는것을 대원군은 알아차렸다.

대원군은 양주 한촌에서 낚시질로 세월을 보내야 하는 기막힌 처지가 되여버렸다.

그의 가슴속에는 민비를 왕후로 맞아들인 뼈아픈 뉘우침이 허비여들었다.

엎친데덮친 격으로 대원군이 그처럼 사랑하던 세자 완화도 11살때 원인도 모르게 갑작스레 죽어버렸다. 모두들 이것은 민비일파의 독살행위라고 지목했지만 그렇다고 지금의 자기 처지에서 사실을 밝혀낼 힘도 없었다.

대원군은 낚시줄을 길게 드리우고는 민비를 복수할 생각에만 골똘했다.

어느날 민비의 양오라비인 민승호가 밥을 먹는데 대원군의 심복 한사람이 찾아와 자그마하고 맵시있는 궤 하나를 내놓는것이였다.

《이것을 전하라고 해서…》

그리고는 별말없이 인사를 하고는 되돌아서는것이다.

민승호는 별생각없이 호기심에 끌려 궤를 그자리에서 열었다. 순간 고막을 찢는 폭음과 함께 민승호는 즉사하고 가족들도 죽어버리였다. 그것은 묘하게 폭발장치가 되여있는 폭탄이였다.

대원군이 민비일파를 없애버리기 위한 음모는 이렇게 걸음을 떼였다.

민비는 고종에게 대여들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데 있어요. 이젠 아버지한테 문안도 가지마세요!》

민비는 고종이 일년에 한번씩 아버지에게 다녀오는것도 막아버렸고 대원군의 서자인 리재선을 역적으로 몰아 죽여버리였다. 그리고 민비는 대원군과 조금이라도 가까운자는 귀신도 모르게 없애치웠다.

또한 민비는 자기의 끄나불들을 대원군의 처소에 보내여 그의 동정을 살피게 하였으며 정상적으로 보고하도록 만들었다.

이것을 알아챈 대원군은 자기에게로 오는 놈들을 두말없이 죽이거나 잡아들이여 가두어놓았다.

대원군과 민비사이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다.

그토록 기세등등하던 대원군이 민비에게 밀리워 자리를 옮기였으나 그의 집권야욕만은 버릴수 없었다. 오늘에 와서 시아버

지와 며느리사이는 서로 반목하고 상대를 불구대천의 원쑤로까지 여기게 되였다.

그런데 대원군이 소문을 들으니 리당주라는 장님이 하나 있는데 민비의 앞잡이로서 매일밤 대원군을 죽게 해달라고 밤새워 빌고있다는것이였다.

대원군이 청지기인 한석진을 불러 사실을 알아보니 그는 밤마다 즐비한 음식상을 차려놓고 연방 절을 해댄다고 한다.

《흥선대원군 리하응을 이레안으로 잡아다가 아비지옥에 가두어 줍소사.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는 손을 싹싹 비벼대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있다.

사실을 확인한 대원군은 즉시 리당주를 자기에게로 끌어오게 하였다.

그리고는 좋은 음식에 비단이불을 펴서 편히 쉬게 하였다. 대원군은 그를 만나지 않고 며칠간 계속 대접을 해댔다.

청지기도 이러한 알수 없는 처분에 의아한감을 금할수 없었다.

《아니 저놈을 왜 대접만 합니까? 죽여도 시원치 않겠는데.》

대원군은 히쭉 웃더니 손을 내젓는것이였다.

《자네는 내 시키는대로만 하고 가만있게. 때가 되면 죽지 않으리.》

리당주는 민비가 찾을것 같아 청지기에게 어서 빨리 대원군을 만나게 해주던지 아니면 문의라도 해달라고 거듭 졸랐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대원군은 그놈을 그대로 내놓아주라는것이였다.

리당주는 놓여나오자 큰숨을 내쉬였다.

《후유—》

그러면서도 의아한감은 없지 않았다. 그런데 대문밖에서는 가마가 기다리고섰으니 그것을 타고 곧장 민비에게로 갔다. 그동안 계속 걱정을 하고있던 민비는 리당주가 들어서자 다우쳐 물어댔다.

《무슨 말을 물어보았소.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말이요?》

하지만 리당주의 대답은 너무도 태연하였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만나주지조차 않았소이다.》

《아니, 그럴리가 있나?… 바른대로 말을 해봐라!》

민비는 대원군에게 비밀을 다 불었을것 같아 그대로 말하지 않으면 용서치 않겠다고 문초를 들이댔으나 역시 매한가지였다.

민비는 리당주가 대원군에게 가서 대궐의 중요한 비밀을 다 털어놓았고 또한 그 무슨 요긴한 과업을 받아가지고 나왔다고 단정하였다. 그러니 빨리 털어놓으라고 야단을 쳤다.

그러나 대원군은 바로 이것을 노리였기에 잘 대접하고 만나지도 않은채 내보낸것이 아닌가.

리당주는 민비의 지시로 포도청에서 귀신몰래 목을 잘리우는 신세가 되였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대원군의 입이 벙글사해졌다.

《음, 그랬을테지! 내 진속이 어떤것인지 네 년이 알리가 없지.》

이렇게 민비와 대원군의 암투는 계속되였고 그것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갔다. 민비는 국정을 손에 넣고 온갖 못된짓은 다하였다. 때문에 인민들의 원성은 대원군시기보다도 더욱 높아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력사에 크게 남은 임오(1882년)군인폭동도 일어나게 되였다.

나라에서 군사들에게 내여주는 군료라는것이 한달에 겨우 4말(15㎏)인데 그마저 열석달째나 미루어오다가 한달분을 내여준것이 몽땅 물에 잠겨 썩은것이 아니면 모래와 겨투성이였다.

때문에 군사들은 그래도 대원군시기가 괜찮았다고 생각하면서 그때를 그리워하게까지 되였다. 그때는 그래도 료미는 매달 내주었고 군기도 강하였다.

그리고 병인년(1866년)에는 프랑스함대, 신미년(1871년)에는 미국함대를 보기 좋게 격퇴하여 우리를 먹으려 달려들던 놈들에게 본때를 보였기에 백성들은 군사들을 아끼고있었다.

대원군은 전국의 거리마다에 외적과의 화의를 반대하는 《척화비》를 세웠고 침략자를 반대하여나서도록 군사들을 동원하였다.

그런데 지금의 사대투항주의적인 민비가 들어앉자 군기는 더욱 문란해지고 그들의 생활도 말이 아니였다.

민비는 밤마다 굿놀이를 펴놓았고 아침이면 해가 중천에 떠오를때까지 침전에서 일어나지조차 않았다. 고종왕과 민비에게는 돈이

산같이 쌓여도 모자랄 지경이였다. 이런 틈을 타서 왜놈장사치들은 변돈을 놓아 가을에 가서는 귀중한 낟알을 모조리 긁어갔다.

군인들의 분격은 드디여 터지고야말았다. 그들은 어차피 죽을바엔 원이라도 풀고 죽으리라 다짐하였다.

군기고에서 무장을 꺼내든 군인들은 민비를 찾아 대궐로 쳐들어갔다. 민비는 재빨리 궁녀의 옷을 입고는 그들틈에 끼여들었다.

민비는 군사들에게 두번이나 잡혔지만 그때마다 궁녀라고 묘하게 속이고는 아첨쟁이 무예별감 홍계희의 등에 업혀 대궐을 빠져나갔다.

그리고는 자기의 친척벌인 충주 민응식의 시골집에 몸을 사리였다.

임오군인폭동으로 하여 민비가 도피하여있는 동안 대원군이 다시 집권했다.

그러나 민비 역시 정권야욕을 버릴수 없어 이번에는 외세를 끌어들이는 천추에 용납못할 큰 죄를 저질렀다. 그는 자기의 심복인 김윤식을 은밀히 청나라에 파견하였다. 그는 청나라 리홍장(청나라 말기 군벌정치가들의 두목)을 움직여 원세개(청나라 말기 북양군벌의 우두머리)가 거느린 청군을 불러들였으며 애국적인 임오군인폭동을 무참히 진압하였다.

폭동이 터진지 스무날만에 청나라군대는 군함을 끌고 조선땅에 들어섰다. 그들은 대원군을 잡아 청나라로 보내였다. 청나라통치배들은 민비와 공모결탁하여 외교적의례방문차로 군영을 방문한 대원군을 랍치하였으며 청나라로 끌고가 억류하였던것이다.

대원군은 4년이란 세월을 보정부에 갇혀 지내다가 1885년 8월 귀국하였으나 운현궁에 연금되게 되였다. 대원군은 1894년 6월 잠시동안 다시 정권을 쥐였지만 11월에 쫓겨난 후로는 연금상태에서 일생을 마치고말았다. 그때 그의 나이는 78살이였다.

민비는 천하영웅으로 자처하던 대원군을 상대로 수십년간이나 그의 행동을 봉쇄저지시켰다. 그는 원래 처녀때부터 야심가였고 권력에 환장을 한 녀인이였다.

민비의 기고만장한 태도에 그의 양오라비가 《저 계집애가 누굴

망쳐놓으려고 저런고.》하자 그는 크게 웃으며 말하였다.

《기왕 망쳐놓을바엔 큼직한 집 하날 망쳐놓고말걸.》

민비는 왕비로 뽑히기 전에 이미 정해놓은 혼처가 있었다. 그러나 높은것이 더 좋았기에 그는 헌신짝처럼 내던졌다. 한번은 그 총각이 벼슬에 올라 궁궐에 오게 되였는데 민비는 문틈으로 내다보면서 코웃음쳤다는것이다.

《아이구, 저까짓것을 서방이라고 내 맞을번 했군. 호호호.》

하여튼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싸움은 우리 나라를 탐내여 엿보던 각국의 외세를 끌어들이게 하였고 나아가서는 망치게 하는 뼈아픈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망국의 시작이였고 또한 망국의 근원이기도 하였다.

19세기말 외래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이 강화되자 통치배들은 인민에 의거하여 제힘으로 나라를 구원할 생각은 없이 제나름대로 제가끔 외세를 끌어들이기에 미쳐날뛰였다.

내외정세는 말할수 없이 복잡다단하였다. 민씨들의 세도정치, 이 땅을 먹어보려는 렬강들의 책동으로 나라안팎은 물끓듯 하였다.

이런 때 젊은 개화파의 선구자들인 김옥균을 선두로 한 선진적문인들이 갑신정변(1884년)을 단행했건만 이것 역시 실패하고 말았다. 개화파들은 눈물로 이 땅을 하직하며 망명의 길을 떠나거나 칼에 맞아죽었다.

굶주린 백성들은 더는 참을수 없어 일어섰다. 전라도농민들의 진출(1894년, 갑오농민전쟁)이 호남일대를 휩쓸었다.

여기에 또 청일전쟁(1894～1895년)까지 터지여 하루아침에 8도강산이 전쟁터로 화하는 실태가 련이어 빚어졌다. 전쟁이 끝나자 이긴것은 일본이고 더욱 비참해진것은 조선이였다.

원래부터 청나라에 의거하던 국왕과 민비일파는 이번에는 짜리로씨야에 손을 내밀었다. 이렇게 되자 오래전부터 조선을 손아귀에 넣으려 하던 일제는 친로세력을 일거에 제거하고 저들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비를 살해할 꿍꿍이를 꾸미게 되였다.

일제는 이 사건조작을 위해 일본공사 미우라에게 과업을 주었다. 미우라놈은 왕궁을 습격하려고 일본 《수비대》와 경찰, 깡패, 불

량배들을 모아들이였다.

1895(을미)년 8월 20일 미우라는 깊은밤 불의에 대궐로 쳐들어가 미리부터 준비하였던 사다리를 놓고 성벽을 뛰여넘어 왕궁안에 기여들었으며 호위대장 홍계훈을 칼로 찔러죽이고 국왕과 왕비의 침실을 포위하였다.

일본깡패들은 저들이 목적한 민비를 찾기 위해 국왕인 고종을 협박하였고 다른 한패는 옥호루로 달려갔다. 놈들은 맞받아나오는 궁내무대신인 리경식을 총으로 쏴눕히고 궁녀들을 닥치는대로 찔러죽이면서 민비를 찾아 날뛰였다. 방구석에 궁녀들과 함께 숨어서 기회를 엿보며 떨고있던 민비와 시녀들을 드디여 찾아낸 깡패들은 즉시 긴 칼로 내리쳤다. 왜놈들은 아직 숨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민비를 장작더미우에 올려놓고 석유를 뿌린 후 불을 달아 태워죽이였다. 그리고 나머지유해는 경희루 련못가에 던져버렸다. 이것을 력사에서는 《을미사변》이라고 한다.

이처럼 일제놈들은 그래도 주권국가국왕의 처인 민비를 야만적으로 학살하였던것이다.

이 소식에 분노를 참을수 없었던 우리 인민들은 도처에서 들고일어났다. 그러자 교활한 일제는 우리 인민의 분노를 삭이고 내외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미우라놈을 비롯한 48명의 불한당무리들을 일본에 끌어다 《재판》하는 《연극》을 연출하였으며 후에는 《증거불충분》이란 구실을 붙여 내보내고말았다.

이것은 일제야말로 우리 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이며 야수적인 침략자임을 여실히 드러내였다.

이렇게 조선력사에 《대원군》과 《민비》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죄악을 범한 리조 마지막왕실의 인물들은 비참한 운명을 마감짓고 말았다.

이것은 그들의 정권에 대한 야심과 질투의 산물이였다.

언제나 제 나라 인민을 믿고 그 힘에 의거하여 옳은 정사를 펴려 한것이 아니라 외세를 등에 업고 인민은 헌신짝처럼 여기였으니 응당한 징벌을 받은것이다. 외세에 의존하면 반드시 그 외세의 손에 롱락당하고만다는것은 공인된 력사의 진리이다.

갑신정변과 김옥균

김옥균은 나라의 《문명개화》를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부르죠아정변을 단행한 인물로서 자력으로 나라의 근대적발전을 실현하고저 로심초사한 진보적이며 애국적인 인사였다.

19세기 후반기에 들어와 우리 나라에서는 개화사상이 발생하고 그에 토대하여 부르죠아개혁운동이 활발이 벌어지고있었는데 갑신정변은 이러한 력사발전의 산물이였다.

갑신정변은 당시의 시대적요구에 상응하여 우리 나라에서 봉건적멍에를 제거하고 근대적발전을 이룩할것을 지향한 부르죠아개혁이였다. 따라서 이 정변을 조직한 김옥균은 우리 나라를 개명시키려고 한 부르죠아개혁운동자이며 애국자인것이다.

김옥균은 1851년 1월 충청도 공주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5살때 5촌인 김병기의 양자로 들어가면서 처음에는 서울에서 다음에는 파도가 기슭을 치는 강원도 강릉땅에서 살았으며 후에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

아버지 김병태는 군사일을 맡아 처리하는 호군이라는 벼슬을 하였다.

김옥균은 어려서부터 머리가 명석하고 아량이 있으며 담찬 아이로 알려졌었다. 그는 사람들을 포섭할줄 알았으며 글재주와 글씨에 출중하고 그림도 잘 그렸다.

달은 비록 작으나
온 천하를 비친다

6살에 달을 보고 지었다는 이 시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가 룡 룡자를 쓰면 룡이 살아서 꿈틀거리며 하늘로 날아오르는듯 하고 범 호자를 쓰면 범이 금시 일어나 산중에서 뛰쳐나오는것 같다고까지 칭찬하였다. 아무튼 후날 큰 인물이 될것이라는것은 모두의 한결같은 생각이였다.

그는 22살에 과거에 응시하여 문과에 장원급제하였으며 홍문관 교리, 사간원 정언, 승정원 우부승지를 거쳐 서른전에 벌써 청년정치가로서의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뛰여난 식견과 학식은 따를자가 없었다.

그는 감수성이 빠르고 안목이 예리한것으로 하여 량반통치배들의 부패성과 기울어져가는 나라의 운명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감수하였으며 그것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였다.

그의 이러한 세계관형성에 영향을 준것은 선진적인 실학사상과 함께 오경석, 류홍기, 박규수 등 인물들의 개화사상이였다.

김옥균은 봉건적구속에서 벗어나 부르죠아적사회변혁에로 나가려는 시대적추세를 민감하게 포착하였으며 우리 민족도 자기의 존엄을 지키고 사회의 진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라의 근대화를 실현하는 새로운 개혁을 해야 한다는것을 절감하였다.

그리하여 김옥균은 개화사상을 가지게 되였고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규합하여 보수정책을 반대해나서게 되였다.

김옥균의 진출에 집권자들은 강릉부사로 있던 그의 5촌인 김병기를 그자리에서 파면시키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그의 확고한 결심은 움직일수 없었다.

그는 자기와 뜻을 같이할수 있다고 인정되는 인물이면 신분에 관계없이 동료로 인입하였으며 거사에 필요되는 여러 부문의 인사들을 획득했다.

때문에 유생출신인 류상오, 박제경이와도 뜻을 같이하였고 왕궁의 정세파악을 위해 궁녀 고씨와도 손을 잡았다. 뿐만아니라 군인들속에 세력을 확대하는데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많은 장교출신들을 모았으며 자금문제를 푸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서울 종로를 비롯한 여러곳의 자본가, 보부상출신들과도 련계를 가

지였다.

그리고 사회의 최하층신분인 《천민》들도 개화사상을 지지하면 끌어들이였다.

1870년대초 어느해 가을 봉원사라는 절간에는 김옥균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를 개화하여 다른 나라 못지 않는 부강한 대국으로 만들려는 한마음을 간직한 각이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김옥균이 먼저 들어서고 뒤를 이어 류대치, 리동인 등 많은 사람들이 따라섰다.

예견했던 인원들이 모두 모이게 되자 김옥균이 입을 열었다

《지금 개화의 길보다 더 절실한것은 없습니다. 남보다 뒤떨어지면 불피코 약자로 되여 칼도마우에 오르는 신세를 면할수 없음을 잘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개화를 하자면 정치를 개혁해야 합니다.

그런즉 나라를 부강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개화의 뜻을 가지고 이자리에 모인 우리의 어깨에 지워져있습니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이날 김옥균은 개화파인물들과 함께 자기들의 힘을 합칠 조직으로서 《충의계》를 무었다. 이들은 충의계를 끝까지 지킬것을 목숨으로 맹세했다.

먼저 류대치가 왼손 엄지손가락을 날이 선 칼로 서슴없이 베였다. 새빨간 선혈이 솟구쳤다.

그는 붉은피를 앞에 놓인 술사발에 떨구었다.

뒤를 이어 김옥균이 하였다. 술사발은 20여명 사나이들의 선혈로 붉게 물들었다. 그것은 술이 아니라 선지피를 쏟아놓은것과 같았다.

김옥균은 그 술사발을 들고 이야기하였다.

《이 술속에는 반상(량반과 평민)의 차이도 없고 또한 벼슬의 높낮이도 없으며 오직 충의계를 위하여 한목숨 아낌없이 바치겠다는 사람들의 붉은피만이 있는것이요.》

그는 나라의 부강개화를 위하여 제일먼저 그 술을 마셨다. 술사발은 20여명의 손을 거쳐 바닥이 났다.

이렇게 《충의계》는 무어지게 되였다.

충의계는 부르죠아개혁운동을 위하여 무어진 비밀결사로서 개화파세력의 핵심력량이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근대정치조직의 맹아로 되였다.

김옥균은 충의계를 발동하여 여러가지 조직사업을 벌려나갔다.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형성된 개화파는 자본주의침략으로부터 국내시장을 보호하며 나라의 근대적발전을 위해 국정개혁사업을 단행하는것을 당면과업으로 제기하였다.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은 우선 자본주의국가와 통상할수 있는 자체의 준비를 앞세우는 기초우에서 개항을 하여 통상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러가지 계획안을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힘썼다.

그리고 국정개혁사업을 위한 준비로서 계몽서적들을 많이 소개하였다.

이 시기 김옥균은 《기화근사》라는 책을 집필하였는데 여기에서 그는 근대적발전의 필연성을 론증하였다. 당시 박영교의 《지구도경》, 김기수의 《동유기》, 어윤중의 《중동기》도 큰 역할을 하였다. 이밖에도 《중서문견》, 《만국공법》, 《공사》, 《지구영환》, 《신보》, 《흥아회잡사》, 《시속금일초》, 《공업륙학》 등 외국책들도 번역배포하였다.

김옥균은 또한 이미 근대적개혁을 수행한 나라들의 형편을 알기 위해 친구들을 일본에 파견하여 그 나라의 발전정형을 료해하게 하였고 1881년부터는 자신도 일본에 건너가 국가기구들을 살펴보고 정치활동가들과도 만나 정세도 론하였다.

그는 일본체류기간 한주에 한번씩 일본에서 류학하고있던 사관학교 학생들을 만나 그들에게 부르죠아개혁의 필요성을 해설하였고 애국의 사상으로 교양하였다.

당시 조선을 둘러싸고 청나라의 내정간섭책동이 우심한것을 고려하여 김옥균은 부르죠아개혁수행에서 일본을 리용하려고 하였다.

김옥균은 나라의 진정한 독립을 위하여 《자수자강》이라는 구호를 내들었고 근대적국가의 무력기초로 될 신식군대의 양성사

업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였다. 개화파들은 1883년 봄부터 경기도 광주에 특별군영을 설치해놓고 서울의 한 부대를 골간으로 하여 임오군인폭동당시 해산되였던 군인들과 지방청년들로써 1 000여명에 달하는 군대를 조직하여 훈련시켰다.

1882(임오)년 군인폭동이후 김옥균은 리조참의, 호조참판 등 직책에 있으면서 부르죠아개혁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려나갔다.

개화파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1882년 7월에 기무처가 조직되였는데 기무처는 나라의 모든 문제를 토의결정하는 협의제기관인 동시에 사실상의 최고권력기관이였다.

김옥균은 1883년 10월에 우리 나라 최초의 근대적신문인 《한성순보》도 발행하였다. 신문은 국내소식들을 알리여 각계층의 견문을 넓히고 근대적문물제도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인민들을 계몽시키는데 중요한 목적을 두었다.

그러나 보수세력인 수구파들도 가만있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들의 활동에 위험으로 되는 인물들을 지방 각지와 국외로 내보내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때 김옥균도 동남제도개척사 겸 포경사로 임명되여 지방으로 쫓겨났다.

그러나 그는 락심하지 않고 이 기간을 운동자금을 마련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며 동해안의 포경(고래잡이)사업을 발전시켜나갔다. 이렇게 되자 봉건통치배들은 그를 다시 서울로 올려와 감시하였으며 지어 그를 살해함으로써 개화운동을 파탄시키려고 시도하였다.

이 시기 조선봉건정부의 《재정고문》으로 기여들었던 멜렌도르프(도이췰란드)는 봉건통치배들앞에서 《조선에서 없애야 할 해독은 당오전(한푼이 엽전 5푼의 가치와 같은 돈)이 아니라 김옥균이니 우선 그를 처리해야 한다. 김옥균이 백방으로 여러분을 모해하고있으니… 당신들도 호상협력하여 이 나라의 제일가는 페단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면서 김옥균을 살해하도록 사촉하였다고 한다.

이런 조건에서 평화적방법으로 부르죠아개혁을 수행한다는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였다.

1884년 봄 청나라정부에서 일어난 《정변》의 여파는 조선땅에도 밀려들어 수구파들에게 불리한 정세가 조성되였다.

김옥균은 이때를 놓치지 말고 정변을 단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각지에 분산되여있던 동료들과 해외의 인사들을 모두 서울로 불렀다.

김옥균은 1884년 9월 개화파요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자기의 결심을 알리였다.

《우리들은 수년내로 평화적수단으로 고생을 이겨내면서 모든 힘을 다하였으나 그의 성과는 없을뿐아니라 오늘은 이미 죽을 지경에까지 빠지게 되였다.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것이 아니라 먼저 적수를 눌러버리지 않을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다. 따라서 우리의 결심에는 오직 한길이 있을뿐이다.》

김옥균은 평화적방법으로가 아니라 폭력으로써 반동세력을 때려엎고 소기의 목적을 이룰것을 결의한것이다.

그는 이를 위해 개화파의 《충의계》조직을 발동시켜 정변준비를 완성하며 지지자, 동정자들을 묶어세우고 가능한 외교수단들을 리용하여 봉건세력을 견제하였다. 그리고 국왕을 자주 만나 현정세하에서 우리가 나갈 길을 해설하였다.

그는 국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조정에는 간신들이 가득차서 청나라정부와 결탁하여 권세를 롱락하는 등 국가에 한심한 일이 한둘에 그치지 않으니… 마땅히 정력을 기울여 정치에 힘써 안으로는 제도를 혁신하여 백성들의 힘을 기르고 밖으로는 독립을 세계에 선언하고 문을 열어 새 지식을 흡수하는것이 당면한 최대의 급선무일것이옵니다.》

그리하여 국왕도 어느 정도 움직이게 되였다.

김옥균은 또한 청나라와 일본간의 모순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일본군대를 왕궁호위에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다.

10월 12일 김옥균은 정변을 닷새 앞두고 마지막으로 고종을 만났다.

그는 국왕에게 나라의 독립문제에 대하여 력설하면서 모두 대국에 아첨하는 무리들뿐이니 현정치를 개혁한 연후에야 백성도 나라

도 구원할수 있다고 진실로 절절하게 호소하였다. 그의 눈에서는 섬광이 빛발쳤고 가슴은 소리라도 들릴듯 높뛰고있었다.

고종왕도 흥분되지 않을수 없었다.

드디여 김옥균은 자기들의 정변계획까지 터놓았다. 국왕은 진심으로 나라의 흥망성쇠를 걱정하는 김옥균의 열정에 마침내 머리를 끄덕이게 되였으며 나라를 다시 일으켜세우려는 경의 마음을 알만하다고 하면서 위급할 때에는 모든것을 경의 주책에 일임할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즉석에서 왕의 실인이 찍혀져있는 밀칙(남모르게 내리는 왕의 명령)을 그에게 주었다.

1884년 10월 17일 김옥균은 우리 나라에서 새로운 체신제도가 실시되여 우정국락성식을 거행하는 계기를 타서 정변을 단행하였다. 그날저녁 우정국준공축하연이 벌어졌는데 여기에는 김옥균, 홍영식 등 개화인물들과 민영익, 리조연 등 수구파의 거물들 그리고 미국공사, 영국총령사, 청나라상무위원, 일본공사관 서기관 등 18명이 참가하였다.

김옥균은 연회장주위에 행동대원들을 매복시켰고 곳곳에 거사를 치를 무장인원들을 배치했다. 그리고 연회장에서 멀지 않은 곳의 별궁에 불을 지르는것을 신호로 행동을 개시하기로 작정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로 별궁에 불을 지르는 일이 파탄되였다. 김옥균은 지체없이 우정국옆집에 불을 지르도록 지시했다.

《불이야!》 하는 소리와 함께 당황해난 수구파대신들이 밖으로 나가려 하는데 맨 먼저 나갔던 민영익이 행동대원의 칼에 맞고 연회장안으로 되돌아오며 쓰러졌다. 그러자 즉시 수구파인물들이 기미를 알아채고 몸을 피하기 시작했다.

사태가 이렇게 전변되자 김옥균은 행동대원들을 발동시켜 사방에서 수구파들을 처단하게 하는 한편 왕이 있는 창덕궁으로 달려가 왕을 설복하여 경우궁으로 옮기게 하여 자기들의 수중에 넣음으로써 실재상 정권을 장악했다. 얼마후 일본공사 다께소에가 군사 백명을 이끌고 경우궁으로 달려왔다. 개화파는 예정대로 일본군대를 왕궁밖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고 왕궁으로 통하는 네 문에는 자체의 무장성원들을 선발배치하였다.

그리고는 국왕을 찾아 경우궁으로 오는 수구파의 주요인물들을 모조리 처치해버렸다.

김옥균은 또한 왕의 어명을 빌어 민태호, 민영목, 조녕하 등을 왕궁으로 급히 불러들여 즉각 처리하였다.

왕궁은 철통같이 호위되고 정변계획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였다.

개화파는 곧 왕앞에서 새 정부를 구성하였다. 정부수반인 령의정으로는 국왕의 사촌인 리재원을, 좌의정에는 홍영식을 임명하였고 대원군의 아들인 리재면, 외손자 조한국도 새 정부의 구성에 인입하였다.

그리고 근대화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부문들인 군사, 외교, 경제, 사법, 경찰 등은 모두 개화파인원들이 차지하였다.

1884년 10월 18일에는 새 정부의 구성을 전국에 선포하였고 조선주재 각국 외교공사, 령사들에게도 알리였다. 그리하여 미국, 영국을 비롯한 각국의 외교관들이 관례에 따라 새로운 정부를 공식적으로 방문하게 되였다.

그리고 다음날에는 14개 조항으로 된 새 정부의 정강이 발표되였다.

정강에서는 우선 정치분야에서 봉건적전제군주권력을 제한하고 봉건통치기구를 근대적으로 고칠데 대한 문제, 청나라의 내정간섭과 사대굴종외교를 종식시키며 독립국가로서의 존엄을 지킬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과도적인 근대개혁을 실현할것이 규정되여있었다.(개화파정부는 정강을 작성함에 있어서 당면하게 긴급히 제기되는 과업만을 우선 반영하고 개화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의 전반내용과 자기들이 추구하는 모든것을 다 반영하지는 않았다.)

개화파정부가 선포한 이 정강은 반봉건반침략사상을 반영한 애국적이며 진보적인 정강이였으며 장차 모든 분야를 근대적으로 변혁시킬것을 목적으로 한 불철저한 부르죠아정강이였다.

이러한 사변에 놀란것은 민비였다. 그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차렸다. 그는 저들의 심복들을 파견하여 정세를

렴탐하게 하는 한편 국왕을 충동질하여 거처를 자기들에게 유리한 창덕궁으로 옮기자고 갖은 요설을 다하였다.
이때 여기에 일본공사놈이 손벽을 치며 마주나섰다.
김옥균이 나라의 독립과 부강발전을 이룩하려는 뜻이 저들의 리익에 저촉되고 청나라와의 관계문제도 외면할수 없다고 생각한 요사스러운 이놈은 배신의 길에 서슴없이 들어섰던것이다.
민비의 앙탈과 일본공사의 변절로 왕궁은 창덕궁으로 다시 옮겨지고 일본호위군사는 왕궁에서 철수하겠다는 제기를 들고나왔다.
김옥균은 일본공사의 배신행위를 격분에 차서 규탄하면서 무기고에서 꺼낸 녹쓴 무기를 수리정비하고 방어준비를 갖출 때까지 최소한 3일간만이라도 더 머물러있을것을 요구하였다. 김옥균의 정당한 요구앞에서 일본공사는 이를 승인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반혁명세력은 개화파가 필요로 하고있던 3일간이 지나기 전에 앞질러 공세를 취하여왔다.
그리하여 김옥균의 개화파는 수구파와 손을 잡고 들어오는 원세개의 1 500명 청나라군을 방어태세를 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고 방어에 가장 불리한 창덕궁에서 단독으로 맞서나서지 않으면 안되였다. 싸움이 시작되자 일본공사 다께소에가 자기 군대를 모두 데리고 쥐새끼처럼 도망치고말았던것이다.
그들은 우세한 적의 공격을 견제해내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왕궁은 다시 청나라무력간섭자들에게 점령되였고 갑신정변은 《3일천하》로 끝나게 되였다.
갑신정변은 락후한 봉건사회를 자본주의사회로 변혁하며 나라의 독립과 문명을 이룩할것을 지향한 부르죠아혁명이였다. 그러나 이 정변은 일련의 제한성으로 하여 자기의 목적을 이룩하지 못하였다.
갑신정변이 실패하게 된 중요한 원인은 이 운동을 담당수행한 개화파상층의 계급적제한성에 있었다. 이들자체가 봉건관료출신들로서 자기 계급의 울타리를 완전히 벗어날수 없었으며 따라서 저들의 계급적처지로 하여 혁명의 기본동력으로 되는 인민대중의 앙양된 기세를 보지 못하고 일부 상층개혁의 방법으로 하려 했던것이다.
뿐만아니라 전술에서도 커다란 착오가 있었다는것을 부인할수 없

다. 혁명적진출에는 반혁명세력의 폭력이 따르기마련이다. 그런데 개화파세력은 정권을 장악한 후 이에 대처할 준비를 하지 못한것이다.

또한 이들이 허울좋게 《원조자》로 자처하면서 등치고 간 빼먹는자들의 힘을 너무 믿은데 있었다. 일본공사는 약속은 철석같이 하였지만 저들에게 불리하게 되자 철면피한 배신의 길에 서슴지 않고 들어섰다. 물론 초기에도 도와주려는 속심이 없었던것은 사실이다. 여기에 청나라군대의 침략적인 무력간섭이 가해졌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 첫 부르죠아개혁운동으로서의 갑신정변은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이룩하려는 우리 인민의 지향을 뚜렷이 보여주었으며 금후 우리 인민의 반침략반봉건투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였다.

김옥균은 일부 동료들과 함께 후날의 보다 큰 리상을 위하여 해외망명의 길에 올랐다. 수많은 개화파인물들이 형장에서 무참히 살해되고 자신마저도 이국땅으로 몸을 피하지 않을수 없는 처지에 이른 그의 마음은 이루 형언할수 없었다. 개명할 이 나라의 앞날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치려 했건만 일본선박에 실려 처량하게 울리는 배고동소리를 들으며 정든 고국을 하직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의 가슴속으로는 피눈물이 방울방울 흘러내렸다.

김옥균은 일본땅에 도착하여 도꾜에 거처를 정한 후 다시금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수구파의 복수는 여전히 뒤를 따랐다. 수많은 자객들을 련이어 보내여 김옥균을 잡아오던지 그러지 못하겠으면 목이라도 베여오라는것이였다.

수구파는 먼저 지운영이라는자를 일본에 파하였다. 이자는 김옥균을 만나자고 청했다.

김옥균은 이자의 래력을 아는지라 류혁로를 보내여 그자의 속내를 뽑아내였으며 마침내 일본사법기관에 들이대여 체포한 후 조선으로 압송하게 하였다. 그리고 김옥균은 국왕에게도 상소문을 보내여 개화파인사들을 처단할것이 아니라 민가일당을 정계에서 축출해야 하며 청국, 일본, 로씨야 어느 나라도 믿지 말아야 한다고

간곡히 일렀다.
김옥균은 고종왕에게 이런 서신을 보내였다.
《오직 밖으로는 널리 유미 각 국과 신의로써 친교하고 안으로는 정략을 개혁하여 우매한 인민을 가르치되 문명의 길로서 하고 상업을 일으켜 재정을 정리하고 또한 용병을 기르도록 할것입니다. 이는 어려운 일이 아니니 과연 능히 이와 같이하면 영국은 거문도를 환부할것이요, 기타 외국도 또한 침략의 뜻을 버리게 될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인구가 2천만이 넘고 물산과 같은것은 비록 인조의 정품은 적을지라도 천산의 물품에 있어서는 이들 일본이나 청국의 북부지방에 비하여 훨씬 우월한데 특히 그중 금, 은, 동, 철, 연광은 이루 헤아릴수없이 많으니 이를 잘 개발할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풍부한 고유의 우리 나라 부원을 모두 타국에 의뢰코저 함은 절대 안될 일이니 비분함을 금치 못하는바입니다.》
이것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위기에서 구원하려는 김옥균의 진보적인 사상을 잘 반영하고있다.
민비일당은 김옥균을 본국에 돌려보내달라는 최후통첩을 일본에 보내여왔다.
그러나 내외여론의 강력한 반항에 부딪친 일본반동들은 1886년 8월 김옥균을 궁벽하고 일기가 나쁜 류배지인 오가사와라섬에 억류하였다.
김옥균은 불더위섬에서 1년 9개월을 천년맞잡이로 보내고 도꾜로 돌아왔으나 일본반동들의 책동으로 1893년까지 수년간 홋가이도에 강제추방되여 사실상 연금생활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거사를 준비하기 위해 한시도 마음놓지 못하였다. 자금문제가 제일 걸렸다.
이러한 때인 1894년 2월 민비가 보낸 자객 리일식과 홍종우가 일본에 나타났다. 홍종우는 자금은 자기들이 해결한다고 하고는 김옥균을 꾀여 상해로 유인하였다.
상해의 려관방에 이른 김옥균은 다음날 아침 동료인 일본청년 와다에게 오후에 거리구경을 하겠다는것을 홍종우 등에게 알리라

고 아래층에 내려보냈다.

김옥균은 창문을 제끼고 거리를 하염없이 내다보고있었다. 그런데 얼마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채로 대답을 하였다.

《들어오시오.》

김옥균이 문소리에 돌아서니 그는 홍종우였는데 권총을 겨누고있었다.

《자네, 이건 무언가? 아이들 놀음인가, 어서 거두게.》

순간 연거퍼 총소리가 《탕탕탕.》하고 울리는것이 아닌가.

김옥균은 가슴을 움켜잡은채 앞으로 꼬꾸라졌다. 그리고는 마지막말을 더듬었다.

《나는 …나는 아직 할 일이… 일이 남아있는데…》

이날은 1894년 2월 22일이였다.

봉건을 타파하고 나라를 새롭게 부강시키려고 그토록 애쓰던 김옥균은 43살의 이른 나이에 이렇게 이역만리의 려관방에 영영 쓰러지고말았다.

그의 령구는 즉시 배에 실려 서울로 이송되였으며 수구파일당은 그의 사지를 찢고 목을 베여 길가의 전주대에 매달았다.

그리고 그의 머리우에 《대역무도죄로 극형》이라는 나무패쪽을 달았다.

차마 눈을 뜨고 볼수 없는 참혹한 광경이였다. 젊은이들은 두주먹을 쥐였으나 당장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모두가 그의 장한 애국의 기상을 우러렀고 진심으로 추모하였다.

이렇게 김옥균은 매국노들의 흉탄에 맞아 쓰러지는 순간까지 나라의 독립, 진보와 부강을 위해 모든것을 다하였다.

우리 나라 근대력사에서 갑신정변이라고 불리웠던 부르죠아개혁운동은 비록 《3일천하》로 끝났으나 그 섬광과도 같은 사변을 분수령으로 하여 그후 반침략반봉건투쟁은 더욱 세차게 일어났다.

피의 교훈을 남긴 고종

날에 날마다 천정부지로 뛰여오르는 쌀값에 백성들은 한숨 지으며 허리띠를 곱질러매는데 추녀높은 대궐에서는 밤이면 밤마다 낮이면 낮마다 무당, 소리군, 풍각쟁이, 재인, 사당패, 오사리패들을 모여놓고 고종과 민비가 밤을 새워가면서 굿놀이를 펴고 있다.

인생이란 한번 늙어지면
다시 젊어지기 어려워라

손짓, 몸짓에 엉뎅이짓까지 합쳐가며 녀사당이 이렇게 목청을 돋구면 고종과 민비는 연해연송 머리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쳐댄다.

《암, 그렇지, 젊어지기 어렵지, 옳다, 옳아.》

장밤을 두드리며 굿놀이를 해대고나니 전각뜰을 대낮처럼 비치던 달빛도 어느덧 사라지고 어스름새벽이 다가든다. 그러면 그때부터 또 대낮토록 침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고종이다.

이렇게 밤마다 해대는 굿놀이에 얼마만한 돈이 들며 무당, 굿놀이패들에게 쓰이는 물자들과 비용은 또 얼마이랴. 고종과 민비에게 있어서 돈은 높은 산이라도 얼마 못가 평지가 될 지경이다. 왕실고간들에 쌓였던 물건들과 쌀, 돈은 이젠 거덜이 나고말았다. 그러다보니 요즈음에 와서는 각 벼슬에 돈을 정해놓고 파는 형편에까지 이르렀다. 감사는 몇냥, 목사, 부사는 또 몇냥, 군수나 현감은 몇냥…

그러니 그 돈냥마련에 어차피 죽어나는것은 오직 백성들뿐이다.

하지만 왕이라는 고종은 아무런 생각도 없는듯 하다.

리조봉건국가의 26대왕인 고종의 어릴적이름은 리명복이였다. 자

는 성림, 명부, 호는 주연, 고종은 그의 묘호이다. 고종은 1852년 왕족인 흥선군 리하응의 둘째아들로 출생했다. 그런데 그가 11살 되던 1863년 12월 리조 25대왕인 철종이 대를 이을 아들을 두지 못하고 죽게 되자 그의 뒤를 이어 왕자리에 올랐다. 그러던 1866년 민치록의 딸 민비를 왕비로 맞아들이였다.

왕이 될 당시 고종의 나이가 어리므로 아버지인 리하응이 아들의 정사를 돕는다는 명목하에 정권을 틀어쥐게 되였다.

이때로부터 10년간 실제적인 통치자는 대원군이였다.

1873년 11월 민가일파는 고종과 짜고들어 이제는 친정(국왕이 직접 정사를 한다는 뜻)을 해야 한다는 구실을 내걸고 대원군을 몰아냈다. 그러나 모든 권력은 민비를 중심으로 한 민가일파의 손으로 넘어갔다.

민비일파는 안으로는 반동적봉건통치를 더욱 강화하였으며 밖으로는 《개국정책》을 표방하면서 왜놈세력에 의존하여 저들의 통치권을 유지하려들었다.

무능한 고종은 일본상품이 나라안으로 들어오는것을 막을대신 1874년 5월 5일 령의정 리유원에게 《양목은 처음에 서양물품이라고 하여 금지하였는데 지금은 이미 광동에서 짜고있으니 금지할 필요가 없을것 같다.》고 하면서 자본주의상품이 국내시장에 침투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것은 국내시장을 자본주의상품침투로부터 보호하고 민족경제를 육성할것을 요구하는 력사발전의 객관적행정에 어긋나는 반동적정책의 구체적표현이였다.

고종'은 어리석게도 모든것을 큰 나라에 의거하여 해결하려 하였다.

민비의 측근자인 조녕하는 1874년 8월 부산에 틀고앉아 조선침략을 위한 현지사환군의 역할을 하고있던 모리야마놈에게 《조선의 정치정세가 일변하였으니 조선정부는 앞으로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다.》라는 비밀편지까지 보냈다. 이리하여 일본침략자들의 책동은 더욱 로골화되였으며 마침내 《운양》호사건을 구실로 1876년 2월 침략적인 《강화도조약》

(《조일수호조규》)이 체결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1875년 8월 일본침략자들의 군함 《운양》호가 강화도해구에 침입하여 무장도발과 600여명의 무고한 주민들에 대한 학살만행을 감행한 《운양》호사건은 철두철미 일본놈들의 침략행위였으며 강도적인 도발책동이였다.

바로 이때로부터 일본놈들의 강도적무력행사에 의한 조선침략책동의 서막이 열리였던것이다.

강화도조약의 제7조에는 이런 구절까지 있다.

《조선연해의 섬들과 암초를 종전에 자세히 조사한것이 없어 극히 위험하므로 일본항해자들이 수시로 해안을 측정하여 위치와 깊이를 측량하고 도면을 만들어서 두 나라 선객들로 하여금 위험한데를 피하고 안전한데로 다닐수 있게 한다.》

이러한 조약에 의해 왜놈들은 조선땅을 제 마음대로 싸다니였고 우리의 귀중한 농토산물을 헐값으로 앗아갔다.

당시(1881년경) 일본에서 가져온 사기꽃병 1개는 40엔이고 조선소 한마리의 값은 15～18엔이였다.

그러니 꽃병 1개와 소 2～3마리 값이 같다는것이 아닌가!

1877년 하반년부터 1882년 상반년기간에 일본에 의해 조선에 투입된 상품들을 보면 일본제품은 11.7%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88.3%는 유미자본주의국가의 상품이였으니 일본침략자들은 군국주의의 물질적기초를 쌓으며 자본의 시초축적을 감행하기 위하여 유미자본주의렬강으로부터 수입한 공업상품을 우리 나라에 대대적으로 들이밀어 비싼 값으로 팔고 그대신 조선의 귀중한 부원을 헐값으로 빼앗아감으로써 막대한 상업리윤을 짜냈던것이다.

그리하여 사방에서 백성들이 들고일어났다.

봉건유생들은 위정척사운동에 떨쳐나섰다.

군인들은 폭동에 궐기하였다. 민가일당의 탐오랑비로 국가재정이 말라들어 13개월이나 군료를 받지 못한 군인들은 1882년 6월 겨우 한달분의 군료라는것을 받았으나 썩거나 벼겨와 모래가 절반이나 섞이고 그나마 량도 차지 않기에 참을수 없어 당장 도봉소고직이를 때려눕혔다. 이에 민겸호는 주모자들을 체포구금하고 사형

을 선포했다.

이에 격분한 군인들은 동료들을 구원하기 위한 싸움에 일어섰다. 군인들은 자기들의 의사를 모욕적으로 일축하는 민겸호를 그의 집을 들부시는것으로 복수하였고 《이왕 죽을바에야 원한을 풀고 나라를 위하여 거사를 하고 죽자!》고 웨치면서 결사전에 나섰다.

군인들은 동별영으로 달려가 무기고를 부시고 무장을 갖춘 다음 종로거리를 누비며 전진하였고 포도청을 습격하여 투옥되였던 동료들을 구출해냈다. 완전폭동에 진입한 군인들은 대원군의 거처인 운현궁으로 달려갔다.

그때 대원군은 자본주의침략과 민가일당의 부패한 세도정치를 반대하는 립장에 있었으므로 당시 군인들의 의식수준으로서는 대원군정권의 부활만이 나라의 위기를 가실수 있다고 보았다.

대원군은 또 그대로 이 기회를 리용하여 민가세도정치를 청산하고 자신이 정권에 다시 앉을것을 결심하였다.

국왕 고종은 폭동에 대한 급보를 받자 시종군을 동별영에 보내여 군인들이 요구하는것은 무엇이든 들어줄터이니 속히 해산하라고 《권고》하였다.

그러나 폭동군인들은 더욱 기세를 올리면서 그후 주모자들을 즉시 잡아들이고 나머지는 해산시키고 돌아오라는 령을 주어 고종이 보낸 무위대장 리경하의 수행원을 그자리에서 처단하는것으로 대답하였다. 회유와 위협의 방법으로 폭동군을 진압하려던 시도가 실패하자 고종은 다시 도봉소당상 심순택과 선혜청당상 민겸호 등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 고관들을 철직시키는 기만적조치로써 폭동군을 무마해보려고 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만술책도 폭동군을 속여넘길수는 없었다. 하여 고종은 이 위기를 구원할 아무런 수단도 가지지 못하게 되였다.

6월 10일 동별영에서 합세한 전체 서울 군인과 시민들의 폭동군대렬은 일본 및 미국침략세력을 끌어들이기에 광분하였던 민가세도정권의 령의정 리최응의 집을 습격하여 그자를 처단한 후 집세간을 모조리 까부시고 그길로 창덕궁으로 향하였다. 그들의 목적은 민가세도정치의 원흉인 민비를 처단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민비는 이미 궁녀의 옷차림을 하고 자취를 감추어 버린 뒤였다. 피난처를 구하여 피신해있던 민겸호 등 반동관료배들을 처단해버리고 왕궁에서 나온 폭동군은 여러대로 나뉘여 다시 민가일파의 대관들과 그 추종분자들, 악질장교들의 집을 모조리 습격파괴하고 민가의 일족인 민창식을 요정냈다. 이날 폭동군의 한 대오는 도망친 일본공사놈을 인천에까지 추격하여 그 일당 여러놈을 처단하였다. 폭동군은 이틀동안의 투쟁을 통하여 일본공사놈을 비롯한 침략자들을 우리 나라에서 내몰았고(그중 13놈 처단) 300여명의 통치배들을 습격하여 살림집들을 파괴하였거나 악질관료배들을 처단하였다.

그러나 폭동의 승리는 대원군이 차지하게 되였다.

10일 고종은 당황한 나머지 《지금으로부터 크고작은 공무는 대원군에게 물어 결정하라.》는 령을 내렸다. 따라서 정권은 대원군에게로 넘어갔다.

한편 충주 장호원에 몸을 숨기고있던 민비는 자기 일당을 사촉하여 봉건청나라군대를 끌어들여 이 난국을 타개할 음모를 꾸미였다.

6월 27일 청나라정부는 군함 4척과 수송선 13척에 약 3 000명의 병력을 태워 인천에 파견하였다. 이에 뒤이어 6월 29일에는 하나부사놈이 끌고온 일본군함들이 인천앞바다에 기여들었다.

한편 권력을 쥔 대원군은 군대제도와 정부기구를 일부 개편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폭동시에 자취를 감춘 민비를 찾아내지 못한 대원군은 많은 시간을 자기의 가장 커다란 적수인 민비를 정치적으로 완전히 매장하기 위한 《민비장례》문제에 시간을 허비함으로써 내외반동세력에 대처할 준비를 갖추지 못하였다.

이때 봉건청나라군과 일본침략자들이 대원군정권을 반대하여 서로 야합하는 길에 들어섰다. 청나라와 일본 두 나라는 조선을 침략하는데 있어서는 서로 리해관계가 대립되고있었으나 반침략력량을 탄압하며 대원군정권을 타도하는데는 서로 같은 리해관계를 가지고있었다.

결과 일본의 사촉밑에 청나라통치배들은 외교의례방문차로 청군의 군영을 방문한 대원군을 랍치하여 억류하였다. 얼마후 대원군은 청나라로 끌려가고 폭동에 참가하였던 군사들과 서울시민들은 청군에 의해 가혹한 탄압을 받았다.

불의에 우세한 봉건청나라군의 공격을 받은 폭동군인들은 적들을 맞받아 용감하게 육박전을 벌리였으며 싸움끝에 부상당하거나 싸울 힘이 없어지면 적들에게 잡히는것을 수치로 생각하고 자기 손으로 목숨을 끊었다.

민비는 다시 서울로 돌아와 권력을 쥐게 되였다.

대원군이 정권에서 제거되고 군인들의 항전이 진압되자 민가일당의 세도정권이 되살아난것이다.

국왕 고종은 민비와 함께 청군의 힘을 빌어 폭동자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는 그들과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집어던지였다. 국왕 고종은 1882년 8월 5일 반포문을 발표하여 미일침략자들을 적극 비호하고 반침략투쟁에 궐기한 애국적군인들과 인민들을 모독하였다.

그러나 인민들의 투쟁은 계속되였다. 임오군인폭동에 이어 1884년 갑신정변이 단행되였고 1894년에는 갑오농민전쟁의 불길이 타올랐다.

그러나 고종과 민비는 그때마다 외국침략세력을 등에 업고 백성들의 의로운 항전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그러고도 고종은 사치한 생활에 빠져 헤여나지 못하였다. 고종과 민비일당은 1893년 4월 8일 《석가모니가 탄생한 날》을 기념한다는 연등놀이에 등불값만으로도 80만냥을 탕진하였다.

이제는 담배도 마닐라산과 에짚트산을 피우고 마시는것은 차대신에 커피를 썼다. 그러니 70만원이 넘는 외국빚을 걸머지고 있었다. 백성들이야 살건 죽건, 나라야 어떻게 되든 그에게는 상관이 없었다.

이때에 와서 조선을 둘러싸고 청일전쟁이 발발하고 그것을 계기로 우리 나라에서 청나라세력이 밀려가게 되자 종래 청나라에 의존하여 왕권을 유지해오던 고종과 민비일파는 이번에는 대상을 바

꾸어 새로이 등장한 짜리로씨야에 저들의 통치를 의지하려고 꾀하였다.

이렇게 되자 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미친듯이 날뛰던 일제는 봉건정부내에서 친로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1895년 8월 20일 조선왕궁을 습격하고 친로파의 우두머리인 민비를 학살하는 력사에 류례없는 만행까지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눈을 편히 뜨고 왕비까지 빼앗긴 이런 복잡한 속에서 극도의 불안을 느낀 고종은 그래도 자기의 통치권은 어떻게 하나 유지하기 위해 로씨야공사관에 1년간(1896. 2～1897. 2)이나 피신하여 정사를 보는 전례없는 정치적희비극을 연출하였다.

이것을 력사에서는 아관파천이라고 이른다.

왕이라는것이 이곳저곳에 붙어 겨우 살아가는 지경이니 리조봉건국가는 걷잡을수 없이 무너져내려앉았다. 고종이 로씨야대사관에 앉아있으려니 그것도 믿을것이 못되였다. 그놈이 그놈일따름이였다. 그리하여 고종은 왕궁으로 되돌아오고말았다.

당시 서울장안형편도 말이 아니였다. 뢰물행위가 성행하여 어디에서나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었다. 따라서 량심적인 관리들이 국왕에게 상소문을 내고 백성들이 들고일어났다.

당시 봉건국가의 고위급관리였던 의정 윤용선이 국왕에게 낸 상소문에는 이렇게 지적되여있었다.

《우로는 대관으로부터 밑으로는 무당, 백정들에 이르기까지 뢰물을 바치려고 들어오지 않는자들이 없다. 그들을 모두 기록할수 없는 지경이며 국왕은 바친 뢰물을 보고 점만 찍어둘뿐이다.

이렇게 국왕을 만나려 들어오는자들이 많은것은 국왕이 돈을 좋아하기때문이다. 경쟁적으로 뢰물을 바치는 기회를 리용하여 어느 곳에서 광물이 생산된다느니 어느 지대에서는 수산물이 리익난다느니 어느 물건은 전매할만 하고 어느 회사는 설치할만 하다느니 하면 국왕은 즉시에 좋다고 한다.》

권력을 잡고있다는자가 이렇게 무능하고 물욕에만 눈이 어두워있으니 백성들은 살길을 찾아 헤매이지 않으면 안되였다.

당시의 한 기록에 의하면 1901년에 《전라북도 연해로부터 인천

통진벌에 이르는 천리땅은 벌거숭이가 되여 류랑민은 사방으로 흩어졌다. 소출이 없는 땅에서도 세금을 받아내니 남아있는 사람들도 살수가 없었다.… 경기도에서는 한 군에서 2천호가 모두 흩어진 군도 있다.》고 한다.

나라형편은 실로 말이 아니였다.

이러한 때인 1905년 11월 9일 일본천황의 특사로 이또 히로부미(이등박문)가 서울에 들어왔다. 이자가 조선으로 들어온 목적은 저들의 식민지지배권을 확인하는 침략조약을 맺자는데 있었다.

그리하여 1월 10일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찬 일본천황의 이른바 칙서가 고종에게 전달되였다.

칙서를 받아든 고종은 온몸이 저려듦을 어찌할수 없었다. 한자한자 읽어내려갈수록 어깨가 눌리워졌다. 여기에는 철두철미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말살하고 조선을 저들이 완전히 먹으려는 음흉한 속심이 그대로 깔려있었다. 물론 《동양의 평화》니 《조선의 안전》이니 《친선》과 《협조》니 하는따위의 수작을 늘어놓았고 또 왕실의 《안녕》과 《존엄》은 절대로 훼손되지 않는다고 구구한 설명을 해댔지만 그것은 하나의 속임수에 지나지 않았다. 조선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우리 나라를 타고앉으려는 야심이 그대로 내비쳤다.

지금까지의 교훈이 큰 나라라는것은 언제나 그런 수를 써왔다.

청국도 그러했고 로씨야도 그랬다.

그러나 지금의 형편에서 고종은 이 간사한 왜놈들에 대한 야멸찬 감정을 그대로 표현할수 없었고 일개국 천황의 칙서라 관례상 물리칠수도 없어 덤덤히 받아두었다.

고종의 이러한 태도에 더욱 오만무례해진 이또놈은 15일 또다시 고종을 찾아와서 이미 꾸며놓은 《한일협상조약》(《을사5조약》) 초안을 내놓으며 그대로 받아들일것을 강요하였다.

읽어내려갈수록 고종은 진정 참을수 없었다.

가슴이 막 달아올랐다. 그래도 명색이 왕이라고 지금 온 나라 백성들이 자기를 바라보고있는데 거기에 수표를 하고 도장을 누를수는 도저히 없었다.

(아, 5천년 력사국이 내 대에 와서 망하고만단 말인가? 아니다. 나는 이를 받아들일수 없다. 내 비록 오늘까지 정사는 잘 보지 못하였으나 지금에 와서 내 손으로 수표를 하고 옥새를 누를수는 없다. 그리된다면 장차 이 나라는 과연 어찌된단 말인가?)

고종은 머리를 저었다. 그는 《협약》초안을 저만치 밀어놓았다.

그런데 또 독촉이 닿았다. 빨리 대답을 달라는 요구였다. 조약만 체결되면 일본이 조선을 《협조》하여 모든것이 순순히 풀려나갈것이라며 이또놈은 삵의 웃음을 띠고 조아려댔다.

그러나 고종은 또다시 머리를 저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허궁나락으로 떨어져내려가는 이 나라를 구원할 힘이 없었다. 그렇지만 정녕 이를 찬성할수는 없었다.

고종은 칙서를 내각에서 토의해보라고 다시 밀어놓았다.

일제놈들은 고종이 순순히 응해나서지 않게 되자 왕궁을 2중 3중으로 포위하고 서울시안의 거리마다 사람들이 얼씬도 못하게 계엄상태를 펼쳐놓은 삼엄한 환경속에서 17일 내각회의라는것을 벌려놓았다. 참정대신 한규설과 탁지부대신 민영기 등 대신들이 그토록 반대하였지만 일제는 그들의 주장을 무참히 꺾어버렸다. 그리고 왕의 수표와 옥새날인이 없으니 누구의 수표라도 형식상 있어야 하겠기에 저들의 주구인 박제순을 불러 강압적으로 수표를 시키는 력사에 없는 날조극을 펼치였다.

이와 같이 《을사5조약》은 국왕의 승인도 또 수표도 받지 못하고 옥새도 누르지 못한 철저히 허위적인것이였다.

그러나 일제는 조약이 체결된것처럼 세상에 공포하였고 뒤이어 저들의 《통감부》를 설치하는데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1906년 3월 9일 이또 히로부미는 고종을 찾아가 《대한시정요강》을 설득시키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한국에서 유신을 도모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느니, 《모든 정책을 조선정부와 합의밑에서 실시하겠다.》느니 《전력을 다해 조선정부를 지도방조하겠다.》느니 하면서 별의별 요사를 다 떨었다.

일제의 검은 속이 뻔히 들여다보였지만 고종은 다른수가 없었다.

일제는 《한일협상조약》을 마지막까지 반대하면서 저들에게 고

분고분하지 않는 고종을 제압하며 왕권을 말살하기 위해 선심이나 쓰는듯이 1906년 7월 7일 무질서한 왕궁출입을 단속하여 왕족의 《안녕》을 보장한다는 허울좋은 구실밑에 《궁금령》이란것을 조작공포함으로써 고종을 연금상태에 몰아넣었다. 이것은 사실상 왕권행사를 실제적으로 막아버린 국권유린행위였다.

고종은 자신의 무능함을 통탄할뿐이였다.

바로 이러한 때 우국지사들인 리준, 리상설, 리위종들이 고종과 비밀리에 련계를 맺게 되였다.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원할길 없어, 차오르는 울분을 하소할 곳없어 가슴만 두드리며 모대기고있던 고종은 제2차 《만국평화회의》(1907. 6)에 참가하여 나라의 비극적실태를 세상에 공포하고 세계량심인들의 지지와 동정을 얻어 기울어진 나라의 국권을 회복해보려는 그들의 의사에 동감을 표시하였으며 자신의 친서를 써주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커다란 기대를 걸었다.

《자네들을 믿을뿐이네.》

고종은 그들의 손을 잡고 놓을줄 몰랐다.

그러나 이들 일행이 대표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회의에도 참가하지 못한채 리준이 배를 갈라 민족의 항거의지를 만천하에 고발하는것으로 끝나게 되자 고종은 억이 막혔다.

헤그밀사사건에 대한 통보에 이또 히로부미는 당장 고종을 찾아와 이것은 일본의 《보호권》을 거부하고 공개적으로 선전포고한것과 같기때문에 자기들은 조선에 정식 선전포고할 권리가 있다고 위협해 나섰다. 그리고 그 책임을 고종이 전적으로 져야 한다고 못박았다.

기가 막힌 일이였다.

거기에 친일주구들이 련달아 들어와 왕자리를 내놓으라 야단이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아, 왜 이렇게 괴로울가?》

그래도 명색이 왕이라는것이 이제는 그 허울마저도 다 빼앗길 판이다.

고종이 순순히 왕자리를 내놓으려 하지 않자 7월 18일밤에는 이

또 히로부미자신이 직접 매국역적들을 몰고 왕궁에 기여들어 밤이 새도록 《해설설복》을 해댔다. 그리하여 끝내 고종은 7월 19일 새벽 병약한 자기의 아들 리척(순종)에게 왕의 자리를 넘겨준다는것을 선포하지 않을수 없었다.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고 피사체에 지나지 않는 애숭이를 왕자리에 앉힌 일제는 매국역적들과 함께 조선의 내정권을 박탈할것을 규정한 《한일협약》—《정미(1907년)7조약》체결에 광분하였다.

헤그밀사사건을 구실로 고종을 왕자리에서 내쫓고 새로운 침략조약을 강압적으로 체결하려고 날뛰는 일제의 파렴치한 침략책동은 인민들속에서 들끓고있던 반일감정을 폭발시키는 도화선으로 되였다.

《아! 통분하다. 나라의 운명이 불행하여 독립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고 백성들은 죽을 지경에 이르렀구나!》라는 인민들의 울분에 찬 웨침들이 서울시내를 휩쓸었다.

서울시민들은 《결사회》를 뭇고 나라의 위기를 구원하기 위하여 끝까지 싸울 결의를 다지였으며 학생들은 동맹휴약을 단행하였고 상인들은 철시(시장이나 상점문을 닫는것)투쟁을 벌리였다.

이날의 서울시민들의 투쟁에 대하여 한 기록에는 《그 소식(고종의 퇴위소식)을 들은 서울시민들은 남자와 녀자, 늙은이와 젊은이 할것없이 방망이와 몽둥이를 들고 떨쳐나서 거리를 메웠다. 각 학교의 학생들은 호상련계밑에 구름과 같이 모여 조수와 같이 밀려나가면서 죽기를 맹세로 끝까지 투쟁할것을 호소하였다.》라고 씌여있다.

이날 수만명의 서울시민들은 종로에서 대군중집회를 열었다. 《결사회》라고 쓴 기발을 들고 집회에 참가한 군중들속에서는 고종이 왕자리에서 물러나게 된것은 《독립국가의 위업에 관한것》이며 《나라의 종말에 관한것》이라는 격분에 넘친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연단에 뛰여나온 연설자들은 일치하게 친일내각의 매국배족적죄행을 폭로규탄하였고 일제의 침략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끝까지 싸울것을 호소하였다.

일본놈들과 시민들사이의 류혈적인 충돌을 본 시위대군인들이 민

족적감정을 폭발시켜 일본무장경찰대에 복수의 불벼락을 퍼부음으로써 봉기는 더욱 거세찬 열기로 화하였다.

봉기는 비단 서울뿐아니라 룡산, 인천, 개성, 평양, 공주, 대구, 부산, 진남, 죽산 등 각지로 급속히 확대되여 일본놈습격투쟁, 《일진회》습격투쟁, 시위와 철시투쟁 등으로 더욱 세차게 타번졌다.

일제에 의한 고종의 강제퇴위를 계기로 인민대중의 반일감정이 폭발된것은 결코 고종에 대한 그 어떤 미련이나 환상의 표현인것이 아니라 국가주권이 왕권에 의하여 상징되던 당시의 력사적조건에서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존엄을 지키려는 우리 인민의 력사적으로 형성된 강한 애국심의 직접적발현이였다.

이 투쟁은 목적의식적이며 통일적인 지휘가 보장되지 못하였고 또 조직적인 폭력적항거로 되지 못하였으므로 응당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나 국권을 짓밟으려는 안팎의 원쑤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각지 인민들의 반일구국투쟁을 힘있게 고무하였다.

왕자리에서까지 밀려난 고종은 덕수궁에서 울적한 기분으로 하늘만 쳐다보며 후회많은 나날을 보내다가 1919년 일제에 의해 비참하게 독살되고말았다.

이와 같이 조선인민의 눈물과 저주로 얼룩진 리조말기 고종의 통치력사는 바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버리고 남의 등에 업혀 살려는 외세의존은 곧 망국의 길이라는 피의 교훈을 똑똑히 새겨주었다.

고종은 43년간 왕위에 있었으나 실질적인 권한은 크게 쥐여보지도 못하고 67살의 나이에 망국의 치욕만을 걸머지고말았다.

봉이 김선달

19세기초중엽에 들어서면서 인민들속에서는 구전문학이 많이 창작되였다. 이 시기 구전문학에서는 량반관료들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그 예속에서 벗어나려는 인민들의 절절한 지향이 예술적으로 잘 표현되였다.

그것은 민담의 형태로서 날카로운 웃음을 동반하였다.

봉건관료들과 량반지주들의 반동성을 폭로하고 봉건사회의 부패상을 보여준 이런 작품들가운데는 김선달이야기나 정수동이야기와 같이 하나의 설화권을 이루고 널리 퍼진것도 있다.

김선달과 정수동은 19세기에 실지 있은 인물들이였다.

그들은 당대 현실에 대하여 불평불만을 품고있었으며 성격상 해학을 즐겨하였다. 이들의 재치있고 우습강스러운 행동이 사람들속에 알려지고 그에 대한 공감이 급증되면서 점차 이 인물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구전설화들을 만들어내게 되였던것이다.

특히 김선달과 관련된 설화는 널리 퍼지는 과정에 끊임없이 가공되고 많은 변종을 내였다. 그러나 김선달과 관련된 설화들은 모두 부정적인것에 대한 신랄한 풍자와 인민적슬기에 대한 찬양으로 일관되여있는것이 하나의 특성으로 되고있다.

김선달의 출신과 가정주위형편에 대하여서는 기록된것이 없다.

다만 그 어떤 범상치 않은 일로 하여 당대 사회에 반항심을 품고 도전해나선 인물로 보고있을뿐이다.

우선 김선달이 봉이 김선달로 된 유래자체가 웃음을 자아낸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김선달이 량반을 골탕 먹이느라고 닭을 봉황새로 팔아넘기였다고 한다. 그때로부터 사람들은 김선달의 이름앞에 《봉이》라는 글자를 덧놓아 봉이 김선달이라 불렀다는

것이다.

김선달의 이야기들에는 량반관료배들과 돈많고 권세있는자들에 대한 증오와 함께 한끼 죽을 위해 해종일 손끌에 피가 나도록 고역을 치르어야 하는 인민들에 대한 동정이 짙게 반영되여있다.

그 누가 들어도 귀맛이 좋고 또 공감이 가고 마음이 시원한 내용으로 구수하게 엮어진 설화들은 백성들의 사랑을 받으며 세대와 세대를 거쳐 오늘에까지 전해오고있다.

그의 설화들에는 가증스러운 의주부윤놈의 목을 자르게 한 이야기와 량반집녀편네들을 묘향산에 끌고가서 혼쌀내준 이야기 그리고 농민들의 등골에서 피땀을 짜내던 황해도의 한 지주놈을 골탕먹인 이야기,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이야기, 녹두죽이야기 등 많은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하나와 같이 자기의 돈주머니를 위해서는 그 무엇도 가리지 않는 량반부자놈들의 더러운 행위를 로골적으로 풍자한것이다.

실례로 부처를 목매단 봉이 김선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온갖 꽃이 활짝 피여난 화창한 어느해 봄날 김선달은 묘향산의 봄절경을 부감하려고 보현사에 올랐다. 아름다운 산천에 대한 긍지로 가슴은 한껏 부풀어오르고 기분은 매우 좋았다.

절간앞에 나와 소풍을 하고있던 김선달은 무엇을 꺼리는지 주춤거리면서 절간으로 다가오는 주제가 허줄하고 어리숙해보이는 한 총각을 만났다.

김선달은 의아한 생각이 들어 그 총각을 불러 절에 오게 된 사연을 물었다.

《얘야, 어떻게 절에 오게 되였느냐?》

《저, 어머니가… 어머니가 아파서 낫게 해달라고…》

총각은 주춤거리면서 대답을 바로 못하는것이였다. 알아보니 총각은 강계에 살고있는데 홀어머니가 무슨 병인지 앓고있으므로 절간에 와서 성의껏 불공을 드리면 낫는다기에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왔다고 한다.

《가자. 우리 방에서 불공을 드리자꾸나.》

불쌍한 총각의 신세에 심심한 동정을 안은 봉이 김선달은 그

를 가궁히 여기여 자기 방에 잠자리를 정하게 하고 날마다 불공을 드리도록 도와주었다.

때는 무르녹은 봄계절이라 보현사에는 날마다 찾아오는 사람의 수가 늘었다. 살기가 힘든 사람들은 편히 살게 해달라고 빌었고 돈많고 잘사는것들은 오래오래 살게 해달라고 또 벼슬이 올라가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어느날 저녁 김선달이 제 일을 보고 방에 들어서니 웬일인지 총각이 눈물이 그렁해져서 울먹이고있었다.

《어찌된 일이냐?》

《이 며칠간 불공을 못드렸어요.》

《아니, 왜?!》

봉이 김선달은 깜짝 놀랐다. 그는 다급히 사연을 물어댔다.

알아보니 그것은 숱한 돈많은자들이 계집들을 차고와서 자기들의 복을 빌며 비단치마자락을 스쳐대니 총각같이 비천하고 가난한 인간들은 그옆에 붙어서기도 힘들거니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순서를 기다려도 차례가 돌아오지 않는다는것이다.

《그런데 서울 리판서라는 대감님이 까닭없이 배가 불어나는 손자애를 보현사에 데리고와서 불공을 드리니 주지는 다른 사람들이 절간에 출입하는것을 금지시키기까지 했어요.》

총각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김선달은 이 소리에 그만 밸이 불끈 치밀어올랐다. 김선달은 즉시 주지를 만났다. 주지는 그의 위인됨을 잘 아는지라 봉변을 당할것이 두려워 구차한 설명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성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거룩하신 부처님을 모시고있는 스님네들이 그런줄은 차마 몰랐소이다.》

그는 이 한마디를 남기고서 나와버렸다.

김선달은 총각을 불러 둘이서 조용히 거사를 약속하였다. 다음날 저녁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리판서의 잔치상이 흥성거리고있었다.

김선달은 주저없이 대웅전안으로 총각을 데리고 들어섰다. 총각

은 겁이 났지만 김선달을 믿었다.

김선달은 총각을 보고 한번 히쭉 웃고는 사람들이 제 흥에 겨워 있는 짬에 그와 약속한대로 준비한 새끼로 《전지전능하시고 령험하신 부처님》의 모가지를 제꺽 한순간에 홀가매고는 불상앞에 차려놓은 맛있는 음식들을 자루에 넣어 총각에게 주면서 어머니에게 가져다드리라고 하였다.

다음날 아침은 마침 4월 8일이라 석가모니가 탄생한 날이므로 량반네들이 저저마다 명복을 빌려고 보현사 대웅전으로 밀려들었다. 주지가 숭엄한 자세로 엄숙하게 대웅전문을 열어제끼니 이 무슨 일이란 말인가. 부처의 목이 쑥 빠져버리고 말뚝에 그 모가지가 데룽데룽 매달려있으며 좌우측의 관음보살들은 그 형체를 분간할수 없는 만신창이 되여있었다.

주지와 중들은 눈알이 뒤집히고 정신을 잃은채 나가넘어졌다.

앞에 섰던 량반들도 아우성과 함께 모두 풍을 만난 자세였다.

먼발치에 서있는 강계총각과 가난한 백성들은 그 꼴이 과연 고소하고 재미가 있었다.

리판서는 손자애의 손목을 쥐고 앞줄에 섰다가 부처의 목이 매여달린것을 보고는 겁에 질려 서울로 곧장 달아나버리고말았다.

이렇게 김선달은 권세와 돈을 코에 걸고 거들먹거리던 량반들과 그에 아부굴종하여 굽신거리던 중놈들에게 골탕을 먹이고 총각의 분을 풀어주었다.

또한 인호대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

절경을 구경하기에 여념이 없던 김선달은 부자집녀인네들이 상원암으로 올라오는것을 보았다. 그는 그네들을 한번 골탕먹일 생각으로 자기가 지금 참회하는중이니 떠들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면서 남의 참회를 엿들으면 부처님의 벌을 받는다고 눌러놓았다. 김선달은 그 녀인네들이 보도록 가짜눈물을 흘리면서 숱한 죄목을 만들어내여 부처님께 한번만 용서해달라고 갑삭갑삭 절하였다.

《부처님, 글쎄 저는 마을에 있는 선희라는 고운 처녀를 원의 첩으로 끌어가도록 나서서 주선을 하는 죄를 지었소이다. 그리고 마

름으로서 어진 농민들을 속이여 쌀도 몇곱절로 빼앗아내고 리자도 배이상으로 받아먹었소이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칭하였으니 그 죄 죽어 마땅하오이다.》

그러자 그옆에서 이 꼴을 보고있던 진짜로 못된짓을 도맡아 해먹은 부자집녀편네들은 제풀에 가슴이 저리여 김선달이 자리를 일기 바쁘게 그자리에 엎드려 속죄를 시작하는것이였다.

《어지신 부처님, 딱 한번만 용서하시옵소서. 아래마을 고을원의 처인 저는 후처로 들어와 본댁의 딸년이 너무도 보기 싫어 그만 한밤중 목을 매여죽이는 죄를 저질렀소이다.》

그년은 제법 눈물을 흘려가면서 두손을 마주 비벼댔다.

그러자 다른 년이 또 나섰다. 《저는 종로에 있는 리진사의 녀편네올시다. 그런데 글쎄 저는 제 남편이 나이가 많아 오륙을 제대로 쓰지 못하니 참지 못하여 밤마다 남편 몰래 다른 서방을 불러들이는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니 한번만 보아주시옵소서.》

녀편네들은 부처님의 천벌을 받을가봐 앞을 다투어 자기만이 알고있는 죄를 주위에는 들을 사람이 없다고 단정하고 모두 털어놓았다.

김선달은 인호대밑 바위짬에 엎드려 재빨리 목책을 끄집어내여서는 참회한 내용을 하나하나 세세히 적어두었고 그들의 주소도 그밑에 써두었다. 그리고는 목책을 두루마기 안주머니에 깊숙이 찔러넣었다.

그후 김선달은 세상을 방랑하다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일이 생기거나 또 자신이 로자가 떨어지는 딱한 일이 있으면 그 목책을 꺼내여 펼쳐보고 년들의 주소를 찾아가 위협공갈로 돈과 쌀, 비단필들을 수없이 받아내여 푼푼히 썼다고 한다.

이렇게 봉이 김선달은 오늘은 이곳의 량반을, 래일은 저쪽 지방의 량반을 찾아다니면서 골탕을 먹여 그들이 기를 펴고 살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이야기도 가슴을 시원하게 하는 재미있는 설화이다.

옛날 평안도의 기름진 논벌에서 많은 땅을 독차지하고 백성들의 기름을 짜내여 큰 부자가 된 한 지주놈이 더 큰 부자로 될 꿈을 꾸며 커다란 돈자루를 하늘소등에 실은채 평양성으로 들어섰다.

부자놈은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장사감을 찾아헤매였다.

이때 김선달이 장마당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이미 친숙해진 그에게 시골부자놈의 형색을 알려주면서 이번 길에 아예 망하게 해놓으라고 부탁했다. 김선달은 한참동안 이 생각, 저 생각 굴리다가 한가지 청을 내였다.

《여러분들이 가지고있는 엽전들을 모두 빌려주시우. 많을수록 좋수다. 그리고 일이 성사된 다음에는 틀림없이 돌려드리겠으니 그건 념려마시우.》

김선달은 이들이 주는 엽전을 자루에 받아넣었다. 그는 한자루가 넘치는 엽전을 메고 대동문가까이에 있는 집들을 찾아다니며 엽전 한잎씩 나누어주면서 래일 아침 대동강에 물을 길러 나올 때 자기에게 도로 바쳐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꼭 잊지 말고 가지고나와서 나무통에 떨구어넣어야 합니다. 하하하.》

다음날 아침 부자놈은 시원한 대동강가로 스적스적 걸어나갔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늘굴것인가 하는 장사리속으로 온밤 제대로 못잔 부자놈은 대동강의 아침공기에 정신이 맑아졌다. 그런데 기이한 일을 보게 되였다.

《아니 저게 무얼가?…》

부자놈은 금방 정신이 펄쩍 들었다. 대동강에 물을 길러 나오는 사람마다 엽전 한잎씩 가져다가는 한옆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젊은 량반의 나무통에 떨구어넣고야 물을 퍼담는것이였다.

돈이라면 사족을 못펴는 부자놈은 삽시에 한궤짝 돈이 가득차는 것을 보자 즉시 군침이 돌았다.

부자는 김선달에게로 다가가 곧장 흥정을 시작하였다.

《여보시오. 이 대동강을 나에게 팔지 않겠소?》

《아니 뭐요? 말이 될걸 가지고 해야지, 안됩니다.》

김선달은 딱 잘라버리였다. 그러자 부자놈은 더욱 바싹 다가붙으며 안달이 나서 야단이다.
그러나 김선달은 아예 말도 하지 못하게 했다.
《아니, 이 대동강이야 대대로 내려오면서 보존해오는 집안의 보물이며 가족의 명줄인데 그걸 팔다니. 되지도 않을 소리는 하지도 마시우.》
대동강의 값은 점점 더 올라갔다. 부자놈은 등이 달아 부르는 값대로 치르겠다며 거듭 사정했다.
《여보시오. 뭘 그러시우. 내 값을 섭섭치 않게 드리지 않을라구. 내 가지구 온 돈을 몽땅 드려두 안되겠단 말이우?》
부자는 그냥그냥 졸라댔다.
하도 사정을 들이대니 김선달은 저녁녘에 이르러 못이기는척 하면서 부자의 돈자루를 받고 대동강을 넘겨주었다.
《아이구, 이젠 이 강이 내것이 되였구나.》
부자놈은 너무 좋아 덩실덩실 어깨춤까지 추어대면서 이제는 대동강물이 모두 제것이라도 된것처럼 기뻐하였다. 평양에 올라온 이번 걸음에 뜻밖의 큰 횡재를 하게 된 기쁨에 부자놈은 김선달이처럼 돈을 받을 궤를 밤새워 만들어가지고 다음날 아침 일찌기 대동강으로 나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제는 물을 길러 나오는 사람마다 엽전 한잎씩 가지고나와 나무통에 넣더니만 오늘은 한명도 돈을 가지고나오는 사람이 없을뿐더러 승인도 없이 마음대로 물을 퍼담아가지고 돌아가는것이였다.
부자놈은 금시 눈이 화등잔만 해졌다.
《여보시우, 돈을 내고 가시우. 이제부터는 내가 이 대동강의 주인이요, 주인이 달라졌단 말이요.》
목이 터져라 웨쳤지만 사람들은 별 미친 사람 다 보겠다는 식으로 허구픈 웃음을 터뜨리며 쓴외보듯 지나치는것이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며 물값이란 또 뭐요? 하하하…》
부자놈은 화가 치받쳐올라 소리를 질러댔다.
《내가 미쳤다구, 어제는 너희들이 물값을 다 내지 않았느냐?》

《하하하. 대동강을 살바에야 봉이 김선달한테 저 하늘의 구름까지 사실걸 잘못했수다. 하하하.》

그제야 부자는 제 머리를 탁 치면서 풀썩 주저앉는다는것이 그만 돈궤에 빠져버렸다.

《아이쿠, 김선달이라구? 내가 속았구나!》

이렇게 되여 봉이 김선달이 부자놈에게 대동강을 팔아먹은 이야기가 세상에 나오게 되였다.

김선달에게는 닭알값이 송아지값으로 된 이야기도 있다.

그가 한동안 벽촌에 가서 살았다고 하던 때의 일이다.

그 마을에는 욕심이 하늘같은 지주놈이 살고있었다. 이놈을 언제나 아니꼽게 보아오던 김선달은 어느날 지주놈의 욕심을 떼주어야겠다고 결심하고 속으로 생각을 굴리였다.

우선 생각키우는것은 자기 집재산이라고는 여윈 황소 한마리뿐인데 지주놈집에는 피둥피둥 살찐 암소들이 여러 마리나 된다는것이였다. 그런데도 지주놈은 짐실을 일이 생기게 되면 제집 암소는 아까와 힘을 못쓴다고 놓아두고 반드시 내집 황소를 끌어다 쓰군 하지 않는가. 그러니 그놈의 암소부터?… 입가에 슬며시 웃음을 지은 김선달은 자기 집 암닭이 낳은 닭알을 손에 받쳐들고 지주놈을 찾아갔다.

《주인님, 어서 이 닭알을 받으시우. 따끈따끈하옵니다.》

《아니, 왜 나한테 이것을 주나?》

《그거야 주인님것이니까 그러지요.》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집 닭이 낳은 알이냐?》

《그런게 아니올시다. 우리 집엔 수닭이 없는데 암닭이 날마다 알을 낳길래 괴이하게 여기고 살피였더니 글쎄 주인님집 수닭과 같이 놀지 않겠소이까. 어제 온종일 놀아대더니 오늘아침 이렇게 또 알을 낳았소이다. 그러니 그거야 불보듯 뻔한 리치지요. 주인님집 수닭이 없다면야 우리 집 암닭이 알을 낳을수 있겠소이까? 그런즉 이 알을 어찌 우리가 주인님 몰래 먹겠소이까?》

그러자 주인은 좋아서 옳다고 손벽을 쳐댄다.

《그야 물론이지. 우리 집 수닭이 없이야 자네 집 암닭이 어

찌 알을 낳는단 말인가? 그 닭알이야 내가 먹는것이 천만번 지당하지. 자네 생각을 바로했네.》
다음날에도 또 그다음날에도 날마다 김선달은 닭이 알을 낳으면 사람들앞에서 지주의 손에 쥐여주며 너스레를 떨었다.
마을사람들은 김선달이 요즘 정신이 나갔다고 욕질을 해댔다.
《아니, 저 사람이 돌아도 분수가 있지. 닭알을 지주에게 날적마다 바치니…》
《하, 모를 일이요. 똑똑하던 사람이 정신이 쑥 나갔소.》
사람들은 그의 뒤에 대고 주먹질까지 해댔지만 그는 막무가내였다.
그로부터 두어달이 지난 후 지주네 암소가 송아지를 낳게 되였다.
김선달은 즉시 지주네 집으로 찾아올라갔다.
《주인님, 암소가 송아지를 낳았다면서요?》
《그래. 얼마나 큰지 모르겠네. 자네도 좀 보게나.》
《난 막 기뻐서 죽겠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송아지가 생기게 되였으니.》
김선달은 성큼성큼 외양간으로 들어가 송아지를 닁큼 들어안고 나왔다.
놀란 지주놈은 손을 마구 내저으며 막아섰다.
《아, 그건 왜 그러나?》
《하여튼 고맙소이다. 송아지는 내 잘 기르지요. 오늘은 아침부터 기분이 좋더니 이런 복이 떨어지는구나.》
《아니 시퍼런 대낮에 남의 송아지를 안아가는것은 무슨 행실인가?!…》
지주놈은 성이 올라 말도 변변히 못하였다.
《주인님, 그건 또 무슨 소리옵니까? 우리 집 황소가 여기에 와서 놀아서 주인네 암소가 새끼를 낳은것이지 그게 어디 공짜루 생긴것이외까? 원 참, 별일이 다 있겠군.》
그러자 지주놈은 닭알을 곱삭곱삭 받아먹던 생각이 불시에 떠오르고 모든것이 한순간에 환해졌다.

벌써 마을사람들이 하얗게 모였는데 제 한짓이 있는지라 무어라 할 말이 없었다.

《인간도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계시는 주인님이니 이런것이야 더 설명할 필요조차 없겠지요? 제 잘 기르겠습니다.》

김선달은 송아지를 안고 대문가로 걸어나갔다.

그래도 지주놈은 어디에 고소할 계제가 못되여 대문만 안타까이 쥐여뜯고있을뿐이였다.

이렇게 김선달은 지주놈에게서 닭알값을 송아지로 받아내고야말았다.

김선달은 이번에는 왕까지 골려주었다.

김선달에게서 매번 혼쌀이 난 량반들과 심보고약한 장사군들은 어느날 그가 평양장안에 나타나자 저희들이 혼쌀을 먹이자고 머리를 맞대고 끙끙거리며 수를 짜내였다.

그것은 김선달이 법을 어기게 하여 졸경을 치르게 하자는것이였다. 그들은 선달을 끌어다 앉혀놓고 머리가 희여졌으니 그만큼 재주도 늘었겠다고 추어주면서 그가 《만취》되도록 련거퍼 술을 권하였다. 그리고는 비상시에만 울리게 되여있는 인경을 치도록 재주를 부려보라고 부추겨댔다.

봉이 김선달은 이들의 속내를 이미 꿰뚫어보고 술에 취하는척 했던지라 그들이 바라는대로 비척거리며 거리에 나가 《인경 쳐라, 인경 쳐라.》하고 고아댔다. 그러자 금시 비상종인 인경이 《뎅—뎅—뎅—》 울리고 일시에 무장을 갖춘 군사들이 향방없이 쏠어나왔으며 궁궐안은 벌컥 뒤집혔다.

그리하여 김선달은 곧 포박되여 대궐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였고 량반들과 장사군들은 일이 뜻대로 되였다고 좋아서 쾌재를 올렸다. 그러나 그것은 때이른 기쁨이였다.

임금앞에 끌려간 김선달은 변고없는 때에 인경을 치라고 한 죄를 아뢰라고 호령을 하는 왕앞에서 태연히 대답하는것이였다.

《상감마마, 소인은 인경을 치라고 한 일이 없소이다.》

《이놈이 뉘앞이라고 거짓말을 하는고. 그래 〈인경 쳐라.〉 하고 소리치지 않았단 말이냐!》

《아니옵니다. 제 아들놈의 이름이 임경철이온데 오늘 친구들을 만나 술을 먹고나니 9대 외독자에 아들 하나 보았던것을 병들어죽인 설음이 북받쳐올라 아들이름을 불렀소이다.》

임금도 그의 태연하고도 그럴듯한 대답에 그만 폭소를 터뜨리며 그를 무죄로 내보내지 않을수 없었다.

김선달이 포승줄에 묶이울 때 환성을 올렸던 량반놈들과 부자놈들은 졸지에 아연해져 자기들의 꾀가 아직은 안되겠다고 한탄하였다 한다.

이와 같이 김선달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부패무능한 봉건량반관료배들을 골탕먹이고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었으며 그들을 끝없이 동정하였다.

하기에 한생을 방랑생활로 마치였지만 인민들의 밥을 얻어먹으며 지낼수 있었다.

물론 그가 남긴 민담들은 시대적제한성으로 하여 봉건제도자체를 부정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일정하게 백성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리익을 옹호하여나섰고 인민들의 념원을 반영하였다는데 그 긍정적측면이 있는것이다.

갑오농민전쟁의 지도자 전봉준

아버지와 아들은 등잔불을 가운데 놓고 조용히 앉아있었다. 어딘가모르게 그들의 표정은 무거웠다. 그것도그럴것이 오늘 낮 사람들은 수십가지 세금으로 조금 거둔 낟알들을 모두 빼앗기고 저저마다 군수놈을 죽여야 한다고 주먹을 들었던것이다. 그래 동네의 나이많은 어른들이 모여 이 일을 어이했으면 좋겠는가를 의논하였다.

《봉준아, 아버지가 래일 군수를 만나고 돌아오지 못하면 너는 어찌 하겠느냐?》

전봉준은 그 말에 고개를 번쩍 들었다.

《아버님께서 군수를 만나시게 되였습니까?》

《그렇다. 이건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다. 그러나 내 한목숨 바쳐 우리들의 요구조건이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내야 이젠 늙은 몸이 아니냐.》

《아버님, 장하십니다. 저도 아버님의 뒤를 반드시 따르겠습니다. 내 언제건 가난한 사람은 사람으로 쳐주지 않는 이 나라를 바로잡으려 하던 참입니다. 그리고 저 조병갑이같은 악당들을 가만두지 않으렵니다.》

전봉준은 의젓한 아버지의 모습을 새삼스럽게 다시 쳐다보았다. 어찌하면 영영 못볼수도 있는 아버님이 아닌가?

아버지도 마지막길이 될수 있는 이 일에 나서려니 재산 한푼치 남겨두지 못한것이 가슴에 걸리였다.

《아, 세상은 어찌 이리도 불공평한것인가?》

밤은 깊었건만 아버지는 아들을 생각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등잔불곁을 떠나지 못했다.

다음날 전봉준의 아버지 전창혁을 비롯한 몇명의 대표들이 군수

조병갑을 찾아가 만날것을 요청하였으나 관청에서는 그들에게 뭇매를 안겨 쫓아내였다.

전봉준의 가슴속에는 봉건통치배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이 끓어올랐다.

전봉준은 1854년 전라도 고창군 덕정면 당촌에서 서당훈장으로 있던 전창혁의 아들로 태여났다. 전창혁은 아들과 동리아이들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육하기에 힘썼다.

전봉준은 소년시절부터 재능이 비범했고 학구적인 열정으로 뛰여났었다.

그가 13살에 지었다는 《백구시》는 이것을 잘 보여준다. (백구—갈매기, 흰갈매기)

모래불을 고장 삼아 마음껏 노닐적에
흰나래 가는 다리로 맑은 가을날 홀로 섰네
부슬부슬 찬비는 꿈속같은데
때때로 찾는 어부 가고나니 적막쿠나

물가에 섰는 바위 새 면목이 아니건만
풍상에 거친 모습 머리도 희였어라
온종일 쪼아먹어 알맞게 배부르니
강호의 고기떼들 걱정할것 없다오

전봉준은 청년시기에 아버지와 함께 동리의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서당훈장을 하였으며 자신의 학문닦기에 전심하였다. 그는 성격이 소탈하였으며 더우기는 고향산천에 대한 사랑으로 하여 마을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았다.

1892년 고부군수로 내려온 조병갑은 보기 드문 악랄한 수법으로 농민들의 피와 땀을 긁어냈다. 농민들에게 면세를 약속하고 묵은 땅을 등뼈가 휘도록 개간하게 하고는 가을에 가서 엄청난 전세를 받아냈고 1결에 현미 12말씩 받아야 할 대동미를 16말씩 그것도 돈으로 환산해받아서 폭리를 얻었으며 지어 태인현감을 지낸

제 애비의 비석을 보호하는 집을 세우기 위해 이 지방 인민들에게서 1 000여량의 돈을 강제로 빼앗아냈다.

이밖에도 만석보라는 저수지밑에 없어도 될 새 보를 만들어놓고는 논 한마지기(한말의 씨앗을 심을만한 넓이로서 200～300평정도)에 흰쌀 2말씩 물세를 받아내는가 하면 《불효죄》, 《불목죄》 등 가지각색의 죄목을 만들어 2만여량의 돈을 앗아냈다. 거기에다가 고부농민들은 자기들의 땀이 배인 농산물들을 체하상품을 싣고 기여든 일본상인들에게 헐값으로 빼앗겼다.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웠던 그들의 처지를 더욱 참혹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농민대표들이 관청에 상소하면 또 《란민》이라고 하여 잡아가두고 목숨을 빼앗았다.

인민들의 고통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자란 전봉준은 어려서부터 봉건통치배들에 대한 증오심이 컸고 착취와 압박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구원할 굳은 결심을 품게 되였다.

1893년 11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전창혁을 장두로 하는 수십명의 농민대표들은 고부관청으로 달려가 조병갑의 비행을 규탄하고 물세를 마구 빼앗아내는것을 비롯하여 비법적인 수탈을 그만둘것을 강경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악독한 조병갑놈은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에 귀를 기울일 대신에 이들을 《란민》이라 하여 마구 쫓아냈으며 이 항의투쟁의 앞장에 섰던 전창혁을 잡아가두고 학살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1893년말에 벌어진 고부농민들의 이 투쟁은 봉건통치배들에게 항의하는 소극적인 투쟁으로써는 결코 목적을 달성할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었다.

지게에 아버지의 시신을 지고 관청문을 나서는 전봉준의 가슴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아버님, 내 기어이 이 원쑤를 몇천배로 갚고야말겠소이다!》

그는 두주먹을 으스러지게 틀어쥐였다.

전봉준은 다음날부터 오직 술밖에 모르는 인간으로 가장하고 폭동준비에 나섰다.

그는 고부지방인민들의 분노가 고조에 이르고 전주, 익산 등지에서도 농민들의 폭동이 련이어 일어나는것을 절호의 기회로 삼아 마침내 이 싸움의 지도자로 나섰다. 그는 광범한 백성들을 묶어세우기 위해 정익서, 김도삼 등을 폭동의 지도부에 인입하는 한편 당시 동학의 지방조직도 이에 리용하였다.

(동학—서학 다시말하여 카톨릭교에 대치하여 동방 즉 조선의 학문이라는 뜻으로서 사람이 곧 하늘이고 신이라는 《인내천》을 기본출발점으로 하고 현실적인 《지상천국》건설을 목표로 한 종교철학사상. 19세기 중엽에 최제우가 처음 내놓고 최시형에 의하여 계승전개 되였다.)

전봉준은 다같이 일어서 거사할것을 비밀리에 공약하였으며 1월 10일 새벽에 만석보 남쪽 말목장터에 모일것을 포치하였다.

거사계획을 세운 전봉준은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다.

《아버님, 때가 온듯싶습니다. 내 아버님의 뜻을 좇아 헐벗고 굶주리는 이 땅의 백성들을 기어이 구원해내고야말겠습니다. 땅속에서도 우리를 굽어살펴주십시오.》

그는 처가에 들리여 이미전에 보내였던 안해와 아이들을 만나고 작별했다.

드디여 1894년 1월 10일 전봉준이 지휘하는 1 000여명의 농민들은 싸움에 일떠섰다.

이른새벽 고부군 탑내면 마항리의 동진강기슭에 모여든 농민들은 저저마다 참대창을 들고 달려가 순식간에 관청을 점거하고 토지문서, 노비문서 등 공문서들을 불살라버렸으며 무기고를 부시고 무기들을 탈취했다.

그 앞장에는 물론 전봉준이 서있었다.

《여러분! 제 뒤를 따르십시오. 우리는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기에 누구도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것입니다!》

그는 손을 번쩍 들어 폭동군을 인도하였다.

폭동군은 기세를 올려 악질관리들을 사정없이 처단하고 옥문을 열어 억울하게 갇히였던 사람들을 석방했으며 쌀창고를 터뜨려 빈민들에게 나누어주었다.

또한 세금징수의 구실로 되고있던 만석보의 새 보를 허물어버리였다. 조병갑은 혼비백산하여 전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말았다.

고부농민들의 폭동은 10여일남짓한 기간에 그들의 자랑찬 승리로 일단 막을 내렸으나 통치배들은 이들을 가만두려 하지 않았다.

고부농민폭동은 봉건통치배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을뿐아니라 전라도, 충청도지방의 농민들을 들끓게 하였다. 특히 고부와 이웃하고있는 태인, 금구(전라북도 김제군), 정읍, 부안, 무장(전라북도 고창군) 등지에서 농민들이 들고일어날 기세를 보이였고 적지 않은 지방에서는 직접 투쟁에 합세하였다.

이에 극도로 당황한 봉건정부는 군수 조병갑을 처벌하고 장흥부사 리용태를 안핵사로 고부지방에 파견하였다. 이것은 늘 하는 수법대로 회유와 폭압을 배합하여 농민들의 투쟁을 탄압하려는것이였다.

신임고부군수 박원명과 안핵사 리용태는 또다시 농민들에 대한 탄압과 학정을 감행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리용태는 농민들의 투쟁을 철저히 진압하기 위하여 죄없는 인민들을 마구 잡아가두고 재물을 닥치는대로 빼앗아냈으며 폭동자들과 그 가족들을 학살하는 등 갖은 만행을 감행해나섰다. 안핵사의 이런 학살과 략탈만행은 고부지방뿐아니라 태인과 정읍 등 여러 지역에서도 감행되였다.

하여 인민들은 다시금 투쟁에 나서지 않을수 없었다.

전봉준도 마음을 다잡았다.

《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놈들의 뿌리를 뽑아버리리라!》

전봉준은 봉건통치배들의 악랄한 탄압이 전례없이 강화되고 이를 반대하는 농민들의 투쟁이 전반적으로 앙양되고있는 새로운 정세에 대처하여 보다 광범한 농민들을 동원하여 봉건통치와 외래침략세력을 반대하는 대규모적인 투쟁을 전개해나갔다.

전봉준은 이웃고을 동학접주들에게 통문을 돌려 보국안민, 폐정개혁을 위해서 일떠설것을 호소하는 창의문을 발표하였다. (접－포

와 함께 동학의 기층조직의 하나)

이때로부터 고부와 그 이웃지방에서 분산적으로 계속되던 농민폭동은 대규모적인 농민전쟁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전봉준은 이미부터 폭동을 벌리고있던 각 지방 인민들을 묶어세워 그 대오를 확대하였다.

1894년 3월 농민들과 동학군들은 백산으로 모여들었다. 여기에는 고창, 무장, 흥덕(전라북도 부안군), 정읍, 태인, 금구, 김제 등지에서 달려온 약 8 000명의 농민들이 집결하였다. 전봉준은 총대장의 명의로 농민들에게 자기들이 싸움에 나선 목적을 똑똑히 밝히였다.

《결코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재물을 다치지 말라. 우리의 목적은 국가에 충성을 다하고 부모에 효도를 하여 인민들을 편안히 살수 있게 하며 외래침략자들을 구축소멸하며 정의와 인도를 밝히며 군대를 몰아 서울로 들어가서 권세있는 량반들을 멸살하며 기강을 세우고 명분을 정하여 성인의 가르침에 따르려 한다.》

전봉준은 새로 조직한 지휘부인 호남창의대장소의 명의로 광범한 인민들을 싸움에로 호소하는 격문을 내였다.

《우리가 정의를 위하여 여기에 이른것은 그 본의가 결코 다른데 있지 않고 백성을 도탄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우에다 두려고 하는것이다. 안으로는 악질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구축하려고 한다. 량반과 부자들앞에서 고통받는 민중들과 방백(감사)과 고을원의 밑에 굴욕을 받는 아전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은자들이다.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이 시각에 일떠서라. 만일 기회를 잃으면 후회하여도 돌이킬수 없을것이다. 호남창의대장소 백산에서》

또한 전봉준은 4개 조로 된 농민군의 행동강령도 내세웠다.

그것은 첫째로,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지 말고 가축을 죽이지 말며 둘째로, 효성과 충성을 다하여 세상을 구원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며 셋째로, 왜놈과 서양오랑캐를 몰아내고 나라의 정치를 바로잡으며 넷째로, 군사를 몰아 서울에 쳐들어가 특권량반놈들을 없

애치우는것이다.

농민군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듯 했다. 수천의 농민군이 백산의 산과 들을 하얗게 덮었으며 곳곳에서 노래소리,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구성진 민요의 선률을 타고 모닥불에서 피여오르는 연기가 노래소리를 싣고 먼 하늘가로 멀리멀리 날아갔다.

가보세 가보세
을미적 을미적
병신되면 못간다

넙적한 청돌수돌에 썩썩 칼과 창을 갈아대는 젊은이들, 화승대 총구멍을 쑤시면서 노래하는 사람으로 온 골안이 끓었다.

《어쨌든 올해안으로 결판을 보아야 우리 농군들이 살게 되네.》

하나같은 이들의 심정이였다.

또한 이런 동요가 어른, 아이 할것없이 사방에서 불리웠다.

새야 새야 록두새야
웃녘새야 아래녘새야
전주 고부 록두새야
함박쪽박열나무 딱딱후여

새야 새야 록두새야
록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사 울고 간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네 무엇하러 나왔느냐
솔잎 대잎이 푸릇푸릇
하절인가 하였더니

백설이 펄펄 흩날리니

저 강건너 청송록죽이
날 속인다

이것은 농민전쟁을 동경하며 새 세상을 바라마지않는 백성들의 소박한 념원의 대변이였다.

4월 4일 새벽 드디여 관군과의 첫 싸움이 백산에서 벌어졌다.

이날 농민군은 돈을 주고 긁어모은 장사군들인 보부상대 1 000여명을 포함하여 도합 1 300여명의 병력으로 백산을 포위공격해오는 관군을 격파하였다.

농민군은 기세드높이 승승장구 진격해나갔다.

각계층 인민들은 앞을 다투어 폭동군에 참군하였다.

《전장군을 따라나섭시다! 우리도 동학군에 듭시다!》

폭동군은 철저히 자기들이 일떠선 목적을 인식하였으며 착취자들과 침략자들을 격멸하려는 적개심으로 불타올랐다.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천백성의 피요
옥소반의 맛있는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초불눈물 떨어질 때 백성눈물 떨어지고
노래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더라

농민군이 부르는 시는 호남의 광야에 울려퍼졌다. 봉기는 날을 따라 더 넓은 지역에로 확대되여갔다.

전봉준은 4월 4일 부안으로 진출하여 악질관리들을 처단하고 무기와 곡식을 탈취했고 이어 6일 밤부터 7일 새벽에 걸쳐 황토현(고부군)에서 큰 전투를 벌려 근 800명의 감영군을 살상하고 총통 600여정을 로획하는 빛나는 전과를 거두었다.

기세충천한 농민군은 남진을 개시하여 7일 저녁 정읍현을 장악하고 고창, 무장을 들이쳤으며 4월 12일에는 령광, 16일에는 함평을 들이쳤다.

농민군의 맹렬한 진격으로 전라도 남부지방의 여러 고을이 농민군의 수중에 장악되자 호남지방은 순식간에 농민전쟁의 불길에 휩

싸이게 되였다.

농민군의 영향밑에 투쟁의 불길은 충청도지방의 군, 현들에도 휩쓸어 공주이남의 여러 지방에서 관청들이 페쇄되고 악질관리들이 처단되였으며 토호량반들은 목숨을 부지하려고 도망하여 봉건정부의 지방통치는 완전히 무너지고말았다.

이에 대하여 당시 기록은 이렇게 전하고있다.

《란민이 곳곳에서 봉기하여 천리땅이 호응궐기하니 달포안에 온 삼남지방이 들끓었다. 고을원들은 혹은 도주하고 혹은 잡히여 욕을 당하게 되여 한사람도 자기의 관할지역을 지키는자가 없었다.》

농민군은 가는 곳마다에서 인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았다.

여기에 이런 실화가 있다.

충청남도 례산군 신례원에서 농민군과 관군이 싸울 때의 일이다.

많은 물자들을 인민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들과 한밤을 웃음으로 넘기던 농민군은 마을앞 동구밖에서 아낙네들에게 에워싸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점차 신기한 대포에 대한것으로 번져갔다.

《글쎄 그 대포알이 터지면 벼락치는것 같다니 사람인들 얼마나 상하겠나요.》

아낙네들은 자기들의 남편이나 오라버니들이 농민군에 참군했기에 그것이 더욱 근심스러웠다.

《그렇게 남정들이 근심스러우면 그놈의 쇠대포아가리를 치마폭으로 막으시구려.》

일시에 폭소가 터졌다.

그 대포알을 어떻게 무명치마 한겹으로 막겠는가고 아낙네들이 대들자 농민군은 더 큰소리를 치는것이였다.

《아낙네 스물이면 스무겹이니 벼락이라두 막겠는데 그깐놈의 대포, 대포아구리를 못막아요. 임진왜란때 행주치마이야길 못들었나보군.》

그날밤 아낙네들은 눈섭같은 초생달이 사라진 후 소리안나게 짚

신을 물에 적셔신고 관군이 진을 친 무한성근처로 다가갔다. 시큼털털한 탁주냄새에 보초병이 코고는 소리가 앞산을 울릴 지경이였다.

녀인들은 소곤소곤 논판에 들어가 가지고간 동이에 흙물을 퍼담았다.

《개구리알, 그것도 퍼넣어라. 올챙이가 까나오게.》

녀인들은 관군의 대포에 한동이씩의 흙물을 먹이고 유유히 빠져돌아왔다.

며칠후 농민군과 관군간의 싸움이 있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관군의 대포에서는 샘이 터져나오는것이였다.

초관이 영문을 알려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흙물에 개구리알까지 섞여있고 올챙이들이 파들파들 떨고있는게 아닌가!

관군은 저도모르게 《에쿠!》하고 비명을 지르며 귀신의 조화라고, 동학당이 하늘을 움직여 조화를 부렸다고 야단들 쳤다. 이날 싸움에서 관군은 끝내 대포 한방 쏘아보지 못하고 완전패하고말았다.

또 이런 일도 있었다.

어느날 전봉준이 지휘관들에게 이르기를 어느달, 어느곳으로 어떠한 차림을 한 사람이 나타날터이니 두말말고 잡아오라고 과업을 주었다.

그날 대장이 한대로 그곳에 가니 과연 신기하게도 꼭같은 차림의 사람이 나타나기에 당장 잡아들이였다.

문초를 하니 갈데없는 관군의 앞잡이였다.

이것은 전봉준이 적을 꿰뚫어보는 그 어떤 신의 조화를 부린것이 아니였다.

폭동군의 귀와 눈이 되여준것은 당시 그들을 지지하고 성원해나섰던 각계층 인민들이였다.

이들은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농민군을 도와나섰으며 자기들의 힘을 합치여 적을 쳤다.

봉건관군은 농민군의 충천하는 기세에 위압되여 때로는 싸워

보지도 못하고 멸살당했으며 때로는 지휘관의 명령에 어쩌지 못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죽어자빠졌다.

한편 서울을 떠나 300여명(처음 800명이였으나 농민군의 전투기세에 위압되여 반수가량이 도중에서 도주)의 정부군을 끌고 4월 7일 전주에 기여든 이후 감히 싸울 엄두를 못내고있던 량호초토사 홍계훈은 증원군을 보낸다는 급보를 받고 그이상 더 주저앉아있을수 없어 4월 18일 전주를 떠나 농민군의 뒤끄리를 밟아 21일 령광에 다달았다.

정부군이 밀려온다는 소식에 접한 함평의 농민군은 정부군을 쳐부시기 위하여 남진을 중지하고 북쪽으로 방향을 돌려 장성을 향하여 적을 맞받아나갔다. 하여 4월 23일 농민군과 정부군사이의 첫 교전이 장성에서 벌어지게 되였는데 이 전투에서도 농민군은 신식무장을 갖춘 적들에게 불의의 기습을 당한 불리한 정황이였지만 주도권을 잃지 않고 즉시 대렬을 정비하여 용감히 맞받아 싸움으로써 수많은 정부군을 살상하고 대포 2문을 비롯한 각종 무기를 로획하는 전과를 올리였다.

사기백배한 농민군은 호남에서의 봉건통치의 아성인 전주를 향하여 진군을 다그쳤다.

드디여 농민군은 4월말에 전주성에 대한 총공격을 개시하였다.

전봉준은 전주성이 거의 무방비상태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일거에 성을 들이침으로써 또다시 대승리를 이룩했다.

전주점령은 농민전쟁이 개시된 이후 농민군이 거둔 가장 큰 정치군사적승리였다.

전주점령은 농민군이 지난 전투행정에서 단련되고 체득한 귀중한 모든것의 빛나는 시위로서 농민군이 군, 현들과 같은 작은 고을들뿐아니라 봉건통치배들의 강력한 거점인 도소재지도 점령할수 있으며 또 봉건정부의 그 어떤 군대와도 싸워이길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실로 전주점령은 승리에 승리를 거듭하면서 발전하고있던 농민전쟁의 절정을 의미하는 큰 사변이였으며 농민전쟁의 보다 큰 성

과를 기약해주는 귀중한 담보였다.

전주성을 점령한 농민군은 차지한 지역을 미처 공고히 할 사이도 없이 전주성을 되찾기 위하여 발악적으로 달려드는 정부군을 반대하는 싸움에 나서지 않으면 안되였다.

전봉준은 진지를 공고히 하면서 정부군을 물리치는 치렬한 격전을 벌리였다. 정부군이 전주성안이 환히 내려다보이는 완산(183m)에 진을 치고 성안에 총포사격을 퍼부어 집과 생명을 없애려 하자 격분한 농민군은 5월 1일과 3일 두차례에 걸쳐 성문을 열고나가 기습소탕전을 벌려 된타격을 안기였다.

이러한 때 국왕을 두목으로 하는 봉건정부의 요청으로 봉건청국군대가 1 500명의 병력으로 충청도 아산에 상륙(5월초)했으며 다른 한편 조선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봉건중국의 세력을 꺾으려고 애쓰던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봉건중국군대의 출병을 저들의 무력을 조선에 대대적으로 들이밀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로 여기면서 일본거류민《보호》를 구실로 5월 7일 혼성려단선발대대 800명을 인천항에 침입시켰다. 그리고 5월중에 5 000여명을 더 증파하였다.

농민군의 앞길에는 또다시 새로운 난관이 제기되였다. 농민전쟁을 반대하는 안팎의 반동들의 범죄적인 결탁이 이루어지고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조선출병이 로골화되는 현상황에서 농민전쟁을 계속한다면 외래침략자들의 대대적인 무력간섭을 초래할수 있고 그로 하여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엄중한 후과를 미칠수 있었던것이다. 이때 봉건정부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농민군을 진압하기 어렵게 되자 무기를 놓으면 요구조건을 들어주고 죄를 묻지 않겠다는 등 새로운 회유기만술책을 쓰면서 그들과의 《화의》를 집요하게 요구해나섰다.

전봉준은 봉건통치배들의 이 책동에 결코 롱락당하지는 않았지만 나라와 인민앞에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전주성을 주동적으로 내주어야 한다고 인정하고 정부군측의 제의에 동의함으로써 5월 8일 《전주화의》가 성립되였다.

전봉준은 27개 조로 된 개혁강령과 함께 화의조항들을 내놓았다.

그는 개혁강령에 환곡, 전세를 규정대로 받으며 악질관리놈들을 철직시키고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을 봉건정부에서 제거하며 농민들에 대한 가장 파렴치한 수탈자였던 지방관의 비법행위와 협잡을 통하여 농민들을 착취하던 상인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등 인민들의 생활에서 절박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내용들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화의조항에는 농민군과 정부사이의 반감을 해소하고 정치를 협력하며 탐관오리들의 죄상을 엄격히 징벌하고 노비문서를 태우며 관리채용에서 인재본위문제, 토지를 평균으로 나누어 부칠데 대한 문제 등을 제기하였다.

화의를 맺은 후 농민군은 전주를 내주고 각지로 떠나갔다. 전봉준은 지방관청과는 별도로 봉건정부와 합의된 페정개혁안(12개조)의 실시를 통제하고 감독할 농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집강소를 설치하고 페정개혁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전주에 가서 김학진이라는 신임전라감사를 만나 직접 담판을 진행했다.

이 담판장면을 목격한 량반관료들은 관군이 좌우로 총창을 잡고 삼엄하게 늘어선 가운데 전봉준이 기세당당히 들어와 조금도 꺼리낌없이 관찰사 김학진과 화의책을 토론하는데 모두가 질겁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싸움은 끝난것이 아니였다.

전봉준은 또다시 그해 9월 나라안에 기여든 일제침략자들을 구축하고 유린된 국권을 회복하려는 애국의 일념으로 농민군을 일으켰다.

농민군이 정화한 후 일제놈들은 물러간것이 아니라 더욱 횡포하게 나왔다.

놈들은 출병구실이 없어지자 이번에는 《내정개혁》을 들고 나왔고 마침내는 무력을 동원하여 남의 나라 왕궁까지 강도적으로 점령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이어 일제놈들은 총칼을 휘둘러 정부를 개조하도록 강요하였고 왕궁의 문화재와 보물들을 훔쳐냈다. 이와 함께 일제침략자들은 조선에서 봉건중국과의 전쟁(청일전쟁. 6월 23일)을 일으킴으로써 국토를 황페화시키였

으며 전쟁수행에 필요한 모든 인적물적자원들을 조선인민들로부터 략탈하였다.

침략무력을 침입시킨 이후 조선에서 감행한 일제놈들의 주권유린행위는 실로 엄중하였고 그것은 조선을 완전히 집어삼키기 위한 준비라는것이 누구에게나 명백하였다.

이와 함께 리조봉건정부의 통치배들은 란폭하게 주권을 유린하고있는 놈들과 비굴하게 타협하였으며 더우기 놈들과 결탁하여 전주화의의 《약속》까지도 배신하고 농민군에 대한 《토벌》을 감행하였다.

전봉준은 이에 농민군을 이끌어 반침략, 반봉건투쟁을 전개하여 나섰다.

그것은 일본놈들을 구축하고 나라를 구원하려는 애국적인 반일구국에 있었으며 일신의 안일만을 추구하면서 매국배족을 일삼는 리조봉건정부의 통치배들을 소멸하자는데 있었다. 이때 전주북쪽 삼례에 집결된 농민군의 수는 약 4 000명에 달하였다. 이와 함께 전라도 각 지방들에서 전봉준의 호소에 따라 또다시 투쟁의 봉화를 든 농민군부대들이 홍수처럼 삼례로 밀려들었다.

이무렵 구국항쟁의 불길은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을 휩쓸었다. 농민뿐아니라 각계각층 인민들이 망라되였으며 지어 일부 애국적인 량반들과 유생들, 아전, 관군의 병사들도 참가한 이 시기의 반일투쟁은 실로 그 지역적 및 군중적포괄범위로 보나, 동원된 군중의 수로 보나 그전시기에 볼수 없었던 거족적인 구국항쟁이였다.

10월 20일경 충청도 론산에 모인 호남(전라도지방)과 호서(충청도지방)의 농민군의 수는 무려 22만 7 000명에 달한다고 하였다. (물론 이 수자는 일부 과장된 추상적인 수자라고 보이나 외적의 침입으로 나라에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온 겨레가 일떠서 싸운 우리 인민의 열렬한 애국심과 투쟁기개의 일단을 보여주는 실례로 된다.)

전봉준은 침략자들이 둥지를 틀고있고 통치배들의 중심지인 서

울로 진격하려고 농민군주력부대를 이끌어 출전했다. 그는 이에 앞서 주력부대의 안전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하여 김개남이 지휘하는 부대 5 000여명을 삼남지방의 중심지인 전주에, 손화중, 최경선이 지휘하는 부대를 전라도 광주지방에 각각 배치하고 최한규가 지휘하는 부대 3 000여명을 공주의 유구방면으로 진출시켜 선봉군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합리적인 부대배치를 진행하였다.

그는 서울로 쳐올라가기 위하여 먼저 공주를 점령하기로 결심하였다.

그것은 공주가 당시 농민군진압에 동원된 일제침략군과 관군의 《토벌》거점이였기때문이다.

공주대격전은 이루 형언할수 없는 치렬한 싸움이였다.

당시 관군의 선봉장이였던 리규태의 보고에는 이렇게 지적되여있었다.

《아, 수만이나 되는 비도(농민군)들이 련련 40~50리에 걸쳐 길이 있으면 길을 싸워서 빼앗고 봉우리가 있으면 그를 싸워서 차지하려고 성동격서하고 섬좌홀우(왼쪽에서 번쩍 나타났다 바른쪽에서 훌쩍 없어지는것)하면서 기발을 휘날리고 북을 울리며 생사를 돌보지 않고 앞을 다투어 기여오르는것은 어찌된 일인가.》

참으로 농민군은 비길데 없는 용감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원쑤격멸의 혈전을 벌리였다.

그러나 10월 23일～11월 11일경까지 근 20일간 2차에 걸쳐 여러차례의 대소전투들을 치르며 진행된 농민군의 희생적인 공주총공격작전은 아쉽게도 성공하지 못하였다. 여기에는 기타 이러저러한 원인이 있지만 중요하게는 일제침략자들의 무력간섭에 있었다. 일제침략자들은 농민군이 또다시 투쟁에 궐기하자 그를 탄압하기 위하여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기 시작하였다. 인천에 새로 기여오른 보병 제24련대를 농민군《토벌》에 들이미는 동시에 일제침략군지휘부인 《대본영》직속 후비부대로 남겨두었던 보병 제18대대와 제19대대를 농민군《토벌》을 위한 예비력량으로 서울에 침입시켰다.

(《대본영》으로 말하면 역시 조선에서의 독점적지배권확립을 노린 일제의 야망의 산물로서 갑오농민전쟁을 계기로 다시말하여 일본거류민을 《보호》한다는 구실밑에 무력파병의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탐학한 일제의 야욕으로부터 가급적으로 조직된 전시최고군사통수부였다. 일제는 이미 1890년대에 들어와 조선을 강점하며 나아가서 중국에 대한 침략을 강화할 계획을 실현할 방대한 인적물적자원 및 근대적기술을 요구하는 전쟁준비를 완료했던것이다.)

이러한 일제침략군과 그에 야합한 봉건정부군의 발악적인 공세는 당시에 있어서 경제생활조건의 고립성과 분산성으로 하여 본질적인 사회계급적취약성을 가지고있던 농민군에게 아름찬 대항력이 아닐수 없었다.

이때 서울공격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 방면에서 진격하던 농민군부대들도 전투에서 적지 않은 손실을 당하였다.

원평, 태인계선의 반격전들에서 적들에게 타격을 준 전봉준은 적들의 발악적인 공세가 계속되는 조건에서 우세한 적과 힘에 부치는 전투를 계속한다는것은 무의미한 일이며 그러한 정면충돌의 방법으로는 농민군부대를 계속 유지할수도, 대오를 다시 확대해나갈수도 없다는것을 타산하고 투쟁방법을 달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핵심력량을 보존하는 한편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기 위하여 농민군대오를 일시 해산시킨 후 비공개적인 투쟁으로 넘어가게 하였다. 그리고 자신은 적은 인원을 데리고 순창으로 옮겨갔다.

가는 도중 전봉준은 길가에서 자기 부하로 데리고있었던 전주사람인 김경천을 만나게 되였다.

《전대장님, 이런 기막힌 행색을 하시고 어디로 가시옵니까?》

경천은 허리를 갑삭대며 금시 살이라도 베여줄듯 은근한 동정을 보냈다.

전봉준은 이에 아무런 생각없이 불쑥 대답을 하였다.

《순창 피로리에 일시 몸을 담을만한 집이 있다니 거기로 가오.

거기서 새로 일을 꾸며볼테니 임자도 한몸을 잘 보존했다가 후일 대사를 도모할 때에 한몫을 맡아주기 바라네.》

《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들은 헤여졌다.

《순창 피로리에?… 새로 일을 꾸민다구?》

삵의 웃음이 김경천의 입과 눈가에 슬며시 스쳐지나갔다.

12월 2일 전봉준은 피로리에서 동료들과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고있는데 돌연 수백의 군졸들이 불시에 달려들더니 《역적 전봉준은 빨리 나와 오라를 지라!》고 고아대는것이였다.

순간 전봉준은 함께 있던 동료들에게 급히 피할것을 명령한 후 화로를 번쩍 쳐들어 달려드는 첫 놈을 까눕히고 뒤산으로 몸을 빼려 하였다.

하지만 수많은 군졸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닥치는대로 칼을 휘둘렀다.

붉은피가 벼짚이영으로 줄줄이 흘러내리고 더는 움직일수 없게 된 전봉준은 오라에 묶이게 되였다.

전봉준의 눈에서는 변절자에 대한 증오로 불이 일었다.

《이놈 경천이, 네놈이?!…》

전봉준은 이렇게 변절자의 밀고로 최후의 뜻을 이루지 못한채 관군에게 잡히고말았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순간까지 애국의 지조와 절개를 굽히지 않았다.

변절자 김경천은 전봉준을 밀고한 대가로 그후 군수자리까지 얻었다고 한다.

전봉준은 놈들이 악형을 가할 때마다 이를 꿋꿋이 이겨냈으며 법관의 심문에 대해서는 도리여 질책해나섰다.

《너는 나의 적이요, 나는 너의 적이다. 내 너희를 쳐없애고 나라일을 바로잡으려다가 도리여 너희 손에 잡혔으니 너희는 나를 죽일뿐이요, 다른 말은 묻지 말라. 내 적의 손에 죽을지언정 적의 법을 받지는 아니하리라.》

전봉준은 놈들이 그에게 《죄인》이라고 판결을 내리자 벽력같이 소리를 질렀다.

《…탐학한 관리들을 없애고 그릇된 정치를 바로잡는것이 무엇이 잘못이며 조상의 뼈다귀를 우려 행악을 하여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는자를 없애는것이 무엇이 잘못이며 사람으로서 사람을 매매하는것과 국토를 롱락하여 사복을 채우는자를 치는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너희는 외적을 리용하여 자기 나라를 해하는 무리다. 그 죄 가장 중대하거늘 도리여 나를 죄인이라 이르느냐.》

1895년 3월 29일(양력으로 4월 23일) 농민전쟁의 견결한 지휘자였던 전봉준은 손화중, 최경선, 성두환, 김덕명 등 농민군지휘자들과 함께 반동정부의 사형을 언도받고 서울감옥에서 놈들의 손에 학살당하였다.

여기에 이런 이야기도 있다.

1894년 11월 하순 전봉준이 가장 신임하는 대원인 안병찬이라는 청년은 대장의 명령을 받고 전주시내로 떠나다가 고을에 들려 자기의 사랑하는 약혼녀를 만나게 되였다.

영미라는 처녀는 한선달의 집에서 머슴을 살고있었는데 이날도 《새야 새야 파랑새야》노래를 부르면서 동학군과 애인을 그리고있었다.

총각이 불쑥 마당에 들어서자 영미는 총각을 부르고 병찬은 영미를 부르면서 반갑게 두손을 마주잡았다. 총각은 영미에게 싸움이야기를 하면서 동학군이 반드시 이긴다고 힘주어 말하였다.

병찬은 임무수행중이여서 그렇게도 고운 영미를 떼여놓고 한밤에 길을 떠났다. 그런데 그가 맡은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니 대장은 이미 변절자에 의하여 격투끝에 잡혀가고 없었다. 병찬은 대장의 원쑤를 갚기 위해 전주에서 서울로 가는 길목을 지키였으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역시 희생되고말았다.

농민군이 해산되고 병찬이가 그렇게도 자랑하던 전봉준이 서울에서 사형당했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과 함께 애인마저 억울하게 희생되였다는 전갈을 받자 영미는 해종일 울었다.

하지만 이날밤 변절자 김경천의 집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다.

벼슬이 올라가고 상까지 내렸으니 그럴만도 하였다. 그들은 붓고 마시며 흥청거렸다.

그런데 갑자기 《불이야!》하는 다급한 웨침과 함께 사방에서 삼단같은 불길이 치솟아올랐다. 그 불길은 어찌도 거세찬지 누구도 끌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날밤 김경천과 공모자들은 모두가 불에 타죽고말았다.

그리고 영미라는 처녀도 어디로인가 밤새 자취를 감추었다.

그후 사람들은 이 불을 영미가 놓은것으로 짐작하였으며 처녀를 잊지 못해 그가 그렇게도 사랑하던 《새야 새야 파랑새야》를 부르며 그를 그리였고 폭동군들을 생각하였다고 한다.

이 노래는 점차 우리 나라 전통적민요의 하나로 되였다.

이렇게 우리 나라 근대력사에서 커다란 자리를 차지한 갑오농민전쟁의 지도자인 전봉준은 41살을 일기로 아까운 생을 마치였다.

갑오년이 다 저물도록 산발적으로 계속되던 농민전쟁은 황해도농민군의 해주전투와 충청도농민군의 청산 종곡전투를 마감으로 드디여 막을 내리게 되였다.

갑오농민전쟁은 분산성과 전략상의 부족점, 중세기적인 농민폭동이 가지고있던 제한성으로 하여 또한 일제를 비롯한 외래침략자들과 봉건통치배들의 탄압에 의해 비록 실패하였지만 반제반봉건적성격을 띤 대중적인 무장봉기로서 일제침략자들과 봉건통치배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우리 인민의 열렬한 애국적기개와 용감성, 단결력을 크게 시위하였다.

조선의 얼을 보여준 리준

사람들은 리준이라고 할 때 제2차 만국평화회의를 생각하며 거기에서 조선사람의 얼을 보여준 그의 과감한 행동을 먼저 그려보게 된다.

그러면 리준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리준(1859～1907)이 태여나 자라나던 시기는 안팎의 정세가 매우 복잡하였다. 안으로는 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하여 궁전내부가 소란한데다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끊임없는 진출로 어디서나 조용하지를 않았다.

이런 때 리준은 학문을 연구하여 고향 북청읍에서 진행되는 향시에 응하였다. 그러나 지내 나이가 어린것이 흠이 되여 성적은 합격되였지만 떨어지고말았다. 그때 그의 나이는 12살이였던것이다.

분함을 삭일길 없었던 어린 리준은 그곳 남문루에 올라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모두어놓고 자기의 억울함을 하소연하였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합격권내에 들어선 사람을 떼버리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지은 시를 큰소리로 읊었다.

그의 연설은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모두가 리준의 편을 들어 동정을 보내였다. 그러나 동정이나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였다.

리준은 이렇게 어릴적부터 제가 마음먹은 일은 기어이 해보고야마는 강직한 성미를 지니였다.

어려서 일찍 부모를 잃고 조부모의 손에서 자라난 그는 남달리 의협심이 강했고 또한 동정심도 많았다고 한다.

그는 젊은 나이에 서울에 올라가 많은 인사들과 친교를 맺고 사회활동을 시작했다. 그무렵 《운양》호사건이 일어나 우리 인민들

은 일제에 대한 증오심을 더욱 굳히게 되였다. 그런데다 또 놈들은 원산항을 내놓으라는것이였다.

이 사실은 리준에게 분격을 일으켰다.

《이런 날강도같은 놈들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는 이름있는 강수관, 홍우길 등을 찾아다니며 원산항을 내여준다는것은 매국행위라고, 절대로 그렇게 할수 없다고 력설하였다.

리준은 29살이 되던 해에 북청으로 돌아왔다. 그때 그는 과거(초시)에 합격하였다.

다음해부터 리준은 마음먹었던바대로 교육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는 가산을 두루 팔아 《경락원》이란 서원을 세웠다. 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여 국권을 추켜세워야 한다는 심산이였다.

그러나 정세는 더욱 긴장되여갔다.

일제놈들은 한발자국씩 점점 더 깊이 기여들었다. 리준은 다시금 서울로 올라갔다. 그는 법관양성소에 들어가 6개월간의 강습을 마치고 한성재판소의 검사보가 되였다. 이 자리야말로 그의 정직성과 성격의 특질을 발휘할수 있는 가장 적합한것이였다. 하지만 실지에 있어서 당시의 법관이란 꼭두각시에 불과하고 아무런 권한도 없었다. 그는 그속에서도 법을 공명정대하게 다스리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1개월을 못가서 퇴직당하고말았다.

그는 또다시 서재필 등의 인물들과 함께 《독립신문》을 내며 《독립협회》를 꾸리는 등 국권회복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해보려고 여러가지로 모색하였지만 날이 갈수록 일은 점점 꼬여만갔다.

그리하여 그는 1896년에 뜻있는 청년들과 함께 일본으로 갔다. 일본에서 그는 와세다대학에 입학하여 법학을 전공하였다.

그러나 거기에서의 생활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리준은 다시 독립협회로 되돌아왔다.

서울로 돌아온 그는 먼저 고종왕에게 6개의 조로 된 개혁안을 만들어 올리였다. 거기에는 국왕의 행동방침이 명시되여있었다. 외국에 절대로 의존하지 말데 대한 문제, 함부로 리권을 양보하지

말고 예산과 결산을 숨김없이 국민에게 공포할데 대한 문제 또한 중대한 범죄사건은 공판에 붙여야 한다는 등 여러가지가 지적되여있었다.

그렇게 되자 보수세력이 가만있을리 없었다.

수구파들은 리준을 비롯한 선진세력이 음모하여 나라를 뒤집으려고 한다면서 17명의 인사들을 붙잡아들이는 소동을 부리였다.

독립협회까지 해산당하고보니 억울함을 참을길 없었던 리준과 민영환 등은 《개혁당》을 조직하고 시기가 도래하면 참신한 새 정부를 세울것을 기도하였다.

리준은 1904년 6월 일제가 조선의 토지를 략탈하기 위하여 《황무지개간위탁계약서》조인을 강요하였을 때 반일정치단체인 《보안회》를 조직하고 놈들의 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에 앞장섰으며 이해 12월에는 친일매국단체인 《일진회》와 맞서기 위하여 애국적지식인들과 함께 공진회를 조직하고 그 회장이 되였다. 그들은 인민들을 투쟁에 궐기시키고 《일진회》주구들에 대한 테로에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들에게 차례진것은 공진회의 해산이였으며 리준과 그의 동료들에 대한 체포장이였다. 다음해에 가서야 민영환과 리용익이 힘써준 덕분으로 겨우 풀려나왔지만 그간 집안형편은 말이 아니였다. 부인이 겨우 가게방을 운영하여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그날그날을 연명해가는 형편이였다.

그러나 리준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1905년 5월에 《헌정연구회》를 조직하고 그 회장이 되여 근대적인 국가제도를 세우기 위한 활동을 벌리였다.

헌정연구회는 립헌군주제도의 수립을 당면한 방침으로 내세운 애국적지식인들의 정치단체였다.

이 시기 《을사5조약》이 날조되여 나라는 더욱더 심연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졌다. 수많은 인사들은 자결의 길로 들어갔다. 이제 더 살아서 무엇하겠는가 하는것이였다. 그래도 리준의 생각은 달랐다.

《내가 죽는것은 어려운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죽어 버린다면 누가 일을 하겠는가?》

그는 평리원(최고재판소) 검사로 취임함과 동시에 1906년 유성초, 전덕기 등과 함께 《국민교육회》를 내왔으며 《보광학교》를 세웠다. 아무래도 국권을 회복하려면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것이 그들의 주장이였다. 때문에 한시도 교육에 무관심하지 않았던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운동도 더욱 널리 벌리였다.

그는 《한북흥학회》의 조직을 발기해나섰고 여러 학회들의 사업도 맡아서 지도하였다. 또한 1907년 2월부터 대구의 애국문화운동가들에 의해 《단연회》가 조직된것을 발단으로 나라빚을 갚기 위한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되자 그 주요인물로 이 사업을 지휘하여 많은 돈을 모아들이였다.

리준은 왕태자의 재혼식을 리용하여 《을사5조약》에 관여한 대신들을 암살하려 했지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재판까지 받게 되였다. 그에게 내려진 형은 태형 백이였다. 그러나 고종은 그의 인품을 느끼였기에 태형 백이면 철직되여야 하므로 태형 70으로 낮추어주었다. 바로 이러한 때인 1907년 6월 네데를란드의 헤그에서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리게 되였다. 이것은 로씨야황제가 주최한 회의로서 제1차회의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 문제들을 결속하려는것이였다.

리준은 이 회의를 일제의 조선강점정책의 비법성에 대한 국제적 사회여론을 환기시킬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았다.

그는 만국평화회의에서 《을사5조약》이 일제의 강요에 의하여 날조되였다는것을 폭로함으로써 자본주의렬강들의 《동정》을 얻어 일제에게 빼앗긴 국권을 회복하려고 시도하였다. 리준의 이러한 시도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렬강들에 대한 환상으로부터 나온것이였다. 그리하여 리준은 리상설(전 의정부 참찬), 리위종(전 로씨야주재 조선공사관 서기)과 함께 헤그로 갈것을 결심하고 그 준비를 다그쳤다. 그들은 국왕을 설복한다면 이 일이 성사될수 있을것이라고 타산했다.

당시 국왕 고종은 한편으로는 애국적인민들의 노호한 항쟁의 불길이 온 나라를 뒤덮고 다른 편에서는 왕실의 《안녕》과 《영화》를 《약속》한 간악한 일본놈들에게 나라의 실권을 하나하나 빼앗기고있는 형편에서 커다란 불안과 위구에 싸여있었다.

하기에 고종 역시 이 회의에 환상을 가지고 밀사들을 보냄으로써 국제적으로 여론을 환기시키며 세계의 동정을 얻어 일제에게 빼앗긴 국권을 회복해보려고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리준을 비롯한 3명의 애국지사들은 국왕의 친서를 받아가지고 서울을 떠나 1907년 6월 헤그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곧바로 의장인 로씨야대표를 만나 이 회의에 조선대표로 참가시켜줄것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로씨야대표의 대답은 랭담하였다.

《조선은 이미 일본의 보호국이므로 대표로서의 자격이 없소.》

《아니, 자격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리준은 기가 막혔다.

이자들의 주장이란 외교권이 없는 조선대표는 참석과 발언을 허락할수 없다는것이였다.

너무도 억울한 일이였다. 왕의 밀서를 받아가지고 나라의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수천수만리 먼길을 달려왔건만 그들에게는 랭대와 멸시만이 차례졌다.

《아, 조선은 과연 어디로 간단 말인가! 조선의 사나이들은 입을 가지고도 말 한마디 떳떳이 할수 없단 말인가!》

그러나 그대로 주저앉을수 없었다.

리준일행은 한편으로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운동을 벌리면서 다른편으로는 온갖 가능성을 다 리용하여 일제의 강도적인 조선침략책동을 폭로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로 넘어갔다.

그들은 헤그에 있는 국제기자협회연단과 각종 출판물을 리용하여 일제의 조선침략의 강도적목적과 범죄행위를 낱낱이 고발하면서 그를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조선인민의 의로운 투쟁을 지지해줄것을 세계의 공정한 여론앞에 열렬히 호소하고 또 하였다.

리준은 《한국사정》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하였고 7월 5일에는 만국평화회의에 호소문을 제출하였다.

호소문에서 그는 일본이 조선을 강점하고 외국과 교섭하는 권리마저 겁탈한데 대하여 열렬히 지적했다.

이 호소문을 듣는 각국의 대표들은 심심한 동정을 보내였으나 큰 나라들이 모든것을 쥐고 흔드는터이라 련민의 정을 보내는데 그치였을뿐이였다. 회의는 계속되였으나 여전히 조선대표의 참석은 허락되지 않았다.

리준은 분을 삭일수 없었다. 모든 가능성과 힘을 다 들여보았지만 결과는 너무도 랭혹하고 비참하기만 하였다.

《아,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돌아간단 말인가? 아니다, 아니다. 이대로는 절대로 돌아가지 못한다!》

리준은 회의장에 뛰여들어 일제와 공모결탁한자들의 모략을 폭로하는 싸움끝에 자기의 배를 갈라 죽는것으로써 이에 항거해나섰다.

그는 늘쌍 품고다니던 시퍼런 비수를 꺼내여 사나이로서 제 나라도 찾지 못한 그 《죄과》를 씻기 위해 배를 갈랐다. 붉은피와 검은 열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리준은 림종의 시각 마지막말을 남기였다.

《우리의 조국을 구원하십시오. 일본인은 조선을 유린하고있습니다. …》

리준은 이렇게 이국만리 타향에서 일제에 항거하여 생명을 바치였다.

《리준, 눈을 뜨게! 죽어도 고향땅에 묻혀야 하지 않겠는가. 리준, 한번만이라도 눈을 뜨게!》

밀사들이 매달려 흔들었지만 그는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밀사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아니라 피가 흘러내리였다.

피끓는 분기를 더는 참을수 없어 시퍼런 칼을 뽑아 자신의 배를 가르는것으로써 불의에 항거해나선 조선의 참된 아들 리준.

이것이 바로 조선근대력사에서 말하는 헤그밀사사건이다.

하지만 리준의 죽음으로도 조선대표들의 활동은 끝내 성공하

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벌린 활동은 일제의 침략적본성과 야수성을 만천하에 폭로하는데서 일정한 기여로 되였다.

일제침략자들은 헤그밀사사건에서 커다란 타격을 받자 그 책임을 모두 국왕에게 넘겨씌웠으며 이른바 《한국처리방침》이라는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내고 이또 히로부미놈에게 그 집행을 위임하였다.

이 《한국처리방침》은 국왕의 권한을 제한통제함으로써 헤그밀사사건과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고종왕을 내쫓고 그의 아들인 나어린 순종을 올려놓아 제 마음대로 하겠다는것이 골자이다. 말하자면 《고문정치》를 《차관정치》로 바꾸고 외교권만이 아니라 내정권까지 완전히 쥐자는것이였다.

이또놈과 손을 맞잡은 하세가와놈은 보병 1개 련대를 출동시켜 왕궁을 일거에 점령하였고 포병 1개 중대로는 서울시민들을 향해 포신을 쳐들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는 왕권을 강탈하였으며 매국역적 리완용을 불러들여 《한일합병》을 날조하는 력사의 큰 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리준의 넋은 살아있어 인민은 이자들을 용서치 않았으며 사방에서 원쑤를 단죄하는 거세찬 불길이 활화산처럼 타올랐다.

리준은 나라찾는 참다운 길을 몰랐고 손잡아 옳게 이끌어줄 령도자가 없었던것으로 하여 한많은 생애를 마치였다.

그의 의로운 행동은 시종일관 순결한 애국심의 발현이기는 하였으나 그 어떤 강대국도 나라의 독립을 선사하지 않으며 남의 힘으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할수 없다는 피의 교훈을 남기였다.

의병대장이며 독립군대장인
홍 범 도

1910년 6월 21일 연해주 우쑤리지방 남만비촌에서는 반일의병대장들이 모여 앞으로 반일운동을 보다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여기에는 류린석, 리범윤, 리남기, 리진룡, 홍범도 등 여러 반일의병장들과 애국문화운동자들이 참가하였는데 그들은 류린석을 13도의병도총재(총대장)로 하는 통일적인 조직인 《창의회》를 무었다.

진정 피끓는 사나이들의 회합이였다.

《죽기로써 맹세합니다. 왜놈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손에서 총을 놓지 않겠다는것을 맹세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땅에서 왜놈종자를 멸족시키고야말겠소.》

부르쥔 주먹들에는 서리발이 어리였다. 살아서는 결코 원쑤를 용서치 않겠다는 결사의 맹세였다.

이때로부터 일제를 반대하는 반일의병운동은 더욱 활기를 띠고 벌어졌다.

창의회성원이였던 홍범도는 함경남북도의 넓은 지역에서 적극적인 의병투쟁을 벌림으로써 왜놈들에게 된매를 안기였고 놈들을 전률케 만들었다.

홍범도는 1868년 평양성(외성)에서 살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여났다.

일찌기 부모를 잃은 그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밥을 빌어먹으면서 자랐다.

나이가 좀 들자 어느 한 부자집 머슴을 살던 홍범도는 1883년 병정으로 뽑히여 평양진위대에서 복무하게 되였다.

이때의 생활이란 그에게 있어서 참으로 고달픈것이였다. 그는 아무런 희망도 얻지 못한채 진위대의 고역을 참다못해 4년만에는 상관의 눈을 피해 탈출하는데 성공하였다.

그 어떤 호신책도 가지고있지 못한 홍범도는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산간벽지에 숨어살것을 결심하고 황해도 수안군에 있는 제지공장에서 로동자로 일하였다.

1894년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나고 조선에 대한 일제의 강점이 더욱 로골화되자 그는 함경도 허천땅의 대동금전판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던 그에게 마음씨 곱고 착실한 안해가 생겼다.

그후 홍범도는 금전판을 떠나 처가에 가서 화전을 일구어 농사를 지었으며 농한기에는 사냥을 하여 이름난 포수로 되였다.

홍범도는 기골이 장대하였으며 둥글넙적한 얼굴에는 구레나룻수염이 텁수룩하였고 머리에는 큰 상투가 얹어있었다. 얼핏 보면 매우 엄해보였으나 그 마음은 비단결같이 부드러웠다.

그러나 그는 과단성있는 실천가였으며 어떤 곤난에도 동요를 몰랐고 원쑤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는 강직한 품성을 지니고있었다. 뿐만아니라 의협심이 강했고 자기와 같은 처지의 가난한 백성들을 끝없이 동정했으며 힘자라는껏 도와주어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홍범도는 어려서부터 마른 일, 궂은 일을 가리지 않았기에 무슨 일에서든지 막히는데가 없었고 그 일솜씨로 하여 사람들을 놀래웠다. 하기에 그와 접촉하는 사람들은 하나와 같이 홍범도를 존경하였다.

10여년간의 포수생활과정에 부포연대장으로부터 포연대장이 되였으나 포수들은 그를 친형제와 같이 여기였다.

포연대장이란 포수들이 잡은 짐승을 지방관리들에게 바치는것을 맡아보는 사람이다.

홍범도는 포연대장을 하면서도 아첨이란 몰랐고 포수들의 리익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포수들의 총을 밤새워 고쳐주었고 그 수리방법과 탄약제조법, 수렵의 묘리들을 어린 포수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주었다.

이러한 때인 1905년 일제의 야수적인 강요로 《을사5조약》이 날조되자 이 비통한 소식에 온 나라, 온 강토는 분노의 치를 떨었다.

《황성신문》의 주필이였던 장지연은 11월 20일 신문에 실린 론설 《시일야방성대곡》(이날에 소리내여 크게 통곡하노라)에서 이렇게 썼다.

《…아, 통분하다. 우리 2천만 국민이 노예가 되여 살아야 하는가 죽어야 하는가. 건국이래 4천년 국민정신이 하루밤사이에 갑자기 멸망하고만단 말인가. 비통하다, 비통하다. 동포여, 동포여.》

의분에 불타올라 심장을 쥐여뜯던 홍범도는 1907년 가을 삼수산간오지의 포수들의 화승대마저 제놈들의 가슴을 겨눌가 두려워 모조리 빼앗아가는것을 보자 앉아서 죽느니 차라리 총을 들고 일어나 왜놈들과 끝까지 해볼것을 결심하고 의병대를 무었다.

《앉아서 죽기를 기다릴수야 없지 않는가. 일어나 싸우자! 도적무리들의 씨를 말리자!》

이들의 기세는 무서운것이였다. 생계유지의 기본수단인 화승대마저 빼앗아가니 더는 참을수 없었던것이다.

그 시기 사곳에서 의병이 일어났지만 그 활동에서 가장 두드러진것은 홍범도의 대오였다. 하기에 함경도주민들은 홍범도의 병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원호해나섰으며 앞을 다투어 여기에 참가하였다.

홍범도는 일제놈들이 조선군대까지 해산한 조건에서 군인들과 포수들을 주력으로 하여 그 체계도 산악지대에 알맞도록 편성했다. 지휘부에는 총대장과 부대장, 군량도감, 도검사를 두었다.

홍범도는 자신을 총대장으로 하였다.

군량도감은 의병들의 식량, 피복 등을 해결하도록 하였고 도검사는 부대내의 규률을 세우고 이와 함께 일제놈들의 앞잡이들인 《일진회》나부랭이들의 죄상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지휘부산하에는 중대들을 두고 그아래에는 소대를 두었으며 또한 분대를 두었다.

분대성원은 25명정도, 소대성원은 50명으로 하였다. 분대지휘자를 분대장, 소대지휘자는 오십장이라고 칭하였다.

중대는 2～3개의 소대로 되여있는데 그 지휘관은 《참위》라고 이름하였다. 이렇게 의병대는 현대적인 면모를 갖춘 전일적인 대오로 정비되였다.

홍범도의병대에는 본래 포수들이 기본 참가하였으므로 화승대가 많았으나 그것은 장약과 장탄이 불편하고 비가 오면 습기로 하여 사용하기 곤난했으므로 이것을 근대식총으로 개조하였다. 그리고 적의 오련발총을 빼앗아 리용하였으며 부족되는 무기와 탄약을 보충하기 위하여 자체로 쇠돌을 녹여 화승대를 만들고 철알을 부어내였다.

그가 어려운 환경에서 이처럼 화승대와 탄환을 만들어썼다는 것은 홍범도의 애국심을 여실히 들여다보게 한다.

홍범도의병대가 진행한 첫 싸움은 1907년 11월 22일 풍산군(오늘의 김형권군) 파발리에 기여든 왜놈군경들과 그 주구놈들을 쳐부신 격전이다. 이날 왜놈들은 《총기 및 화약류단속법》에 따라 포수들이 가지고있는 렵총들을 회수하기 위하여 기여들었다.

미리 적의 기동을 알게 된 홍범도는 왜놈들이 기여들자 앞장에서 사자처럼 달려나갔다.

《한놈도 남기지 말고 죽여버리라!》

그의 호령소리는 산악을 울리였고 질풍같은 발걸음은 원쑤놈들을 기절케 하였다.

이날 왜놈들은 단 한명도 살아돌아가지 못하고 전원 몰살되였다.

첫 싸움에서 사기가 부쩍 오른 홍범도의병대는 다음날인 11월 23일 혜산진으로 가는 왜놈들의 우편마차를 습격하여 두번째 승리의 개가를 올리였다.

세번째 접전은 그 다음날인 24일 삼수, 갑산지방으로 드나드는 길목에 있는 북청 후치령에서 벌어졌다.

홍범도의병대는 뒤로 물러서는척 하면서 적을 유리한 골짜기로 끌어들여서는 불의타격으로 죽탕을 만들었다.

대부분이 난다긴다 하는 포수들로서 날렵한 몸동작과 명사격술을 소유하고있는지라 아무리 훈련된 부대라 할지라도 산악에서 이들을 당해낼수는 없었다. 거기에 대장인 홍범도의 기개는 감

히 견주지 못하는것이였다.

번개같이 나타나 싸움판을 쭉 가르며 왜놈들을 들이족치는 그 모습에 원쑤놈들은 기겁을 하였다. 이날 싸움에서도 적들은 전부 황천객이 되고말았다. 이어 25일 전투에서는 미야베중대를 섬멸하였다.

홍범도는 이로써 후치령을 완전장악하고 삼수, 갑산지방으로 드나드는 왜놈은 그냥 두지 않았다. 하기에 놈들은 이 령을 간단한 소부대로는 올라설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홍범도의병대는 한편 각곳의 악질주구놈들을 조사장악해서 면바로 요정을 내버리군 하였다.

싸움이 끝난 저녁이면 홍범도는 대원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총도 수리해주고 풀어진 신발끈도 형님같은 큰 손으로 다시 매주었다. 그리고 원래 포수들의 기질을 살려 산짐승도 많이 잡아 푸짐히 차려놓고 승전의 축배를 나누기도 하였다. 그럴 때면 그들은 두고온 부모처자들을 그리였고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완전독립된 그날에 누릴 이 땅의 생활을 상상해보기도 하였다.

《그땐 자네 무얼 하겠나?》

《나야 포수이니 짐승을 잡아야지.》

홍범도는 대원들과 한덩어리가 되였다. 진정 맏형이였다. 하기에 대원들은 큰일, 작은일 가림이 없이 그에게 알려왔고 그럴 때면 그는 제 일처럼 나서서 끝까지 해결해주고야말았다. 싸움의 나날은 이렇게 계속되였다.

왜놈들은 1907년 12월 31일 대병력을 동원하여 당시 의병대가 자리잡고있던 삼수성으로 갑자기 들이닥쳤다.

의병들은 견고한 성에 의지하여 강력한 반격을 가하였다.

홍범도는 백발백중의 명사격술로 왜놈들을 련속 쓸어눕혔다.

놈들은 혜산진과 갑산수비대까지 동원하여 의병대에 대한 포위공격을 들이댔지만 홍범도의 침착한 지휘와 의병들의 대담무쌍한 투지로 하여 수많은 손실만을 입고 불과 3시간만에 부랴부랴 퇴각하고말았다.

홍범도는 갑산수비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그에 기초

하여 불의에 기습할 계획을 세밀하게 세운 후 곧 공격에로 넘어갔다.

1908년 1월 10일의 이 공격으로 갑산《수비대》와 일본놈순사를 비롯한 그 주구배들이 일망타진되였으며 21일에는 세곡천지평골짜기에 기여들었던 《토벌대》놈들이 매복전에 걸려 전멸되였다.

5월 4일에는 《귀순》을 설교하는 적들의 집요한 회유책동을 짓부시고 북청《수비대》에서 보낸 순사대를 들이쳐 몰살시켰다.

이와 같이 홍범도의병대는 1907년 11월부터 1908년 9월경까지의 기간에만도 37회의 크고작은 싸움을 벌려 적들에게 커다란 인적 및 물적손실을 주었으며 북부지방 인민들의 반일애국기세를 북돋아주는데서 혁신적성과를 거두었다.

어느날 산막을 오락가락하면서 작전을 구상하던 그의 큰 어깨가 기세좋게 물결쳤다.

싸움을 해보니 왜놈잡이나 짐승잡이나 별반 다름이 없었다.

《넓은 지역을 차지해야겠어. 쥐새끼같은 왜놈들을 모조리 쳐없애버려야 해.》

홍범도는 일부 의병들을 후창, 장진방면으로 이동시켜 보다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무장투쟁을 벌리도록 하였다.

그는 후창읍공격을 계획했다. 1909년 4월 후창읍에 몰켜든 왜놈《토벌대》를 섬멸하는 본때있는 싸움이 벌어졌다.

《악독한 왜놈들을 한놈도 놓쳐서는 안된다!》

바위같은 그의 어깨가 오르내리더니 벌써 몇놈의 왜놈이 나가자빠지고 그의 손길이 미치는 곳마다 떼죽음이 일어났다.

바빠맞은 왜놈들은 북청, 성진(당시), 함흥《수비대》까지 총동원하여 홍범도의병대에 대한 공격을 들이댔으나 그때마다 저들의 시체만 덧쌓일뿐이였다.

때문에 그 시기 이 지방 인민들은 홍범도의병대의 용감한 투쟁을 찬양하여 이런 노래(민요 《의병대가》)를 지어불렀다.

홍대장 가는 길에는 일월이 명랑한데
왜적군대 가는 길에는 눈과 비가 내린다

에헹야 에헹야 에헹에헹 에헹야
왜적군대가 막 쓰러진다

오련발탄환에는 군물이 들고
화승대구심에는 내굴이 돈다
에헹야 에헹야 에헹에헹 에헹야
왜적군대가 막 쓰러진다

홍범도대장님은 동산리에서
왜적순사 열백놈 몰살시켰소
에헹야 에헹야 에헹에헹 에헹야
왜적군대가 막 쓰러진다

왜적놈이 게다짝을 물에 버리고
동래부산 넘어가는 날은 언제나 될가
에헹야 에헹야 에헹에헹 에헹야
왜적군대가 막 쓰러진다

이것은 홍범도의병대의 승리를 축원하는 인민들의 절절한 감정인 동시에 왜놈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의 반영인것이다.

191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제의 대규모적인 《토벌》이 강화되자 홍범도는 의병대를 이끌고 1910년 가을 압록강을 건너갔으며 그후에도 계속 일제를 반대하는 치렬한 투쟁을 벌리였다.

홍범도의 의병대는 처음에 장백, 무송지방에 본거지를 정하고 활동하였다. 이 일대에서 대오를 확대하기 위하여 힘쓰는 한편 연해주지방으로 오가면서 그곳에서 새로 무장대를 조직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벌리였다.

이 시기 홍범도에 의하여 조직된 《포수단》, 서일 등에 의하여 조직된 《중광단》을 비롯하여 중국동북지방에 조직된 적지 않은 반일운동독립단체들은 독립군운동을 위한 준비사업의 일환으로 각기 자기의 활동지역안에 병영을 세우고 애국청년들을 모집하

여 민족주의교양과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일정한 군사간부들을 키워냈다.

종래와 같은 산만하고 우발적인 의병운동이나 애국문화운동으로써는 결코 민족적독립을 이룩할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으로부터 일제강점초기 중국동북지방과 연해주지방에서 추진된 독립군운동의 준비사업은 부르죠아민족운동안의 두 갈래의 지도층들에 의하여 제각기 진행되였다. 그 하나는 홍범도를 비롯한 이전의 반일의병장계렬의 인물들이며 다른 하나는 리동휘를 비롯한 이전의 애국문화운동가들 특히 《신민회》계렬의 애국적지식인들이였다. (신민회－1907년 9월에 량기탁, 신채호, 리동휘, 리갑, 리승훈등을 주동인물로 한 애국적지식인들이 조직한 반일적인 비밀정치단체. 리상재, 장지연, 박은식 등 이름있는 애국문화활동가들도 망라.)

당시 동북지방으로 넘어간 조선의 뜻있는 애국자들은 많은 독립단체들을 조직하였다.

홍범도의병대는 그중 당당히 무장을 갖춘 큰 대오로서 싸움마다에서 언제나 그 선봉에 섰으며 그때마다 커다란 전과를 올리였다.

중요하게는 청소한 쏘베트로씨야에 대한 일제의 무력간섭을 반대하여 무장으로 적극 옹호하였다.

홍범도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였지만 공산주의운동을 배척하지 않았으며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애국활동을 시작한 사람이였으나 그 울타리안에서만 맴돌지 않았고 민족주의운동자체에 대해서도 절대시하지 않았다.

홍범도는 이전 쏘련의 공민전쟁당시 붉은군대와 원동빨찌산에서 적지 않은 공로를 세웠으며 그 과정에 독립군대표로 모스크바에 가서 레닌까지 만나보게 되였다.

후의 일이지만 1920년대 로씨야원동의 공산당조직에서는 연해주에서 활동하고있던 홍범도에게 원조까지 요청하였다.

당시 독립군 상층부의 일부 편협한 인물들은 조선사람이 제 발등의 불도 끄지 못하면서 남을 위해 피를 흘리는것은 머저리짓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홍범도는 머리를 저으며 왜놈을 치는 군대는 다 우리 편이라고 하면서 붉은군대를 피로써 도와주었다.

홍범도가 관여한 싸움가운데서 가장 유명한것은 이만격전이였는데 독립군부대들이 얼마나 용맹하게 싸웠는지 이 전투가 있은 다음부터 일본군과 백파군은 조선말구령소리만 들어도 벌벌 떨면서 도망쳤다고 한다.

홍범도는 부하들에게 쏘련은 세상에서 처음으로 무산자들의 공화국을 세운 나라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도와주어야 한다고, 외로운 처지에 놓여있는 나라이니 어려운 일인들 얼마나 많겠는가고 대원들을 일깨웠다.

공부 깨나 했다고 으시대던 고루한 인물들보다야 얼마나 궁냥이 트인 말인가!

전민족적인 반일항쟁인 1919년 3.1인민봉기를 계기로 이미전부터 독립군운동준비사업을 벌려오던 일부 민족주의자들은 드디여 독립군부대들을 무어 반일의병운동의 계속으로서의 독립군운동을 벌리기 시작하였다.

다시 북만으로 활동기지를 옮긴 홍범도는 400명의 인원으로 《조선독립군》을 꾸리고 그 총사령이 되였다.

조선독립군은 1919년 6월 간도의 연길현 명월구, 왕청현 봉오골을 거점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1919년 8월 홍범도는 조선독립군부대의 200여명을 거느리고 은밀히 국내에로 들어와 갑산, 혜산 등지를 오가면서 여러번 일제침략군병영을 습격하여 이 일대의 일제식민지통치에 타격을 주었으며 뒤이어 10월에는 또다시 부대를 인솔하고 강계와 만포, 자성 등지를 기습하여 수많은 침략군놈들을 저승으로 보내였다.

독립군부대들의 활동이 벌어지자 이에 당황한 놈들은 그것을 말살하기 위하여 1920년 5월 상순부터 7월 중순까지의 기간에 여러차례 봉천(심양)에서 비밀모임을 벌려놓고 장작림(1875～1928, 중국 북양 봉계군벌의 우두머리)으로부터 제놈들의 군대, 경찰들이 직접 수사반을 무어 봉천성안의 우리 나라 애국자들에 대한 검거를 진행하며 간도지방에 일제군대를 침입시켜 독립군부대를 《토벌》

할수 있는 《담보》를 받아내는 등 갖은 발악을 다하였다.

야스가와소좌놈이 거느리는 한개 련대의 병력과 남양수비대가 봉오골로 쳐들어온다는것을 안 홍범도는 서일의 《북로군정서》에 속하여있던 다른 부대들과 련합하여 놈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안길 계획을 세웠다.

1920년 6월 4일 독립군은 홍범도의 지휘밑에 봉오골에 기여든 일제침략군의 일부를 유리한 지점으로 유인하여 호된 불벼락을 안김으로써 120여명을 살상하는 전과를 올리였다.

또한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기 위하여 화룡방향으로 이동하던 독립군부대들과 일제침략군사이에 불의조우로 벌어진 10월 21일의 화룡현 청산리전투에서는 련합부대의 지휘관으로서 싸움을 능숙하게 총지휘하여 근 1 000명의 놈들을 소멸하였다.

그후 홍범도는 흑룡강일대에서 여러 독립군부대를 통합하여 독립단을 조직하고 자신은 부총재가 되였으며 1921년에 부대와 함께 쏘련 원동지방으로 가서 붉은군대와 함께 일제침략군 및 백파군을 반대하여 격전을 벌리였다.

쏘련 원동지방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무력간섭이 끝장남과 때를 같이하여 독립군운동을 그만둔 그는 그후 농업에 종사하다가 1937년 중앙아시아의 까자흐스딴으로 이주하여 살던중 아쉽게도 병으로 사망하였다.

홍범도는 어려운 속에서도 자체로 무기와 탄약을 만들어가면서까지 일제와 굴함없이 싸웠으나 정확한 투쟁로선을 가지지 못했고 탁월한 수령의 통일적인 지도를 받지 못하였으며 또한 부대들사이의 긴밀한 작전적련계가 없이 자연분산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함으로 하여 더 거둘수 있는 성과를 이룩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일제의 침략정책에 커다란 파렬구를 낸 홍범도를 비롯한 애국렬사들의 견결한 무장투쟁은 우리 인민이 결코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는 어떠한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는 고결한 애국정신의 소유자라는것을 다시한번 뚜렷이 과시하였다.

애국적인 어학자이며 교육자인
주 시 경

《얘들아, 제일 높은 덜렁봉에 올라가면 저 하늘의 구름을 만져볼수 있지 않을가?》

봄날이여서 하늘은 맑고 아득히 높은데 산중턱에 뭉치구름이 걸려있었다.

주시경이 아이들을 추동하여 산으로 오르기 시작하였다. 구름을 한번 손으로 만져보고싶었던것이다.

그런데 산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구름은 그만큼 더 높이 올라가는것만 같았다.

산은 오를수록 험하고 숨은 턱에 닿았다. 아이들은 하나둘 떨어져나가고 이제는 주시경이 하나만 남았지만 구름뭉치는 처음보다 더 먼것이였다. 이제야 그는 하늘이란 그 끝이 없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아, 구름이란 만져볼수 없는 모양이구나.》

주시경은 하늘이 산봉우리에 닿은것처럼 보인것은 산밑에서 잘못본것이라는것을 비로소 알게 된것이 기뻤다. 멀고 가까움의 차이로부터 오는것임을 알게 된것이다.

비록 산꼭대기까지 오르느라고 고생은 하였지만 얻은것은 귀중한것이므로 주시경은 히쭉이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는 산을 내리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구름을 손에 잡으려 직심스레 산을 오르던 소년이 바로 후날의 계몽운동시기 조선어를 지키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 조선어학자이며 교육자인 주시경이다.

그는 민족고유의 국문연구에서 많은 업적을 쌓은것으로 하여 근대조선언어학사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인물로 된다.

그는 호를 한희샘으로 하였는데 이것은 우리 민족의 깨끗하고 고결한 성품을 의미한다.

주시경은 1876년 11월 황해도 봉산군의 가난한 선비의 집안에서 태여나 어린시절부터 온갖 고초를 다 겪으며 자라났다.

어린시절 자신이 겪은 고통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회고하였다.

《아버님께서는 해마다 과거를 보러 다니시고 집안일을 돌보는이가 없으므로 집이 어려운데다가 지난해는 농사가 오르지 못하여 정월을 넘기지 못하고 먹을것이 떨어졌다. 그러므로 누님과 함께 들에 나가서 달래를 캐고있다가 어머님께서 기다리기가 어려우시리라 하고 그릇에 차지 못한것이나마 먼저 어머님께 갖다드리겠다고 하고 돌아왔다. 가다가 앞내에서 그 달래를 씻고있자니 두루마기를 입은 선비 두사람이 그 길로 지나다가 앉으며 나더러 달래를 좀 달라 하기에 그 얼굴을 보니 주림을 이기지 못해하는 빛이라 그 달래를 그릇채 드리였다. 그러니 그들이 반쯤 먹다가 도로 내여주며 〈너도 배가 고파서 캐온것을 우리가 다 먹을수 있느냐.〉 하고 일어서서 딴데로 가는것을 보고 집으로 와서 어머님께 그 사연을 말씀드리였다.

어머님께서 이야기를 듣고 혀를 차시며 〈오죽해야 네가 씻는 달래를 달라고 하였겠느냐. 어서 도로 가지고가서 다 자시라고 하여라.〉 하신다. 어머님분부대로 즉시 나가 사방을 찾아보아도 그들을 볼수가 없어서 도로 집으로 오니 어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간 뒤 웬 젊은 손 둘이 옆집에 와서 먹을것을 청하니 그 집에서도 아침밥을 다 먹은 뒤라 어찌할줄을 모르는데 솥누룽지라도 있으면 좋다고 하여 그것을 얻어먹고 가는것을 보았다. 이제 내 마음이 놓이니 그 남은 달래를 우리가 먹자고 하시더라.》

이 한가지 사실을 보고서도 그가 어린시절부터 얼마나 고달픈 생활을 해왔는가에 대하여 알수 있으며 가난속에서도 서로 위하고 도와주려는 그 가정의 아름다운 가풍에 대하여 짐작하게 되는것이다.

주시경은 6살부터 12살까지 고향에서 한문을 배웠고 13살부터 17살까지 서울에 올라와 작은아버지의 양자로 있으면서 유학공부를 하였다.

그는 공부를 하는 과정에 쓰기도 까다롭고 읽기 또한 어려운 한문을 하는것이 아니라 국문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였다.

글이란것은 말을 적으면 족할것인데 한문같이 거북하고 어려워서야 학식을 받아들이기에 어찌 장애가 되지 아니하랴.

만일 우리 글로 한문을 대신하여 쓸것 같으면 배우기 쉽고 쓰기에 편하여 다 좋을것이 아닌가.

그런데 사람들이 한문을 숭상하는것은 우리 글이 잘 다듬어져있지 못하여 사람들의 문화의식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까닭이니 애달픈 일이다.

주시경은 이런 생각을 점차 무르익히면서 자신이 조선어를 깊이 연구하여 그 법을 세우고 잘 다듬어 훌륭한 글이 되게 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지였다.

그는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나자 분연히 여기에 참가하였으며 이 싸움이 실패로 끝나자 고향에서 계몽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더욱 가다듬게 되였다.

이 시기 봉건정부는 《우리 글을 써야 하겠다.》는 우리 인민들의 지향과 드세찬 요구에 못이겨 국문을 기본으로 하여 국한문을 혼용하여 쓰는 법령을 내였으며 결과 출판물들도 일부 국문으로 간행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힘을 얻은 주시경은 1894년 배제학당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그에게는 학비가 없었다.

그는 남의 집 고용로동, 심부름, 인쇄소의 잡일 등 어느것이든 닥치는대로 마다하지 않고 학비를 벌면서 배웠다. 이 시기 그는 신학문을 공부하면서 국문통일운동을 발기하고 학생들속에 《국문동식회》를 조직하여 국문표기의 통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시경은 1896년에 첫 순 국문신문인 《독립신문》을 발간하

고 그 기자로 활동하였다. 1897년에 그는 두편의 《국문론》에서 우리 나라 글자인 《정음문자》가 로마글자보다 더 우수하다는것을 강조하면서 우리 글자는 세상에서 가장 쉽고 가장 간편한 글자로서 세상사람들의 공정한 의론을 듣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 글자가 그 으뜸이 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1904년부터 주시경은 서울 보성학교와 상동학원에 국어일요강습소를 내오고 그것을 거점으로 서울시내의 청년학생들에게 국어교육을 주었다.

그는 1906년 10월 박은식과 함께 평안남북도와 황해도의 넓은 지역을 활동대상지로 삼은 애국문화운동단체인 《서우학회》를 조직하고 이 단체의 기관지인 《서우》편집원으로 활동하면서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갔다. 그는 《서우》(1906년 제2호)에 《국어와 국문의 필요》라는 글을 발표하여 모국어인 우리 말과 글을 사랑하고 널리 쓸데 대하여 해설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남의 나라를 빼앗고저 하는자 그 말과 글을 없이하고 제 말과 제 글을 가르치려 하며 그 나라를 지키고저 하는자는 제 말과 제 글을 유지하여 발달코저 하는것은 고금천하 사기(력사기록)에 많이 나타난바라…지금같은 세상을 당하여 특별히 영, 일, 법(프랑스), 덕(도이칠란드) 등 여러 외국말을 배우는이도 반드시 있어야 할지라. 그러나 전국인민의 사상을 돌리며 지식을 다 넓혀주려면 불가불 국문으로 각색학문을 저술하며 번역하여 무론 남녀하고 다 쉽게 알도록 가르쳐주어야 될지라.

…지금 이후로 우리 국어와 국문을 업수이 여기지 말고 힘써 그 법과 리치를 궁구하며 자전(사전)과 문법과 독본들을 잘 만들어 더 좋고 더 편리한 말과 글이 되게 할뿐아니라 우리 온 나라 사람이 다 국어와 국문을 우리 나라 근본의 주장글로 숭상하고 사랑하여쓰기를 바라노라.》

주시경은 1907년 민족어의 통일적규범을 확립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목적으로 봉건정부의 학부(교육행정을 맡은 부)안에 《국문연구소》가 나왔을 때 주동적인 위치에서 국문의 원리와 연혁, 현재의 통용과 장래발전 등의 방법에 관한 연구를 심화시킴으로써

가치있는 여러가지 리론실천적문제들을 해결하였다.

일제침략자들은 1910년 우리 나라를 완전히 강점한 다음 총독정치를 실시하면서 《관공서와 재판소 및 그밖에서 쓰는 모든 공용어를 일본말로 한다.》고 선포하였다. 《모든 공용어를 일본말로 한다.》고 한것은 곧 우리 인민이 자기의 민족어이며 국어인 조선말을 쓰는 권리를 짓밟고 제놈들의 일본말을 국어로 강요하는 강도적요구였다. 이것은 우리 민족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공통성의 하나를 빼앗음으로써 우리 민족을 영영 없애버리려는 죄악적인 민족말살, 민족동화책동의 집중적표현이였다.

그리하여 우리 민족어의 창조자이며 주인인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줄기찬 투쟁과 함께 주시경을 비롯한 애국적인 언어학자들과 문학가들을 비롯한 선진적인 지식인, 문화인들도 민족어와 민족문화를 지켜내고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국문운동)에 떨쳐나섰던것이다.

주시경은 민족을 이루는 세가지 기본징표가운데서 가장 우위적이고 핵을 이루는것이 언어라고 보았다. 때문에 그는 자기의 저서 《국어문법》 서문에서 이렇게 쓰고있다.

《…그 역(지역)은 독립의 기(터전)요, 그 종(피줄)은 독립의 체(몸)요, 그 언(언어)은 독립의 성(본질)이라 이 성이 없으면 체가 있어도 그 체가 아니요, 기가 있어도 그 기가 아니니 그 국가의 성쇠도 언어의 성쇠에 있고 국가의 존부도 언어의 존부에 있는지라.

이때문에 고금천하렬국이 각각 자국의 언어를 존경하고 숭배하며 그 언을 기록하여 그 글을 각각 만드는것이 다 이를 이르는것이다.》

주시경은 민족국가는 근저에 있어서 같은 말을 쓰는것으로 하여 이루어지므로 언어를 그 나라의 본질이라고 지적하였다.

때문에 말과 글을 민족의 존망과 국권회복에서의 기본문제, 관건적인 문제로 보면서 여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나서게 되였다.

그는 자기의 연구사업에서 먼저 국어문법에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이 시기의 연구사업이 주로 질서가 잡혀있지 않는 국

어를 규범화하며 그에 따라 새 세대들을 교육하는 문제에 귀착되였던것이다.

주시경은 이미 1898년에 처음으로 《국어문법》을 썼으며 이를 개작하여 1906년 《대한국어문법》을 저술했는데 이것은 당시 학생들의 조선어문법교과서로 리용되였다. 그후 연구를 거듭하여 1910년 《국어문법》을 출판했고 1911년 《조선어문법》이란 이름으로 다시 찍었으며 1913년에 재판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품사분류에서와 토에 대한 문제, 문법적범주의 설정에서와 존경법과 말차림법에 대한 문제, 문장론에서의 문장성분의 단위와 갈래문제 등 서사규범상 문제처리에서 근대어적이고 과학적인 리론과 체계를 자체로 세우려는 창조적이며 적극적인 립장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이 시기 언어학연구의 경향을 보게 되면 일련의 특징들이 나타났다.

당시 중세봉건적인 낡은 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자본주의적 관계에 맞게 근대사회를 건설하려는 요구는 언어생활령역에서도 변혁을 필요로 하였던것이다.

가장 특징적인것은 앞시기에 보인 토형태의 통합적과정이 거의 완성되고 사회의 근대화과정을 반영한 수많은 새 어휘가 늘어났으며 문체에서 국한문체와 공문서체의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고 과학문체, 연설문체 등 여러가지 문체가 점차 독자적인 특성을 뚜렷이 하는 등 일련의 발전이 이룩된것이다.

주시경은 문법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조선어문법의 기본틀거리를 형성하였고 그것을 규범화하는데 성공하였다.

다음으로 주시경은 어음론도 깊이 연구하였다.

어음론에 관한 그의 리론은 저서 《국어문전음학》(1908년)의 《국문의 음학》이라는 편에 집중적으로 반영되였고 《말과 소리》(1910년), 《국어문법》 등에 체계적으로 서술되였다.

그는 음이라는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들을수만 있다고 하면서 음을 유별성과 무별성으로 나누어 우뢰소리, 바람소리, 나무소리, 물소리들은 무별성이며 사람의 말은 유별성이라고 하

였다.

여기에서 유별성은 인간이 살아 활동하는데서 매우 긴요하게 쓰이는것으로서 이것을 자음과 모음으로 구별하였다. 유별성에서 홀로 소리나는것을 모음으로 보았고 홀로 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다만 모음에 붙어서만 소리내는것을 자음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자음은 모음에서 생기는것이 아니고 모음에 의해서만 즉 모음에 붙어서만 소리를 낸다고 하였다.

주시경은 어음론에서 모음과 모음 또는 자음과 자음이 서로 이어쓰일적에 일어나는 어음변화현상과 어음교체현상에 대해서도 새로운 문제점을 내놓았다.

그는 훈민정음과 그이후 문자체계에 대하여 력사적으로 고찰하여 보여주면서 당시 쓰이지 않거나 생활력이 없어진 자모의 음가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주시경은 표기법에 대해서도 새로운 견해를 발표했다.

그는 그 시기 표기법의 무질서와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 글자가 표음문자인 특성을 고려하여 그 표기법은 응당 조선어의 실지 어음상태에 맞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받침밑에 모음이 올때 그 받침을 내려적거나 받침이 여러가지로 발음되는데 따라 쓰던 편향을 바로잡고 형태부(단어에서 뜻을 가지고있는 가장 작은 단위; 말뿌리, 뒤붙이, 앞붙이, 토가 속한다.)를 정황에 따라 다르게 쓸것이 아니라 언제나 같은 형태로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표기법에서 형태주의적철자원칙을 관철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우리 글자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어떤 때는 가로 쓰고 어떤 때는 세로 쓰고있는 편향에 대하여 지적하고 우리 글은 반드시 가로 써야만 앞뒤가 순탄하고 편리하며 인쇄에서도 좋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말의 소리》 서문에서 《가로글은 쓰기와 보기와 박기에 가장 좋으리라.》라고 적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선진적인 주장이였다.

또한 그는 《말의 소리》 책끝에 《우리 글의 가로 쓰는 익

힘》이라고 하고 우리 글을 풀어서 가로쓴 주목할만한 례를 들었다.

이것은 아직 네모글자를 다만 풀어쓰기만 하고 다른 부호와 섞갈릴수 있는 두 글자만을 조금 고쳤을뿐이므로 더 고치고 세련시켜야 할 부족점을 가지고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개혁이 당시의 사회정치적조건에서는 절대 실현불가능한것이였으나 사회의 발전에 따르는 시대적요구를 일정하게 반영하여 우리 글자를 고치려고 애를 썼다는데 그 의의가 있는것이다.

주시경의 이러한 구체적인 연구에 의하여 우리 글의 혼란된 표기법을 바로잡고 통일적인 표기규범을 작성할수 있는 기초를 가지게 되였다.

주시경은 또한 어학의 형태론(문법학의 구성부분의 하나; 문장론과 나란히 단어의 문법구조를 연구하는 분과이다.)에 대한 연구도 심화시켰다.

그는 여기에서 품사론, 토 등에 대한 문제를 대체로 오늘의것과 거의 일치시켰다. 그는 6개 품사로부터 9개 품사로 분류기준을 세워 새롭게 정리하였고 일련의 문법적범주도 설정하였다.

뿐만아니라 문장론연구에서도 성과를 거두었는데 문장을 성분으로 가르고 도식화하였으며 이중주어문장의 구조와 복합문의 구조적류형도 분석했다.

이러한 주시경의 활동을 총괄해볼 때 중요하게 그는 조선어음론의 리론적토대를 구축하고 조선어문법체계에서 주체성을 세울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고 할수 있다.

주시경은 자기의 저서 《말의 소리》에서부터 그 모범을 보이였는데 여기서 그는 모든 내용을 한자를 전혀 쓰지 않고 우리 글로 알기 쉽게 서술하였고 특히 학술용어까지도 모두 고유한 우리 말로 만들어썼다.

이것은 일제놈들이 모든 과학기술분야에 제놈들의 일본말용어를 침투시키려고 미쳐날뛰던 시기에 씌여졌다는것으로 하여 매우 대담한 시도이다.

이처럼 그는 일제놈들의 악랄한 민족어말살책동으로부터 조선어

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겹쳐드는 고생도 마다하고 한생을 다 바친 열렬한 애국자이며 학자였다.

그는 항상 《조선은 자는 범이다. 반드시 잠에서 깨여날 날이 있다.》고 자기의 제자들을 고무하면서 우리의 얼은 깊숙이 있다고 하였다.

그는 이런 동요까지 지어내였다.

범아 범아 자는 범아
잘납을 뛰랴느냐 울납을 뛰랴느냐

그는 이 동요를 래일의 주인공들인 학생들에게 남겨주었던것이다.

주시경은 왜놈들의 105인사건(1911. 12)으로 앞으로의 큰뜻을 위해 망명을 기도하던중 1914년 7월 자기의 념원을 끝까지 이루지 못한채 38살의 짧은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되였다.

(105인사건—일제가 이른바 데라우찌총독암살미수사건으로 체포한 민족운동자들에게 중형을 들씌운 사건)

그는 자기의 제자들에게 조선어연구의 완성을 부탁하면서 눈을 감았던것이다.

그후 주시경의 제자들은 그 뜻을 받들어 우리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한 애국운동을 줄기차게 벌리였으며 많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오늘 조선어학사는 주시경이 우리 말연구에서 남긴 업적을 특별히 기록하고있으며 후배들은 그가 소원하던대로 조선어를 세계 1등급의 세련된 언어로 다듬어나가기에 힘쓰고있는것이다.

이또를 쏴눕힌 렬사 안중근

안중근은 보안회의 문을 힘있게 두드렸다.

회장과 마주앉은 안중근의 가슴은 세차게 높뛰였다.

《회장님, 한일합병이란 무슨 말입니까?!… 우선 이것을 조작한 이또와 하야시를 비롯한 일본놈들과 매국역적들부터 도살해버려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회장과 그 일행은 벌써 겁먹은 기색이다.

《내 이미 장정 20여명을 준비하였으니 30명만 주시면 50명의 결사대로써 기어코 해내고야말겠습니다.》

하지만 회장과 회원들은 이 피끓는 청년의 열변에 이렇다할 대답조차 하지 못하는 《위인》들이였다.

안중근은 가슴이 답답하여 문을 차고 밖으로 뛰쳐나오고말았다.

《벌레만도 못한 목숨으로 어찌 나라와 백성을 구할수 있단 말인가. 저들로써는 안되겠구나.》

안중근은 의병을 무으려다가 신병으로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내가 어찌 이곳에 편안히 있을수 있으리오!》

그는 안타깝기만 하였다.

안중근은 1879년 5월 황해도 해주에서 진사 안태훈의 맏아들로 태여났다. 일찌기 개화한 우국지사의 가정에서 자라난 그는 어려서부터 의협심이 강했고 대담성과 희생정신이 높았다.

특히 아버지의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안중근은 대가 세고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였다.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는 타협을 몰랐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아버지가 청나라상인으로부터 별치 않은 일로 하여 구타를 당하였다. 이것을 알게 된 안중근은 참지 못하여 즉시 그 상인을 뒤쫓아가서는 그에게 호된 징벌을 안겼다. 그후 이것이 나라사이의 외교문제로까지 번져졌지만 서울의 인사들이 막아나섬으로써 일은 그것으로 끝나고말았다.

이처럼 그의 성격은 강직하였으며 불의에 숙어들줄 몰랐다.

안중근은 17살부터 군사학을 연구하기 시작했으며 자기 집 재산을 팔아 각종 무기들을 구입하여 지방소년들로 《향군회》를 뭇고 군사훈련도 은밀히 하였다. 이 시기부터 그는 사격명수로 이름이 높았다. 그는 50발자국밖에 자그마한 엽전을 놓고도 그 구멍을 쏘아 틀림없이 맞혔다고 한다.

안중근은 력사에도 깊은 관심을 두었으며 각종 잡지들을 통하여 국내외정세를 파악하기에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 당시 민족주의자들인 리갑, 리동휘와도 상면하여 나라의 운명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론하기도 하였다. 안중근은 자기의 뜻을 이룩하기 위해 1906년 삼화부(남포시 룡강군)로 거점을 옮기고 가산을 털어서 삼흥학교라는 사립학교를 세웠다.

이 학교는 독립운동에 요구되는 인재양성에 그 목적을 두었다.

안중근은 여기에서 자신이 직접 글을 가르치면서 청소년들에게 반일애국정신을 고취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으로 학교는 얼마 가지 못하고 페쇄되였다.

안중근은 삼흥학교에서 키워낸 청년들로 의병을 일으켰으나 적들의 탄압으로 역시 뜻대로 되지 않았다.

《연해주로 떠나야 하겠다. 그곳에 가서 우국지사들과 손을 잡고 기회를 보아 거사를 해야 한다.》

안중근은 1907년말 망명의 길에 올랐다. 그는 조선의 망명객들이 집중되여있는 로씨야 연해주로 가서 이름을 안응칠로 고치고 우덕순, 조도선, 강성벽 등과 함께 단지동맹을 무었다. 이들 12명은 열혈분투하여 조국땅에 반드시 새봄을 안아올것을 혈서로 다짐하였다.

안중근은 리범윤을 대장으로 하는 300여명의 의병대를 꾸리고 군사활동을 활발히 벌리였다. 자신은 참모장으로서 직접 싸움의

선봉에 섰다.

의병대는 1909년 6월 북부국경일대에 진출하여 함경북도 경흥, 회령 등지의 일본《수비대》들을 습격하였는데 이 싸움에서 포로된 리덕칠은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포로가 되여 군사물자를 지고서 안중근부대를 따라다니였는데 그 부대는 군률이 질서정연하고 용감하였으며 그 세력이 어떻게나 강하였는지 일본〈수비대〉는 불과 몇분도 저항하지 못하고 완전히 몰살되였다.》

이 실토에도 있는바와 같이 안중근의병대는 군사의 체모를 완전히 갖춘 의병이였다.

안중근은 군사활동만이 아니라 애국문화계몽운동도 활발히 벌렸다. 그는 연해주 각지의 동포들속에 들어가 군자금을 모으며 모두다 독립운동에 나설것을 절절히 호소하였다. 그의 피끓는 열변은 동포들의 심장을 울렸고 너도나도 적은 힘이나마 애국성업에 바칠것을 결의해나섰다.

이와 같이 안중근은 피끓는 애국의 심장으로 당시 민족운동의 주요 조류였던 애국문화운동에도 참가하였고 의병운동에도 뛰여든 열혈애국청년이였다. 그러나 이 운동들을 통해 뜻을 이룰수 없었던 그는 우리 인민을 망국의 비운에서 구원할 정확한 지도리론과 전략전술이 없었던 조건에서 옳은 투쟁방도를 찾지 못하고 침략의 원흉들을 습격처단하는것이 반일구국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르렀다.

특히 그는 조선침략의 원흉인 이또 히로부미와 그 주구 리완용을 격살할것을 결심했다.

안중근과 엄인섭은 3년내에 이것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자결로써 국민앞에 자기의 죄인됨을 속죄하기로 맹세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인 1909년 가을에 조선강점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며 대륙침략을 확대하기 위한 흉계를 가지고 조선침략의 원흉인 이또 히로부미가 《만주시찰》의 길에 나서게 되였다.

이또놈은 할빈에서 짜리로씨야정부의 재정부장인 꼬꼬흐체브를 만나 《만주문제》와 《한일합병문제》에 대한 침략흥정을

벌리게 되여있었다.

이에 대하여 정보를 받은 안중근은 이 절호의 기회를 리용하여 이또놈을 처단함으로써 민족의 원쑤를 복수하는 동시에 놈들의 흉계를 앞질러 파탄시킬것을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동료들과 비밀리에 의논하고 급히 할빈을 향하여 떠났다.

안중근은 이또놈을 처단하기 위한 결사대로 4인조를 무었는데 장춘과 할빈시내의 중간역인 채가구에는 우덕순과 조도선, 류동하를 배치하고 자신은 할빈역을 맡았다.

출발에 앞서 안중근은 동료들앞에서 자기의 비장한 각오를 다음과 같은 시구 《만세가》에 담았다.

사나이 세상에 태여나
큰뜻 기르며 살아왔도다
시대가 영웅을 낳고
영웅이 시대를 만드나니
시대를 지켜선 영웅들이
어찌 나라위한 싸움에
나서지 않으리오
동쪽바람 서늘하게 불어와도
나의 피는 끓고있어라
비장한 결심품고 우리 떠나가면
반드시 목적을 이룩하리라
쥐같은 원쑤놈을
기어이 처단하리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 때는
이제 바로 왔구나
사랑하는 동포들이여
나라위한 위업을 잊지 말아라
만세만세 조선독립 만세!
만세만세 우리 동포 만세!

안중근일행은 거사 이틀전에 《대동공보》주필 리강에게 마지막 서신을 보내였다.

《조도선씨와 같이 저의 가권출영을 위하여 관성자에 간다고 칭하고 계히 관성자에서 수십리 안되는 모 정거장에서 이를 기다려 그곳에서 대사를 결정할 작정이니 그리 하량하옵소서. 일의 성부는 하늘에 달렸으나 다행히 동포의 선도를 힘입기를 복망하옵니다.》

신문을 통하여 이또놈이 10월 26일 아침 9시 정각에 할빈역에 도착한다는것을 알게 된 안중근은 시간을 맞추어 할빈역으로 나갔다.

역구내는 짜리로씨야군대, 봉건중국군대로 삼엄한 경계를 이루고있었으나 그는 은밀하고도 민첩한 동작으로 경계망을 뚫고 들어가 환영군중이 구내를 메운 역홈에 나섰다. 군중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안중근은 주머니속의 권총을 으스러지게 틀어쥐고 거사의 순간을 재촉하며 초조히 역두를 노려보고있었다.

아침 9시 장내를 흔드는 영접곡의 울림과 때를 같이하여 이또 히로부미를 태운 렬차가 정시로 역구내에 들어섰다.

대접 후한 환영에 역은 웃음을 지으며 여유있게 렬차에서 내려선 이또놈이 로씨야고관들과 인사를 나누고 위병대를 사열한 후 역구내를 나서기 위해 돌아서는 순간, 안중근이 발사한 복수의 명중탄이 그대로 이또의 심장과 특골, 복부에 차례로 들어가박혔다.

놈은 그자리에 푹 꼬꾸라지고말았다.

그다음 련이어 증오의 총탄은 모리비서관, 가와가미령사, 다나가만철리사 등을 쓸어눕혔다. 순식간에 환영장은 수라장으로 변하였고 원쑤의 더러운 피로 물들었다.

놈들이 전률과 공포에 몸부림치는데 안중근은 순간 뛰여나가 이또놈의 시체를 디디고 《조선독립 만세!》를 거듭거듭 소리높이 웨치였다. 그리고는 구내가 떠나가게 사나이의 큰 웃음을 터뜨렸다.

과연 통쾌한 순간이였다.

얼마나 바라고바라던 순간이였던가. 그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어리여있었다. 그것은 사나이의 결심을 실천한 환희의 눈물, 격정

의 눈물이였다.

이또 히로부미는 더 다른 말을 못한채 영원한 지옥으로 가버리고말았다.

일제는 안중근을 체포하여 려순감옥으로 끌어갔다. 원쑤놈들은 그에게 말로 형언할수 없는 악착한 고문을 들이대였다.

하지만 이에 굴복할 그가 아니였다. 그의 태도는 너무도 태연자약하였다. 그는 옥리에게 준절히 말하였다.

《내가 국가에 생명을 바침은 지사의 본분이거늘 이렇게 학대를 가함은 부당한 일이다. 음식물도 이렇게 나쁜것만 주어 먹지 못하겠으니 우리를 대신으로 대해달라!》

수감기간 교활한 원쑤들은 여러가지 간계와 회유로써 그를 굴복시키려고 꾀하였다. 놈들은 그에게 이번 사건은 시국을 잘못 리해한데서 온 일이라고만 말하면 곧 석방하겠다고 뇌까렸다.

그러나 안중근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었다.

《내가 살기를 원하였으면 이또를 죽이지도 않았을것이니 다시는 꾀지 말라!》

안중근은 심문장에서 적들이 더욱 악랄하게 나오자 자기의 주장을 토하였다.

《우리 나라의 자주권과 독립을 빼앗은것은 이또의 작간인것이므로 나는 의병대 참모총장의 자격으로 특파되여 독립전쟁의 전투에서 이또를 죽인것이니 전쟁포로로는 취급할수 있지만 살인피고인으로 취조하는것은 잘못된것이다!》

안중근의 의거는 온 나라의 량심있는 인사들을 크게 감동시켰으며 인민들에게 용기와 고무를 주었다.

감옥으로는 그의 필적을 얻으려고 수백수천의 인민들이 몰려들었다.

그리하여 안중근은 동양평화의 노래를 지어 그들에게 써주었다.

이 사건은 비단 우리 인민들속에서뿐아니라 일제를 미워하는 세계의 량심있는 인사들속에서 대파문을 일으켰으며 그의 의거는 높이높이 찬양되였다.

당시 중국의 이름있는 시인의 한사람이였던 양계초는 안중근렬사

의 애국적의거를 찬양하여 자기의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였다.

피맺힌 원쑤 갚으려
만리길 끝까지 따랐고
천금처럼 귀중한
복수의 무기 깊이 간직했어라
누런 모래 휘몰아치고
칼바람 노호하는데
흑룡강언덕에
눈보라가 윙윙
다섯걸음 밖에서
원쑤놈 거꾸러지자
호탕한 웃음소리
그 기개 높아라

일제놈들은 이또 히로부미가 처단된데 대하여 《명치유신이래 처음보는 무서운 불상사》라고 비명을 질렀고 《명치유신의 대정치가》가 일각에 황천객이 되였다고 아우성을 쳐댔다.

안중근은 감옥벽에 자필로 《제일강산》이라는 글을 써붙이고 자기의 애국적절개를 지켰으며 《인내》라는 두 글자를 뇌이면서 일제교형리들의 이루 형언할수 없는 악형을 견디여냈다.

온 나라에서는 그를 구원하기 위한 투쟁이 활발히 벌어졌다. 변호사이며 그의 스승이였던 안병찬은 스스로 안중근의 변호를 맡아 려순으로 달려갔다. 그리하여 안중근은 안병찬과 만나게 되였다.

안중근은 안병찬을 붙들고 이또란 놈이 과연 어떤 놈인가, 선량한 백의동포의 깨끗한 넋을 짓밟고 우리 나라의 독립을 유린하는데서 앞장섰던 승냥이가 아닌가고 규탄하면서 자신은 결코 살인자가 아니라고 격분을 터놓았다.

《우리 나라의 왕권을 위협하여 왕비를 학살하고 한줌도 못되는 매국역신들을 부추겨서 우리 동포가 인정하지도 않는 을사5조약을 날조케 한 놈이 누구입니까? 조상대대로 살아온 이 강토를 더럽히

고 우리의 상감마마를 퇴위시킨 놈이 바로 이또놈을 위시한 왜적오랑캐들일진대 그래 구천에 사무친 겨레의 원한을 담아 침략의 괴수를 처단한것이 어찌 살인으로 되고 역적이 될수 있단 말입니까? 예? 선생님. 저는 결단코 한 짐승을 죽인것을 살인으로 인정할수 없습니다!》

안중근은 감옥에서도 원쑤들을 전률케 하였으며 조선사람의 애국적기개를 남김없이 시위하였다.

그러나 수개월간의 감옥생활은 안중근렬사에게 있어서 단순한 대적투쟁의 시기만이 아니였다. 비록 이또 히로부미를 없애버렸지만 또다른 이또종자가 나타나 온 만주땅을 집어삼켰고 우리 조선은 여전히 일제의 구두발밑에 신음하고있는것이 아닌가!

그는 초시기 그놈 하나만을 처단하면 조선의 독립도 이룩되고 민족의 피맺힌 원쑤도 다 갚을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현실은 그런것이 아니였다.

안중근은 비로소 피로써 그 진리를 깨닫게 되였다. 그후 안병찬을 만난 자리에서 안중근은 자신이 발견한 이 진리를 뜨겁게 말하였다.

《선생님, 전 감옥에서 무엇인가 터득한바 있습니다. 일제는 내가 생각한것보다 몇갑절 더 악착하고 교활한 우리 민족의 철천지원쑤이며 그 수 또한 헤아릴수 없습니다.

선생님, 저처럼 적의 괴수 한놈을 죽이는것만으로는 나라의 원쑤를 갚을수 없다는 단순한 이 진리를 비로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놈을 죽이면 또다른 이또 히로부미놈이 나타날것입니다.》

안중근은 안병찬을 붙잡고 자신이 심장으로 체득한 이 진리를 우리 조국 전체 인민들에게 전하여줄것을 거듭 피타게 부탁하였다.

《…꼭 전해주십시오. 선생님,

저는 이제 죽은 후에도 온 겨레가 힘을 합쳐 왜적들을 쳐부신다는 소식만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바라옵건대 선생님께서 정성을 다하시고 힘을 다하여 우리 백의동포들에게 말씀하여주십시오.

나라를 찾으려면 온 겨레가 힘을 합치고 모아야 한다고 말입

니다. 그리하여 우리 동포가 나라를 다시 찾고 독립의 환호성이 하늘나라에 사무친다면 저는 마땅히 죽어서도 손을 높이 들고 발을 구르며 만세를 부를것입니다. …

오직 실력을 배양하고 온 민족이 뜻과 힘을 합쳐야만 독립을 회복할수 있습니다.》

안중근은 사형을 앞두고 두 동생들을 불렀다. 그는 홀로 계시는 어머님이 상심하지 않도록 봉양을 잘하라고 간곡히 당부를 하면서 이런 말을 남기였다.

《내가 살아서 돌아가기는 만무하니 내가 죽은 뒤 시체는 우리 조선이 독립하기 전에는 절대로 반장하지 말아라.》

조선인민의 훌륭한 아들인 안중근은 1910년 3월 26일 아침 10시무릎을 단정히 꿇어 고국의 하늘을 우러르며 《조선독립 만세!》를 힘있게 웨치였다. 그리고는 태연히 일어서 형장으로 나갔다.

그는 마지막순간 이런 말을 남기였다.

《장부는 비록 죽어도 마음은 강철같고 의사는 죽음에 림하여도 기상은 구름같다.》

과연 장부의 기개이고 남아의 참모습이였다.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는 날 나는 천국에서도 덩실덩실 춤을 추고 조국 만세를 소리높이 부르리라!》

그의 이 말에 온 조선이 울고 뜻있는 사나이들이 가슴을 쥐여뜯었다.

적대적군벌인 중국의 원세개까지도 안중근의 죽음을 조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고 한다.

《몸은 삼한땅에 있었지만 이름은 만국에 빛났고 생은 백보가 못되였으나 죽음은 천추에 남을것이다.》

이렇게 안중근은 31살의 짧은 생으로 조국의 나이를 더하며 의로운 길을 갔다.

진정 그의 죽음은 헛된것이 아니였다. 그의 의거는 비록 이또를 비롯한 몇몇 원쑤의 죽음에 그치였지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원쑤를 미워하는 고결하고도 투철한 정신세계는 만사람의 감동을 자아냈으며 우리 인민들의 반일투쟁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매국역적을 처단하려 했던 리 재 명

원쑤놈들은 날마다 가혹한 고문을 들이대면서 리재명에게 《죄》를 인정하라고 볶아댔다.

《어째서 법률에 복종하지 않는가?》

일본검사는 련속 다우쳐댔지만 리재명은 코웃음을 쳤다.

《그 법이란 너희들의 법이니 그것은 인정할수 없다.》

《그러면 왜 살인죄를 시인하지 않는가?》

리재명은 살인죄라는 검사의 말에 머리를 추켜들며 벌떡 일어섰다.

《살인죄라구?!… 나는 당당한 조선사람으로서 역적을 처단하려고 했다. 그래 조선법률을 알고나 말하는가. 나라를 배반한 역적을 어찌하라 했는지. 나는 다만 역적을 릉지처참하게 돼있는 우리의 법을 적용하지 못한것을 한탄할뿐이다.》

《조선법률이 없어진것을 아직 모르는가?》

검사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순간 리재명의 가슴에는 참을수 없는 분노의 피가 치솟아올랐다.

《닥쳐라! 조선백성이 살아있는 한 조선은 없어지지 않는다. 나는 일본의 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악에 받칠대로 받친 원쑤놈들은 그의 살점을 저며내며 날뛰였지만 그는 그 어떤 고문에도 위협에도 회유에도 끄떡없이 자기의 지조를 굽히지 않았다. 다만 자신이 세운 뜻을 마지막까지 이루지 못하고 원쑤의 손에 붙잡힌 몸이 된것이 가슴터지게 원통할

뿐이였다.

《아, 내가 왜 그놈의 심장을 면바로 찌르지 못했던가!》

그는 다만 이것이 한스러웠다.

망국의 비운이 무겁게 드리우던 시기 유명무명의 애국지사들은 한몸바쳐 이 땅을 되찾으려고 사생결단의 길에 서슴없이 나섰다.

그 의로운 사람들중에는 리재명(1890～1910)도 있었다.

그는 자기 소견에 매국역적 리완용만 처단하면 모든것이 해결되고 우리 나라도 길운이 트이리라 생각하였다.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역적놈을 자기 손으로 반드시 처단해버리려고 단호히 결심하였다.

평양출신인 열혈청년 리재명은 당시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하고있었다. 겨우 19살을 넘긴 그는 모든것을 단순하게만 보았다.

어느날 그는 품팔이를 하면서 로동야학에서 공부하고있던 한 동료를 만나서 이렇게 속생각을 쏟아놓았다.

《일이 급하게 되였다. …우리 순국(나라를 위하여 목숨바치는것)을 결심한 사람들은 무엇을 할것인가? 안중근은 이미 먼저 국민의 직분을 다하여 한몫을 했는데 우리들이라고 못하겠는가!… 우리 나라의 적당(매국역적)들이 리를 탐내여 나라를 팔았기때문에 원쑤놈들이 쉽게 우리 나라를 손아귀에 넣을수 있었다.

우리들은 먼저 사람을 뽑아서 시급히 매국역적들을 제거해야 한다.… 정부의 리완용과 〈일진회〉의 리용구는 매국역적의 괴수이다. 이 두 역적을 처단하면 나머지 역적들도 역시 다 위험하다는것을 알고 감히 조약(한일합병조약)을 체결하는데 나서지 못할것이니 급히 나라를 구할수 있는 방도는 바로 이것이다.》

너무도 순진한 마음이였다. 하지만 역적놈들을 처단해야 한다는 리재명의 결심은 확고부동하였다. 다행히도 기회는 빨리 도래하였다.

리재명은 1909년 12월 22일 리완용놈이 서울 종로에 있는 프랑스교회당에서 벨지끄황제의 죽음과 관련하여 열리는 추도모임에 참가하게 된다는 정보를 얻게 되였다.

이 기회를 놓침이 없이 그놈을 요정내야만 하였다.

친구들과 생각을 모아가던 리재명은 군밤장사로 위장하기로 하였다.

그는 밤을 한광주리 담아들고 허줄한 의복을 걸친 후 코 떨어진 모자를 푹 눌러쓰고 가슴에는 시퍼렇게 날이 선 비수를 품은채 교회당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서성댔다.

얼마후 인력거에 올라앉은 리완용이 거드름스럽게 교회당으로 들어오고있었다.

리재명은 번개같이 달려가 그놈을 끌어내리고 날카로운 비수로 사정없이 찔렀다.

다음순간 경찰들이 달려들어 치렬한 격투가 벌어졌다. 결국 리재명은 놈을 완전히 요정내지 못한채 아쉽게도 붙들리는 신세가 되였다.

천길나락으로 굴러떨어지는 이 나라와 겨레를 구원하려면 무엇보다도 리완용이 문제라고 생각한 리재명은 수십번 기회를 노리던중 단호하게 거사를 했건만 불우하게도 역적놈을 처단하지 못한채 간악한 왜놈의 손에 붙잡힌 신세가 되고말았다. 그에게는 《국범》이라는 어마어마한 죄명과 함께 너덧평방밖에 안되는 독감방이 차례졌다.

그러나 매국역적놈에 대한 리재명의 의거는 제 나라, 제 민족을 원쑤놈들에게 팔아 제 하나의 영달을 구하려 피눈이 되여 날뛰던 매국역적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어느 순간에 닥쳐들지 모를 징벌의 위험앞에 원쑤놈들은 항상 공포에 떨었고 더러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일본놈의 품으로 더 비굴하게 기여들었으며 일제의 《호위》가 없이는 제 나라, 제 땅우에서도 한순간이나마 편히 지낼수 없었다.

이와 함께 전국각지에서는 리재명렬사를 구원하기 위한 운동이 힘차게 벌어졌다. 조선인변호사인 안병찬, 리변우들은 스스로 그의 변호를 맡아나섰고 우국지사들은 도처에서 매국노들을 처단하는 운동을 더욱 줄기차게 벌리였다. 부상당한 리완용을 치료하던 서양병원이 애국청년들에 의해 습격을 받았고 《일진회》

우두머리들이 뒤골목에서 칼에 맞았다. 겁에 질린 리완용의 친척들은 제발 벼슬을 그만두라고 애걸복걸하며 매달렸다.

리재명은 감옥에서도 원쑤놈들과 맞서 싸웠다. 과연 조선사람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모범이였다.

어느날 그에게 안해와의 마지막면회가 허락되였다.

《아, 여보세요. … 모자를 사러 가신다더니 어찌된 일이세요?》

이루 형언할수 없는 고문으로 하여 모습을 찾아볼수 없는 남편앞에서 안해는 눈물부터 앞세웠다. 녀인은 풀썩 그자리에 주저앉고말았다.

리재명은 집을 나설 때 상점에 모자를 사러 간다고 하면서 나왔던것이다. 그런데 지금 감옥에서도 최대의 범인으로 마음대로 면회도 할수 없으니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인가! 안해는 오열을 터뜨리고말았다.

《여보, 진정하오. 마음을 굳게 먹고 살아가야 하오.》

리재명은 안해의 정다운 손을 굳게 잡고 힘주어 말하였다.

그는 여기는 내 나라이고 어딜 가나 우리 백성들이 살고있는 우리 땅이라고 하면서 왜놈들을 반드시 몰아내고 빼앗긴 국권을 찾아야 한다는것을 절절히 이야기하였다.

《내 오늘 당신에게 꼭 하고싶은 말이 있소. 나는 매국노 리완용과 리용구를 처단함으로써 이 나라 백성들을 깨우치는 종소리가 되려고 했소. 그러나 거사는 실패했소. 나는 비록 실패했지만 이 우국의 붉은피가 방울방울 대지에 꽃이 되기를, 내 나라 귀한 땅에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 나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철창속에 갇혀 오래도록 생각한 끝에야 매국역적 한두놈을 없애는것만으로는 나라를 보존하는 대업을 성취할수 없음을 깨달았소.

우국지사들이 서로 합심하여 실력을 배양하고 보다 큰 힘으로 원쑤와 맞서야 할것이요. 그것만이 우리 나라를 구원하는 길이요. 이는 내가 피의 대가로 얻은 진리요. 다시한번 의로운 싸움에 나서고싶소. 나의 이 뜻을 고향에 있는 어린 동생에게도 전해주오. 그리고 당신은 나라 위해 목숨걸고 나섰던 나의 뜻이 헛되이 묻히

지 않도록 하여주오.》

그는 가슴깊이 새겨두려는듯 이윽토록 안해의 정다운 얼굴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안해 역시 이 세상이 다할 때까지 그처럼 미더운 남편을 끝없이 보고만싶었다.

《아, 이런이를 살려내지 못하다니. 이 일을, 이 터지는 가슴을 어디에 하소한단 말인가?》

땅을 두드려도, 쇠살창을 부여안고 몸부림쳐도 소용이 없었다.

애타게 절규하였건만 그 누구도 알아주는이가 없었다. 그날 안해는 감옥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고말았다.

리재명은 변호사 안병찬에게도 자기를 보아주느라고 수고가 많았다고 인사를 하면서 내 한목숨을 구차히 이어가는것보다 매국역적들을 한놈도 남기지 않고 처단하려 했던 이 뜻을 인민들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선생님, 저는 그 매국역적놈들을 모조리 처단하면 지하에서도 그 장면을 통쾌하게 웃으며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세를 부를것입니다.》

1910년 4월 애국렬사 리재명을 석방하라는 인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가는 속에서 일제는 저들이 지은 죄가 두려워 비밀재판을 벌려놓았다.

재판에서 《일진회》주구들과 일제는 리재명에게 별의별 죄목을 다 만들어 뒤집어씌웠다. 그러나 그는 너무도 배포유하였다.

《리완용은 인간으로서 이미 죽은 놈이다. 그놈은 일본의 개로서 간신히 목숨이 붙어있은것이다. 일본법에는 개를 죽여도 살인인가? 하하하… 리완용은 인간이 아니라 개란 말이다.》

악에 받친 놈들은 리재명에게 사형을 언도하고야말았다.

이때 리재명의 나이는 겨우 20살이였다.

지금껏 한 일보다 이제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나이였으며 걸어온 길보다 가야 할 길이 몇배 더 많은 시작의 나이였다. 하지만 악착한 왜놈들은 그의 애국의 넋이 두려워 이같이 사형이라는 마

지막판결을 내린것이였다.

리재명은 이 순간에 이르러 전체 인민들에게 자신의 뜻을 호소하였다.

《국민여러분, 저는 매국역적놈을 처단하지 못하고 가는 큰 죄를 지었으니 부디 용서하여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매국역적들을 씨도 남김없이 처단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나라를 지켜내려면 역적 한두놈을 처단하는것으로는 부족하며 보다 중요한것은 뜻이 높은 애국지사들이 힘을 합쳐 실력을 배양해야 나라찾는 대업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입니다. …》

그가 심장으로 웨친 이것은 감옥생활을 통하여 깨닫게 된 피의 교훈이였다. 한두사람의 의분으로 한두놈의 적을 처단하는것만으로써는 문제를 해결할수 없으며 전체 인민이 일심단결하여 원쑤격멸에 힘을 합쳐야 조선의 독립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이다.

원쑤놈들은 끝내 그를 사형하고야말았다. 하지만 그의 높은 애국의 뜻은 살아 후대들의 가슴속에 이어지고있다.

애국변호사 안병찬

안병찬은 일제강점초기 이름있는 조선인변호사이다.

안병찬은 1854년 충청남도 홍주에서 출생하였다. 어려서부터 정의감이 강하고 의리심이 높았던 그는 이로 하여 동무들속에서도 사랑을 받았다.

특히 그는 부정적인 현상에 대하여서는 절대로 참지 못하는 극성스런 성미였다. 때문에 청년시절에도 옳은것이 몰리게 되면 끝까지 도와주고야 물러섰다. 그러므로 동료들이 많았고 인망도 두터웠다.

안병찬은 1895년 11월 《단발령》(일제가 리조봉건정부안의 친일파들을 내세워 상투를 강제로 자르게 한 법령)이 내리자 김한복 등 친우들과 의병을 일으켰으며 이로 하여 재판도 받았다.

1905년 강압날조된 《을사5조약》이 공포되자 안병찬은 대궐로 달려가 대성통곡을 하였으며 상주문을 올리고 도끼를 메고 대한문앞에 버티여 을사5적의 무리들을 찍어버리려고 하였다. 당시 51살의 주름진 얼굴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있었다.

《아, 5천년력사국이 이렇게 한날에 무너앉고마느냐?!…》

안병찬은 민종식과 협력하여 또다시 의병을 일으켰다. 어느 한 싸움터에서 붙잡힌 몸이 된 안병찬은 9개월간의 옥고를 치르고 나와서 변호사가 되였다.

전국적규모에서 3.1인민봉기가 일어나고 망명객들의 구국운동이 세차게 벌어지자 안병찬은 가산을 정리한 후 《대한청년단련합》을 무었으며 그 총재로 되였다.

그후 안병찬은 다시 체포되여 옥고를 치르었으나 어떻게 하나 나라를 건져보려는 마음만은 변함이 없었다.

1909년 초겨울 어느날 안병찬의 집으로 한 청년이 찾아왔다. 그

즈음 안병찬은 시름시름 앓고있던 병이 도지여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있는 형편이였다. 그새 얼마간 문밖출입을 하지 않다보니 그는 내외정세에 대하여 감감이였다.

느닷없이 뛰여든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선생님, 할빈역두에서 이또 히로부미를 쏘아죽이고 조선사람의 기개를 보여준 애국지사 안중근이 려순감옥으로 끌려갔는데 그의 동생들인 정근과 공근이 형의 변호를 맡아줄 변호사가 없어 안타까와한다는 기막힌 소식이 왔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철천지원쑤들의 괴수를 죽여버린 안중근의 거사가 죄로 되여 이국땅에서 재판을 받게 되였다니 통분한 마음이 불길처럼 솟구쳤다.

《가야지, 내 가야지.》

안병찬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섰다.

《만민의 찬사를 받아야 할 애국자가 그것도 이국의 차거운 감옥에 갇혀 옥고를 치르다니. 아, 이 일을 어디에 상소하면 좋단 말인가.》

안병찬은 외세에 유린당하는 약소민족의 슬픔이 이렇게도 가슴저미는것인줄은 미처 다 몰랐었다. 이가 갈리고 온몸이 떨리였다.

조선두루마기를 단정히 차려입은 안병찬은 이번만은 병치료를 마저 하라고, 이번을 넘기면 무사치 못하다고 그렇게도 애걸하는 안해의 손을 밀어놓고 두 자식의 바래움을 받으며 다음날 역으로 나갔다.

그의 병으로 말하면 심한 폐병이였다. 감옥생활을 하는 과정에 생겨난것이였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폐병이라면 누구나 움츠러드는 무서운 질병이였다. 하지만 안병찬은 일신의 치료보다도 변호사를 부르고있을 안중근렬사의 동생들과 외롭게 갇혀있을 렬사의 모습이 눈앞에 가리워 그대로 앉아있을수가 없었다.

《빨리 가서 그를 찾아보고 조금이라도 힘을 주어야지. 원쑤놈들의 그릇된 재판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야말리라!》

안병찬의 결심은 단호하였다. 언제나 바른 말을 하여 인민들속에서 덕망이 높은 그에게서 항상 눈길을 떼지 않고있던 일제형사들은 안병찬이 차에 오르려 하자 달려들어 행장을 빼앗았다.

하지만 이것을 지켜보던 한 조선인청년이 야만스러운 오랑캐놈들이 남의 나라에 들어와 이제는 못하는짓이 없다고 하면서 커다란 주먹으로 놈을 단매에 요정내고말았다.

주변의 조선사람들도 가만있지 않았다. 하여 놈들은 쫓겨가고 기차는 려순을 향해 달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추격의 위험은 여전히 뒤따랐다.

안병찬은 놈들의 감시에서도 벗어나고 피로도 가실겸 네데를란드인이 경영하는 자그마한 려관에 들었다. 그런데 그의 병세는 더욱 심해졌다. 며칠이 지난 어느날에는 끝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식사를 날라온 중국인처녀가 넘어진 그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아이구, 거기 누가 없어요?! 이를 어쩌나…》

처녀는 발을 동동 구르며 구원을 청하였다. 의사가 달려오고 서둘러 침을 놓고 탕약을 달여 떠넣었으나 의식은 차리지 못하였다.

얼마후에야 정신이 든 그는 주위의 근심어린 얼굴들이 자기를 지켜보는것을 둘러보았다.

《아니, 그 몸에 어쩌자구 집을 떠나 객지에서 고생을 하시우?》

《집에 부인은 안계시우? 자식들은…》

안병찬은 병이 아무리 중하다 한들 망국노의 아픔보다 더하겠는가 하면서 자신을 소개하였다.

《저를 도와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조선인변호사입니다. 나라를 찾기 위해 큰일을 한 애국지사가 지금 만사람의 축복을 받을 대신에 차디찬 이국의 감방에 갇혀있는데 제가 어찌 누워있을수 있겠습니까?》

의원과 주위사람들은 모두가 감동되였다. 그들은 려관방앞에서 서성거리는 왜놈의 밀정들을 쫓아버렸고 자기들이 할수 있는껏 치료도 해주고 도와주었다.

당시 왜놈들은 안중근을 려순감옥에 가두어넣고 형제들의 면회까지 거절했다. 역시 안병찬의 면회도 거절당하였다.

《변호사가 범인을 만나 변호할 준비를 하는것은 그 어느 법전에도 첫장에 써있는 초보에 초보인것이 아니요?》

하지만 일제놈들은 이것까지도 막아버리였다.

안병찬이 면회를 거절당하고 려관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해낸것이 개같은자들은 개처럼 다스려야 한다는것이였다. 먹을것을 던져주면 받아먹는것이 개이다.

그리하여 그는 려순감옥 순경들과 《친숙》하기 위해 뢰물꾸레미를 준비했고 여러가지로 모색을 하였다.

왜놈들은 안중근을 《국범》이라고 하면서 안병찬자신이 그를 만나는것도 심중히 고려하라는 등 터무니없는 수작을 늘어놓았다.

놈들은 안병찬을 면회실로 안내하였다.

안중근과 안병찬은 마치 한덩어리가 된듯 부둥켜안았다.

《안의사!》

《선생님!》

뜨거운 눈물로 맞으며 안중근은 안병찬이 앓는 몸으로 불원천리 찾아온데 대하여 진심으로 머리를 숙이였다.

《선생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병세는 어떠하십니까?》

《일없소. 장하오. 안의사의 의거에 내가 일어나고 온 조선이 일어섰소.》

《선생님, 고맙습니다.》

《내 그대의 의거를 세상에 소리높이 고발하겠소. 안의사야말로 조선민족의 참된 아들이요.》

그러면서 애국렬사로서 응당 만민의 찬사를 받게 될것이라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뜨거운 말들이 오고갔다.

면회는 순간에 지나지 않았다. 일제는 안중근을 다시 감옥으로 끌어갔다.

드디여 재판의 날이 왔다. 이날 놈들은 안병찬을 재판정에 들여놓지도 않았다.

《나는 조선변호사요. 안중근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란 말이요!》

그가 그렇게도 강경하게 들이댔지만 놈들은 안중근의 의거와 저들의 죄가 세계의 량심앞에 널리 알려지는것이 두려워 어리석게도 비공개재판을 단행했다.

안병찬은 법정밖에서 떠날수 없었다.

혼자서 왜놈들과 맞설 안중근의 의로운 모습이 눈앞에 선하였다. 안병찬은 치를 떨며 더욱 격분에 넘쳐 문을 두드리며 항변했다.

《이놈들아, 조선말에 말같지 않은건 수작이라고 했다. 너희 일본은 매양 이런 불법한 일로 우리 조선사람을 억울하게 억압하여 통치하려고 하지만 그건 실로 가소롭기 그지없는짓이다.

안중근렬사의 의거는 너희 왜적오랑캐들에 대한 조선사람들의 응당한 대답이다. 오늘은 비록 한명의 안중근이 있으나 우리 조선사람들의 격분은 날로 더해갈것이다. 너희놈들은 이제 몇백, 몇천의 안중근이 나올줄을 알지 못하는가!》

안병찬의 입에서는 선지피가 쏟아졌다. 그러나 그는 원쑤에 대한 저주와 규탄의 목소리를 그치지 않았다. 안병찬은 끝내 재판정마당에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이것을 바라보는 조선사람들은 물론 중국사람들까지도 그의 애국정신에 탄복하였다.

그후 려순에서는 《안렬사구혈기》(안병찬이 피를 토한 기록기)라는 소책자가 발행되였다.

안병찬은 비록 안중근렬사를 변호하지 못하였으나 피로써 단죄한 그의 모습은 애국의 의거를 만천하에 알리고도 남음이 있었다.

오직 실력을 배양하고 온 민족이 힘을 합쳐야만 독립을 회복할수 있다고 한 안중근렬사의 마지막유언은 안병찬에 의하여 후세

에 전해지게 되였다.

《내 사랑하는 제자인 안중근의 유언을 우리 인민모두에게 알려야 한다!》

안병찬은 이를 위해 온몸을 다 바쳐나섰다. 서울로 돌아와 출판보도계를 불러일으켰고 인민들에게 선전하고 또 선전해나갔다.

그의 활동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애국의 넋을 지니고 조선사람이라는 민족적기개를 소중히 안고있는 안병찬은 자기의 적은 힘이나마 우리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데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1909년 12월 22일 리완용에 대한 살인미수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였다. 매국역적 리완용을 죽이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리재명, 리정익, 리동수, 김병록, 조창호 등이 재판에 회부되였다.

안병찬은 이번에도 이 사건을 자진하여 맡아나섰다.

놈들은 1910년 4월 7일 이들을 공판정에 끌어냈다. 재판을 앞두고 안병찬은 리재명을 찾아갔다. 그동안 이들을 구원하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모든것이 허사였다. 그러나 놈들의 죄행을 그냥 보고만 있을수는 없었다.

안병찬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였다.

《리재명씨, 이렇게 하는것이 어떻겠소? 차부 박원문을 죽인것은 고의적인것이 아니라고 말이요.》

그러나 리재명의 립장은 단호하였다.

《안선생님, 그러지 마십시오. 매국노도 처단하지 못하고 이 신세가 된 제가 한목숨 구차히 이어갈 생각은 없습니다.》

그의 눈빛은 비장하였다.

《선생님, 내 감옥에서 터득한바가 있는데 우리 동포들에게 전해줄것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것은 내 나라를 다시 찾고 지켜내자면 역적 한두놈을 처단하는것으로는 부족하며 보다 더 중요한것은 뜻이 높은 여러 지사들이 힘을 합쳐 실력을 배양해야 한다는것입니다. 그래야 나라찾는 위업을 이룩할것입니다. 선생님, 이것을 우리 동포들에게 전하여주십시오.》

《알겠소. 내 기어이 그 고결한 정신이 세상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할터이요.》

재판정에서는 《일진회》나부랭이들과 왜놈재판장이 이들에게 온갖 무지막지한 죄를 다 만들어씌우면서 종당에는 모두가 《사형감》이라는것이다.

이때 변호사 안병찬이 일어섰다.

《내가 보건대 이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세상을 근심하는 강개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결코 비렬한 행동이 아니라 영웅적인 행동인것입니다. …》

안병찬은 기침을 두어가면서 무게있게 론거를 세워 변호해나갔다. 그는 매국역적 리완용의 천추에 씻지 못할 죄과를 격분에 넘쳐 렬거하였다. 그리고 안병찬은 어찌 감정이 있고 뜻을 가진 사람들의 가슴에 증오의 피가 끓지 않겠는가고 소리높이 웨쳤다.

《오늘의 피고들이란 오로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의기를 떨치여 역적을 치고 나라의 운명을 구원하려 하였을뿐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의리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 만천하에 어느 누가 이 열혈청년들의 뜻을 찬양하고 동정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에게는 결코 죄가 없습니다.》

안병찬은 죄가 없다고 당당히 선언하면서 이 사람들을 석방시켜야 한다는 만민의 여론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해나섰다.

그는 세상사람들은 모두가 이들의 행동을 의로운 행동으로 보고있으며 재판장측의 죄행에 분격을 느낄뿐이라고 힘있게 단죄하였다.

안병찬의 목소리는 그대로 심장에서 울려나오는 절절한 호소였다.

더 이를데 없는 그의 사리와 론리가 정연한 변호에 왜놈검사들은 더 자기들의 주장을 살릴 여지를 찾지 못하고 허둥댔다.

법정은 금시 술렁거렸다. 당황한 재판장은 손을 내저으면서 미리 준비해두었던 판결문을 서둘러 펼치였다.

《조용하시오! 조용하시오!》

재판장은 부리나케 《사형》판결문을 읽어버리였다.

《아! 이런 애국청년들을 구원하지 못하는것이 무슨 변호사란 말이냐. 원통하구나. 가슴이 터지는구나!》

안병찬은 가슴을 치고 또 쳤다. 힘이 없어 청년들을 도울수 없으니 한스럽기만 하였다. 그는 다만 이 렬사들이 남긴 유언을 후세에 길이길이 전하는것을 《평생의 과업》으로 내세웠다. 그는 리재명이 남긴 마지막목소리를 조선의 모든 인민들에게 알리고 하루빨리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호소하고 또 호소하였다.

3.1인민봉기후 안병찬은 만주로 망명하였고 후에 상해로 가서 독립운동에 헌신하였다.

그러던중 안병찬은 왜놈밀정들에 의해 조국해방의 그날을 보지 못한채 암살되고말았다. 나라의 비운을 그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며 독립운동의 전렬에서 활약하던 안병찬은 이렇게 애석하게 최후를 마치였다.

력사가, 작가인 신채호

신채호는 20세기초 애국문화운동의 대표자의 한사람으로서 우리나라 력사를 근대에 체계화한 력사학자이며 이름있는 작가이다.

그는 호를 무애, 단재라고 하였다.

신채호는 1880년 충청도 연의군의 한 봉건유생의 가정에서 출생하였다.

어린시절에 그는 고향에서 한문과 유교경전을 읽었는데 벌써 13살에는 《사서삼경》을 뗴였으며 20살때는 성균관 박사의 벼슬을 지내였다.

하지만 19세기말～20세기초 일제의 침략책동이 강화되고 봉건통치배들의 사대매국행위가 극도에 이르러 민족적위기가 더욱 격화되자 그는 고루한 벼슬살이를 그만두고 애국문화운동에 나섰다.

단재 신채호의 기본취지에 대하여 《조선상고사》 서문에서 안재홍은 이렇게 밝히였다.

《단재의 일념은 첫째 조국의 씩씩한 재건이였고 둘째는 그것이 미처 못될진대 조국의 민족사를 똑바로 써서 시들지 않는 민족정기가 두고두고 그 자유독립을 꿰뚫는 날을 만들어 기다리게 하자 함이로다.》

그의 일념이 그러했듯이 그는 일생 민족과 사회를 위하여 정의의 필봉을 높이 쳐들었으며 일제의 민족문화말살정책에 맞서 민족의 얼을 불러일으킬 민족사의 정당한 정립을 위하여 한생을 다 바치였다.

그는 젊은 혈기에 도담한 자세로 자기의 풍만한 생각을 신문에 서슴없이 날리였다. 그의 론설이나 글이 《황성신문》에 실리게 되면 그날호의 신문은 어느새 팔리는지 독자들의 수요를 충

족시킬수 없었고 그의 수필같은것이 《대한매일신보》에 나가게 되면 그날 신문의 시세는 갑자기 높아지군 하였다고 한다.

그는 1902년부터 진보적신문인 《대한매일신보》창간에 참가하였으며 《황성신문》, 《서우》잡지, 《대한자강회월보》, 《서북학회월보》 등 많은 신문들과 잡지들에 반일애국사상을 강조하는 수많은 론설들과 문예작품들을 발표하였던것이다.

그 대표적인것으로서는 우선 론설 《제국주의와 민족주의》, 《정신상국가》 등을 들수 있는데 여기에서 그는 제국주의에 대하여 이렇게 평하였다.

《풍운이 일어나듯, 홍수가 밀려오는듯, 번개질하는 천동이 우는듯, 조수가 종아리치는듯, 불에 타는듯 20세기 제국주의여…

몬로주의(내가 남을 간섭하지 않고 남도 나를 간섭하지 못한다는 리론)가 흰 기발을 한번 세운 후로 동서대주에 소위 6대강국이니, 8대강국이니 하는 렬강이 모두 … 분투정신하여 이 제국주의에게 굴복하여 세계무대가 오로지 제국주의의 활주마당을 이루었노라.》

신채호는 제국주의횡포성을 이렇게 규명하면서 이에 저항하는 방법은 바로 민족주의를 분발하는것이라고 주장해나섰다. 이것은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민족국가를 튼튼히 보존할데 대한 신채호의 사상을 밝힌것이라고 볼수 있다.

20세기초 일제의 조선강점을 전후한 시기 리준, 박은식, 신채호, 주시경 등 애국적지식인들이 벌린 문화계몽운동으로서의 애국문화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것은 애국정신을 고취한것이였다.

그들은 조국을 열렬히 사랑할것을 호소하면서 《우리들은 조선사람이니 조선을 위해서 근심하며 조선을 위해서 즐거워하고 조선을 위해서 노하며 조선을 위해서 기뻐하고 조선을 위해서 노래하며 조선을 위해서 부르짖고 조선을 위해서 춤추며 조선을 위해서 뛰논다. 우리에게는 칼이 있나니 오직 조선을 위해서만 칼을 빼여들며 우리에게 피가 있나니 오직 조선을 위해서만 피를 흘릴것이며 우리에게 입술과 혀가 있나니 오직 조선을 위해서만 입

을 놀릴것이다. 세상에 태여나 첫 울음을 우는 날이 조선에 적을 두는 해이며 죽어서 관속에 드는 날까지의 3만 6천일이 조선에 보답하는 세월이니 머리우에는 조선의 하늘이며 발밑에는 조선의 땅이다.》라고 말하였다.

《조선상고사》 서문에서는 신채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청, 로, 일 삼제국이 교침하던 시기를 만나 5천년 조국의 명맥이 날로 기울어가고 만인의 우울함은 걷잡을수 없던 즈음이였으므로 서울의 평단에 나선 단재는 누를길 없는 북받치는 정열을 항상 한자루 붓에 맡기여 사회에 드러내고 써서 민족의 심장을 쳐 움직이였다. 그가 필봉을 잡고있던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는 아마 그가 청년시절에 마음의 집으로 살고있던 꺼지지 않는 꿈의 자취라고 하겠다.》

신채호는 문필활동만이 아니라 량기택, 리동휘, 리갑, 리승훈 등 애국적지식인들과 함께 독립운동결사인 《신민회》(1907. 9)를 무어 일제와 그 주구놈들을 반대하는 싸움에로 인민들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국채보상운동에도 앞장에 나섰다.

이러한 그를 왜놈들이 그냥 둘리 없었다.

신채호는 왜놈들을 피하여 1909년 로씨야의 연해주로, 1914년에는 중국 베이징으로 망명하였으며 1919년 3.1인민봉기후에는 상해로 갔다. 상해에서 그는 조선사람들이 발간하는 《독립신문》을 맡아보면서 우리 인민들에게 반일애국사상을 고취하였고 중국신문인 《중화일보》에도 많은 글들을 내였다.

이처럼 신채호는 애국문화운동에 많은 자욱을 남겼으나 기본은 력사학자로서 이름을 남겼다. 그는 력사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있었으며 여기에 정력을 다하였다.

나라를 빼앗기고 망명한 인간에게 호사스런 연구조건이 차례질리는 없었다. 그러나 신채호는 생활의 어려움같은것에는 아랑곳없이 력사자료를 얻기에 동분서주하였으며 중국의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많은 옛 문헌들을 탐독하였는데 이 과정에 기록이 잘못된것들도 허다히 찾아내였다.

끓어넘치는 열정을 안고 애국적이며 진보적인 연구사업과 문필활동을 진행한 결과 그는 우리 나라 력사학계와 문단에 많은 저서들을 남기였다.

그 대표적인것으로서는 《조선사》, 《조선사연구초》, 《조선상고문화사》 등 력사물들과 함께 《꿈하늘》, 《룡과 룡의 대격전》 등 문학작품들이 있다.

신채호는 중국땅을 방랑하면서도 옛 고구려의 도읍이였던 집안현을 답사하였으며 자료발굴에 정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경제가 허락치 않아 릉 한장 파보지 못함을 자기의 기록기에 안타까이 토로하였다.

그는 이미 1907년에 《이태리건국 3결전》을 번역출판한 후 고구려시기 수나라 300만대군을 물리치고 민족의 존엄을 온 세상에 떨친 을지문덕의 업적을 적은 《을지문덕전》을 썼다.

1908년에 나온 이 책은 15개 장으로 구성되였는데 그 시기 출판된 애국명장들의 전기중에서도 가장 이채를 띤 력사인물전기였다.

그는 서문에 이렇게 썼다.

《내가 고구려대신 을지문덕의 력사를 읽다가 기운이 왕성하고 담이 높뛰여 곧 하늘을 우러러 크게 부르짖어 말하기를 〈그렇다, 그렇다, 우리 민족의 성질이 이러하다. 이와 같은 걸출한 인물과 거대한 업적은 옛적에도 견줄만 한것이 없었으며 지금에도 견줄만 한것이 없으니 우리 민족의 고유한 성품이다.〉고 소리높이 웨쳤다.》

또한 신채호는 임진조국전쟁시기 일본침략자들을 쳐물리치는 싸움에서 특출한 공훈을 세운 리순신에 대한 《리충무공전》을 썼으며 고려말기 왜구와의 싸움에서 용맹을 떨친 최영의 공로를 적은 《동국거걸최도통전》을 저술하였다.

이것은 선조들의 슬기와 용맹을 본받아 국권회복에 몸바쳐 나서자는 그의 의도에서 출발한것이다.

신채호는 당시 력사교과서들에도 이런 애국명장들의 사적을 돋구어주었으며 특히 최익현, 김덕령 등 의병장들의 업적을 내세

웠다.

신채호는 《독자신론》에서 자기의 력사관을 명백히 밝히였다. 그는 조선민족을 조선력사서술의 기둥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 책의 결론에서는 이렇게 썼다.

《력사를 집필하는자는 반드시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되는 한 민족을 선명히 내놓고 그를 주되는것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하여 그의 정치가 어떻게 긴장되고 해이되였으며 그 실업은 어떻게 발전되고 정제되였으며 그 무력이 어떻게 성쇠하였으며 그 습관과 풍습이 어떻게 변하였으며 기타 다른 나라들과 어떻게 외교되고 무역하였는가를 서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력사라고 말할수 있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것은 무정신의 력사이다. 무정신의 력사는 무정신의 민족을 낳으며 무정신의 국가를 만들어낼것이다. 어찌 두렵지 않을수 있겠는가.》

그는 철저히 력사서술에서 민족주의적관점에 섰다. 때문에 민족사를 조선민족을 중심으로 해석정리하기에 힘썼다.

그리고 편협한 사대에 물젖은자들에 의해 외곡된 이미의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신채호는 대국주의자들이 내놓은 《기자조선설》을 철저히 수정하고 김부식 등 사대주의사가들이 외곡서술한 《신라중심주의》를 비판하였다.

그리고 김춘추와 같은 외세의존적인 신라의 집권층을 끝없는 분노를 가지고 규탄하였다.

1915년에 발표(간접적으로)된 신채호의 《조선상고사》는 주로 고대사, 중세사부분에 대한것인데 그는 조선사라면 본질상 우리 민족의 상태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총론에서 조선력사를 그릇되게 서술한 과거의 사가들을 이렇게 비판했다.

《기왕의 조선사가들은 매양 조선의 혹을 베고 조선사를 지으려하였다. 그러나 그네들이 쓴 안경이 너무 철면인고로 조선의 눈이나 귀나 코나 머리 같은것을 혹이라 오인하여 베여버리고 어디서 무수한 혹을 가져다 붙이였다.》

그는 중국중심주의사관에 사로잡혀있던 과거의 태도를 버리고 뚜렷한 자기의 얼굴을 가져야 한다는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민족을 버리면 국가가 없어질것이라고 하면서 김부식을 사대주의사관의 죄인으로 락인하고 규탄하였으며 그가 쓴 《삼국사기》를 취약의 력사책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묘청의 란을 전혀 새롭게 평가하였다.

《조선근세에 종교나 학술이나 정치나 풍속이나 사대주의의 노예가 됨은 무슨 사건에 연유함인가. … 선성의 말이면 그대로 좇고 선대의 일이면 그대로 행하여 일세를 몰아 잔약, 쇠퇴, 부자유의 길로 들어감이 무엇에 원인으로 되는가?…

무슨 사건이 전술한 종교, 학술, 정치, 풍속 각 방면에 노예성을 산출하였는가. 나는 일언으로 회답하여 가로되 고려 인종 13년 서경전역 즉 묘청이 김부식에게 패함이 그 원인이라 한다.》

신채호는 묘청의 정변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첫 사가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당시 우리 인민의 민족적각성을 높이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하였다. 또한 신채호의 대표적저술의 하나인 《조선사연구초》는 모두 6편으로 구성되여있다.

1편에서는 고대력사에서 리두문자로 된 명사의 해석방법과 그 효과에 대하여 쓰면서 고대명인, 지명, 관직명 등을 모두 리두로 기록한 조건에서 그의 정확한 해석은 조선력사연구에서 나서는 선결조건이라고 보았다.

2편과 3편에서 그는 《삼국사기》의 잘못된 점과 그것이 그렇게 된 원인을 해명하였고 또한 조선사기록에서 사료로 되는 중국의 옛기록들중 착오로 된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다.

특히 4편에서는 고조선으로부터 고려까지의 평양의 위치를 고증하고 그것이 지금에 와서 다르게 밝혀진데 대하여 설명하였다.

5편에서는 조선력사전반에 대한 사료적인 재고증을 하였으며 6편에서는 《조선력사상 1천년래 제일대사건》이라는 제목을 달고 1135～1136년 묘청의 정변에 대한 평가 등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내놓았다.

《조선사연구초》에는 년대순위에 따라 조선력사가 체계적으

로 서술된것이 아니라 그중 특별히 강조되여야 할것이거나 잘못 인식되여온 문제들에 대한 신채호자신의 립장과 견해가 주어졌다.

신채호의 이 저작은 조선력사연구에서 반드시 고증해야 할 문제, 력사연구에서 사대주의를 없애고 력사주의적원칙을 철저히 견지할데 대한 문제 등 많은것들을 제기한것으로 하여 그 의의가 크다. 때문에 당시 우리 인민들속에 민족사에 대한 옳은 리해를 가지게 하며 민족의식과 자부심을 높이게 하는데 커다란 작용을 하였다고 볼수 있다.

당시로 말하면 굴욕적인 어용사가들이 일제에게 붙어서 우리의 력사를 식민지적력사로 외곡하여 서술하고있었다.

신채호는 여기에 당당히 맞서나섰으며 해박한 지식과 예리한 분석으로 민족사연구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발표하여 여지없는 징벌을 가하였다.

그의 사회정치적견해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민족정신을 높여 일제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전민족을 위기에서 구출할데 대한 애족적이며 반침략적인 사상이였다. 그는 일제의 죄행을 《조선혁명선언》에서 이렇게 고발하였다.

《강도 일본이 우리의 생명을 초개(지푸래기)로 보아 을사이후 13도의 의병나던 각 지방에서 일본군대의 행한 폭행도 다 적을수 없거니와 즉 최근 3.1운동이후 수원, 선천 등지의 국내 각지부터 북간도, 서간도, 로령, 연해주 각처까지 도처에 거민을 도륙한다, 촌락을 소화한다, 재산을 략탈한다, 유부녀를 릉욕한다, 목을 자른다, 산채로 묻는다, 불에 사른다, 혹 일신을 두동가리, 세동가리 내여죽인다. 아동을 악형한다, 부녀의 생식기를 …한다, 하야 할수 있는데까지 참혹한 수단을 써서 공포와 전률로 우리 민족을 압박하여 인간의 〈산송장〉을 만들려 하는도다.》

때문에 신채호는 강도 일본을 철저히 쳐없애는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밝힌것이다.

하기에 《조선혁명선언》의 마지막부분에서는 이렇게 명백히 규정짓고있다.

《이제 파괴와 건설이 하나이오 둘이 아닌줄 알진대, 민족적

파괴앞에는 반드시 민중적건설이 있는줄 알진대, 현재 조선민중은 오직 민중적폭력으로 신조선건설의 장애인 강도 일본세력을 파괴할 것뿐인줄 알진대, 조선민중이 한편이 되고 일본강도가 한편이 되여 네가 망하지 아니하면 내가 망하게 〈외나무다리위〉에 선줄 알진대 우리 2천만 민중은 일치로 폭력파괴의 길로 나아갈지어다.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무기이다.

우리는 민중속에 가서 민중과 악수하리.》

신채호는 민족의 력사는 민족정신이 발전하여온 력사임과 함께 민족정신이 발현되는 과정이므로 민족력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사람들의 가슴속에 민족적자각과 함께 애국심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2천만의 귀에 애국이라는 소리가 언제나 쟁쟁하게 울리도록 하며 2천만의 눈에는 나라라는 글자가 떠나지 않고 2천만의 손이 나라를 위해 바쁘게 놀도록 하려면 오직 력사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렇게 하자면 력사를 민족정신의 력사로 옳바르게 서술하여야 한다고 밝히였다.

그는 자신이 바로 이 주장에 따라 집필사업을 진행하였다.

때문에 그의 저작들과 론문들은 제왕중심의 력사관이나 사대매국적인 견해에 빠진자들에게 된타격을 주고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민족해방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였다.

그의 애국적인 반침략사상은 일제의 조선강점을 계기로 하여 계몽적방법만이 아니라 《조선혁명선언》에서 밝힌바대로 일제를 반대하는 폭력투쟁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갔던것이다.

그러나 그자신의 계급적제한성으로 하여 력사고찰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적립장에까지 올라서지는 못하였다.

신채호는 당시 반일애국적인 문예작품창작에서도 대표적인 인물이였다.

그는 해외로 망명하여 어려운 고생을 하면서도 애국적문학작품들을 많이 썼다.

대표작으로 소설 《꿈하늘》, 《룡과 룡의 대격전》과 함께 시

《너의것》, 정론 《선언》, 《문예계청년에게 참고를 구함》 등을 들수 있다.

소설 《꿈하늘》은 조국과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 절절한 지향으로 일관되여있다.

가상적으로 내세워진 주인공 한놈은 무궁화꽃송이에 올라앉아 살수대첩을 목격하며 을지문덕을 만나 우리 나라의 빛나는 력사와 문화전통, 민족적슬기에 대하여 알게 된다.

작품은 이에 감동된 한놈이 을지문덕의 뒤를 따라 《님나라》를 지키는 싸움터로 가는 로정을 보여주며 《님나라》에 도착해서는 침략자, 매국역적들에 의하여 어지러워진 하늘을 맑고 푸르게 하려고 쓸고 또 쓰는 사람들속에 뛰여들어 함께 쓸고 또 쓸어 마침내 푸르게 개인 《님나라》 즉 조국의 푸른 하늘을 보게 되는 내용으로 되여있다.

소설은 일제통치의 현실을 정면에서 부정하고 인민들을 독립성전에로 호소한것으로 하여 그 시기 반일애국운동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또한 신채호는 《백제로승의 미인담》을 비롯한 많은 비화전설을 썼으며 반일애국감정이 진한 시들을 내놓았다.

이런 진보적인 작가를 일제가 가만둘리 없었다.

그는 1928년 일제놈들에게 체포되여 10년형을 언도받았다. 그리고 려순감옥에서 옥중생활을 하던중 1936년 2월 56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되였다.

이와 같이 신채호는 력사저술과 문예작품, 론설 등 애국적인 문필활동으로 조선력사서술에서 업적을 남기였으며 근대애국문화운동의 앞장에 섰던 학자이며 교육자이며 문필가였다.

신채호의 저술에서는 물론 시대적조건과 그의 세계관적제한성으로 하여 일부 약점들이 있으나 피끓는 애국의 열정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바쳤으며 일제식민지사회의 략탈적본성과 불합리를 날카롭게 비판폭로하고 민족해방에 대한 지향을 진실하게 반영한것으로 하여 근대력사에 그 이름이 남는것이다.

조선력사인물(3)

집 필 리명숙
심 사 박사 위광남, 부교수 주성철
편 집 변정환 장 정 손명희
편 성 정향애 교 정 박명희

낸 곳 금 성 청 년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0(2011)년 5월 1일
발 행 주체100(2011)년 5월 5일

ㄱ-16113 값 150원

ISBN 978-9946-21-268-5